

— 청소년 용 —

# 통 일 교 양 독 본



국 토 통 일 원

##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끈끈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발 간 사

국토통일원 장관 김 영 선



당원에서는 연초에 성인용 「승공교양독본」을 만들어 중·고등학교와 해외 동포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학교, 마을문고 등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와 당원에서는 이에 청소년 용의 읽을 거리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청소년 용 「통일교양독본」을 만들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야 할 때이다. 북괴는 전쟁 준비를 끝내고 이른바 무력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다 총을 쓸줄 알며, 총을 매고 있다고 북괴는 항상 떠벌이고 있다.

주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하지 않고, 모두 전쟁준비에 몰아 넣었다.

우리에게는 공산 독재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민족적 대 과업이 남아 있다.

이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선 북괴가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도록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굳건한 안보 태세로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며, 투철한 승공 민주정신으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낼 사명감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은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 공산주의의 정체가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도 널리 알리어 누구나 한결같이 투철한 승공 민주정신으로 통일사업의 대열에 앞장 서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일 러 두 기※

1.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은 최근에 북한 지역에서 귀순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간추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로 엮었습니다.
2. 이야기들 가운데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나 사투리들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3.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 가운데 어려운 말들, 특히 북한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따로 부록을 두어 풀이했습니다.
4. 이 책을 읽고나서 의심나거나 잘 모르는 대목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더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음 주소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5.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신문이나, 교지, 방송등에 「북한난」을 설치하여 필요한 의견이나 원고, 자료가 필요할 때 항상 문의하면 지도하고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6. 이 책의 내용은 학교 신문, 교지, 방송 등으로 널리 활용하십시오.

※문의할 것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산 5의 1

(우편번호 100, 국토통일원 홍보담당관실)



## 차 례

제1편	북한의 어린이들 생활과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5
1.	어느 교장 선생의 비극.....	7
2.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	14
3.	여선생의 슬픔 .....	22
4.	억울한 사연 .....	29
5.	태극기와 어느 매좌.....	37
6.	예술 공연이 있던 날 .....	44
7.	절도범 공개 재판.....	51
8.	북녘의 불량배 .....	59
9.	재떨이에 얽힌 이야기.....	78
10.	창광산의 비극 .....	85
11.	억울한 누명 .....	93
12.	토끼 사냥과 소년의 죽음.....	100
13.	가사 바꾸어진 소년단 노래.....	106
14.	사과에 얽힌 이야기 .....	111
15.	방화 사건과 어느 교원.....	119

제2편 전쟁 준비와 공산당 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	129
1. 두 병사의 죽음	131
2. 약수를 팔아라	141
3. 친구의 죽음	149
4. 화약 공장에서 일어난 참사	157
5. 신창 터널 열차 사고	164
6. 여자 노농 적위대원	171
7. 여자 방직공의 비극	181
8. 성흥광산 폭동	189
9. 청진항의 찬 바람	201
10. 한 노인의 죽음	208
11. 어깨뼈 부러진 할머니의 하소연	218
12. 홍남 부두의 검은 그림자	225
13. 소련 2세의 여기자	232
14. 남쪽을 향했던 어느 청년의 몸부림	257
15. 이렇게는 못 살겠소	265
16. 타버린 심장	277
부 록 북괴 용어 해설	293

—제 1 편—

북한의 어린이들 생활과  
학교에서 일어난 일



## 1. 어느 교장 선생의 비극

「이렇게 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다름 아니라 긴급히 떨어진 당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여러 선생들과 의논하자고 해서 오라고 한거요」

평안남도 속천군 창동 인민학교(국민학교)교장 김 광일은 교장실에 모인 남녀 선생들의 얼굴을 한 바퀴 훑어보고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얼마전에 만든 “수령 연구실” 말이오. 그게 잘 안됐다구 당에서 호되게 욕을 얻어 먹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20여명의 남녀 선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교장선생의 말뜻이 무엇지를 몰라 잠자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왜들 말이 없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아야 하지않소?」

김 교장은 화가난 듯이 큰 소리로 소리를 팡쳤다. 그러자 선생들은 모두들 다른 사람의 눈치만 슬슬 살피고 있었다.

이때 4학년 1반 담임인 이동기 교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그 수령 연구실은 제가 주동이 되어 우리 반 학생들을 동원시켜 만들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어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 비슷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선생은 그 방에 언제 가 보았소!」

김 교장은 못마땅하듯이 또 한번 소리를 내 뱉었다.

「언제라니요? 저는 매일 한 번씩 그 방에 들러보군 합니다」

「그랬는데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발견하지 못했던 말지요?」

「예, 4학년 학생들을 세 명씩 조를 짜서 아침과 점심 때, 저녁 등 세 번씩 청소하도록 했지요. 제가 매일 검사해 봐두, 언제나 깨끗이 되어 있었읍니다」

「수상 동지의 석고상은 누가 담당했소?」

「예, 그건 아무나 다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학년 1반 반장에게 책임지웠읍니다」

「아무리 석고상이래도 수상 동지의 석고상은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 짚은 알구 있었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석고상에 붙은 먼지도 아무나 털수 없게 하구 그 반장 학생만이 특별히 마련한 걸레로 닦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그런데 그 석고상에 사고가 생겼단 말이지요」

「예? 사고요?」

이말에 이 교사뿐만 아니고 거기 모인 선생 모두가 놀라면서 일제히 교장 선생을 주목했읍니다.

「수령 연구실」이라면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어느 직장이나 강제로 설치하게 하고는 그 방에 김 일성의 석고상을 만들어 놓고 김 일성에 관한 몇가지 책들을 진열시켜 놓은 다음 누구나 여기에 들러서 김 일성의 사상을 본 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읍니다.

김 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극도에 달해있는 만큼 어떤 일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김 일성의 지시대로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 일성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김 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라!」라는 구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수령 연구실」에 있는 김 일성의 석고상에 사고가 생겼다

면 김 일성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시끄럽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일이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인은 총살까지 될 위험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장선생 이하 모든 교직원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일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 군당 위원회에서 급히 불러 갔더니, 군당 비서가 하는 말이 무척대고 우리 학교내에 반동 분자가 숨어 있으니 당장 찾아 내라는 거야……그 수령 연구실에 있는 수상동지 석고상의 귀가 하나 떨어졌드란 말이야!」

「에? 귀가요?」

교장의 이 말에 모두 깜작 놀라면서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귀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난 어제밤 군당 위원회에서 돌아오는 길로 수령 연구실에 들러 봤드니 틀림없이 한쪽귀가 떨어져 있드군!」

「누구의 장난일까요?」

「글쎄, 그걸 밝혀야 할 것 같소…그 보다는 더 놀랄 일은 수령 연구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선생도 모르고 또 다른 교직원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군당 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우리들 전체 교직원들을 꿀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꾸민 장난이란 말인가요?」

구석에 앉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여교원이 일어서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소? 다만 지금 같아서는 일단 일이 터진거니

까 누구의 장난인가부터 먼저 밝혀내야 할 것 같소……그것만 밝혀지면 다른 의문도 다 풀리게 될거구……」

「교장 선생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전 도무지 뭐가 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좋도록 하오……우선 누구 보다도 이 선생이 책임져야 할 문제니까……」

교장실에서 나온 이 선생은 부랴부랴 학교 별관 복판에 마련된 수령 연구실로 가 보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면 한 가운데 놓여진 김 일성 석교상으로 달려가서 주의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앗!」

이 선생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못이 박힌듯 우뚝 서버렸습니다.

(틀림없이 한쪽 귀가 떨어져 없어졌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 일가……귀뿐만 아니고 한쪽 눈알도 뺏인가를 가지고 도려 내려고 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는가?……)

(이상하다……어제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 누가 이런 장난을 했을까?……)

다시 교장실로 되돌아 왔을 때는 이미 회의가 끝나고 교장 선생만 천장을 멎하니 바라 보면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틀림없이 귀가 떨어졌지?」

「귀, 귀뿐만 아니라……눈… 눈 알까지 도려 낼려고 한 흔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눈 알까지……」

「예……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당장 우리 반 학생들을 불러 가지



고 범인을 잡아 내겠습니다。」

「이 선생! 좀 진정하오! ……그래 이 선생은 이것이 우리 학교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보오?」

「애들 아니고야 누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애들두 말이오……이런 짓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쯤 다 알고 있오! 또 설혹 애들이 한 짓이라 해도……」

「예? 교장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설혹 애들이 한 짓이라 하더라도 말이오……그 애들을 잘못 가르친 우리 교육자의 책임은 더 크단 말이오!」

「그야 물론 저도 자오가 되어 있습니다만……이 일만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에 범인은 잡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범인은 잡아야지……그러나 말이오……그러나……그 범인이 정말로 우리 학교 애들이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소?」

교장 선생은 천천히 담배 한 대를 붙여 물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담. 어쩔 수 없이 그 범인을 사회안전부(여기에서의 경찰)에 넘겨야지요」

「안전부에 넘겨?」

「예, 그렇습니다」

「여보 이 선생…… 나는 해방 후 부터 교단에 서기 시작하여 이미 30여년을 이 일만 해오고 있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한 번도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애들한테 넘겨 썩은 일이 없소……그것은 교직자의 입장으로 가장 규탄 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오……」

교장 선생의 얼굴에는 약간 경련이 일어난듯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천천히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더구나 이번과 같은 사건은 너무나 큰 것이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오……」

「……………」

이 선생은 아무 대답도 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반약 말이요, ……이 사건의 범인이 우리 애들이었다고 한다면 말이요……물론 애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장난이라도 마찬가지이지만……이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장난이 아니라…… 윗인가에 대한 반대의 표시라구 생각하오…… 내 말이 무슨 말인지알겠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오, 우리 애들 속에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당 정책에 반감을 품은 학생이 있다는 증거요……다시 말하면 그 학생들은 수령 동지가 밉다고 생각한거란 말이요……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생겼다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지요?…… 나나 이 선생 당신이 져야 한다는 거요……」

「예, 저두 이미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그러나 범인을 잡긴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그 범인이 우리 애들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애들 속에 진짜 범인이 나타난다면 어떻게겠소!……난 그게 두렵소……」

「교장 선생님 애들을 생각하는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제가 내일 아침 군당 위원회에 찾아 가겠습니다」

「뭘라구? 그래서요?」

「모든게 제 책임이라구 고백 하겠습니다」



「그렇다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소?……이 사건은 여러가지 점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구 또 군당 위원회에서는 안전원들을 시켜 철저히 범인 색출에 나설거요……그러니 어차피 피해자들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돌아올거구 또 순진한 애들의 가슴에도 못을 박는 결과가 될게 뻔하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장 선생은 다시 자리에 가서 앉더니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고 무겁게 한 마디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가 알아서 처리 할터이니 당신은 가서 푹 쉬오……」

「아니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범인이라구 나설 심산은 아니겠지요?」

「글쎄 가 보래두…… 어떻게 되었건 우리 애들에게만은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해……」

그 다음 날 창동 인민학교 교장 김 광일은 군당위원회에 불려간 이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교장선생의 가족까지 어데론지 끌려간 후 이 학교에는 새로운 교장이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 후 김 광일 교장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녘 땅에는 이렇게 희생적인 교장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 2.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차렷! 목표 백미터 앞에 있는 허수아비! 돌격 앞으로!」

체육 교사의 구령에 따라 학생들은 일제히 「야!」하고 함성과 함께 달려가서 손에 든 목총으로 허수아비를 마구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체육교사는 다시 한 번 구령을 지르고 대열을 정돈시킨 후 몇몇 학생을 지적하여 대열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맥없이 찌르는 거야! 응! 상대가 누군지 알아! 남조선 국방군이란 말이다! 뱃 가죽이 튀어 나오도록 힘있게 찌려야 할게 아니냐 말이야! 앙!」

그리고는 앞에 나와선 학생들을 주먹으로 한 대씩 가슴을 쥐어박는 것이었습니다.

체육 교사에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학생이나 그 뒤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학생이나 모두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언제나 애길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군사 훈련을 하는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려서는 안되는 거야. 국군은 우리의 적이란 말이야! ……그 적을 무찌르는데 그렇게 맥없이 하다간 어떻게 할 참이냐 말이다! ……앞으론 주의해! 알겠나! 자 그럼 다시 한번 돌격 앞으로!」

학생들은 또다시 「야!」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목총으로 허수아비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허수아비를 둘러싸고 괴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곳은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중학교, 때는 1970년 초봄이었습니다.

군사 놀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이 허수아비 일곱 개가 하루 밤 사이에 몽땅 잘리워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학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체육교사는 체육교사대로 분주히 오가면서 이 괴이한 사건을 풀어보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학생들의 장난인 것 같은데……)

교장선생은 혼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한 것이라면 군사 놀이를 반대해서 한 것이고… 이게 공산당에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큰 일인데……)」

교장선생은 안절부절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체육 교사를 불러 대책을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박 선생은 이 일이 누구의 장난일 것 같소?」

「글쎄요. 저두 어제 밤새껏 생각해 봤습니다만……학생들의 장난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은데요……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음

나다」

「그런 그렇드래두 이 일을 군당 위원회에서 알게 된다면 정말 큰 일 아니요」

「물론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겠지요……」

「책임 추궁이나 비판으로 끝나면 문제도 아니겠지만……이건 당의 군사 정책을 의식적으로 반대한 행위라고 규정한다면 문제가 매우 커질 것 같소……」

「그렇게 될 염려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다는 정도가 아니야……이봐 박 선생……오늘 밤 중으로 그 허수아비를 다시 만들어 놓도록 하시오,……그리고 다른 선생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얘기해서 말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할테니……」

「예. 알겠습니다. 저두 우선은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실에서 물러나온 체육 교사는 몇몇 믿을만한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남한의 국군」을 나타내는 허수아비를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로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가 그 날밤 사이에 또다시 쥐도 새도 모르게 허리가 잘려서 간데 온데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학교안에서는 또한번 소동이 일어 났습니다.

일이 이쯤되자, 그 말이 새어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북한 공산당 선천군 당위원회 지도원이란 자가 안전한 사람을 대동하고 서술이 시퍼렇게 되어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무턱대고 교장실로 들어온 군당 지도원은 교장과 전체 교직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요……학생들이 했건 또는 어느 교직원이 한 짓이건 이천 우리 당의 군사정책을 반대하는 반동적인 행위이요……벌써부터 이 학교 학생들의 성분이 불량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특별한 감시를 하고 있었소!」

군 당위원회 지도원이란 자는 학교장이나 교원들이 눈안에 없다는 듯 거만한 자세로 훈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성을 띤 반동분자의 소행이 틀림없으니 철저히 그 범인을 색출해야 할 것은 물론, 학생들의 소행이라면 그 배후 관계까지 남김없이 파헤쳐야 하오……알겠소? 특히 학교장과 체육 교사는 책임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시오……」

군 당지도원은 계속해서 이들의 여유를 줄터이니 학교 자체에서 범인을 잡아내도록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군 안전부에서 직접 이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호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학교장이나 체육교사까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군당 지도원 동무? 이 사건은 반드시 지시한 기일 안에 해결하코야 말겠습니다」

교장선생은 우선 당면한 어려움을 면하려고 열심히 범인 색출을 맹세했습니다.

군당 지도원이 돌아간 후 교장선생은 체육교사와 마주앉아 그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박 선생……어떻게 해서든지 범인은 잡아 내야지 않겠소? 이러다간 나나 당신이나 모두 쫓겨나게 될 판이니 말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날밤 체육 교사는 또다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운동장 한 구석에 숨어서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런 학생들의 소행이라면 틀림없이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고 주위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은은히 들려오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체육 교사는 온 신경을 가다듬어 허수아비 있는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시쯤 되었을까?

운동장 왼쪽 모퉁이에서 대여섯명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 거렸습니다.

(음!)

체육 교사는 몸을 약간 추겨 세우면서 검은 그림자 쪽을 똑바로 바라 보았습니다.



달빛이 가리워진 검은 밤이었는데도 그림자의 움직임은 똑똑히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은 그림자들은 날세게 허수아비 있는 쪽으로 가더니 열심히 허수아비를 풀어 제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체육교사는 쩍싸게 뛰어 가면서 검은 그림자 쪽을 향해 버락 교함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셋! 움직이지 마라!」

검은 그림자들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또 달아 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들! 너희들 장난이었구나. 못된 놈들! 모두 날 따라 이리왔!」

검은 그림자 (이 학교 2학년 학생 다섯명)는 순순히 체육 교사를 따라 교무실까지 끌려 갔습니다.

「음……그러구 보니 모두 성분이 나쁜 학생들이였구나……비록 너희들이 공부는 잘 한다고 하드라도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

묵묵히 서 있기만 하던 이들 학생들 중 키가 제일 큰 한 학생이 조용히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저희들은 결코 나쁜 짓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뭐, 뭐라구! 그래 이 일이 잘한 짓이란 말이냐!」

「예, 어째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동족을 죽이는 그런 살인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뭣이! 이제 보니 못하는 말이 없군! 남조선 국군은 우리의 죄이란 말이야. 적을 질러 죽이는 훈련이 뭐가 나쁜거나 말이다!」

「남조선 국군은 우리 동족이 아닙니까?」

「흥! 말이면 다 하는줄 아느냐?……너희들은 완전히 반동 학생으로 사회 안전부에 넘기고 말테다……알겠나?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 알고 있겠지?」

「예, 합니다. 결국 책벌을 받게 되겠지요……그러나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왜 같은 동족을 죽어야만 하는지 그걸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시끄러웠! 아무말이나 함부로 하는게 아냐!」

「설명 못 하시죠? 못 하실 거예요……저는 우리 집 외삼촌이 6·25때 월남했다구 해서 월남자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해 왔읍니다.……공부를 암만 잘해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가기는 아예 틀린 것 아닙니까?……제가 그렇다구 해서 이런 짓을 한전 아닙니다……남조선 국군이라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찢러 죽이라고 강요하는 선생님의 행동이 미운 거예요……아무리 허수아비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족을 찢러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 그만해 뒤!」

그 다음 날 체육 교사는 아침 일찍 교장실에 찾아가서 인사를 했읍니다.

「음 그래 “범인”은 잡았소?」

「예……잡긴 했읍니다만……」

「잡긴 했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그게 묘해서 말입니다…… 뭐가 시꺼먼 밤에 어른거리긴 했어도 우리 학생들 같지는 않았읍니다」

「뭐라구……그래 놓쳤단 말이야?」

「예……그게……그냥 바람처럼 사라져서 그만 놓쳐 버리고 말았

읍니다」

「음……그럼 오늘 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세요……」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그 범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여보 박 선생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황설수설하니 말이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범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얘길 했을 뿐입니다……」

「여보 박 선생……그렇게 되면 우린 무사할 줄 아오? 당에서 어  
떻게 버르고 있는 사전인데……」

「교장 선생님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제가 오늘 직접 군  
당위원회에 찾아가서 모든 걸 자백하겠습니다……」

「자백하다니 뭣을 말이요?」

「그 범인이 바로 저라구요……」

「뭣이?」

교장 선생은 벌떡 일어나면서 멍하니 체육교사의 얼굴을 바라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육 교사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심이 서려 있는 듯 교장  
선생을 바라보며 입가에는 느낄 듯 말 듯 가벼운 미소까지 떠 오르  
는 것이었습니다.

### 3. 여선생의 슬픔

#### 불명 어리처럼 열이 높은 아기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 중학교 여선생 강 수련은 세 살 잡이 아들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두 해전 군대에 징집되어 간 뒤 이따금 잘 있다는 소식이나 전해 줄 뿐 휴가 한번 오지 못합니다.

하긴 스물 두살에 입대하였으니까 스물 여덟에 나온다면 아직도 사 오년은 기다려야 돌아 올 것입니다.

괴뢰군에 징모되면 스물 여덟이 넘어야 제대할 수 있고, 그동안 휴가라고는 없어서 가족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시부모도 일찍 여의어서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자니 늘 살림이 허전합니다.

그나마 못 견디게 괴로운 것은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학교에 나가 있는 동안입니다.

틀에 짜인 교수안대로 딱딱한 교육을 반복하는 것 보다 싫증나는 것은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학교를 그만 두고 아이와 해종일 지내고 싶어도 생활에 조들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나간 남편은 상등병으로 집에 부쳐 줄 돈이라고는 없고, 수련이 직장을 그만 두면 하루 7백그램(백미와 잡곡 5:5) 배급도

잘리어 부양 가족으로 350그램 밖에 못타게 되니 죽으로도 목숨을  
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련이는 자꾸 몸이 여위어 갔습니다.

수련이 더 여위어지고 고민에 빠질 일이 닥쳐왔습니다.

이날 아침도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서려는 데 등에 댄 어린애 머  
리가 불덩이 같이 뜨거웠습니다.

빨리 아이를 내려 머리를 짚어보니 열이 대단합니다.

탁아소에 맡기고 학교로 출근을 해야 할텐데 야단났습니다.

강 수련은 그 길로 마을 진료소로 찾아갔습니다.

시골 진료소라야 간호원이라는 아주머니가 초라한 약상자를 하  
나 놓고 있을 뿐입니다.

「전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새 열병같은 전염병이 돈  
다는데 양시(군 소재지) 큰 병원에 가 보세요」

진료소 아주머니가 그래도 친절하게 일러 주는 말이었습니다.

강 수련은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열병이 돈다니?)

그는 그 길로 아이를 들쳐 업고 시오리 길을 달려 양시 병원으  
로 찾아갔습니다.

「열병은 아닌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여름 감기지요. 폐염으로  
들기 쉬우니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큰 병원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수련은 집으로 되돌아 와서 지어 준 약을 먹이고, 하루 종일 아  
이 곁에서 서성대었습니다.

여간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군대로 떠나면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누차 당부했었습니다.

저녁에 아이의 열이 내리는 것 같아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잠깐

아이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 나갔습니다.

결근을 한 변명도 할 겸, 마침 식량 배급표를 타는 날이라 그것도 가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배급을 타야만 내일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었습니다.

경리원(경리직원)은 마침 퇴근을 하지 않고 있었었습니다.

보름치 배급표를 주어야 할텐데 열 나흘 분 밖에 안 줍니다.

「오늘 무단 결근이라 하루 분은 자르라는 교장 동무 지시가 있어서……」

경리원의 말이었습니다.

「부득이한 일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앓아서……」

「난 모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직책이니까요」

경리원은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서류를 주섬주섬 서랍에 넣었습니다.

## 어린 애를 업고 출근

강 수련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었습니다.

아이가 앓아서 하루 결근했다고 쌀 배급을 하루 분 잘리었습니다.

하긴 학생들도 결석하면 그 날짜만큼 쌀 배급을 안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였지만 막상 교원인 자기가 당하고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리를 해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맥 없이 돌아섰습니다.

신세가 한심스러웠습니다.

허나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예를 탁아소에 맡기려 하니 뜻 밖에도 보모가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진료소 아주머니 말을 들으니 열병인지도 모른다구 하던데요. 다른 아이한테 전염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모가 하는 소리였습니다.

「서 병원에서 열병이 아니라 감기라구 진단이 내렸어요」

수련은 치미는 울화를 지그시 눌러 참으며 아이를 받아 달라고 애원 했습니다.

「감기래두 마찬 가지예요. 그게 전염성 감기문 어떡해요? 못받겠어요」

「오늘두 학교에 못가던 어떡해요. 혼한 감기라구 하던데……」

「수련 동문 자기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난 여러 아이들을 맡은 보모니까요. 안되겠어요」

수련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은 채 학교로 나갔습니다.

교장과 교무 주임은 일찌기 군 교육부에 회의를 가고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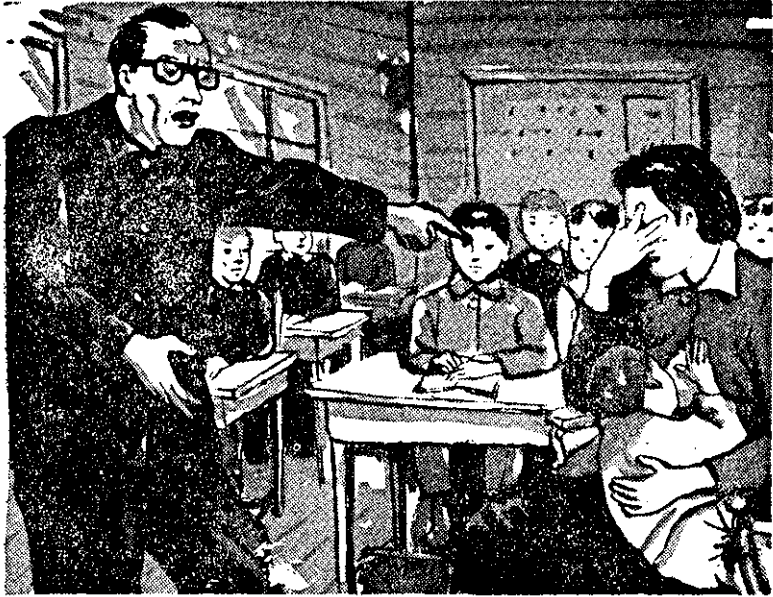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 수련은 아이를 안은 채 수업을 맡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맨 뒷자리에 있는 학생에게 맡기고 수업을 진행하였읍니다.

아이가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피로운지 울상이 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앓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 갔으면 좋으련만 또 쌀 배급표를 잘릴 생각을 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첫 시간은 그런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아이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 소리는 교실 밖으로 새어 복도로 해서 교직원실까지 울려 갔습니다.

강 수련은 얼굴이 질려서 분필을 놓고 아이에게로 달려가 우는 입에 젖을 물렸습니다.

울음이 푹 그쳤습니다.

바로 이 때 교실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테 안경의 요가 날카롭게 선 얼굴이 쑥 나타났습니다.

군 교육부로 회의하러 갔던 교장이었습니다.

교장의 안경 알이 번뜩하더니 통명한 음성이 울리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종소! 강 동무, 수업이구 뭐구 그만 두구 내 방으로 오시오!」



강 수련이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문이 확 닫히고 벌써 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파랗게 절린 강 수련의 얼굴에 쏠렸습니다.

동정하는 빛이 어린 눈길도 있고 어안이 병병한 표정도 있었습니다.

강 수련은 학생들에게 복습을 하라고 일러 놓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그의 가슴은 납덩이가 매달린 듯 무거웠습니다.

### 남편마저 빼앗기고

교장은 강 수련을 쌀쌀하게 맞아 들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선 수련에게 의자조차 권하지 않았습니다.

「수련 동무, 도대체 정신이 있소, 없소? 아이를 태리구 수업 시간에 들어가다니? 동문 도대체 후대(후세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애를 보는 학생이 공부에 손해를 보는 것은 고사하고 학생들의 시선이 산란해져서 공부가 되는가 말시오!」

「실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수련은 풀이 죽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사정?」

「네. 애가 앓는데……그렇다구 탁아소에서는 받아 주지 않아서……」

「흥!」

「용서 해 주셔요, 한 이틀만 그러면 낫겠는데……」

「사정이 딱하긴 하군! 허나 수련 동무 생각 해 보오! 그건 어디까지나 동무 개인 사정이 아닌가 말이오. 학교에 있는 여선생들이 동무처럼 모두 아이를 데리구 나오거나 자유주의(공산당 지시를 어긴 행동)을 부러 보오! 후대 교육은 아주 엉망이 될 게 아닌가 말이오!」

교장의 이 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학교에 여교원들이 교원 수의 절반 남짓 하지만 모두 처녀들이었고, 그 하나만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당초 학교에 취직을 할 때 느낀 바 였지만 교장과 교무 주임은 수련이 아이가 있다고 하여 받기를 무척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마침 남편이 군대로 징모될 무렵이라 군 교육부에서 채용하라는 압력이 내려와서 겨우 취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수련이니만큼 교장과 교무 주임은 늘 못마땅 하게 생각하고 노골적으로 학교 교원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여러 모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무단 결근이라고 배급표를 자른 것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도 그런 표정의 하나였습니다.

수련은 아랫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교장의 통명스러운 음성이 다시 귓전을 때렸습니다.

「후대 교육이라는 중대사 보다 자기 개인의 편안을 내 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요! 다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나올 생각은 마오!」

「네」

수련의 목소리는 꺼져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무의 잘못된 교원들의 당 생활 총회의 비판에

붙이겠소! 자기 비판할 준비를 잘 하오!」

싸늘하고 무정한 소리였습니다.

수련은 아랫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자주 솟아올라 볼을 타고 흘러 내려 마룻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군대에 빼앗기고 자기가 생계를 맡아 나섰는데 거기에 이다지 박해마저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매정하고 못 살게 구는 걸 보니 결국은 자기를 학교에서 쫓아내야 시원할 모양이니 나약한 이 몸은 앞으로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인가!

생각할 수록 기가 막히었습니다.

수련은 아이를 업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련은 다시 학교 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후 수련은 협동 농장 농장원으로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며 군대에서 돌아 올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빼앗기고 희망마저 빼앗겨 고된 노동 생활 속에 근근히 목숨을 이어 나가는 것이 오늘의 북한 여성들의 생활입니다.

#### 4. 억울한 사연

### 독 속에 넣어 묻어 둔 땅 문서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 중학교 손바닥만한 운동장에 까만 지이

프차 한 대가 굴러 들어 왔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양복 차림의 뚱뚱한 사람이 내려 자동차 구경을 하려고 물려드는 아이들을 해치고 교사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둠 킁킁한 복도를 지나 교장실이란 표족이 붙은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 있던 교장이 어리둥절하여 바빠 일어나 문 가까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참입니다. 군당 위원장 동지께서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고 황공스러이 인사를 했습니다.

「중앙당 연락부에 있는 박입니다」

박은 이런 말을 던지며 손을 내밀어 여윈 교장의 손을 잡아 주는 교장 책상 곁에 있는 소파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조 완길이란 학생 지금 있소?」

박이 통명스레 묻는 말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불러 올까요?」

「그럴 필요 없소. 교장 선생이 그 학생한테 직접 신고를 받았단니까. 다시 나한테 그 경과만 간단히 얘기해 보시오」

「예, 보고서에 상세히 써서 올려 보냈는데요?」

「보고서는 나도 봤소. 서류 보다도 직접 말을 듣고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말이오」

「예, 알겠습니다. 3일전에 조 완길이란 학생이 저를 찾아 들어 왔었습니다. 조 완길은 이 용천 벌에서 이름난 지주의 손자가 아닙니까? 신고하기 전날 밤이죠. 그 지주 영감이 완길을 데리고 법관을 한 바퀴 돌았답니다」



「흠, 그래서?」

「그 때 논두렁을 걸으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땅에 묻어 둔 흰 자갈을 보여 주드립니다. 그리구는 그 자갈을 묻은 돌테 안의 땅이 모두 옛날 자기네 땅이니까 앞으로 세월을 만나면 그 땅을 반드시 도루 찾으라고 하드립니다」

「흠」

「그리구 땅 문서를 묻어 둔 자리를 파고 독 속에 넣어 둔 문서도 보여 주드립니다」

「악질 반동 지주군! 그래 독 속에서 문서를 캐어 내왔소?」

「보고만 하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구 있는 중입니다」

「잘 했소! 아직 파지 마오. 그 자리는 알고 있지?」

「네」

「좋소.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되오. 조차 길에게도 극비에 붙이라고 단단히 이르시오. 그리구 그 반 동지

주는 우리가 적절한 처단을 내릴 것이요. 교장 동무는 이번 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져도 모르는 척 해야 할 것이요. 알겠소？」

「네」

「이런 문제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중앙당 연락부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도 짐작하리라 생각하오만 각별히 명심하오」

「조 완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소. 이번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가면 교장 선생이 책임을 지는 것이요. 당 일꾼들 외에는 동무만이 이 일을 알고 있소」

「명심 하겠습니다」

교장은 불안으로 떨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건이 터지리라는 예감이 그의 온 몸에 떨리도록 공포를 안겨 준 것입니다.

## 깊은 밤 검은 손길

중앙당 연락부에 있는 박이 신암 중학교를 다녀간 뒤 1주일여 지나도록 신암리는 조용했습니다.

중학교 교장은 불안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 완길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야 말 것인데 어찌 그리 조용하기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장이 미처 눈치 채지 못해서 갖는 생각이었습니다.

조 완길의 가정에는 벌써 불행의 검은 손길이 뻗어가 있었습니다.

다.

깊은 밤.

조 완길의 집 낮은 담장을 훌쩍 뛰어 넘어 마당에 푹 떨어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장정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또 하나가 담을 뛰어 넘어 왔습니다.

둘은 장독대 뒤에 숨어서 집안 동정을 주욱 살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구 들어닥쳐 볼까?」

「조금 더 살펴보고 영감탱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방 안에 들어 가면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져」

둘은 한 동안 장독대에 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날이 새면 어쩔라구 그래?」

「동문, 성미가 너무 급해서 탈이야!」

「셋! 이 친구 동무라는 말 쓰지 말라구 그렇게 교육을 받구도……」

「참. 이것 입 버릇이 되어서 말이야!」

「조심 해,」

또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손을 쓰지, 이러다간 해 보지도 못하구 돌아 가겠다」

「그럼 이렇게 하지. 돌을 마당에 던져 봐. 그러면 안에서 무슨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돌을 던졌다. 큼직한 돌이 굴러 가다가 절구통에 부딪쳐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요?」

방 안에서 노인의 쉼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둘은 숨을 죽이고 방문만 노려 보았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고 흰 수염을 가슴 앞까지 드리운 노인이 마루에  
나섰습니다.

「거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릴 들었는데……」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토방에 내려서 고무신을 신더니 마당  
으로 천천히 내려와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폈습니다.

「할아버님！」

들 가운데 하나가 불쑥 나서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

노인은 휘둥그레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 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완질이 할아버지이지지요？」

「너희들은 누구냐？」

노인은 엉겁결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음성을 낮추십시오. 저희들은 남쪽에서 완질이 아버지가 보내  
서 온 사람입니다」

「뭐? 완질이 애비가? 정국이 말이야？」

「네」

「그럴 수가 있나？」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정국이라면 6·25동란 때 월남한 완질의 아버지로서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에 당하는 일이라 어안이 빙빙한 채 두 사람을 살펴  
볼 뿐이었습니다.

어찌 노인이 짐작이나 할 수 있었으랴! 이 두 인물은 북괴가  
간첩 훈련을 시키고 있는 훈련생으로써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남  
한에서 파견되어 온 간첩으로 위장하고 있는 줄을…



## 내가 어떻게 그걸 믿소?

잠시 후 노인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남쪽에서 내 아들 정국이가 보냈다고들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믿을 수가 있소?」

「그럴 줄 알고 믿으실만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 증거가 뭐요?」

「네, 곧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바다로 배를 타고 먼 길을 오느라고 몸도 이렇게 젖고 허기가 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 마당에서 이렇게 얼씬저릴게 아니지. 우선 이리들 오시오」

노인은 두 사람을 뒷결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명석을 깔고 마주앉았습니다.

「증거라는 걸 보여 주오」

노인이 독촉했습니다.

「네, 증거는 보여 드리는 물건이 아니라 할아버님과 정국씨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몇 가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두 증거가 되지」

노인은 궁금증부터 풀려고 사뭇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국씨가, 주 아드님이 여기를 떠날 때 옛날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흰 자갈을 묻어 표시했다는……」

「맞았어!」

노인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리구 문서를 동구 밖 미루나무 곁에 질 그릇 독 속에 넣어 묻고요」

「올거니！」

노인은 기뻐서 소릴 치고 부들거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떠듬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막심한가？」

「저희들이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외롭게 지내시는 할아버님이 고생이지요. 완질이 부친은 지금 남한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 하구 있습니다. 비밀이어서 직책을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직책은 알아 뭘 하나! 그저 그 녀석이 몸 성히 잘 있으면 기쁜 거지. 그리고 애비야 어떻든 아들 하나라도 자유 대한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다행이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복죄 간첩 훈련생은 노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하수인으로 교묘히 노인의 집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튿날 밤. 두 간첩 훈련생들은 노인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할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임무를 떠고 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비밀이니까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이 성공하고 정국씨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밤에 나가서 무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 두십시오.」

「걱정마! 정국이 잘 있다는 소식두 듣구 자네들 일이나 잘 하게. 내 피땀으로 벌어 놓은 땅을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기만 허이」

두 간첩 훈련생은 그 날 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중앙당 연락부 박과의 접선 장소(간첩들이 미리 정해 놓고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낙원 기계 공장으로 돌아 가는 어둠 컴컴한 산모퉁이에서 예정대로 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은 두 사람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은 뒤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낮에는 그 방 속에서 낮잠을 자는 척 하고 있어. 그럼 안전원(경찰)들이 그 집을 습격한다. 손을 들고 체포를 당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지도원 동지」

이튿날.

수십명의 안전원들이 출동하여 완질이네 가족들—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완질이는 수갑을 차고 붙들려 갔습니다.

그후 간첩 훈련생들은 훈련소에 돌아가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고, 완질이네 가족은 모두 교화소(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하나 둘 희생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법도 이렇게 해서 죄를 씌워 잡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 5. 태극기와 어느 대좌

북괴 인민군 제 5집단군 51 고사포 연대장 신 병순 대좌의 아들 신 동석은 동네 애들과 어울려 신이나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너네들 이런 것 본일 있니?」

「응? 그게 뭘데?……보자기 아니야?」

「보자기 보자긴데 말야……좀 이상하지 않니?」

「글쎄 그 속에 울긋불긋하게 그려져 있는게 뭐니?」

「나두 몰라……무슨 그림같지는 았구……가운데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건 아마 무슨 모양을 나타낸 거 아냐?」

「애애! 그 옆에 있는 작대기 같은 것들은 또 뭐니? 가만 있자. 작대기 모양이 서로 다르지 않아. 이쪽에 세개구 또 이쪽에 하나 둘 셋……넷이다. 야!」

「애 이쪽 건 여섯인데?」

이상한 보자기를 놓고 애들은 연신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도시 그런 그림(?)을 처음보는 이 애들은 그림같기도 하고 그

형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이 낡은 보자기를 놓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두 대 여섯 살짜리 개구장어들이어서 매일처럼 모여서 작난들만 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강군 신정리.

휴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부락인 탓으로 그 애들의 부모는 모두 인민군과 관계가 있는 집 애들이었습니다.

인민군의 군관(장교)의 자식이거나 특무장(상사)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전사자(6·25때 전사했거나 그후 군에 있다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락에도 원래부터 거주하던 주민이 있었는데 복괴는 휴전선 일대에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후방 산골로 깊숙히 이주시키고, 그 대신 그 부근에 주둔하는 인민군 군관의 가족이나 성분이 좋은 전사자의 가족등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신 동석이기도 그런 가족의 한 어린애였고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고사포 연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개구장어들 중에서도 언제나 골목 대장 노릇을 해 왔습니다.

동석보다 나이가 하나나 둘 위인 애들도 동석의 아버지가 대좌라는 높은 계급 때문에 순순히 동석의 말에 복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정확한 날자는 70년 9월의 어느날이었다.) 신동석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흑시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것이 없을까 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지다가 장농 한쪽 구석에 간직해 둔 태극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동석이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인줄은 더구나 우리 한국 민족의 얼이 담긴 가장 중요한 물건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태극기라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괴는 이른바 자기들의 기빨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것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태극기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석의 눈에는 그것이 매우 신기한 것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애들에게 그것을 보이면서 그게 뭔지 아느냐고 자랑삼아 빼져 보려고 그것을 들고 나와 애들과 같이 떠들어 댔던 것입니다.

애들이 한창 그게 뭘까 하고 떠들고 있는데 매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평강군 사회 안전부 안전원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전원은 부리나케 애들 있는 데로 뛰어 가더니 그 태극기를 낚아채 가지고 대뜸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이게 어디서 났어? 이게 누구거나 말이다!」

너무나 험악한 얼굴을 하고 다구치는 안전원의 얼굴을 보고 애들은 겁이나서 서너 발자욱 뒤로 물러가더니 그중 한 애가 동석을 가리키며

「저애가 집에서 가지고 나왔어요」하고 일러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똥이? 네가 가지고 온거냐! ?……그래 너의 집은 어디야?…

그리구 너의 아버지는 뭘해?」

하도 급하게 다구치는 바람에 동석이는 멍하니 안전원의 얼굴만 쳐다보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이 없니? 응! 넌 병어리냐? 야 이놈아. 너의 집이 어디가고 묻지 않아?」

이 때 몇 발자욱 뒤로 물러갔던 다른 애 하나가 불쑥 앞으로 나

오며

「저 애 집은 저쪽 골목으로 가다가 두번 께 집이에요…… 그리구 저애 아빠는요……높은 사람이예요……」라고 하는 것이 었읍니다.

「그래? 높은 사람이라니……뭐 하느냐 말이야?」

이번에는 동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진 고사포 연대장이예요……계급은 대좌이구요……」

「음……종와! 너 날 따라 와!」

그리고는 안전원은 동석을 붙들어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읍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그 안전원에 의해 군 당위원회에 보고되고, 군당은 도 당위원회로 또 도당은 중앙당 위원회로 보고되어 사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1 고사포 연대장 신 병순 대좌는 제 5집단군 사령관실에 불리워 갔읍니다.

「오늘 중앙당에서 통보가 내려 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어데 있소?」

「면목 없읍니다」

신 병순 대좌는 이미 태극기 사건 때문에 문제가 시끄럽게 되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읍니다.

「뭐라고! 면목이 없다는 걸로 해결될 문제요? 이게……양!」

「저 사령관동지!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흥……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태극기가 동무네 집에서 나왔소?……응! 그 경과나 좀 들어 보자구……」

신 병순 대좌는 차렷 자세를 한채 더듬더듬 말을 시작하는 것이 었읍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집에 그 태극기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읍니다」

「뭐이라구? 몰랐다구? 아니 그걸 말이라구 하구 있소? 엉!」

「글쎄 사령관동지! 전 정말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 나왔다니 할 말은 없읍니다만……전 모르고 있었읍니다」

「이봐요……내한테까지 숨길려구 드나? 물론 동무가 그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다구 고백하면 당장 총살일테니까 모른다고 우기는 것 같은데……이봐 솔직히 털어 놓으라구……」

신 병순 대좌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결심이나 한듯이 또렷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번 되풀이 해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혹시 작년에 돌아가신 저의 어머님께서 저도 모르게 그 태극기를 간직했다가 미처 없애 버리지 않고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전 이날 이대까지 태극기가 우리 집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읍니다.……정말입니다」

신 병순 대좌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간직했었다고 한다면 그 사령관의 말대로 당장 총살될 것이 틀림없고……우선 목숨이라도 전질러면 모른다고 우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 병순 대좌가 자기집에 태극기가 있었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었습니다.

작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인 신병순 대좌를 불러 놓고 태극기에 깃든 사연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야. 이 태극기는 6·25때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무엇보다 귀중히 간직했던 거다……지금은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만 이 태극기만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 아니겠니?……그게 비록 남한에서만 쓰고 있고, 또 우리 북반부 기빨을 쓰고 있지만 말야…… 우리 조상들의 피땀한이 담겨져 있는 태극기란 말이다……」

「어머님……그러나 지금은 때가 다르지 않아요……괜히 그런 것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큰일 날테니까 지금이라도 없애 버립시다」

「안된다. 안돼……그것만은 안된단 말이야……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의 아버지는 곧잘 3·1운동 애길 하지 않던?…… 그 때 왜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가슴에는 이 태극기를 간직하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 말이다…… 어쨌거나 이 태극기만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깊이깊이 간직해다우……」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후 신병순 대좌는 그 태극기를 없애려고 여러번 망설이다가 끝내 아무도 모르게 깊숙히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그의 장난꾸러기 아들 때문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날 제 5집단군 사령관실에 불려간 신병순 대좌는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우기는 바람에 일단 총살은 면하고 다른 처벌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령관은,

「아뭏든 더 조사해 보면 알 일이지만, 동무는 끝내 태극기 사건을 모른다고 우겨대 봐야 처벌은 면치 못할거요……중소…… 다시 부를 때까지 가 있소!」

사령관실에서 물러나온 신 병순 대좌는 긴 한숨을 내 쉬었습니다

다.

이제 잘하면 총살만은 면할테니까 그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고 남어지야 어떤 가혹한 처벌을 받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신 병순 대좌는 전사(여기에서의 이등병)라는 제일 말단 병사로 계급이 떨어지고 평양에 있는 전설 여단으로 쫓겨 갔습니다.

이 전설 여단이라면 인민군 중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배치되어 와서 주로 힘든 중노동만 강요 당하는 여단이었습니다.

대좌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전사로 떨어져 전설여단으로 쫓겨가던 날 그의 아들 동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아빠! 우린 어디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럼 난 칠복이나 영수 친구들 하구 헤어져야 되지않아? 응 아빠!」

자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의 다섯살 난 아들을 바라보는 신 병순 대좌의 얼굴에는 오히려 미소까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의 친구들하구 헤어지게 해서 미안하다…… 동석아, 그러나 우린 이살 가야 해, 알겠니? 넌 언제나 아빤 좋아했지? 그러니 이번에두 아무말 말구 아빤 가는테로 따라가는 거야…… 알았어?」

마루에서 가물거리는 저녁 햇빛은 시들어 지는 이들 한 가족의 운명을 말해준듯 힘 없는 빛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 6. 예술 공연이 있던 날

재 작년도, 그러니까 1969년 12월 초의 어느 날, 신의주 해방중

학교에서는 전교 학생을 모아놓고 늦도록 사로칭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초의 초겨울이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수온주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않아 겨울이 되면 학생들은 추위에 떠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는데 더구나 강당에는 난로마저 없어서 학생들은 모두가 동태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사방은 여덟이 깔리기 시작했으나 회의는 좀체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없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연단에 올라가 토론을 하는 사로칭 간부의 말을 듣지 않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긴급한 연락을 받았는지 학교 당 비서(학교에 조직된 공산당 조직의 책임자로 교장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음)가 연단에 올라가 급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 오늘 회의는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만 중단하겠습니다. 그 대신 전교 학생들은 지금 당장 열을지어 도립 극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밤 소련 예술단이 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 학생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와!」하고 함성을 질렀으나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글쎄 말이야……난데 없이 갑자기 예술 공연 구경간다는 건 뭐야!」

「그것두 소련에서 온 예술단이라며?」

학생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이 갑작스런 변화에 어리둥절



해 있었읍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너무 좋아 어쩔줄을 몰랐읍니다.

그러지 않아도 언제 끝날지 모를 회의를 하느라고 추위 떨고있는 참에 회의를 중단하고 구경을 간다니 좋아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얼마후 학생들이 도립극장에 도착한 것은 저녁 여덟 시가 가까워서였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극장안에는 한쪽 구석에 열 대여섯명의 관객이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 텅텅 비어 있었읍니다.

관객이 없어 공연시간도 한 시간이나 늦추어 지고 있었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도립극장에도 난방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밖았이나 다름없이 추위 구경꾼들이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사정이 달랐읍니다.

소련에서 소위 「10월혁명」(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에 예술단을 파견한 것인데 약속된 기일보다 닷새나 늦어진데다가 신의주에서는 공연할 예정이 없었던 것이 소련측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공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소련측으로서는 북한에 도착하는 기일이 늦어진 것에 미안하다고 느꼈던지 국경도시 신의주에 발을 들여놓자 마자, 특별히 선심을 베풀어 예정에도 없던 신의주 공연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신의주의 공산당 간부들은 부랴부랴 소련 예술단 공연을 위해 분주히 뛰어 다녔지만 준비가 제대로 될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날따라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난방시설이 없는 도립 극장에 벼란간 난로를 들여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사람만 가득 채우면 그런데로 사람들의 입김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겠지 하고 사람 동원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애당초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을 줄 알았으면 미리 어느 직장이나 공장 노동자들을 단체로 동원시켰으면 문제가 아니였었는데 소련에서 온 예술단이기에 광고만 하면 사람들이 가득 모일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 공연을 시작해야 할 즈음에도 사람들은 왔다가는 너무 추워서 슬금슬금 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공산당 간부들은 부랴부랴 인민반에 지시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키려 해도 너무나 추운 날씨 탓인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어야 하는 북한으로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공연을 하지 못했다면 소련에 대해 큰 노력음을 살것이고 그렇게 되면 뒷일이 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달이난 공산당 간부들은 각 직장 학교 등 사방에 연락을 하다가 마침 전체 학생들이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해방중학교 교장에게 명령을 내려 당장 회의를 중단하고 도립 극장으로 모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서 이 학교 학생들은 뜻하지 않게 도립 극장으로 오게 되었으나 너무 추워서 모두들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발을 뚱뚱 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로 극장안을 팍 매우게 되자 공연을 시작하도록 소련 측에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소련 예술단 측에서 노발대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네들 정신이 있소 없소……이런데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란 말이요?」

소련 예술단 단장은 신의주의 어느 공산당 간부를 붙들고 고향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응! 말이나 되느냐 말이요! 요 조그만 화로 하나 가지구 어떻게 공연을 하란 말이요……내 20년간을 돌아 다니면서 공연을 해왔지만 이런 때는 처음 봤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갑작이 준비하느라고 미처 난로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그러니 제발 모든 불편을 참고 공연을 해주십시오!」

신의주시 공산당 간부들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준비가 잘되지 않아 공연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중앙당으로부터 큰 봉변을 당할 것이고, 또 소련에 대한 체면도 서지 않는

것이어서 신의주 공산당 간부들은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뭐라구요? 그것두 정도가 있어야지……이렇게 부풀부풀 떨면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소! 영?」

「그러면 다는 못해도 약 30분 가량이라도 공연을 해 주십시오」

「못하오…… 괜히 이런 데서 무리하게 노렐시켰다가 우리 예술단원이 병에라도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단장으로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렇드래도 제발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주십시오……그러구 신의주에서도 예술 공연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여보시요…… 아무리 형식이 중요하지만……이전 사정이 다르지 않소……」

이들간에는 한참이나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30분이나 질질 끌다가 소련 측이 양보(?)를 해서 독창, 피아노, 독주 등 몇 가지만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 예술 공연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관객들은(주로 학생이지만) 노래를 듣는 것보다 추워서 벌벌 떠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아이유…… 빨리 끝나지 않나! 이전 도무지 무슨 벌 받는 격이지……」

「누가 아니래…… 오늘따라 늦게까지 사노청 회의를 하는덕에 우리만 애매하게 결렸지 뭐니……」

「재수 없는 날은 뒤로 떨어져도 코가 깨진다지 않아……」

학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불평을 늘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학교에는 신의주 공산당 간부 두 사람이 찾아와 교장실에서 오래도록 두손 밀담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교장 선생은 교직원을 모두 교장실로 부르더니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이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밤 소련에 예술단의 공연을 구경한 학생들의 감상문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즉 우리의 「해방의 은인」인 소련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원조도 주고, 또 이렇게 예술단까지 보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소……이건 내가 새삼스레 얘길 안해도 여러 선생은 더 잘 알고 있을거요……그러니 그 고마운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감상문을 받도록 하란 말이요……내 말 알겠소?」 선생들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는 뻔한 일이지만 또 다시 학생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쓰라고 강요할 생각을 하니 입맛이 썩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 두번 있어 온 것은 아니지만 특하면 당에 감사해라, 김일성에게 감사해라, 게다가 소련에 감사해라, 중공에 감사해라는 등 수없이 학생들에게 마음에 없는 강요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승으로서의 양심에 가책을 받곤 했으나, 그런 걸 그대로 표현했다가는 도저히 배겨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북녘 공산사회였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 말 알겠어요? 지금 당장 각 학급에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소련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감상문을 받아오란 말이요…… 수상동지의 따뜻한 은혜가 아니던 어떻게 이런 공연까지 구경할 수 있겠소? 내 말 알아 들겠어요?」

교장 선생은 또 한번 자기 말을 알아들겠냐고 강조한 다음 선생



들을 돌려 보냈겠습니다.

얼마후 선생들은 전체 학생들의 감상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교장실로 모였습니다.

그 감상문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무슨 내용들을 적었는가는 구태여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대부분 김일성의 따뜻한 은혜때문에 훌륭한 소련 예술공연을 구경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이라고 판에 박힌 내용을 적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상문을 가지고 신의주 공산당 간부들은 평양에 있는 중앙당에 소련 예술단 공연이 대 성황리에 훌륭하게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허위와 기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녘 사회의 이런 기막힌 현상이 오늘의 김일성 우상화를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 7. 절도범 공개 재판

### 끌려 온 두 모녀

1966년 초.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 안전원들이 각 동을 돌아다니며 여자 절도범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연다고 집집마다 한 명씩 구경하러 나오도록 강요 했었습니다.

평양시 유선 방송에서도 여자 절도범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으니

꼭 참관하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절도범으로 공개 재판을 받을 여자는 두 명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해 쉰 둘이나 된 노파로 무려 마흔 일곱 차례의 좁도독질을 했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열 아홉살 된 그의 딸로 절도 행위를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이 길녀라고 했습니다.

상점에서 딸에게 점원과 싸움을 붙여 놓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부부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집에 숨어 들어가 쌀과 금품들을 훔쳐내기도 했으며, 여행자들의 짐을 훔치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흔 일곱 차례만에 북괴 교위 간부 주택에 침입했다가 붙들렸다고 했습니다.

뒤의 일이지만 공개 재판시에 이 길녀는 다만 다섯번 절도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공개 재판 장소는 평양시 북쪽 근교 서포 못미처 야산 기슭 넓은 들판 공지였습니다.

만 여명의 시민들이 이 기이한 재판 구경을 하려고 또는 강제로 끌려서 공지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착하는 시민마다 가슴 서늘하게 놀란 것은 공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사람 키 높이의 말뚝 두개를 세워 놓고, 그 근처에 안전원석이 총을 번쩍거리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형이 집행된다는 예고였습니다.

과거 지주 출신이나, 치안대 출신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하는 인민 재판을 할 때 그런 말뚝이 서 있었습니다.

「절도범이란테 총살을 할라나분데?」

「그럴 리 있나! 더구나 여자들이라는데……」

「그럼. 저건 무얼 할 건가 말이여?」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마흔 일곱번이라는 엄청난 회수의 절도 행위를 했다지만 그래도 절도범을 사형에 처하기야 하려고?,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윽고 지프차 한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공지로 달려 들어 오더니 재판대(임시) 근처에서 멎어 섰습니다.

안에서 안전원들이 먼저 나오고 수갑을 찬 두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때 맞은 멍 자국이 시퍼렸고, 머리채는 흩어져 야윈 어깨 위에 어지럽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안전원들은 두 여인을 재판대 옆 땅 위에 꿰어 앉혔습니다.

여인들이 심한 고문을 당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려 하자 안전원들이 달려들어 뒷덜미를 움켜쥐어 바로 앉혔습니다.

공지는 물을 끼얹은듯이 조용했습니다.

재판대에 앉아 있던 재판장이라는 자가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민들의 재산을 침범한 악랄한 절도범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이런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몇 사람의 외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재산을 침범한 절도범은 반동 분자다! 극형에 처하라!」

미리 사람들 틈에 박아 넣은 안전부의 앞잡이인 열성 당원들의 고향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 재판시에는 으레히 군중들이 「와! 와!」 떠들도록 선동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외에도 이날 군중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 냉담한 군중들

「어?」

재판장은 당황한 빛이었습니다. 몇몇 선동 대원들의 외침 소리만 공허하게 메아리칠뿐 군중은 갈수록 조용했습니다.

이 때 끌어앉아 있던 이 길녀 노파가 벌떡 일어나서 고래 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가족들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섯번 훑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흔 일곱번이라고! 마흔 일곱번!」

「닥쳐!」

안전원이 이 노파를 후렷했습니다.

이 길녀는 옆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안전원은 노파의 뒷덜미를 나누어 채 다시 끌어 앉혔습니다.

「저년! 도둑년이 무슨 큰 소리야!」

「갈못을 반성조차 않는 저 자들을 총살형에 처하라!」

여기 저기 궁중 속에 박아 놓은 선동원들이 또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투성이가 된 두 여인이 측은하여 외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재판대에 앉은 안전부장이 이날 행사를 담당하고 준비한 안전군관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안전 군관은 얼굴이 파래서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세밀히 짜라구 그러지 않았는가? 응!」

「이렇게 될 줄 짐작 못했습니다.」

「한심하군!」

하고는 귀속말로 나직이 지시했습니다.

「속히 가서 사복한 안전원들을 일개 대대 가랑 실구 와! 사람들 속에 박아 넣어! 그 동안 시간은 내가 끝테니……」

안전 규관은 황황히 일어서 그 자리를 뺐습니다.

안전부장은 자기 걸자리에 있는 검사에게 범인들에 대한 논고를 될 수록 길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길녀 모녀의 날조된 죄명을 논고하는 검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날조해도 절도 행위에 대한 정치적 발언의 꾸밈에 불과했습니다.

안전부장은 매우 초조한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하여 북괴 노동당과 안전부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자 도시들에서 절도 행위가 매우 심해져서 단 심은 갈 수록 흉흉하기만 했습니다.

집집 문마다 자물쇠가 서너개씩 걸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물쇠를 뜯어 재치고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식량정책(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한 식량난과 극심한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대한 수습 대책이 없는 데서 온 그 사회의 어두운 면의 하나였습니다.

북괴는 절도 행위를 막을 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워 봤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교화소에 잡혀 들어가는 것

을 달가워하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불어 넣어 불만을 해소하고 절도범들에게 겁을 주려고 절도범인 이 길녀 모녀를 총살형에 처하는 잔인무도한 공개 재판 놀음을 벌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동하여도 절도범을 총살하려는 악독한 행위를 주민들은 동정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둘 다 처형하면 오히려 군중 속에 반발심이 일어 나겠소. 오늘은 노파만을 주범으로 처형하는 게 어떻겠소?」

재판장이 안전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안전원들을 박아 넣으라구 했으니까 그때 동정을 보아 처리하십시오다.」

안전부장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냉담한 군중들을 못마땅한 듯이 흘겨 보았습니다.

## 악랄한 살인 행위

이윽고 일개대대 가량의 사복 안전원들이 도착하고, 군중들이 사이에 끼여 들어갔습니다.

안전부장은 재판장에게 공개 재판을 계속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우뚝 일어서서 이 길녀 모녀를 부라려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들은 사회주의 전설을 좀먹으려구 직장에 다니는 가정을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마흔 일곱 차례나 감행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코의적으로 당과 정부에 도전하는 반당적인 반동 행위이다. 반혁명 분자로서 마땅히 엄벌을 받을 것

이다! 자기의 엄청난 죄행을 인정하는가?」

길녀 모녀는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읍니다. 이제는 만사가 귀찮기만 하다는 체념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어려 있었읍니다.

이 길녀 모녀는 월남자 가족이었읍니다.

남편이 전쟁시기 국군이 철원 땅에 들어왔을 때 군을 도와 일하다가 남으로 다시 가는 국군을 따라 월남했었던 것이었읍니다.

휴전 후 월남자 가족이라 하여 휴전선이 가까운 고향땅에서 쫓겨나 함경북도 무산 산림 사업소로 끌려 갔었읍니다.

이 길녀는 심한 중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그 때는 아직 어린 딸을 업고 도망을 쳐서 평양으로 나왔읍니다.

의지할 친척이 있어서 평양을 택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래도 평양은 북한 제1의 도시로 식당에 돌아다니며 밥찌꺼기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읍니다.

모진 고생과 '성분이 나쁜 사람이란' 병태가 그들 모녀를 절도범으로 만들었읍니다.

큰 것을 훔친 일도 없었다.

빈 집에 들어가 쌀되나 훔치고, 상점에서 식료품 따위나 절도하는 정도였읍니다.

이 길녀는 살려 준다해도 더 살 의욕마저 잃어버린지 오랬읍니다. 그의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딸이 불쌍다는 모정의 흐느림이었읍니다.

「동무들! 개미 구멍으로 천리 방축이 무너지는 법이 아십니까! 피고들은 사소한 줌도둑 같지만 실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반동 분자들입니다! 나는 검사 동무가 구형한 대로 이들을 사형에 처할 것을 지지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장의 열변에 여기 저기서 「울소!」「반혁명 분자를 처단하라!」하는 외침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박아넣은 안전원들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여전히 냉담했고, 사형이란 소리에 가슴이 서늘하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재판장 동무, 아무래두 모녀를 다 총살하던 군중이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소. 늙은이만 하나 처치하고 딸은 적당한 형을 주어 교화소에 넣어 넣읍시다.」

안전부장이 재판장에게 귀속말을 하였습니다.

공개 재판은 실권을 갖고 있는 이들의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 길녀는 나무 기둥에 묶여 안전원들 감시하에 강제로 보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총살 당하였습니다.

「어머니!」

하며 울부짖는 최 길녀의 딸을 안전원들은 개 끌듯 끌어 차에 싣



고 가 버렸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북괴는 갈수록 들어가는 절도범을 근절해 보려고 아까운 사람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 8. 북녘의 불량배

### 서류 가방을 찾아라

1968년 늦가을의 어느 날 밤 평양역 구내에는 몇 사람의 경무(여기에서의 군인 헌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열차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북괴 내각 부수상인(부총리격) 이 주연이란 자이었습니다.(이주연은 70년 9월 병으로 사망하였음)

밤 10시 40분에 출발하는 평양발 청진행 열차에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공무로 출장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양과 청진간을 왕복하는 여객 열차는 평양에서 밤에 떠나는 급행 열차와 아침에 떠나는 완행 열차 등 하루에 두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로 출장간다는 여행 증명서가 없이는 차표를 살 열두도 내지 못했고 또 설사 공무 여행 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섯시간 줄을 서 있어야 차표를 팔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에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연석차(일등칸)에 올라 탄 이 주연은 풍행하는 부수상 서기(박서와 같음)의 안내를 받아 미리 지정해 놓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보 서기동무! 모든 연락은 다 잘돼 있겠지?」

「예,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틀림 없을 겁니다. 아무 걱정마십시오. 부수상 동지!」

「글쎄, 딴 일이야 생기겠나만, 이번 출장은 수상동지(김일성 파수를 이른말)의 특별 지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 만사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어!」

「명심하고 있습니다. 부수상 동지!」

「더구나 요즘은……」

이 주연 부수상은 뭇인가 말을 계속하려다가 주춤하더니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부수상의 신변 보호 때문에 열차 칸 앞뒤 승강구에 안전원이 배치되어 있고, 또 좌석의 절반 가량은 일부러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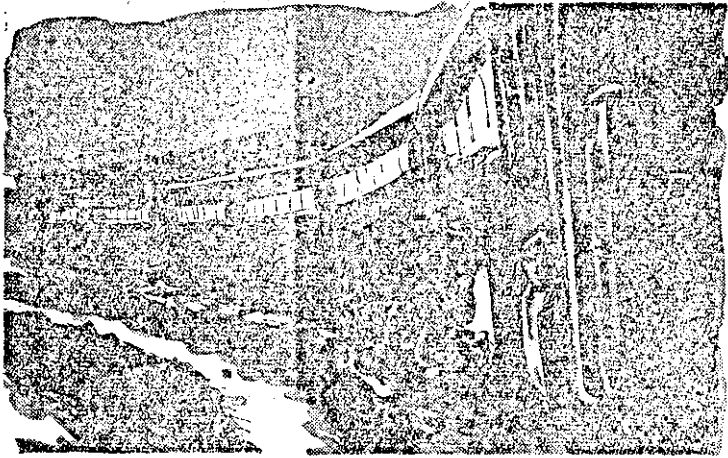
자기 주위에는 풍행하는 서기 한사람 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는 어색한 감정을 씻으려는 듯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대를 꺼내 무는 것이었습니다.

약삭빠른 서기는 재빨리 성냥을 그어 불을 붙여 주고는

「요즘 성행하는 풀만이 소매치기 때문에 그러시죠?」하고 되물었습니다.

「음 그래, 동무는 그 서류 가방을 특별히 잘 간수해야 하네. 거기엔 수상동지 친필이 들은 서류가 있으니까 말일세」

「알고 있습니다 부수상 동지! 너무 열려 마시구 좀 편히 쉬십시오. 여기 탄 승객들은 안전원들이 벌써 신분을 확인 했으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제야 이 주연 부수상은 약간 안심이 되는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몸을 지긋이 옆으로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열차는 밤의 어둠을 타고 양덕 준령을 넘어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부수상 맞은 편에 앉아 잠에 골아 떨어졌던 서기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 보려고 몸을 옆으로 뒤적이는 순간 정신이 퍼뜩 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서류가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앗!」 서기는 가느다랗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분주히 주위를 살피고 의자 밑에도 뒤져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데서도 서류 가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는 미처 정신도 가다듬을 사이없이 깊이 잠이든 이 주연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수상 동지! 크 큰일 났습니다. 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은 이 주연은

「왜 이리 야단인가? 아직 한밤중인데…」

「저 부수상 동지! … 가방,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뭐라구! 서류 가방 말인가?」

이 주연은 그제서야 정신이 펴뜩 드는지 주위부터 훑어보는 것  
이었습니다.

「예, 그 서류 가방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이 바보같은 자식아! 그만큼 주의하라고 일렀는데. 어찌자구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거냐 말이다!」

이 주연 부수상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류 가방에는  
김 일성의 친필이 든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만약 영영 잃  
어 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봐 안전원 동무!」

이 주연은 일어서며 열차 안전원을 불렀습니다.

입구쪽에서 경비를 맡고있던 안전원들이 뛰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부수상 동지!」

「무슨 일이라니, 여기 있던 서류 가방이 없어졌단 말이야!」

「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이 칸 앞 뒤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바보같은 녀석들아! 그런데 왜 없어졌겠냐 말이다! 아무  
튼 요 다음 역에서 열차를 세우고 그 서류 가방을 찾으려 해!  
범인은 반드시 이 열차안에 있을테니…」

「알겠습니다. 긴급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부수상 동지! 꼭 범인을 찾아 내교야 말겠습니다」

안전원들은 급히 어테론가 뛰어갔고 그뒤를 따라 서기도 뛰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부수상 이 주연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불량배가 날구 긴다 해도 이렇게 엄중히 지키고 있는 틈을 뚫고 도둑질을 하다니…)

이 주연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막힐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열차는 다음 역에서 정차한 뒤 떠날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틈에 연락이 되었는지 안전원들이 수 없이 역에 몰려들어 열차에 오른 다음 승객 하나 하나를 수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짐체로 그 서류 가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얼마후 안전원 한 사람이 부수상 있는데로 급히 뛰어 오더니 「부수상 동지! 아무래도 범인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 내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열차를 너무 오래 세워두어 승객들이 웬 일이나고 아우성을 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뭣이라구! 그때워 열빠진 소릴 달구 빨리 서류 가방을 찾아 내란 말이야!……경우에 따라서는 열차를 더 세워두어도 좋으니까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부수상 동지… 그러나 이 열차 안은 벌써 세면칙이나 살살이 뒤졌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랬는데도 없단 말이야? 이 쓸개 빠진 녀석들아! 그래 그 따위 줌도둑 하나 못잡는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고 반드시 찾아 내겠습니다」

「음... 만약에 말이요..... 범인을 찾지 못하고 또 그 서류 가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엔 당신네 안전원들도 작오하란 말이다!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원을 보내 놓고 부수상 이 주연은 골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 참 재수 없는 일이군... 쥐 새끼만도 못한 줌도둑한테 당해서 이 꼴이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군..... 그러나 저러나 그놈의 서류 가방을 찾지 못한 날에는 난 수상 등지 앞에서 뭐라구 변명을 하지?..... 허 생각할 수록 답답한 노릇인데.....)

그러나 열차가 세 시간이나 정차해 있으면서도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따라서 서류 가방도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다시 부수상 앞에 돌아온 안전원은

「부수상 등지! 면목 없읍니다. 아무래도 범인은 이 열차를 빠져나간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일단 열차는 출발시키구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안전원을 한참이나 노려 보던 이 주연도 어찌할 수 없었던지 맥없이 말을 하는 것이였읍니다.

「할 수 없지..... 그렇게 했! 그러나 동무는 빨리 함흥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함흥에서 내릴 것이라는 걸 전했!」

부수상 이 주연은 이 사건으로 김 일성의 특별 명령에 의한 청진까지의 출장을 포기하고 함흥에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는 열차에 갈아 탔읍니다.

이 주연은 평양에 돌아오는 길로 피수 김 일성을 찾아가 도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을 보고 했읍니다.

「동무두 참 나잇살깨나 들어가지구 그게 무슨 꼴이요..... 아무

튼 책임을 떠지는 것은 나중에 하기루 하고 우선 그 서류 가방  
이나 찾는 방법을 생각해 내지요」

그리고는 김 일성은 즉석에서 사회 안전상(여기에서의 내무부  
장관)에 해당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서류 가방을 찾도  
록 명령 하였습니다.

약 2주일의 지난 뒤에야 드디어 범인을 잡는데 성공 했습니다.

당시 21세의 한 일수라는 청년이 바로 그 범인이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109 노동 교양소(여기에서의 소년원과 같음)에 갔  
다온 이른바 전과 2범의 불량배였는데 그는 세 번째 체포된 뒤에  
도 조금도 죄 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일수의 자백에 따라 다른 많은 사건도 실마리가 풀리기  
는 했으나 이자를 심문하던 담당 안전원들도 이자의 대담성에 놀  
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 여섯 살부터 이 불량배의 길에 들어섰다는 한 일수의 입을  
통해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북녘 사회에서도 쉬지않고 일  
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짜 학생들의 정체

북괴 부수상 이 주연의 서류 가방을 훔쳤다가 불들리게 된 한  
일수의 자백은 담당 취조 안전원 뿐만 아니라, 북괴 고위층에서  
도 놀라 자빠질 지경으로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한 일수의 입을 통해서 북녘 땅의 뒷골목이 그토록 썩어 있었던  
가는 북괴 고위층에서 까지 새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게 위장한 공산체제의 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지도 모릅니다.

한 일수는 평양 선교리에서 태어나 선교 초급 중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다른 복녘 소년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급작스럽게 불량배들 틈에 끼이게 된 것은 초급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급작스럽게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때부터 소매치기, 절도, 폭행 등 불량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그렇게 될 잠재적인 요소는 오래전부터 싹터 왔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의 사랑, 가정의 따뜻함을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엄연히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었는데도 그는 탁아소의 보모에게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보모의 거치른 행동을 본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애기 엄마까지도 일터에 나가 노동을 해야만 식량 배급을 탈 수 있는 복녘 사회이기에 어느 가정에서이전 갓난 애기 때 부터 탁아소에 맡겨오는 것이 실례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단 한 일수 뿐만 아니라, 복녘 어린이 전부가 해당되는 불행한 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인민학교, 중학교를 거치고 소년단·조직, 사료청 조직등을 거쳐오는 동안 하나의 집단적 공산당 틀에 박혀야 하는 강요된 규율속에 자라왔던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 어린 가슴에도 무엇인지 모를 불만이 싹텃고, 어딘가를 향해 고향을 질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 왔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불량해져야만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어도, 그런 가능성만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심경 변화를 본인인 한 일수의 말을 빌리면(취조 당



할 때 한 이야기임)

「저는 어디를 향하든 뛰쳐 나와야 할 것 같은 감정을 오래전부터 품어 왔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기 보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덮어놓고 틀어 쥐려는 조직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런 불만은 비단 저 혼자 뿐 아니라 우리 또래 소년들 거의 전부다 느끼는 불만이자 반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수는 초급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또래의 친구 서너명과 같이 그 지긋지긋한 조직의 감시 밑에서 벗어나 보려고 덮어 놓고 뛰쳐 나왔습니다.

물론 학교에도 안가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매마침 여름 철이라 잠은 아무데서나 잘 수 있었고, 정 마땅한 때가 없으면 대동강변의 수풀 속에서도 몰래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전원 한테 들키기만 한다면 이유없이 밖에서 노숙한다는 조건만 가지고 끌려가 시끄럽게 될 열려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적당한 구실을 붙이곤 하였습니다.

중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것 저것 하는 일이 많아 밤 늦게야 집에 돌아가는 일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구실 부칠 것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먹는 일만은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식량반은 철저한 통제하에 배급을 주기 때문에 국영 식당에서도 양권(식사를 사먹기 위해 필요한 배급표)이 없이는 절대로 사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권은 출장가는 사람은 누구나 소지해야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수 일행은 막연히 평양역 있는 메트로가 역앞 광장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역에는 언제나 출장가는 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얼마간의 양권을 가지고 있을 터이고 그것을 슬쩍 훔치기란 하면 며칠 동안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친구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학교 벤취에 앉아 오고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 보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언제 닥아 왔는지, 그들 앞에 웬 낯선 청년이 서서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읍니다.

그자도 고급 중학교 학생복을 입긴 했어도 첫눈에 어딘가 불량기가 엿보였읍니다.

「야 이 새끼들아!」

그 자는 무턱대고 욕지거리 부터 앞 세우며 한 일수와 그 친구들을 노려보는 것이었읍니다.

「너네들, 도망쳐 나왔겠지? 새끼들 임마 지금이 어느 때라구 이러구들 있니?」

「아니 우리들이 뭘 잘못했다구 그러시우, 우리들은 지금 학교에서 단체로 만경대를 견학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자식들! 거짓말 마! 보문 모를 줄 아니? 너네들 어느 학교니? 너희 학교 사로청 위원장한테 고발할까?」

학교에 고자질한다는 바람에 놀란 한 일수는 벌떡 일어서며,

「아니 정말 만경대 갔다 오는 길예요, 괜이 그러지 마시우」

「흥, 아무리 거짓말 할래두 다 안단 말이야, 그러지 말구 새끼들 내 말대루 따라 했! 해롭지 않을테니 말이다」

「글쎄, 저희들은」

「임마! 너 지금 배 고프지? 그렇지?」

「예, 배고프긴 합니다」

「봐라! 새끼들! 내 말대루 하면 이거 한 장씩 가져 주지,  
하면서 그 자는 양권 몇장을 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든 한 일수는,

「무슨 말인진 모르지만, 그 양권만 주면 아무 말이나 들겠습  
니다!」

「호호, 종와, 이걸 줄테니 날 따라 와!」

그리하여 한 일수 일행은 그 자를 따라 평양역 앞에 있는 「인쇄  
폼비나트」(인쇄공장) 전물을 지나 김책 공업대학 뒷 골목을 한참  
이나 빠져 나가더니 어느 으스스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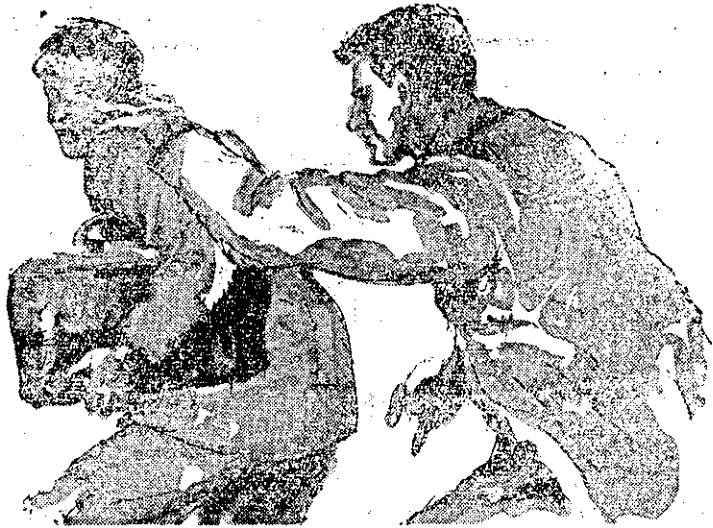
그 청년의 별명은 「개 대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앞 아  
마가 유난히 볼록 튀어 나온게 마치 개 대가리처럼 험상궂게 생기  
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일수는 개 대가리가 평양역을 중심으로 하는 불량배  
의 왕초라는 것도 알았고, 그 수가 예상외로 많았다는데 놀랐습  
니다.

더구나 이 개 대가리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대부분 15~6세로  
부터 20세 전후의 소년이며; 그 중에는 여자애들도 상당 수 끼  
여 있으며 복송된 재일교포 청년들이 많다는 데에 더욱 놀랐던 것  
입니다.

그래서 북괴 사회 안전성에서도 이들을 잡아 내느라고 골치를  
앓고 있지만, 하나 잡아 노동 교양소에 보내면 둘이 늘어나고,  
둘을 잡아 보내면, 또 셋이 늘어나는 등 그들의 소굴을 뿌리 뽑  
는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일수는 소매치기 하는 법, 도둑질 하는 법 등 여러  
가지 못된 기술을 배우고, 주로 평양역을 중심으로 소매치기, 절



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의주 행 열차에 올라타서 신의주까지 가면서 한 탕 하고 또 돌아오면서 한 탕하는 소위 출장 소매치기 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 학생복을 입고 있었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안전원을 골라내는 기술부터 터득 하였던 것입니다.

「에! 날르자 저기 왜리가 온다!」

(〈왜리〉라는 것은 강아지를 부를때 쓰는 〈위리〉하는 말이 변화 되어 왜리라고 하는데 안전원을 이렇게 부른다) 「너부터 날라! 난 대합실로 들어가 숨어 있을께」

「알았어! 이따 다시 만나!」

이렇게 날이가고 달이 갔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일수는 드디어 안전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 일수가 담당한 전 양권 소매치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출장가는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나 가방을 노리면서 몇 장식의 양권을 소매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날도 무사히 한 탕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앞을 막아서며 손목을 붙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안전원이었습니다. 슬적하는 현장을 붙들렸으니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안전원에 붙들려 평양시 사회 안전부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이 새끼야? 넌 언제부터 시작했니?」

「전 처음입니다. 안전원 동무!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뭐 처음이라구? 이 새끼가」

하며 사정없이 발길로 차고 닥치는대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 개 대가리파지?」

「예? 전 아무 죄도 아닙니다. 한번만 용서……」

「이 새끼야! 수령 동지의 은혜도 모르고 이따위 짓을 했!」

그리고는 또 한 바탕 죽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원동무, 저…… 전 하루 배가 고파서 양권을 한장 슬쩍했을 뿐입니다」

「뭐라구? 이 새끼야 수상동지께서 꼬박 꼬박 배급 쌀을 주는데 왜 배가 고파? 엉!」

「그래두 그 배급 쌀 가지고야 어디 배가 참니까? 더구나 우리 같이 한창 먹을 나이에 그 배급 쌀로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 새끼가 점점 반동적인 언사만 하는군, 아주 지독한 반동 분자였군, 그래」

그리고는 정말로 사정없이 주어 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반 죽음을 당한 한 일수는 며칠 뒤, 함경북도에 있는 109 노동 교양소에 보내져 더욱 무서운 감시 속에 영영 젊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 노동교양소

한 일수가 평양시 사회 안전부에 붙들리어 109 노동 교양소에 수용된 건 1969년 초봄이었습니다.

이곳 109노동 교양소는 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함경북도 회령군에서 약 40리 산골로 들어가면 칙칙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천막으로 병영 비슷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런 험준한 곳에 청소년을 위한 감옥이 있다는 것은 북녘 주민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만큼 비밀로 붙이고 있는 까닭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 번 들어가면 좀체 살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 곳에 한 번 들어갔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되기 십상이기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게 차라리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탈출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세상에는 정말로 비밀이 없다는 말이 수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탈출했다가 다시 체포되면 무조건 총살이라는 극형에 처해지지만 그 경우 총알이 아까워서인지 숨이 끊어질 때 까지 봉동으로 때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참혹상이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일수도 이곳에 도착한 첫 날, 끌고온 안전원으로 부터 이곳 노동 교양소 교양 지도원(여기에서의 교도관)에게 인계가 끝난 직후 어느 구석진 방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잠시후 보기에 도 험상궂게 생긴 교화 지도원(이들도 사회안전성 계통의 안전원들이다)이 들어오더니 옆에 놓아 두었던 몽둥이로 덮어 놓고 후려 패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수는 말도없이 몽둥이로 패기부터 하는 바람에 어리둥절 하면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왜 때리기 부터 합니까? 말로 합시다」

「뭐야! 이 새끼」

그자는 정말 화가 나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수는 비명을 지르며, 덩굴덩굴 굴렀습니다.

「이젠 그만 해요? 사람 죽어요」

한 일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교화 지도원의 몽둥이는 사정없이 온몸에 내리쳤습니다.

참나무로 울퉁불퉁하게 특별히 만든 몽둥이가 되어서 한번 몸에 내리치는 순간, 그 아픔은 뼈를 잡아 널만큼 심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한 일수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다시 들었을 때는 어느 수용자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일수가 정신이 든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선배 수용자들이 모두 그에게 다가와서 소위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넌 그만해두 운이 좋은 놈이다. 뭘 하다가 끌려온 놈인지는 모르지만, 마침 우리 호실(방)실장이 교화 지도원을 찾아 갔다가 잘 말해서 그 정도로 끝이게 했으니 망정이지 그러잖음 넌 그 자리에서 매맞아 죽었을 꺼야」

「야 이놈아! 너 여기가 어딘줄 알구 함부로 교화 지도원에게 말대꾸를 했니?」

「이 새끼야! 여기는 말이다 교화지 도원에게 한마디라도 말대꾸를 했다간 그 길로 완전히 가는거야, 알겠어?」

저마다 한 마디씩 하는 걸 들으니 과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난 그것두 모르구, 들어오자 마자 덮어놓고 때리기에 한마디 한게 그만」

한 일수는 누워서 씩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 새끼야, 여긴 그렇게 하는게 인사야, 여기 들어 왔다는 인사를 그렇게 하는거다 말이다. 알았어? 그리구 여긴 사상 교양이구 혁명 전통 교양이구 그런 딱딱한건 없어! 그 대신 몽둥이가 교양하는 유일한 무기란 말이야」

한 일수는 복넛 땅 한 구석에 이런 무서운 곳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며칠후 안 이야기지만 이런 노동 교양소가 여기뿐만 아니고 평안남도 증산, 양덕, 마람 그리고 함경남도 교원 등 10여군데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이곳 학포에 있노 109 노동 교양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인원이 총 2천 5백명가량 되었고, 그중에는 여자도 약 5백명을 찾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15, 6세에서 25, 6세까지의 청소년들로서 소매치기, 살인 강도, 절도, 아편밀수(중공과)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붙들려온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두 끼의 주먹 밥에 심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매와 육설과 강제 노동으로 하루 하루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늘날 한 일수는 자기와 같은 호실의 수용자들과 심한 노동일에서 돌아와 주먹밥 하나를 타먹기 위해 식당으로 갑니다.

많은 수용자들이 줄을 서서 주먹밥을 타먹는 순서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벼란간 큰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야! 넌 아까두 타먹지 않았나? 영, 왜 또 새치기를 한거야!」

이건 수용자 중 자치 위원장으로 뽑혔던 선배 수용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새치기 한게 아닙니다」

「거짓말 마! 조금 아까두 네가 주먹밥을 타먹는 걸,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아, 아닙니다」

이때 이곳을 지나가던 교화지도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뛰어 들었습니다.

「뭐야! 왜 시끄럽게 떠들어!」

「지도원 동지! 아 글썸 이 새끼가 새치기를 하면서 주먹밥을 두번 씹이나 타먹으려 하는게 아닙니까?」

「뭐라구? 이 새끼야 너 이리 좀 나와!」

그 소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름어름 그 지도원 앞에 갑니다.

「너 이 새끼야! 밥을 두 번이나 씹쳐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거 알지?」

「예,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다는 걸로 해결 돼? 이 새끼야 네가 두 번씩 타 먹으면 굶는 놈이 있는 걸 몰라?」



「예,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년은 진짜로 두번 타먹으려고 새치질 했는지 아니면 자치 위원장이란 자가 잘못 봤는지, 그 해명을 하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교화 지도원 앞에서 이렇듯 저렇듯 한 마디라도 말 대꾸를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일이든 교화 지도원에게 걸리기만 하면 덮어 놓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어느틈엔지 교화지도원은 몽둥이를 들고와서는 많은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후려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덮어놓고 잘못 했다고 비는 덕분에 그 소년의 목숨만은 전질 수 있었으나 어깨박죽이 부러지고 다리에 상처를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치료 한번 받을 수 없어 그 소년은 끝내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에 의사가 단 한명 밖에 없어서 제대로의 치료라는 전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함)

한 일수가 이곳에서 풀려나온 것은 수용된지 1년만인데 그것도 대남 간첩에 선발되어서야 이 지긋 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일당은 바로 이들 수용자들 중에서 똑똑한 놈을 따로 선발하여 간첩교육을 시켜 남한에 침투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는데 한 일수도 그중 한사람으로 선발되었던 것입니다.

김 일성 일당은 이들을 가리켜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 수용소 내에서의 공공연한 학살을 목인하고 있으면서 그중 똑똑한 놈을 골라서 간첩으로 남파시키는 등 비인도적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소매치기, 강도질을 전문으로 하고 불량배이니 만큼 간첩으로 남파시켜 남한의 각종 증거서를 훔치게 하거나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파된 이들 뜰만이 간첩들이 남파되자마자 우리의 철벽같은 방공태세 앞에 여지없이 체포되고야 말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녘 주민들에게 조차 비밀로 하여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사실이 이들 입을 통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 4. 재떨이에 얽힌 이야기

평양시 중구역 신창동 아파트는 약 90세대가 들어있는 5층의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중앙기관의 사무원(공무원)들 가족이 들어있고 북송 된 재일교포가 약 10여세대 들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ㄷ”자로 되어 있어 건물 한 가운데 공터에는 공중 변소와 석탄창고가 있고, 그 옆으로 큰 돌 몇개가 놓여있어 애들의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이곳에 서너명의 학생들이 모여 (마다 자기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학생이 문득,

「애들아 너의 학교에서는 재떨이 수집하라는 얘기 없든?」하고 불쑥 물었습니다.

「뭐, 재떨이? 무슨 재떨이 말야?」

모두들 이상해서 되물었습니다.

「답배 터는 재떨이지 무슨 재떨이겠니?」

「글쎄, 그 재떨이가 어쨌다는 거야!」

「너희 학교에서도 곧 무슨 명령이 떨어질 거야, 이건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했으니까 말야.」

「아니 글쎄,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근데 너희들 얼마전에 국영 상점에서 팔던 네모난 재떨이 본 일

이 있니?」

「사기르 만든것 말이니?」

「그래. 왜 네모가 났으면서도 그 모퉁이가 이상하게 비쭈 비쭈 나오게 만든거 말이야!」

「아, 그러구 보니 우리 아버지도 언젠가 하나 사온 걸 본 일이 있어!」

「뭘라구? 너희집에도 그 재떨이가 있어?」

「응 틀림없이 봤어!」

「근데 그게 아직 집에 있니?」

「글쎄다. 그러구 보니 요즘은 보이지 않드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도 도루 갔다 바친거지 뭐 니.」

「야, 야.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니?」

「근데 말이야, 그 재떨이 모양이 아리랑이래?」

「뭐 아리랑?」

「응, 우리 학교에서 오늘 사보청(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 북한의 사회단체의 하나로서 이 청년조직은 공산당 조직, 다음가는 것으로 북한 어느 직장 학교에도 사보청 조직이 있음, 중학교 이상 학생들은 누구나 사보청 맹원이 되어야 하며 조직 생활을 해야 함.) 간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말이야, 거기에서 이 재떨이 회수 문제가 나왔어!」

그러고는 이 학생이 들려준 얘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주을에 있는 요업공장(사기그릇 만든 곳)에서 만든 이 재떨이는 이 공장 기사르 있는 김 길수가 교안하여 만든 것인데, 그 재떨이 형이 남한의 아리랑 담배갑에 그려져 있는 태극 도안과

같은 것이라는 게 발각이 되어 재떨이 회수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북한 공산당에서는 이 재떨이가 남한의 아리랑 담배갑의 도안과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재떨이라고 해서 부랴 부랴 회수하라고 불호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직장에서 사간 이 재떨이는 각 직장의 공산당 조직을 통해 회수하다 보니 쉽게 회수가 되었지만, 때 가정에 흩어진 재떨이는 회수가 잘 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특별히 지시하여 학생들에게 과업을 주어 집에 있는 이 재떨이를 갖다 바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음,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아직 말이 없지?」

「아마 내일쯤 너희 학교에서두 틀림없이 명령이 떨어질 거야.」

「음, 그래? 그 참 재미 있는 일이다. 애」

「뭐가 재미있니? 시끄러운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뿐이지!」

「아니야, 우연의 일치라구 해두 신기한 일이구, 또 그 생각해냈다는 기사가 정말로 남조선의 아리랑 담배갑 도안을 모방했다구 해서 흥미 있는 일이구」

「아니, 너 말하는 소리 좀 이상하구나, 괜이 그러다가 너무 큰 코 다칠테니 단테 가질 아예, 그런 얘기 하지마라, 남조선 좋아한다구 오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글쎄 그전 나두 알지만 말이야, 남조선 담배갑 같은 이야기가 뭐가 어째서 그러니?」

「야야! 너 정말 큰일 나겠다. 너 정 그런식으로 나오면 당에 고발할테다!」

「자식 너희들만은 진정으로 믿구 하는 소리인데, 고발해?」

「글쎄, 네가 하는 소리가 이상해서 그러지 않니, 하여간 오늘

주고받은 얘기는 이것으로 끝난 걸로 할테니 앞으로는 다시 그런 소리 하지마!

「알았어! 판데서야 내가 왜 미쳤다고 그런 소릴 하겠니?」

그날밤 이 학생은 친구들과 헤어지자 곧장 집으로 들어와서 방안을 부지런히 찾아 보았습니다.

혹시 그 문제의 재떨이가 없는가 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찾아 보다가 문득 장농 설함에 눈이 갔습니다.

그것은 부모들만 만지는 설합이어서 이 학생은 한번도 열어 본 일이 없는 곳이었습다.

이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설합을 열고 그 속을 뒤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창수야! 뭘 뒤지고 있니?」

「아, 아무것도 아니예요.」

학생은 흠칫 놀라 설합에서 한 걸음 물러 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 설합은 왜 열어 보는거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콤파스가 없어져서 찾고 있던 중이예요?」

「거짓말 말아, 네 콤파스가 왜 그 장농 속에까지 들어갔겠다고 거짓 뒤지느냐 말이다!」

「알았어요, 안 뒤지면 될게 아니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일했다가 네 아빠가 아시면 큰일예요.」

어머니까지 유별나게 그 설합에 신경을 쓰시는 걸 보니 뭔가 자기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학생의 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 왔습니다.

「지금 오세요, 아버지」

「응, 넌 벌써 왔느냐?」

「예, 전 오늘 일찍 집에 왔는 걸요」

「그래 오늘은 왜 파의 혼편이 없었니?」

「학과 공부가 끝난 후 우리 반 학생들끼리 비판 토론회만 한 시간 하구 돌아 왔어요. 오늘 예정했던 사로청 회의를 내일루 연기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응, 왜 그러니?」

아버지는 부엌에 나가 발을 씻으려고 방문을 열다말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떨이 사진 말이예요!」

「재떨이?」

「그 왜 아리랑과 같다는 재떨이 말이예요!」

「애애, 창수야 너 어디에서 그 말을 들었니?」

아버지는 다시 정색을 하며 되돌아 와 앉더니 짐작한 얼굴을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걸요, 모두 집에 돌아가서 그 재떨이가 있거든 학교에 갔다 바치라구요...」

「음, 그럼 그 재떨이에 얽힌 이야기도 해 주든?」

「구체적 얘기는 없었지만요. 그 재떨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재떨이가 돼서 회수 한다구만 그러던 데요?」

「음, 그래? 그러나 저러나 우리 집엔 그 재떨이가 없으니 상관 할게 없지」

「아버지!」

학생은 한 발자욱 다가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아무말이 없었지만요, 아래층 학생 있잖아요?」

「하식이 말이나?」

「네, 개네, 학교에서는 오늘 그 재떨이 회수 과업이 떨어졌테요. 아마 우리 학교에서는 내일쯤 애기가 있으려나 보지요」

「글쎄,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집에야 없는 걸, 뭐 그리 관심들께 있니, 자 그만 하구 어서 저넝이나 떠자, 아빠두 시장해서 죽겠다」

「아버지! 전 그 재떨이가 우리 집에두 있는 걸 알아요, 그리구 어데 숨겨 놨다는 것 까지두 말예요」

「애, 창수야! 그게 무슨 말이나?」

「아까 혼자 있을 때, 저 설함을 뒤져 봤어요」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

아버지의 얼굴은 빛기를 잃은듯 창백해지더니 한참 동안이나 그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 그것두 봤겠구나?」

「예? 그거라니요?」

이번에는 그 아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숨긴들 뭘 하겠니…그 설함을 다시 한번 뒤져봐라, 제일 밑에 누런 헌점에 싸둔 것 말이다」

어느 틈엔가 그의 어머니도 방에 들어와 물끄러미 부자간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설함속에서 끄집어 낸 것은 다름아닌 태극기였습니다.

「아버지, 이진 이진 무엇이예요?」

「그렇다. 태극기다. 그게 바로 태극기라는 거다」

「아버지, 이려다가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하실려구 이려세요」

「넌 아직 모를거다. 그 태극기에 얽힌 사연을 말이야, 네가 좀 더 큰 다음에. 아니 이 사회가 좀더 밝은 빛을 띠우게 될 때, 애길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안되요, 이려다간 우리 모두 큰일나요. 어서 당에 가서 자백하세요, 예! 아버지!」

그리고는 이 학생은 큰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 했습니다.

「오냐! 그러지 않아도 난 오늘도 당 위원에 불러 갔었단다. 출신 성분이 나쁜데다가 남한 출신이라구 해서 감시를 받아오든 차, 또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니, 그 사고가 나하구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두 당에서는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고 였다구 집중 비판을 하는구나, 아마 내일쯤은 무슨 처벌이 내리겠지, 그러구 우린 저 <아오지>나 어디 탄광 노동자로 쫓겨가게 되겠지……」

애 창수야, 이 아빠가 몹시두 믿지? 나 때문에 너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으니……」

「아, 아버지!」

창수는 와락 아버지 품에 뛰어들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읍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성분이 나쁘다구 대학엘 못가두 좋구 또 아버지 때문에 당의 감시를 받아 두 좋아요……」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자랑을 안구 곳곳이 살아 갈테야요……」

「고맙다. 창수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도 아들의 어깨를 힘껏 끌어 안으며 어두움이 깃든 창 밖



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언제나 말끔히 가셔질지 또 그런 밝은 날이 올 것인지  
를 다시 한 번 가슴에 간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창공에 훨훨 휘날리던 태극기를 생각했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창수 아버지는 감회에 젖은듯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 10. 창광산의 비극

평양시내의 한 북쪽에 「창광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야산이 있

입니다.

아무 것도 보잘 것 없는 정말 자그마한 야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부근에 간부 주택(공산당 간부들이 살고 있는)이 줄지어 있는 지역이어서 이 야산에 미끄럼대, 그네 등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공산당 간부들의 자식들만 뛰어 놀게 했습니다.

물론 일반 평양 시민들의 자식들도 이곳에 와서 놀아도 괜찮게 되어 있지만, 간부 자식들의 눈총 때문에 얼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산에도 66년경 부터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반공호를 여러 군데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린이 공원은 망가지게 되었고,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야산으로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광산 한 북판에서 16세의 소년이 비참하게 총살된 일이 생겼습니다.

1970년 3월 하순의 어느 날, 당시 평양 서문 중학교에 다니던 박호식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창광산」 한 북판에서 총살되기 까지에는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호식 소년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건 이 소년이 열두살 되던 66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갑자기 낮모르는 청년 두 명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그의 아버지 박 찬삼을 붙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아무 죄도없는 날 붙잡아 가려는 거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게 자기를 끌어 가려는 청년들에게 공손하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험상궂게 생긴 이 청년들은,

「뭐라구? 당신 죄를 당신이 몰라?」

하고 쓰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죄라니요?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우린 말이요, 시 사회 안전부에서 나왔는데 당신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을 받고 나왔오! 순순히 우릴 따라 오시오!」

「아니 글썄,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가보면 다 알아! 시끄럽게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하고는 포악스럽게 그 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졸지에 당한 일이라 박 호식 소년과 그 어머니는 옆에서 말한마디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밖으로 끌려 나간 뒤에야 부랴부랴 쫓아 나가면서 안전원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의 옷 소매를 부여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버지!」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요? 당신이 뭇 때문에 이렇게 잡혀 가느냐 말이에요」

이때 잠시 뒤를 돌아 본 그 아버지는 체념이라도 한듯이,

「별일이 아닐걸요, 너무 걱정마오, 잠시 내가 없는 동안이라도 호식을 잘 돌봐 주오」

「안돼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안전원들은 울며 매달리는 어머니와 소년을 사정없이 뿌리치고 그 아버지를 끌고 가고야 말았습니다.

안전원들에게 끌리워 찬 그의 부친은 열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이 지나도 돌아 올줄 몰랐습니다.

두손 「죄」를 지었질때, 이토록 오래동안 돌아오지 못하는지 호  
식은 생각할 수록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답답해서 어머니에게 매달려 어째서 아버지가 돌아 오지  
않느냐고 물어봐도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 대답도 해주  
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그의 부친을 끌고갔던 안전원들이 또 다시  
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여봐요, 혹시 그 동안 낯선 사람이 이집에 다녀가지 않았소?」

「낯선 사람이라니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맥 없이 대답하면서도 혹시나 호식의 부친 소식이라도  
알까해서,

「여보시오, 안전원 동무들! 이 애 아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째서 금방 돌아 온다구 했는데도 석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전가요?」라고 애원하다 싶어 물어 봤습니다.

「흥! 그 따위 반동놈 말이야! 여봐 당신 남편이 무슨 일을 했  
는지 알아! 우리 당을 반대하는 종파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것  
두 두목 노릇을 했거든…… 서평양 철도 공장 노동자들에게 우리  
당 정책을 비방하면서 「반혁명 활동」을 하려다 적발된 거야! 알  
겠나?」

「그럴리가, 그럴리가 없어요? 애 아빠가 그럴리는 절대로 없  
어요!」

「흥, 본인 입으로 모든 걸 자백했단 말이야! 같이 당을 반대하  
는 반혁명 행위를 하던 사람들의 이름도 다 붙였어! 그 수가 얼  
마나 되는지 알아. 열 두명이나 돼! 당신 남편은 그 우두머리였  
단 말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꺼예요. 뭔가 잘못 되었을 겁니다」

「시끄러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 남편은 반혁명 분자로 처단 될거야? 그렇게 되면 그날루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추방 될테니 준비나 하구 있어…… 그리구 말이야, 그동안이래두 낯선 사람이 찾아 오면 즉각 우리한테 알리란 말이야! 알겠어? 당신이나 이 꼬마가 목숨을 건지려면 우리 말대로 잘 해야 했! 알아 들었어?」

그리고는 문을 광하고 달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호식아, 이 일을 어째면 종단 말이나! 네. 아빠가…혹혹」

어머니는 아들을 힘 있게 부들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아빠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는구나,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 가야지?…후, 후」  
서평양 철도공장 기사(技師)로 있던 그의 부친 박 찬삼은 드디어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공산당의 독재 횡포에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철도공장 노동자들에게 털어 놓았다는 것이 결국 목숨까지 빼앗기게 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식이 어머니는 너무나 큰 충격에 못이겨 그대로 자리에 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일 주일도 못되어 그의 어머니마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줄지에 호식은 코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목놓아 울기만 하던 호식은 무턱대고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해…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거야…)

어린 소년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모든 일까지 공산당의 감시와 조직이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북녘 땅에서 원수를 갚는다는 일이 쉽게 풀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식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무턱대고 여기저기 헤메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도 안나가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반겨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방향없이 헤메게 했습니다.

지금쯤 집에는 안전원들이 몇번이나 다녀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마저 툭기게 되면 용서없이 소년 노동 교양소로 끌려



잘게 썬 노릇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 소년이 당도한 곳이 「창관산」에 있는 방공호였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도 심하지 않고 또 어린이 노리터로 쓰여지던 곳이라 감시의 눈도 심하지 않아 숨어 있기에는 안정 마춤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소년은 방공호 속을 거점 삼아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먹는 일이 제일 곤란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썬은 어디 가서 훔쳐 먹을 수 있다해도 계속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식이는 「창관산」에 눌러나오는 공산당 간부의 자식들을 하나 둘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은 자기가 있는 방공호 속으로 끌어들이고 지고는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자기의 패거리에 가담시키곤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자기보다 한 두살 아래이거나 같은 또래 애들이었습니다.

「임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말 앓듣구 까블테야?」

호식이는 제법 위엄을 보이며 애들에게 위협 공갈을 하곤 하였습니다.

「애! 넌 학교두 안가니? 집두 없니? 우리더러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집은 바로 이 방공호 속이다!…… 그리구 난 목숨 같은거 이디 던진 애니까 알아서들 해! 괜히 까블거나 고자질하면 아주 죽여 버릴테다…」

「그렇치만… 네 부모가 알면 걱정 안하겠니?」

「부모……? 흥, 내 부모는 모두 죽었던 말이야!…… 누가 죽었는지 알아?…… 누가 죽었는지 아는가 말이야!…」

이 소년에 포섭된 7, 8명의 애들은 모두가 공산당 간부의 자식이면서도 감히 고자질을 못하고 그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사정없이 대했고, 심지어는 고추 가루를 눈에 부어넣는 등의 심한 「고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방공호 속에는 부엌 칼, 도끼, 낫 등 10여개의 무기(?)를 갖추게 되었고 이것으로 부모의 복수를 하리라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산당 간부의 자식들을 골려준다는 것 만으로도 무슨 복수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 소년의 비밀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의 고자질인지는 몰라도 이 사실이 공산당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어느 날 안전원 등 셋이 이 방공호에 들어 닥쳤습니다.

「이놈! 죽일 놈 같으니…… 네 놈이 여기에서 무슨 음모를 꾸민다구?!… 이 나쁜 놈…」

그리고는 막무가내고 걷어차고 머리를 쥐어 박는 등 심하게 매질을 하고 나서는 손목을 묶어 가지고 안전부로 끌고 갔습니다.

며칠 뒤 박호식 소년은 바로 그 창광산 부근 중학교 학생들을 전원 집합시켜 놓은 앞에서 공개 총살되고 말았습니다.

총살 형을 집행하기 직전, 그에게 한 마디 물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이 소년은 거기 모인 많은 학생, 시민들 앞에서 금조도 굵힐줄

모르는 위엄을 보이면서 16세의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게 또랑 또랑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는게 한일 뿐이다!……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수는 다름아닌 공산당이다. 우리 아버지가 똥을 어떻게 했길래…… 아무 죄도 없는 아버지를 끌어가고 어머니를 병들어 죽게 하고 나를 고아로 만들게 한 공산당이야말로 천벌을 받아야 할 죄인 이다!

왜? 왜? 행복한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날 거리에 방황하게 한겁니까?

난 이 날부터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찾아 헤멧다…… 그러나 이렇게 원수도 갚기 전에 나까지 억울하게 죽어 간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하면 반드시 딴 사람이 기여히 내 원수를 갚아 주리라 믿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전원들은 소년의 가슴에 총을 쏘아 댔습니다.

「으윽!」

소년은 폭 하고 앞으로 쏠려 졌습니다.

거기 모였던 군중들은 모두 얼굴을 옆으로 돌려 그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죄없이 죽어간 이 소년이나 그리고 그 부모의 사무친 한을 풀어줄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 11. 억울한 누명

1970년 9월 초, 함경남도 오로군 군 당위원회 군당 책임 비서(군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실에서는 때아닌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읍니다.

오로군 군당 책임 비서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거기 모인 간부들에게 벼락같은 고향을 지르고 있었읍니다.

「아니 그래……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이런 사실이 중앙당에라도 알려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요? 여보 안전부장! 어떻게 됐오? 아무 단서도 못 잡았오?」

「예, 면목 없읍니다. 아직은 아무 단서도……」

「닥치시오! 그런 큰 사건이 일어 났는데도 당신네 안전부에서는 뭣들 하고 있었나 말이오. 오늘중으로 그 범인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동무는 용서할 수 없는 줄 아시오. 빨리들 나가 범인을 잡아 오란 말이요!」

군당 책임비서의 명령은 준엄했읍니다.

문제의 사건은 오로군에서 하루 밤 사이에 45개소의 고정 게시판에 써 부쳤던 김일성에 대한 구호가 먹으로 지워진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북녘 땅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이나 학교, 공장 농촌 할것없이 「김일성 만세」라는 구호가 수 없이 붙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만세」라고 써붙친 구호판이 먹으로 지워져 있었으니 김일성 우상화가 판을 치고 있는 북녘 땅에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읍니다.

그것도 내 사방 50리가 넘는 오로군 일대에 설치해 놓은 고정 게시판 45개소에서 하루 밤 사이에 일제히 똑 같은 수법으로 「김일성 만세」를 먹으로 지워진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장난이 아니라 수십 명, 아니면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미리 계획적으로 꾸며진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

며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음! 이전 한 두명의 소행이 아니요. 마흔 다섯개나 되는 계시관을 모두 그 모양을 만들었으니 이전 필경 어떤 조직된 반동 분자들의 소행이 틀림없소. …… 이봐 안전부장 동무! 아무래도 이 사건의 범인을 잡아 내자면 학교 소년단에 연락해서 애들을 동원시키는 수 밖에 없소」

「예, 그러지 않아도 각 학교에다 수업을 중단하고 전체 소년단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고 오는 길입니다」

「뭐라구? 벌써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구?… 여보! 어째서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구 동무 혼자 멋대루 그때위 지시를 하는 거요…알겠어? 이 사건은 극히 비밀리에 진행시켜야지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다가 소문이 짝 퍼질게 아니냐 말이야!」

「군당 비서 동지! 이 사건은 이미 군내 인민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범인을 잡아 빌려면 비밀이 움직여야 빨리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자 학교 소년단에서도 믿을만한 애들을 선발해서 특별히 교양을 해 주고 범인 잡기에 동원시켜야 한단 말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서 동지!」

그후 수 백명의 어린 학생들을 동원시켜 이른바 「범인」을 잡아 내게 하고 군 안전부는 전체 안전원을 동원시켜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범인」들의 운곽조차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당 책임 비서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는 걸…… 왜 하필이면 이런 사건이 우리 군내에서 터

진담! 에잇 망할 것……)

이때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네, 오로군당 책임비서입니다」

「당신이요? 난 도당 책임 비서인데……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왜 그런 큰 사건이 생겼는데도 보고 조차 하지 않소」

「아, 네, 도당 책임비서 동지! 곧 사태 전모를 조사해서 보고  
드릴려고 하던 참입니다」

「뭣이라구?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따위로 흐리멍덩하게 일하는  
거요, 하여간 책임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루 하구…… 그래 범인은  
잡았소?」

「네……아……저 아직……」

못잡았단 말이군, 그럴줄 알았오…… 그따위로 일을 하니 그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말이야! 도에서 안전원 2백명을  
런 급히 보낼테니 함께 빨리 범인들을 찾아내란 말이요, 알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후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범인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그 범인이 한 두명두 아닐텐데 어째  
한 놈도 걸러들질 안느냐 말이야… 아무래두 비상 수단을 써야겠  
군)

군당 책임 비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군내 인민학교와 중학교  
교장들을 급히 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에… 오늘 교장 동무들을 급히 오라구 한전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란 것이 밝혀지고 있  
소…… 그래서 어린이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돌리고 그만둘까도

생각해 봤는데, 이미 도당에서도 알고 있고 또 문제의 성격으로 보아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요…… 그래서……」

군당 책임 비서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교장들의 얼굴을 유심히 노려 보고나서 말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범인들을 붙들어 와도 좋겠지만 다른 애들에게 영향이 미쳐서는 안되겠기에 교장 동무들을 부른거요……」

그러니 동무들은 제 자기 동무의 학교 애들중 범인을 찾아 내어 급히 나한테 보고 하란 말이요! 내말 알아 들겠소?」

교장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범인들이 학생 애들이라니……)

도무지 믿어 지지가 않았고 또 설혹 애들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나 하교들 어안이 병병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들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소……동무 네들이 찾아내지 못하겠다는 거요? 우리가 조사한 정보에 의하면 범인들은 대부분 가정 출신 성분이 나쁜 집 애들이란 말이요…… 가령 그 집의 친척중 누가 월남한 사람이 있거나 6.25때 치안대에 가담했거나, 우리 당에서 처벌받은 자의 자식들이란 말이요…… 자 이쯤 얘기했으면 동무네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짐작이 갈줄아오…」

이때 어느 교장 한 사람이 군당 비서에게 물어 왔습니다.

「책임 비서 동지! 이왕 범인의 윤곽을 알아 냈으면 그 명단까지 알려 주십시오…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돌아가서 그네들을 모두 붙들어 이리로 보내겠습니다」

「이봐요 교장 동무! 우리 입으로 꼭 이름을 밝혀야 하겠소……  
그것 보다두 동무네들이 직접 찾아 내는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소…… 또 동무네들도 당을 위해 훌륭한 공을 세우는 기회가  
되구 말이요……알겠소?」

그래두 교장 선생들은 군당 책임 비서의 참 뜻이 어찌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따지구 보면 모든 일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군당 책임비서는 억지로라도 「범인」을 만들어 내어 자기의 책임  
을 면해 보려는 속셈이 너무나 빨리 들여다 보였읍니다.

「자 빨리들 돌아가서 내일중으로 범인을 찾아내어 보고 하시오.  
이전 동무들에게 주는 당적 명령이요. 알아 듣겠소?」

교장 선생들은 당적 명령이라는 바람에 감히 반대도 하지 못하  
고 일단 학교로 돌아 왔읍니다.

(자 이일을 어쩔담…… 우리 학교 애들중 그런 애들이 있을까?…  
음 있을지도 모르지…… 진짜 군당 책임 비서가 말했듯이 성분이  
나쁜 가정의 애들이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누가  
했는지를 어떻게 가려낼담)

교장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에 잠겨 여러 선생님들과도 의논을 했  
읍니다.

그러나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를 았았읍니다.

그 다음 날 안전원들이 떼를지어 각 학교 교장실로 찾아 갔읍  
니다.

「군당 책임 비서께서 당적 과업을 받은 일이 있지요?」

안전원들은 교장실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호령을 치는 것이었읍  
니다.

「예, 받긴 받았읍니다만……」



「아직 못찾아 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을 도와주세요」

「글쎄……그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설사 있다해도 어떻게 찾아 내겠습니까?」

「뭐요? 그걸 말이라구 하시요? 소년단 지도원 선생을 불러서 학생들의 동태 조사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요」

잠시후 소년단 지도원 선생이 전체 학생들의 출신 성분, 사상 동태 등을 기록한 명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전원들은 그것을 하나 하나 뒤져 가면서 필요한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다 적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약 두어 시간이 지난 뒤 안전원들은 십여명의 학생 명단을 교장 앞에 제시하면서

「이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갈 터이니 교장실로 불러 주시요」

「아니 이 학생들이 범인이란 말입니까?」

교장은 놀라서 안전원들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밝힐테니까 교장 동무는 이 학생들을 불러만 주면 되는거요…… 교장 동무가 직접 이 학생들을 찾아내어 우리에게 인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거요 알겠소?」

「글쎄 그렇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떻게 애들을 붙들어 가겠다는 겁니까?」

「뭐요? 증거는 이미 우리가 쥐고 있단 말이요…… 교장 동무도 정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뒤가 재미 없다는 걸 명심 하시요……」

교장 선생은 모든 걸 체념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하고 실갱이를 해보야 통할 리가 없는 것이구, 또 당에서 하는 일을 반대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쯤 너무 잘 알고 있었

입니다.

그후 안전원에게 끌려간 학생들의 소식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잡혀가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지 아니면 흑심한 고문에 못이겨 범인이라고 실토를 했는지 역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뒤 군 당 책임 비서는 범인을 모두 잡았다고 도에 보고했고, 또 도 당은 중앙 당에 보고하여 이른바 범인 찾는 공로로 높이 치하 받았다는 사실 뿐입니다.

## 12. 토끼 사냥과 소년의 죽음

평안남도 대동군 덕촌리라는 곳에 산림이 우거진 바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흔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산인데 이 부근에는 유별나게 경비원이 산 기슭 곳곳에 배치되어 스물 네시간을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로 꽃을 피웠는데 경비원이 산을 지키는 것은 그 산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란느니, 아마도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란느니, 여러 가지 말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그것은 바로 김일성을 위해 그 산을 김 일성 전용 사냥터로 지정한 까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누구하나 이 바위산에 대해서 얘길

할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히 잘못하다간 김 일성을 모독했느니, 어찌니 하면서 큰 난리를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걸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바위산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어떤 데서 기인된 것인지는 몰라도 이 산이 바위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수풀만이 우거졌지 별로 바위는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일성이가 유독 이곳을 자기의 사냥 지구로 설정한 것은 무엇 보다도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과 또 그 부근에서 잡은 꿩은 유난히 맛이 좋다고 하는 데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그냥 돌아가는 얘기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무튼 일요일이면 틈틈히 김 일성이가 이곳 바위산에 와서 사냥을 한다는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산 주위에는 항상 경비원이 들끓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길은 김 일성이가 잘 다니도록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하는 방법이 아주 기묘해서 멀지감차에서 이 광경을 바라다 본 동네 주민들은 저마다 수근대고 있었습니다.

「수상 동지, 사냥하는 걸 봤어?」

「그래, 난 한 달전에 한 번 봤지! 그런데 말이 그렇지 어디 가까이 가게 해야 똑똑히 보지」

「그러게 말이야, 수상 동지가 뛰어 다니면서 토끼나 꿩을 사냥하는 걸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되야지」

「그러면서두 뭘 봤다는 거야?」

「음, 찢차 지나가는 걸 봤지!」

「그거야 달리는 차를 본거지 어디 수상 동지 사냥하는 걸 본 건가?」

「근데 말이야 그게 그렇지가 않드라구」

「뭐가 그렇지 않아?」

「가만 내말 좀 들어보게. 수상 동지가 이 곳에 사냥하러 올 때는 반드시 지프차 타고 오지?」

「응 그래, 나두 몇 번 봤지만 그 뭐라드라……그렇지 「69년형」(조선제) 지프차 타고 왔어!」

「그거야! 바로 그거란 말야, 내가 알기엔 수상 동지는 지프차를 타고 사냥을 하는 것 같애」

「으…응 그럴라구? 아무리 그래두 지프차를 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냥을 해?」

「그런데 그게 사실이드란 말야」

이러한 얘기를 주고 받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 일성은 이 바위산에 와서 사냥을 할 때에는 절대로 지프차에서 내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참 지프차로 이곳 저곳을 달리다가 토끼나 꿩을 발견하면 지프차를 멈추게 하고는 잠깐 내려서 총을 쏘 다음 또다시 쏘살같이 차에 올라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괴상한 사냥 방법은 바로 김 일성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군간에 와서 김 일성은 지방에 시찰차 나타날 때 마다, 김 일성 초상화가 찢어 지거나 김일성 만세라고 써 부친 구호가 지워지거나, 그 지방의 공장, 농장등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가 여하튼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70년 10월 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기 호위병 5명과 함께 새벽부터 평안남도 강서군, 용강군, 남포시 등 세개 지역을 돌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어느 곳에서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 일성이 미리 예고하고 지방에 시찰 나갈 때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예고하지 않고 나갈 때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알게 된 김 일성은 자기의 측근자들을 불러 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호통을 쳐보았지만 김 일성 자신도 내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사냥터에 나와 사냥을 하면서도 혹시 누가 불의에 해치지 않을까 하고 지프차를 그대로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괴상한 사냥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그렇게 경비원들이 깔려있고, 또 수십명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고 있으나 김 일성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만큼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이 바위산에 나와 사냥을 하던 김 일성은 산 중턱에서 어떤 경비원이 11세 난 인민학교 어린이 한 명을 붙들고 때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를 세우게 한 김 일성은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애 누구냐?」

「네, 수상 동지! 이 산속에서 우물거리기에 당장 잡아 가지고 내려 오는 길입니다」

경비원은 차렷 자세를 취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온 몸을 후들후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뭐타구? 여기가 어디라구 함부로 들락날락 했!」

「저희를 잘못입니다. 수상 동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빨히 주의하겠습니다」

「그애는 어디 사는 앤데?」

「네. 요아래 덕초리 윗 부락이랍니다」

「그애 부모들이 있나?」

「네, 모두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 집안을 철저히 조사해 봤!…… 에잇 재수없다…이봐 오늘은 사냥 이만 할테니 빨리 돌아 가자구」

호위병들은 일제히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다시 평양으로 되돌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뒤 평안남도 대동군 사회 안전부에서 문제의 소년과 그 부모들을 체포해간 것은 김일성이 다녀간 몇 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놈아! 너 그 산에 뭇하러 올라갔었나? 엉」

안전부의 책임자인 군 안전 부장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교 갔다오는 길에 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걸 잡으러 쫓아가다 보니 그 산속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아저씨 전 아무 나쁜 짓도 안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말아! 토끼를 잡으러 갔다구? 요놈의 꼬마 녀석이 보통이 아니구나… 응… 누가 시켜서 들어갔었어? 엉」

「아니예요, 정말이에요」

「너 정 그렇게 거짓말만 하다간 혼날줄 알아라! 응 요놈아!」

하고는 발길로 그 소년의 배를 사정없이 걸어차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아이쿠!」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폭 하고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부모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아이쿠 안전 부장 동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애가 무  
얼 잘못했다구 이렇게 매리는 겁니까?」

하면서 쓰러진 아들에게로 달려가 끌어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전 부장은 더욱 험악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그 애에게 손대지 말고 이 쪽에 끌어 앉으란 말이야!」

그리고는 한발 앞으로 다가서면서

「당신 네들이 이 애보구 시켰지? 그 산에 들어 가라구?」

「예? 우리가 시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뭇 때문에 우리 애  
혼 그 산속에 들어 가라구 시킵니까?」

「알게 뭐냐 말이야! 우리 수상 동지를 해치려고 무슨 음모를  
꾸렸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다!」

「천, 천만의 말씀이외다……수상 동지를 해치려 하다니요……그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면 뭐야! 왜 그 애를 산속에 숨어 있으라구 시켰느냐 말  
이야!」

「글쎄, 백번 얘기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뭇 때문에 그  
산에 들어가라구 저 애더러 시키겠습니까? 글쎄 생각해 보십시  
요… 설혹 수상 동질 해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꼬마 애한  
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요……」

「뭐라구요? 설혹 해칠 생각이 있더라도?…… 음 이제 점점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군… 틀림없이 무슨 음모가 있는게 확  
실히… 이봐 동무들! 이 놈들을 지하실에 끌고가서 그 음모가  
어떤 것인지 실토케 하란 말이야! 알겠어?」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옆에 섰던 안전원들은 땅 바닥에 쓰러진 소년과 그 부모들을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뒤 이들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동군 덕촌리 윗 부락에서도 이들이 끌려간 뒤로는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이 없습니다.

### 13. 가사 바꾸어진 소년단 노래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곧잘 부르는 노래 중에 「삐오네르」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삐오네르」라는 말은 소련 말로 소년단이라는 뜻인데 북한의 소년단들도 곧잘 「삐오네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삐오네르」라는 원 뜻은 선구자, 또는 선봉대라는 뜻으로 영어에서의 「파이어니어」와 같은 말입니다.

노어에도 「외래어」라는 것이 많아서 영어나 불어, 희랍어 등의 어원을 그대로 쓰는 말이 많습니다.

「삐오네르」라는 말도 그런 외래어의 일종인데 소련에서는 선구자라는 뜻 뿐아니라 소년단을 가리켜도 「삐오네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소년단을 「삐오네르」라고도 하며 소년단의 노래를 「삐오네르」라고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삐오네르」가 즉 소년단의 노래는 가장 많이 부르



는 노래의 하나로서 북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 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산토끼」 노래만큼이나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평안북도 선천군 일대에서 이 「빼오네르」가를 괴상하게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것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사를 고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북녘 어린이들은 선생들 몰래 그 노래를 고쳐진 가사대로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선 그 노래의 가사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빼오네르」가의 본 가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동무 새 동무 힘차게 가자  
우리들은 나어린 「빼오네르」다  
원수님의 은혜로 자라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꽃 봉오리들」

(여기에서 「원수님」이란 김 일성을 가리킴)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이 둔갑이 되어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 동무 새 동무 빼다구동무  
우리들은 나어린, 불쌍한 동무  
우물쭈물 하다가 불타 죽는다  
골목 골목 모여서 피난 잡시다」

이 가사에서 북녘 어린이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그대로 실감있게 그려 내고 있으며 북녘 어린이들도 오히려 이런 가사가 마음에 들었던지 급속히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안북도 선천군 일대에서만 몰래 불러 오다가 어느덧 신의주, 용천, 정주등 각지로 퍼져 나갔고 평양에서까지 이런 가사로 부르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김 일성 일당의 귀에 안들어 갈리 없었습니다.

노발 대발한 김 일성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놓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을 밝혀내고 엄중히 처단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에서는 그 범인을 찾아내며 어떻게 해서 그런 노래가 유행되었는가를 밝혀 내기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 도당 위원회에서는 150여명의 안전원을 선천군에 파견하여 선천군 사회 안전부 안전원들과 합세, 그 진상을 캐려고 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체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원들을 선천 중학교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가면서 실마리를 잡으려고 발악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교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학교장은 연단에 올라가 심중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동무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군 당위원회에서 파견된 「지도 구루빠」(조사단)가 와 있습니다.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떠돌기 시작한 이상한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파헤치고 그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는 거요…… 그러니 학생 동무들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기 바라요… 이것이 여러 학생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소」

그 후부터 안전원들은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학생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출처를 밝히려고 여러 가지로 따지며 캐고 있었읍니다.

「학생은 이 노래 언제 불렀소!」

「무슨 노래 말인가요?」

「몰라서 물어? <삐오네르>가지 무슨 노래야」

「아, 예 그 노래야 뭐 노상 부르고 있는테요」

「그런 뜻이 아니라 괴상한 가사로 언제 불렀느냐 말이야」

「그런 가사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전 아직 그 가사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테요?」

「모른체 하지마라…… 지금 이 학교 학생치고 그 괴상한 가사를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 영!」

「글쎄요 전 모른테두요」

「근데 동무 왜 요즘 성적이 나쁜가?」

「요즘만 그런가요? 전 본래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애써 봐도 그 이상 안됩니다」

「학교 사업에 충실하지 않구 딴 짓을 하니가 그렇지 영!」

「딴 짓이라니요? 꼬마 5개년 계획두 미쳐 달성하지 못하는데 딴 짓할 겨를이 있나요?」

「음… 정말 모른단 말이지?」

「글쎄 전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좋아 가봐?」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수 백명의 학생을 심문해 봤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와 있는 안전원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달이 지나도 실마리하나 못 잡겠는데요」

「글쎄 말이요... 무슨 다른 수를 써야 할 것 같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나요?」

이때 그 안전원들의 책임자인 듯한 자가 불쑥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몇몇 열성 학생들을 특별 교양해서 비밀히 잡아 놓고 우리는 일단 이 학교에서 철수하는 것 처럼 합시다... 그러면 다시 그 노래를 부를 학생이 생기지 않겠소... 그때 진짜 범인을 잡아 내도록 해 봅시다」

그래서 이들 안전원들은 몇몇 열성 학생들을 따로 불러다 놓고 비밀 지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교에서의 조사가 끝났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모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얼마간의 시일이 경과해도 안전원들이 풀어놓은 피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날뛰어 봐도 그 피상한 노래의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골목 골목에서는 북피 풍산당의 처사를 비웃기라도 하는듯이 여전히 그 피상한 노래 소리는 간간히 들리워 왔습니다.

「어깨 동무 새 동무, 뼈다구 동무

우리들은 나어린 불쌍한 동무

.....」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걸음은 재촉하는 일반 주민들도 누구하나 그런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을 고발하려 하지 않았고 점차 어른들 사이에도 그 노래 가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온 북녘 주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가사인지도 모릅니다.

## 14. 사과에 얽힌 이야기

우리 나라는 남이나 북이나 할 것없이 사과 나무 생산에 적당한 기온과 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대구 사과나 황주 사과는 해외 시장에서도 그 품질이 뛰어날 만큼 맛이좋은 사과들이 많이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사과인데도 일년 내내 사과 한낱 구경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녘 땅인 것입니다.

그것은 북녘 땅에 사과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품질이 좋지못한 탓도 아닙니다.

오히려 북녘 땅에도 함경남도 북청을 비롯해서 오로, 단천, 나남, 그리고 황해도의 황주, 안악, 송화, 은율, 해주, 신천, 평안도의 신의주, 숙천, 정주, 중화등등 과일이 생산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녘 주민들이 1년 내내 사과 구경을 못한다는 것은 뭘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대부분이 소련이나 중공으로 수출되고, 그 나머지 얼마되지 않는 과일마저 북한 공산당의 고위층과 간부들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과를 한창 수확할 때의 가을 철에도 구경할 수 없다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서는 이 사과에 얽힌 기막힌 얘기가 많고 그로 인해 큰 봉변을 당하는 예도 허다합니다.

하도 사과가 먹고 싶어서 어느 「국영 과수 농장」(북한에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과 나무도 일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에 몰래 침입해 들어갔다가 경비원에 들켜게 되어 말썽이 나는 사건은 흔한 일이고 또 과수 농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자기 애플에게 즐려고 몰래 사과 몇 알을 감추고 나오다가 발각이되어 봉변을 당하는 일등 사과와 관련된 사건은 꼬질 사이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과 몇 알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끝내는 총살까지 당하는 예는 아마 이 세상에서도 북녘 땅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1966년 11월 초 국경 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때 신의주 역에서는 한창 소련으로 수출하는 사과를 실은 화물차가 매일처럼 들어닥치고 있을 때입니다.

북괴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약 65%를 소련에 그리고 20%를 중공에 또 약 5%를 동구 공산 국가에 수출하고 나머지 10%가량이 북한에서 소비되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공산당 간부들에게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짹짹 굽어서 소련이나 중공에 수출한 대가는 바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기타 군수 물자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 수출이 시작되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신의주 역은 온통 이 사과 수출 때문에 붐비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주를 통해 압록강을 넘어서면 중공인데 열차로 실어나르자면 소련도 신의주에서 중공 땅을 거쳐 소련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신의주역이 붐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소련측에서는 북한에서 검사해 보내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직접 소련 검사원들이 신의주까지 나와서 사과 수출이 끝날 때까지 매 차량마다 일일이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소련 검사원이 불합격 딱지라도 놓으면 그 사과 상자는 신의주에서 부러 봐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이런 불합격 품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6년 11월초의 어느 날 사과 상자를 잔뜩 실은 30여개의 차량중에서 한 개 차량의 사과 상자가 몽땅 불합격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개 차량에 보통 5백 상자에서 많을 때는 8백 상자까지 실기 때문에 한 개 차량이 몽땅 불합격된다해도 그 수량은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무자들은 소련 검사원에게 갖은 아부들 다 하면서 사정해 보았지만 일단 불합격 딱지를 놓은 것을 좀체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약 5백 상자의 사과상자가 신의주 역 옆에 있는 공터에 내리 놓았습니다.

신의주 역에는 그걸 간수할만한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밖에 쌓아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과는 아무리 불합격이 된것이라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좀체

로 구경할 수 없는 좋은 사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평양에 올라가자마자 수출이 끝나는데로 불합격된 사과는 도로 평양으로 가져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아마도 김일성이나 그 측근자들이 먹을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신의주시대의 계구장 아들에게는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애, 애, 그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그 왜 불합격된 사과 상자말이야?」

「응, 그 얘긴 들었어!」

「근데, 애, 거기에 사과가 그득하겠지?」

「자식! 사과 상자에 사과가 있지 았구 뭐가 있겠니?」

「아냐, 말만 해두 군침이 당겨서 그래, ...아이우...그놈의 사과 좀 실컷 먹어 볼 수 없나!?!」

「애, 애, 먹지도 못하는 감나무 쳐다보지두 말랬어...」

「글쎄, 그래두 애...산뎀미 처럼 쌓여 있는 걸 보구두 못먹으니 더 안타깝지 았어?」

「흥! 그게 네 차례까지 돌아올줄 알아 어림두 없다 애...며칠 있으면 도루 평양으로 가져 간대드라 애」

「뭐? 도루 가져가!」

「그렇지 았구...그걸 뭐 우리 신의주 사람들에게 줄줄 알았어?」

「그거야 그렇지만...」

만나는 애들마다 이러한 대화로 어디서나 그 불합격된 사과 얘기로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언젠가 한번은 (62년도로 기억하고 있음) 불합격된 사과를 도루 평양까지 실어오자면 또 그 만큼 수송료가



필요하겠으니 그냥 신의주 시민들에게 공급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봐야 역시 신의주의 공산당 간부들이 대부분 찾아왔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된 노릇인지 불합격 품이 나와도 도로 평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하는 희망같은 것이 아직도 신의주 시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의주 해방 중학교 2학년 학생 손길영과 몇몇 친구들이 밤늦게 어느 골목 안에서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아! 내 말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만, 경비원이 있다면서!」

「응! 두 명이 밤새 교대로 서고 있는데 말이야 언제나 오른쪽 움푹한 곳에 앉아 가끔 출기도 한단 말이야」

이들은 지금 신의주 역 옆에 쌓아둔 불합격된 사과 상자에서 사과를 훔치자는 모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제 밤에두, 나 혼자 슬금슬금 그 쪽에 가보니까, 그 현장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니?」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문제야! 상자채로 들구 나온다는 건 발각될 우려가 많구 또 요행이 빠져 나온다 하더라도 후에 상자가 없어진 걸 알면 반드시 난리가 날거구 말이야…」

「그렇담, 상자는 그냥 놔두고 사과 알만 빼내오면 되잖니?」

「응 바로 그거야, 나두 그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빼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야」

「틸레이식으로 하면 되잖니?」



「릴레이식?」

「응, 한 사람이 상자 위에 올라가서 뚜껑을 살짝 뜯고, 사과 한 알 씩 꺼내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던지구. 또 그 친구는 보자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던지구...뭐 이런 식이지」

「응 그거 좋은 수다...그러나 그게 잘 될가?」

「해 보는 거지 뭐! 재수가 없어 들키드래두 말이야, 그까짓 사과 몇알 훔쳐먹었다구 죽이기야 하겠니? 비판 좀 하면 그만이겠지!」

「좋아, 해보자」

그 날 밤, 자정이 가까워서 이들은 신의주 역 쪽으로 다가 갔습니다.

손 영길의 말대로 밖에 쌓아 둔 사과 상자더미 있는 데 까지 접근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비원이 서 있는 반대 쪽으로 가서 재빨리 한 학생이 상자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 위치에 가 있었읍니다.

얼마후 사과는 한 알. 두 알씩 릴레이식으로 날아 왔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약 50개의 사과를 훔쳐 내어 이들은 다시 골목에 와서 배가 터져라 하고 그 사과를 먹어 뒀습니다.

일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무 일 없이 무사했겠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먹어보는 사과 맛을 잊을 수 없었던지 매일처럼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 친구들을 이 일에 끌어들이 마지막에는 20여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밤에도 수 백알의 사과가 이들의 손에 의해 훔쳐 나오는데도 어떻게나 교묘히 했던지 밖에 쌓아 둔 사과 상자는 걸로 보아서 아무 이상이 없게 해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거듭하면 이력이 난다는 격으로 이들의 수법도 갈수록 능란해 졌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의 발각을 예견해서 사과 알을 빼낸 상자에는 그 중량만큼의 돌을 넣어서 감쪽같이 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사과 도난은 그 상자를 도로 평양으로 가져갈 때 까지 했으니까 20여일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과를 훔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쌓아두었던 상자의 3분의 2이상이 훔났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일이 끝났어도 또 문제는 시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불합격된 사과 상자를 몽땅 「내각 사무국」으로 보내라는 명령에 따라 5백여 상자가 평양 한 복판에 있는 내각 사무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내각 사무국이란 김 일성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김 일성의 비서(북에서는 참사라고 함)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서 김 일성이나

복피 교위층들의 치증을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과 상자는 드디어 김 일성을 비롯해서 부수상들 각 상(장관)들 그리고 기타 교위층 집으로 나누어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 사과 상자속에는 사과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맹이가 잔뜩 들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김 일성 일당은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장난을 한 범인을 체포하라고 불호령이 내려졌습니다.

복피 사회 안전성에서는 모든 일을 제치고 이 범인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것이 신의주에서 쌓아두었던 때에 생긴 사고라는 것과 누가 일부러 사과를 훔치고 그 속에 돌을 넣으므로서 김 일성을 모독하기 위한 반역 행위를 한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사태는 이외에도 심각하게 번졌습니다.

어떤 실수라도 그것이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저질렀다고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몇달후 손 영길등을 비롯한 관련자 학생 모두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들도 사회 안전부에 끌리어가서 얼마나 혹심한 고문을 당하였는가는, 그 주모자인 손 영길을 신의주에서 공개 총살할 때 낭독된 범죄 사실입니다.

소위 「김 일성을 반대해서 저지른 가장 악질적인 반역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이지만 한 두 사과가 먹고 싶어 그것을 훔쳐먹었기로서나 총살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북녘 땅에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손 영길같은 학생이 사과 훔친 죄로 총살까지 당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김 일성 독재 학정이 빚은 정말 무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15. 방화 사건과 어느 교원

1970년 12월중순. 황해남도 태탄군 태탄읍 태탄 협동농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일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당(里黨)사무실이 타기 시작하였는데 때 마침 모진 겨울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 옆에 붙은 농장 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창고 3동이 몽땅 타버렸습니다.

파재 사건이야 어디서건 흔히 있는 일이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그 피해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화재사건이 어떤 과실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 일부러 방화했느냐에 따라 사태는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탄 협동농장의 화재 사건도 결국 누가 고의적으로 지른 방화 사건이라는 데서 그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나갔던 것입니다.

태탄군 사회 안전부에서는 이 화재 사건을 둘러싸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조사할 생각은 하지않고 누가 지른 방화사건

인가 하는 문제부터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방화범(放火犯)을 잡아내야 자기들 책임이 없어진다는 데서 더욱 방화범 찾기에 눈이 벌겍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회 안전부에서는 방화 혐의자로 태탄 농업고등학교 교원 전 명남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전명남은 1967년 해주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태탄 농업고등학교 식물학 선생으로 배치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인품에다가 실력도 있는 선생이어서 학생들간에는 상당히 인기있는 교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전 명남이가 불을 지른 범인으로 체포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던 날, 공교롭게 태탄리 당위원회 사무실에 불 일이 있어 찾아갔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음, 동무가 그 날 이당 위원회를 찾아간건 주민등록 조사서를 찾아보려 갔단 말이지?」

군 사회 안전부 담당 안전원은 전 명남을 무섭게 노려보며 심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의문나는 걸 물어보려구 왔었습니다.」

「그 의문나는 게 무슨 일이었지?」

「제가 담임으로 있는 2학년 학생들중에 김 일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애가 부모의 출신 성분이 나쁜 관계로 늘 고민해 오다가 지난 번 주민등록 사업 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라는게 뭤데?」

「그 학생의 부친이 일제시기(日帝時期) 만주에서 경찰관이었던 것이 밝혀질것 같습니다.」

「음, 악질 성분을 가졌군…그래서?」

「그래, 절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하소연 하길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이당 위원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학생의 가족에 대한 주민 등록 조사서를 좀 불러주세요」

「이봐, 동무는 농업 고등학교 교원으로 있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오?」

「네?」

「왜, 반동의 자식을 감싸고 도냐 말이요!」

「감싸구 돌다니요?」

「그렇지 않구 뭐가? 우리 당에서 성분 조사를 했으면 그만이지 동무가 그걸 알아봐서 뭘 어쩌하겠다는거요. 영!?!」

「뭘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했을뿐입니다.」

「걸어 치우시오! 동무는 학교 선생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불량한 학생들의 뒤통 돌봐 주면서 같이 우리 당을 반대하려는 무슨 음모를 꾸민것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그저 선생으로서 학생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애로를 해결해 주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할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특히 전 한 학급의 담임으로서 저의 반 학생들이 절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구 생각합니다.」

「반동의 자식들의 뒤통 돌봐 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구?」

「전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다했을뿐입니다.」

「시끄러웠! 동무는 언젠가 학생들 앞에서, “출신 성분 조사서” 한장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수도 있다구 하면서 우리 당을 비

방했다면서?」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 우리가 괜히 쓸데 없는 소릴 하는줄 알아? 동무를 그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한 것도 모두 이런 동무의 행동 때문이란말이요…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구 있으니까 그 주민 등록 조사서의 서류가 들어있는 리당 위원회 사무실을 불태워 버리자고 했을게 아니냐 말이야!」

「안전원 동무! 그건 너무 엉뚱한 판단입니다… 제가 뭇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동무가 다른 학생들보다 그 김 일호인가 뭔가 하는 학생을 제일 귀여워해 줬다며?」

「특별히 그 학생만을 두둔하지는 않았읍니다… 그 앤 공부두 제일 잘했구 또 매사에 성실해서 자연히 주목이 끌린 건 사실입니다.」

「이봐요. …그날 리당 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왔던 사람중에서는 낯선 사람이라곤 동무밖에 없었던 말이요!」

「그게 방화했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까?」

「뭐라구? 당신은 누굴 따지려구 하오?」

「그런게 아니라요…화재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누전이 됐다가 담배불이 잘못되었다든가…」

「닥치시오! 그런 조사두 다해 봤단 말이요… 그러구 얻어진 결론이 방화라는 결론이구 또 그 방화 혐의가 제일 큰 범인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절대로 그런 일 안했습니다.」

「흥 했는지 안했는지는 두고 보면 알아!」

태탄 농업 고등학교 교원인 전 명남이가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갔다는 소문은 삼시각에 온 군내에 퍼져나갔습니다.

별로 크지않은 군이라 조그마한 일까지도 소문이 금시 퍼지곤 하였읍니다.

태탄 농업 교등학교에서도 다른 선생이나 학생 할 것없이 모두 놀라서 화재의 중심이 되고 있었읍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할줄은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뭘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아마, 그렇게 해야만 할 사정이 있었나 바」

「글쎄, 미치질 않았으면, 남의 건물에 왜 불을 지르니?…그것 두 당위원회 사무실을 말이야…」

「아무튼 모를 일이야…꽤 실력있는 선생이었는데…」

학생들을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모두 모를 일이라고 고개를 갸웃둥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은 화재 사건에 그치지 않고 더욱 엄청난 방향으로 확대 되어갔읍니다.

그것은 김 일호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몇몇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군당 위원회에 진소(申訴)(여기에서 말하는 진정서를 내는일)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소 내용이래야 그 선생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점, 화재가 일어난 곳의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오히려 실화(과실에 의한 화재)의 혐의가 더 많다는 점등을 들어 그 선생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것이 큰 문제를 불러이르킨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읍니다.

학생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진소」를 하느냐 하는 것부터가 말쟁이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진소」를 낸 학생들이 모두 출신 성분

이 좋지 않은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 학생들중에는 월남자 가족이라고 해서 당의 감시를 받는 집안의 자식도 끼여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두 성실하고 공부도 잘 하는 학생들이었지만 이렇게 출신 성분이 불량하다고 해서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량한 처지를 언제나 따뜻하게 동정해 주었던 선생이 바로 전 명남선생이었던 만큼 이 학생들은 발벗고 나서서 소위 「구명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씨가 되었습니다.

군 사회 안전부에서는 군당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전 명남이라는 교원을 다른 각도에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동무는 이제 보니 가장 위험한 반당 분자였군!」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당을 교의적으로 헐뜯고 반대하려는 반역자였다 이거야」

「농담이래두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을 반대하는 반역자라니요?…도대체 무슨 얘길 하려는 겁니까?」

「얘긴 간단하오! 동무는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반대 하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주입시켜 줄 대신, 몇몇 악질적인 학생들과 한 패가 되어 우리 당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려 했다는 거요…알겠어?…」

「그건 터무니 없는 소립니다」

「뭐? 터무니 없다구? 이걸 봐! 이걸 보란 말이야?」

「그게 뵈는데요!」

「김 일호라는 학생 알지?」

「예 저의 학급 앤데요」

「또 여기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보란말이야!」

전명남 선생은 안전원이 내미는 서류밑에 적혀있는 이름등을 쪽 훑어 봤습니다. 모두 자기 학급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구쳐 물었습니다.

「네, 모두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래두 시침이를 뽀 판이야!」

안전원의 말투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응! 왜 대답이 없어! 무슨 반란 음모를 꾸몄나 말랏! 이렇게 순순히 얘기할 때 모든 걸 자백하란 말이다!」

「글쎄, 뽀 자백하라는 건지…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 하구 무슨 음모를 꾸몄는지 그걸 자백하라는 거얏!」

「…………」

전명남은 너무 어이없어 멍하니 상대방을 쳐다만 보고 있었읍니다.

「왜 대답을 못해! 응!… 이제는 그 까짓 화재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캐내야겠단 말야…동무가 자백할 때까지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하고야 말겠어…」

한편 군 사회 안전부에서는 김 일호등 문제의 학생들까지 체포해다가 따로 심문을 하고 있었읍니다.

안전원들은 그 학생들에게 모질 고문을 가해가면서 덮어놓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구보니 작년 가을에 있었던 태탄 협동 농장 가축 폐사 사건도 너희들이 한 짓이지! 응!?!」

태탄 협동 농장에서는 어느 뎡가 소 50 마리와 돼지 2백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었읍니다.

원인 모르게 갑자기 가축들이 죽게되자 협동 농장 관리위원회 뿐

만 아니라 군 당위원회에서도 크게 떠들어 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축이 떼를지어 죽게된 원인이 가축이 먹는 사료에 농약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어느 누구가 일부러 사료에다 농약을 타넣어 가축을 죽게 한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군 당위원회에서는 어느 반동 분자의 소행으로 보고 안전원들을 풀어 그 범인 색출에 나섰으나 끝내 잡아내지 못하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까지 이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군 당위원회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위 반동 분자들을 색출해 냈다는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분명히 너희들이 한 것이지!」

「아닙니다. 안전원 동무……저희들은 그 협동 농장에 가본 일조차 없습니다.

「거짓말 말아! 작년 가을에 “생산 실습”이라고 해서 너희 학교 학생들이 그 협동 농장에 갔었지 않아?」

「예, 그러나 그때 저희들은 용연 파수 농장으로 갔었습니다…그 협동 농장에 간 것은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담, 그후에라도 몰래 갔다 왔겠지…일부러 그런 짓을 하려구 말야!」

「글쎄, 그 일만은 저희들 하구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일은 저질렀냐?」

「다른 일이라니요?」

「몰라서 물어? 너희들이 그 전 명남인가 하는 선생의 명령에 따라 우리 당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나 말야!」

「그전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저희들은 그저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너희들 같이 성분이 나쁘구 불온한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존경했다면 전 명식이라는 그 선생도 불온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냐 말야! 왜 특별히 너희들 하구만 어울려 다녔겠느냐 말야?」

「저희들 하구만 특별히 가까웠던 것은 아닙니다…우리 학급 학생들은 모두 그 선생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시끄러웠! 순순히 대해주니까 우릴 농락하려 들어? 께심한 놈들 같으니 맛을 봐야 알겠어?」

그 후 이학생들이 얼마나 고문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전명남이란 교원이 학생들을 총동해 가지고 공산당을 반대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끝내 들썩우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당위원회 사무실에 방화했다는 죄명도 함께 들썩워진 것입니다.

군 사회 안전부에서 일련의 심문조서가 꾸며지고 평양으로 압송되어 가기전에 전 명남은 군 안전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억울한 죄명을 쓰고 끌려가는 건 좋썬니다…어차피 사태가 이렇게 된 바에야 내가 무슨 애길해도 해결되진 않을꺼예요 그러나 내가 가르친 그 학생들에게만은 아무 책임도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학생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다만 가정 성분이 나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애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애들은 누구못지 않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애들이고 누구 못지않는 희망을 가진 애들입니다.

그 애들의 자그만한 희망이나마 꺾지 말아 주십시오……

내 한 몸이 희생되어 그 학생들만 무사할 수 있다면 전 어떤 처벌이라도 다 받겠습니다…그러니 그 애들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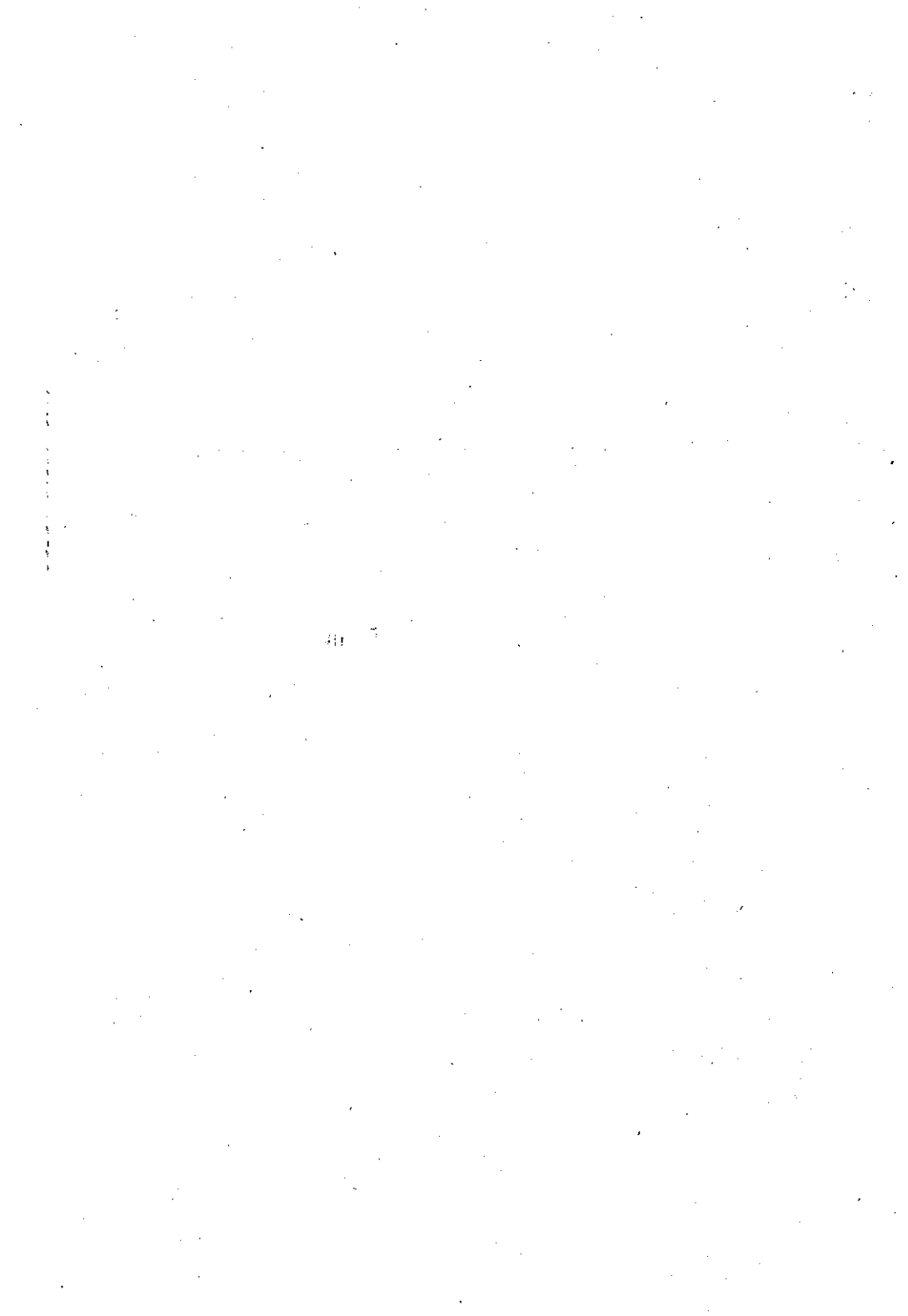
이 젊은 교원의 울부짖음은 너무나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후 천명남 교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다시 그 학교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또 그후 그를 봤다는 사람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제 2 편—

전쟁 준비와 공산당 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





## 1. 두 병사의 죽음

### 약혼녀 두고 온 3대 독자

갓 스물에 군대에 징모된 최 주철이가 크게 놀란 것은 두 가지 일에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하나는 다른 피로군 전사(병사)들이 그러한 것 처럼 이발기계로 딱딱 짝은 중머리를 거울에 비춰 보았을 적에 허연 자갈돌 같아 짐작하고 있었던 것보다 허전한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물 여섯살 잡힌 분대장 김 호 중사가 스물 한 살에 입대했는데 아직도 두 해를 더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나는? 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스물 여덟, 그럼 나는 8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나요?」

눈이 휘둥그래서 이렇게 묻는 최 주철을 김 호 중사는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한 마디 더 보태었습니다.

「대사변(북괴가 전쟁을 일으킬려는 시기)을 앞두고 제대가 중지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최 주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입대하기 바로 전에 약혼한 한 마을에 박 금녀는 얼마나 자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휴가도 없다는데 금녀를 언제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최 주철은 삼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친은 군에 징집 영장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약혼을 시키고 며누리를 맞아들이려

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최 주철은 군대 생활 초기부터 침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대장 김 호 중사는 허위대는 큰 몸집과 구레나룻이 거뭇한 모습과는 달리 마음씨 고운 사람이어서 주철을 친 동생처럼 돌봐 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주철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철 동무, 고민을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닐세. 내가 좋은 방법을 대줄테니 하라는 대루 해 보겠나?」

하루는 김 호가 주철을 막사 뒤로 불러내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두 다 그렇게 복무하는데 내가 다른 마음 품어서 되겠나요. 생활에 익숙되면 고민도 풀리겠지요」

최 주철은 분대장이 자기를 떠보지 않나 경계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런 소릴 했습니다.

「제법, 으젓한 소릴 하는군! 주철 동무, 동생처럼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까 염려 말게」

하고 김 호는 귓속말로 몇 마디 수군수군 일러 주었습니다.

이날 밤.

최 주철은 슬며시 일어나서 머리맡에 종이를 펼쳐 놓고 밤 깊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쓰는 편지였습니다.

낮에 분대장 김 호의 말이 우편 검열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가 민간인 주소로 해서 보내 줄테니 부모님께 하고싶은 말을 다 하라고 했었습니다.

「분대장 동무」

최 주철은 곁에 누워 있는 김 호를 나직이 불러 보았습니다.

「왜 아직 두 안 자구 있어?」

김 호의 목소리는 투명스러웠으나 한 팔은 최 주철의 머리 말을 더듬어서 주철의 손에 들려 있는 편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틀림 없이 잘 갈까요?」

주철이 근심스러이 물었습니다.

김 호는 어느 새 코를 끌고 있었읍니다.

주철은 모포를 당기어 머리 위까지 꼭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읍니다.

막사 앞은 조용했읍니다.

이따금 나직이 코고는 소리와 끄덕이며 돌아눕는 소리가 날 뿐이엿읍니다.

모두 낮에 심한 작업에 푹아 떨어져 깊은 잠이 든듯 했읍니다.

병사가 한 구석에 벼계를 약간 높이 하고 누워 있는 한 하사관의 날카로운 눈길이 김 호와 최 주철의 거동을 날날이 살피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읍니다.

## 비밀원이 밀고해

분대장 김 호 중사와 최 주철 전사의 거동을 훔쳐 본 사람은 부분대장 하사 판 기도였읍니다.

판 기도는 그들이 주고 받은 말과 김 호가 남 몰래 받은 편지로 미루어 보아 군사 우편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최 주철이 고향에 편지를 띄우려 한다는 것을 짐작하였읍니다.

부대 내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 말썽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 기도는 기상 시간이 되기 전에 남 몰래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쪽지에 몇자 적어서 탁사와 식당 중간에 서 있는 미루 나무 구새 먹은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병사로 돌아와 제자리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꼭 기도는 대대 안전 군관(군대내 안전원)이 심어 놓은 비밀원이었습니다.

구새 먹은 미루 나무의 구멍은 안전 군관과의 비밀 연락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선 김 호는 안전 군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호 중사. 어째서 동물 불렀는지 알겠지?」

안전 군관은 도끼 눈을 흘기고 김 호를 노려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 호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어물어물 대답하였습니다.

「몰라! 엄중한 동무로군! 만칭 부리지 말구 편지 내놓소!」

김 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서 내놔!」

안전 군관은 소리를 댁 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은 편지 내용을 검토하구 부쳐 주려구 한 것입니다!」

김 호는 편지를 내놓으며 변명을 했습니다.

「검토? 전사들의 편지를 검토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줄 몰랐던가? 응? 동무 같은 사람이 분대장으로 있으니까 신입 대원들을 망쳐 먹는단 말이야!」

안전 군관은 육질을 퍼부으며 최 주철의 편지 봉투를 쪽 찢어

서 서신을 꺼냈습니다.

서신 내용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들과 약혼녀 박 금녀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물 여덟이 되어야 제대를 할 수 있다는데 앞으로 8년동안 늙은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겠느냐는 근심을 적어 넣었습니다.

보라구! 이런 혁명성이 전혀 없는 편지를 고향에서 받아 봐! 분대장 동무! 동무는 전사들을 강한 혁명성으로 교양할 대신 그를 두둔하여 이런 편지나 보내 주려구 하는 비 당적 행위를 했단 말이오! 엄중하오! 만약 이 편지가 사회 안전부에서 검열되었드라면 나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오!

「실은 전사 최 주철 동무는 삼대 독자가 돼서 동정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됐습니다.」

「딴 소리 말구 당장 편지를 다시쓰도록 해! 인민군 전사로 충실히 초소를 지키고 있으니 후방에서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를 올리라는 식으로 말이야!」

김 호는 가슴을 쓸으며 안전 군판실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중대에 돌아와 보니 정치부 중대장이 사나운 눈초리로 맞아 들이며 호롱을 뽑았습니다.

「김 호 중사! 동무 오늘 당 회의에서 취급하겠소!」

김 호는 당 세포에서 눈물이 나도록 비판을 당하고 경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김 호는 당에서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두고 보자! 어떤 놈이구 나타나면 가만 안 두겠다!」

김 호는 이를 갈며 입속 말로 중얼 거렸습니다.

## 멀리서 쏘아보는 눈길

분대장 김 호 중사는 밀고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분대원들의 거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최 주철 전사는 자기와 같은 피해자로 「사로청」(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에서 경고 처벌을 받았으니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다른 분대원들도 거의가 농촌 출신으로 대개 어리석고 고지식한 성품이므로 의심이 덜 갔습니다.

다만 부 분대장 팍 기도 하사가 걸으로는 살살 좋은 소리만 하고 돌아치나 속이 엉큼하여서 그리로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안전 군관의 첩자! 꼬리만 잡혀 봐라! 가만 안들테다.」

김 호는 이렇게 버르며 팍 기도의 거동을 주시하였으나 팍 기도와 안전 군관의 연락 방법이 하도 교묘하여서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아무런 증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저럭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최 주철도 이제는 제법 군대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런저런 요령을 터득하였습니다.

부업 농장(군대의 부식을 조달하기 위한 조그마한 농장)에 일하러 나가는 길에 근처 농가의 쟁기를 빌리러 오가며 늙은 부부도 친해 놓았습니다.

늙은 농장원 내외는 손이 귀한 사람이어서 싹싹한 최 주철을 친 자식처럼 끔찍이 아껴주었습니다.

최 주철은 늙은 농장원의 주소로 고향에 부모와 양손녀 금녀에게 편지를 띄웠고 그들로부터 답장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이런 눈치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은 김 호였습니다.

김 호는 최 주철이 초년병 때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려다가 혼이 난 일이 가슴에 맺혀 있었지만 불안감을 꼭 누르고 모른 체를 했습니다.

갓 스물 난 최 주철이 앞으로 팔년나마 군대 생활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과 삼대 독자를 내보내 놓고 근심으로 나날을 보낼 그의 부모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앞서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최 주철이가 혼자 뒤뜰을 쓸고 있는 그를 찾아와 불쑥 엉뚱한 부탁의 말을 하는 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대장 동무. 오늘 밤 제가 무단 외출을 하려는데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신다구 했습니다.」

「무어? 무단 외출을 해? 부모님이 오신대?」

「네 분대장 동문 눈치채구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딴 주소로 고향에 편지를 주고 받구 있었어요. 분대장두 아시는 부업 농장근처 노인내외만 사는 농장원 집주소루 발신을 했지요. 일전에 집에서 온 편지에 약혼녀를 아주 집에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결혼식두 안하구?」

「결혼식은 해서 무얼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팔년이나 군대에 더 있어야 하구 혹 가두 갈 수 없는 처지니 어떡해요. 부모님은 자꾸 늙어가구」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서 죽기 전에 날 보겠다구 편지 발신지로 면회를 오겠다는 거지요 뭐」

「그래 도착할 날이 오늘 저녁이란 말이지?」

김 호의 물음에 최 주철은 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풀었습니다.

「주철 동문 날 엄중한 과오를 범하도록 만들려는구만…」

김 호는 난처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밤에 나갈 때 그저 눈 감아 주세요. 나중에 탈이 나두 분대장 동무 얘기는 안 할테니요」

최 주철의 이런 간절한 부탁에 이번에는 김 호가 후 한숨 내쉬었습니다.

이 때 먼 발치에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눈길에 있었습니다.

곽 기도 부분대장이었습니다.

## 달빛에 번쩍이는 단검

그날 밤.

취침 시간이 지난 후 이숙해서 최 주철이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최 주철은 병사 (내무반)안을 조심히 훑 훑어 보았습니다.

모두 낮에 있었던 고된 훈련과 작업에 지쳐 깊은 잠에 푹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 주철은 발치에 개어 놓았던 옷을 조심히 주워 입었습니다.

분대장 김 호증사도 깊은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주철은 미안한 눈길을 그에게 잠시「멈췄다가 자리에서 슬며시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사 뒷문으로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가가서 잽싸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주철이 밖으로 나가자 병사 한편 구석에서 한 그림자가 불쑥 일어나 앉았습니다.

부 분대장 곽 기도 하사였습니다.



「저 새끼! 내 그럴 줄 알았당이!」

곽 기도는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옷을 재빨리 주워 입고 최 주철이 뒤를 따라 뒷문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저놈이었구나! 안전 군관의 첩자!)

김 호는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는 코를 골며 자는 채 하고 있었으나 실은 주철의 거동을 줄곧 살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주철이 빠져 나가자 곽 기도가 욕질을 하며 그의 뒤를 쫓아 나가는 것을 보고 그토록 자기가 찾아 내려던 안전 군관의 첩자가 바로 곽 기도라는 실증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김 호도 곧 자리에서 나와 병사를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세 그림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빠른 걸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최 주철이 자기 뒤를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다만 속히 부모를 만나 볼 일념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곽 기도가 도끼 눈을 치뜨고 주철을 농칠세라 빠른 걸음질을 치고 있었고, 맨 뒤에 김 호가 옆구리에 찬 단검을 으스스러지게 틀어 쥐고 중요함에 활활 타는 눈으로 곽 기도 등을 쫓으며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탄로 나면 나두 결국 마지막 꼴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 개같은 새끼를 요정을 내자!)

김 호는 이를 으드득 갈았습니다.

이윽고 맨 앞에 가는 최 주철이 늙은 농장원내외의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최 주철이 기침을 하자 방문이 덜컥 열리고 머리가 흰 노파가 벼선 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철아! 너 이 자숙 죽기 전에 못 볼 줄 알았다」

「어머니!」

두 모자는 부등켜 안고 어쩔 바를 몰라했습니다.

방안에서 주철의 아버지인 듯한 노인이 점잖게 나와서는 셋이 어울렀다가 잠시 후 모두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새끼! 정신 썩 나갔군! 내 그럴줄 알았다」

미루나무 그늘에 몸을 가리고 이렇게 중얼거린 것은 꼭 기도였습니다.

「군사 기밀 누설하구 온전할 줄 아니? 미친 새끼! 두구 보자!」

곽 기도는 이러 소릴하며 되돌아 섰습니다. 순간 그는 「악!」 하고 놀라며 뒷걸음질쳤습니다.

시퍼런 단검을 피나 든 김 호가 눈에 살기를 번뜩거리며 다가 들고 있었습니다.

「첩자! 개! 비겁한 새끼! 너에겐 인정두 눈물두 없니? 내

자리가 탐나서 중상 모략을 일삼구! 너 같은 새끼 없어져야 해! 이 개새끼야!

김 호의 손에서 단검이 달빛에 번쩍이었습니다.

「으윽!」

곽 기도는 가슴을 끌어 쥐며 앞으로 푹 고꾸라졌습니다.

「개새끼야 죽어! 죽어! 이 엠병할 생활에 싫증이 난 김 호가 황천 길에 널 데리구 가는 거다!」

김 호는 미친듯 소리 치며 연거푸 곽 기도의 등을 찌르고 자기도 단도를 끌어 안으며 앞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최 주철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 나왔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최 주철 그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최 주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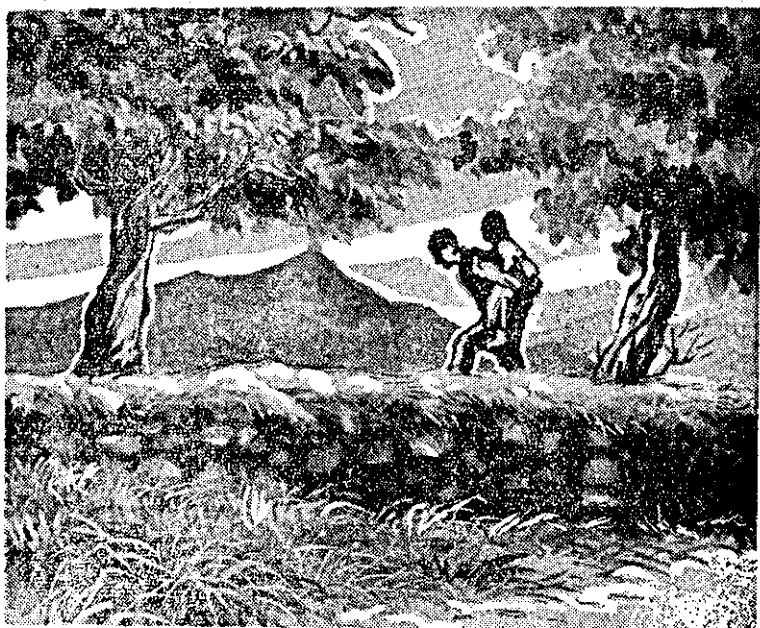
## 2. 약수를 팔아라

### 병든 어머니를 업고

개울을 끼고 곧게 뻗은 강둑에 우뚝히 서있는 느티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정수리에는 파란 하늘, 하늘에는 우유빛 구름이 시원하게 흘러 갑니다.

그러나 땅에는 무더위가 확확 풍기는 삼복때입니다.

개울물이 말라, 줄줄 안타까운 소리를 내고 들길에 뽕얀 먼지가 미풍에도 날립니다.



이 독길을 전장한 젊은이가 삐적 마른 노파를 업고 걸어가고 있었읍니다.

노파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을 뻗혀 젊은이의 이마에 맺히는 구슬 땀을 훔쳐 주고는 하였읍니다.

「애, 힘들텐데 좀 쉬어 가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기 보이는 동네 안 있어요」

「아이그, 눈이 어두워서 어디…」

젊은이는 느티나무 밑두리 파란 잔디에 노파를 내려 놓았읍니다.

「저기 높은 산이 무학산이구요, 이런 동네 있지요?」

「원, 가뭇가뭇하기만 하구나」

젊은이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엇인가 이상을 발견한 듯 눈살을 찌푸리고 먼 동네를 바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기양 기계 공장」 선반공으로 일하는 박 성국이었고, 노파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찾아가는 마을은 북한에서 유명한 약수 샘터가 있는 강서군 강서면 정화리(현 강서군 약수리)입니다.

박 성국은 고질화된 위장병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위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약숫골을 찾으려고 별렀습니다.

벼르고 벼른지 반년만에 하루 휴가를 얻고 가는 길입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기양에서 강서 약수리는 시오리 길 남짓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에 쫓기어 이제서야 어머니의 병을 고쳐 드리려고 업고 떠났던 것입니다.

「어머니 없던 집이 하나 생겼는데요」

「없던 집이라니?」

「언덕 위에 허연 양옥이 새로 썼어요. 아마 휴양소를 들여 놓는다는 말이 들리더니 바로 그건가 봐요. 해떨어지기 전에 어서 가지요」

성국은 다시 어머니를 업고 일어섰습니다. 과연 약수 마을은 몰라 보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듬성듬성 응크리고 앉은 초가 집들은 전보다 더 한산한데, 휴양소라는 삼층 흰색 건물은 언덕 위에 거창히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성국은 약수 마을 어느집 뒷마루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땀을 들었습니다.

「몰라 보게 달라졌는데요!」

성국이가 그 집 주인 영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달라졌지요. 약수를 구하러 오시는 길이요?」

영감이 물었습니다.

「네 모친이 오랜 숙환이셔서…」

「위장이시라면 약수야 효과가 좋지요」

하고 영감은 한동안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약수 얻기가 어려울 거요」

「어렵다니요?」

「그럼, 아직 모르시오? 저 휴양소라는 데에 평양에서 고관들이 잔뜩 내려와서 약수가 모자란다우. 그래 약수터 문에 쇠를 잠가 놨는 걸…」

「쇠를요?」

성국은 가슴이 찢렁해서 물었습니다.

「요샌 이 마을 사람들두 약수 맛 보기 어려우니 참!」

하며 노인은 혀를 꼰꼰 찡찡했습니다.

## 거만스레 나타난 김 일성

박 성국은 뒷마루에서 일어 섰다.

「어머니, 잠깐 쉬세요. 제가 약수터로 가 보고 오지요」

「가 보나 마나요. 빈 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두사람 아니라니까」

집 주인 영감이 성국의 등에 대고 한 말이었습니다.

성국은 약수터를 향해서 급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휴양소를 짓고 평양에 있는 고관들이 내려와 약수를 독차지하고 약수터 문에 쇠를 잠가 환자들이 찾아 와도 빈손으로 돌아가

게 하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 고개가 외로 꼬여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약수터에 당도해 보니 과연 창고처럼 지은 집 문에 주먹만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참말이었구나! 이를 어쩐다?)

성국은 구원을 청하는 눈으로 언덕 위에 삼층 건물인 휴양소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떠드는 고관들이니 선반공인 자기를 보아 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언덕 위 휴양소에서 어깨딱이 우람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수터 문 앞에서 서성대고 있는 성국을 불쾌하게 부라려 보며 한 마디 던졌습니다.

「동무. 거기서 무얼 하구 있소?」

성국은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하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기양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선반공입니다. 어머니가 오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셔서 약수를 쓰시면 괜찮을까 해서요」

「효자 노릇 해 보겠다는 말이로군! 동무 당원인가?」

그 사람은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난 이 휴양소 관리원이요. 지금 휴양소에 중앙당 간부들이 여럿이 와 계신데 그 분들에게 우선 약수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늘 쏟아지는 약수가 모자라지는 않을 텐데요?」

성국은 속이 틀어져서 한 마디 쓰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동무. 사람이 마구 드나들면 위생이 보장되는가? 약수터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오」

「관리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어 약속터 문을 열고, 그를 뒤따라 온 휴양소 종업원들에게 들어가 약속을 길어 올리라 했습니다.

「관리원 동무, 이왕 쇠를 열었으니 저도 조금 길어가게 해 주시우」

성국이 부탁을 했으나 관리원은 흘깃노려보고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늬으신 어머니 생각해서 좀 화 주시우」

이런 성국이의 애걸을 관리원은 들은 체도 않고 종업원들이 문을 길고 떠나자 문을 광 달아 버리고 쇠를 절켜 잠가 버렸습니다.

「관리원 동무! 이럴 수가 있소!」

성국이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어째? 어따 대고 한 소리야. 노동자 주제에!」

「노동자? 그래 노동자다! 다어뎡단 말이냐?」

성국이는 배알이 치밀어서 대들었습니다.

이 때 뜻 밖에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웬 일들인가?」

하는 외침이 언덕 위에서 쩌렁 울려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언덕 위로 쏠렸습니다.

소리치고 달려 내려오는 사람은 큰 별 셋을 견장에 붙인 장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어느새 호위국 병사들이 총칼을 번득거리고 삼엄한 경계를 편 언덕 위에 장대한 몸집에 살이 더욱더욱 썩 김 일성이가 거만스레 뒷짐을 지고 서서 그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새끼 너 한텐 안준다!

정 문섭(복귀 호위국장 상장)은 두사람을 부라려 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웬 싸움들인가?」

박 성국과 관리원은 언덕 위에 김 일성이 내려다 보는 사나운 시선을 느끼며 주눅이 들어서 입마저 얼어 붙었습니다.

「동문 누군가?」

정 문섭이 손가락으로 관리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휴양소 관리원입니다.」

「동문?」

정 문섭의 손길이 박 성국에게 겨누어졌습니다.

「기양 기계 공장 선반공 박 성국이 을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

박 성국은 마음을 도사려 먹고 한 발짝 나섰습니다.

「실은 저의 어머니가 위장병인데 약수를 복용하면 좋다구 해서 왔지요. 헌데 관리원이 영 약수를 구경두 하지못하게 해서…」

「으흠! 알겠어! 하여간 지금 김 일성 수령 동지가 시찰중이니 근신하란 말이요」

하고 정 문섭은 박 성국의 소속 직장과 성명을 수첩에 적어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박 성국이 언덕 위를 쳐다 보니 어느새 김 일성과 호위병들은 자취를 감춰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새끼! 너 까타네 큰일 날 뻔했다」

관리원이 방금 칠듯한 기세로 주먹을 틀어 쥐고 으르렁댔음

니다.

「동무! 약수를 안주면 말았지. 왜 육질이요!」

성국어도 마주 대들었다.

「너 같은 작자한테 약수가 남아 돌아 가두 안준다 안줘!」

판리원은 이렇게 딱딱거리며 횡하니 돌아서 가 버렸습니다.

성국은 화가 치받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업고 기양으로 되돌아 오면서 성국은 여러번 장탄식을 하였습니다.

「애야, 너무 그러지 마라. 안주는 걸 어찌겠냐」

어머니가 오히려 위로하였으나 그럴 수록 가슴속에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성국은 물통을 차고 시오리 길을 걸어서 강서 약수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쇠를 잠가 났으면 물때 문 들찌귀를 떼서라도 길어갈 작정으로 바가지까지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둑어둑 해질 녘에 약수터에 다다랐습니다. 약수터 문앞에서 그는 우뚝 섰습니다. 신문지만한 크기의 종이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급변 수령 동지가 현지 지도하시고 약수를 널리 보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약수를 병에 담아 팔기로 했습니다. 평양과 기타 도시들에 보급될 것이니 약수가 필요한 동무들은 각 도시 상점에서 사서 쓰십시오. —휴양소 소장—」

(약수를 팔아 먹다니? 제길혈!)

성국은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과연 보름 뒤 <병 약수>가 기양에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약수란 병에 넣어 오래 가면 못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된 약수처럼 딱기 역한 것은 없습니다.

「에그, 구려서 어디 먹겠니…」

하며 어머니는 병을 밀어 놓았습니다.

성국은 약수 하나 변변히 어머니에게 대접하지 못하는 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고관들은 휴양소에서 명명거리며 싱싱한 약수를 마음대로 마시는데 노동자인 그는 집 가까이 약수터를 두고도 어머니에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장사 속도 이렇게 엉뚱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떠드는 「평등이론」은 실천에서 이렇게 「불평등」을 낳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3. 친구의 죽음

나도 해 볼만큼 해 보겠어!

북괴 작가 동맹 시 분과 맹원 시인 황 하일이 함경남도 흥남 본공 화학 공장 노동자로 쫓겨나게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 하일이 작가 동맹 내의 권력 다툼에서 패하여 「부르와 순수 문학」을 부르짖은 간첩으로 몰려 숙청 당한 임화의 수제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가 종교인 출신의 처녀와 약혼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작가 동맹 당 위원장 정 문향이 종교인의 딸과 약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극구 말렸었는데 끝내 우기고 약혼하다니 그 꼴이 되었다고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 있는 동료 시

인들은 사랑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이된 그 사회를 슬퍼하고 황 하일을 동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정자들 가운데에 본궁 지구에 「민주조선」(북괴 기관지) 특파 기자로 나가 있는 한 근성이라는 청년 시인도 끼여 있었습니다.

한 근성은 황 하일의 재능을 무척 아끼던 사람이어서 그가 붓을 꺾이고 노동자로 내려온 것을 무척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황 동무. 우리 사이니 툭 터 놓고 권고하고 싶은데 그 처녀 동무와 약혼을 취소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어떤가? 동무 재능이 그대로 묻히는 게 아까워서 하는 말일세」

한 근성은 황 하일과 만나는 첫 날 이런 권고를 해 보았습니다.

황 하일은 실눈으로 그를 힐끗 쳐다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이 굳어서 당 위원장 권고도 물리쳤다는 것도 알고 있내만 당에 맞서서 이로울 게 될가? <달걀로 백운대 치기지!> 다시 한 번 고쳐 생각해 보게나.」

한 근성의 이 말에 황 하일은 역정을 버럭냈습니다.

「그런 말 하려면 다시 날 찾아오지 말어! 한 동무의 생각과 내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난 동무처럼 냉철한 머리를 못 가졌단 말이야!」

「성은 왜 내나? 동무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닌가」

「진정으로 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말게!」

하더니 황 하일은 자기 가슴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이 가슴엔 사랑의 정이 남아 있단 말이야!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속성과 이용 가치에만 두는 그런 속물들은 못 갖는 감정을 말아야!」

「너무 흥분하지 말구 차분히 생각해보게」

한 근성이 이런 말에 황 하일은 콧방귀를 뀌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사회는 오래 못가!」

「어?」

한 근성은 눈이 둥그래서 사방을 둘러보고 근심스러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게, 정신 나갔나?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부터 버려야겠네」

「흥! 자포자기? 아직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어! 나도 해 볼 만큼 해 보겠어」

황 하일의 눈에 열기가 벌겍게 떠 있었습니다.

한 근성은 더 말을 할 수록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걸을 물러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황 하일이 불쑥 한 근성의 집을 찾아들었습니다.

「근성 동무! 부탁이 있어서 왔네」

「무슨 부탁?」

「난 그 처녀와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네!」

「뭐! 결혼?」

## 신혼 생활에 떨어진 벼락

한 근성은 별리는 가슬을 진정시키느라고 애썼습니다.

종교인 딸과 약혼을 하여 노동자로 쫓겨난 시인 황 하일이 이번에는 결혼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당에 도전하고 나섰으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뻔하였습니다.

「고쳐 생각하게 노동이라고는 해 보지도 못한 동무가 더 심한 노동 부문으로 쫓겨가면 어쩔텐가?」

이런 권고를 하였으나 황 하일은 눈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걱정은 말게. 내가 동무를 찾아 온 것은 동무 집에 우선 방을 하나 빌리려는 것일세. 결혼을 하면 합숙에선 못 살 게 아  
닌가!」

한 근성은 난처했습니다.

특과 기자란 직함을 가지고 있어 방 세 개가 있는 사택을 쓰고 사니 하나만 우선 비워 주면 될 것이지만, 잘못하면 당에 도전하고 나선 사람을 도와 주었다는 이유로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황 동무. 지금 형편에 결혼식은 어떻게 하겠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고 좋은 말로 슬쩍 한 발짝 물러서려 했습니다.

「결혼식?」

(그까짓 식당에서 과자 부스러기나 농구 당과 수령에 충실한 가정을 만든다고 맹세나 하는 결혼식이나 냉수 사발 농구 백년해로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그는「동무가 임회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네」

황 하일은 오히려 한발 다가섭니다.

「좀 생각할 여유를 주게」

한 근성이 다시 물러나려고 하자 황 하일은 성을 냈습니다.

「생각? 싫으면 싫다구 그래! 왜 접이 나나!」

「그런 건 아니구...」

「하하...」

황 하일은 요란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황 하일이 가버린 뒤 한 근성은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려도 황 하일은 결혼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당에서 주택을 배정받을 때까지라도 친구로서 방이 여유 있으면서도 빌려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당의 허가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앞뒤를 이것 저것 재며 이기주의를 부리는 사람을 그토록 싫어하는 자기가 아니었던가.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두 불쌍한 친구 하나 도와 주자!」

한 근성은 벌떡 일어나서 황 하일을 찾아 집을 나섰다.

며칠 뒤 황 하일은 그야말로 냉수 떠 놓고 비는 식의 간소한 결혼식을 치르고 한 근성의 집 방 하나를 얻어 들었습니다.

종교인의 딸이라는 황 하일의 처는 얌전하고 소담하여 한 근성 자기라도 저런 색시는 놓지 못할 것이라고 속으로 감탄하였습니다.

황 하일은 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신혼생활이 흥겨운지 활기를 띠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 근성이 짐작한 대로 벼락은 기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황 하일을 함남도 광천군에 있는 검덕 광산의 광부로 보낸 것입니다.

한 근성아도 당에서 경고 책벌을 받았습니다.

황 하일은 떠나는 그날 처를 옆에 이끌고 서서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동부 패를 많이 끼쳤네」

「황 하일 동무. 그보다두 난 동무가 그 험한 광산 노동을 해 낼  
까 걱정일세. 위도 좋지 못한테 그 습기 찬 데서…」

근성이 오히려 걱정하는 말에 황 하일의 처는 수건으로 눈물을  
쩍으면서도 서글픈 미소를 짓고,

「제가 곁에서 정성껏 돌봐 드려요」

하였습니다.

한 근성은 가슴이 찌르르해서 더 말을 못하고 우뚝 서서 차차  
떨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 아주 짓밟아 놓았구나

한 근성은 그로부터 반년 넘어 하 일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습  
니다. 편지도 통 오지 않고 그렇다고 이 쪽에서 편지를 띄우려고  
해도 좌천된 인물과 편지질을 했다가 화라도 미칠까봐 그렇게 못  
하여 소식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 본사에서 김덕광산에 생산 성과를 취재하  
여 기사를 올려 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 근성은 부랴 부랴 여장을 갖추고 김덕 광산을 향해 떠났습  
니다.

무섭게 험한 산골이었습니다. 조각 하늘에 해는 이내 떨어졌습  
니다.

야간 작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쓰러져 가는 토막집에서 기  
어나와 강화도 못 신은 채 질척질척한 길을 걸어 습기찬 갱도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한 근성은 취재를 다음 날로 미루고 우선 황하일을 찾아 노동자 주택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가며 집을 겨우 찾았으나 황 하일 부처는 갯 작업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기다리시오다. 이제 아주머닌 교대하구 올 것인데…」

안방을 차지하고 사는 광부 부인이 황 하일이네가 사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근성이 방에 들어서니 곰팡내가 확 풍겼습니다. 비가 새서 장판이 지도를 그린 것처럼 여기저기 썩었습니다.

「친구분이라니 하는 말이지만 그 황 동무 보구 부인 좀 때리지 말라고 하소. 우는 소리에 아래 방에서 잠도 못 잔당이!」

안방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때려요?」

한 근성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랑만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가 아니었던가

「때리기만 하문 좋지. 저도 울면서 벽을 광광 두드리는데 질색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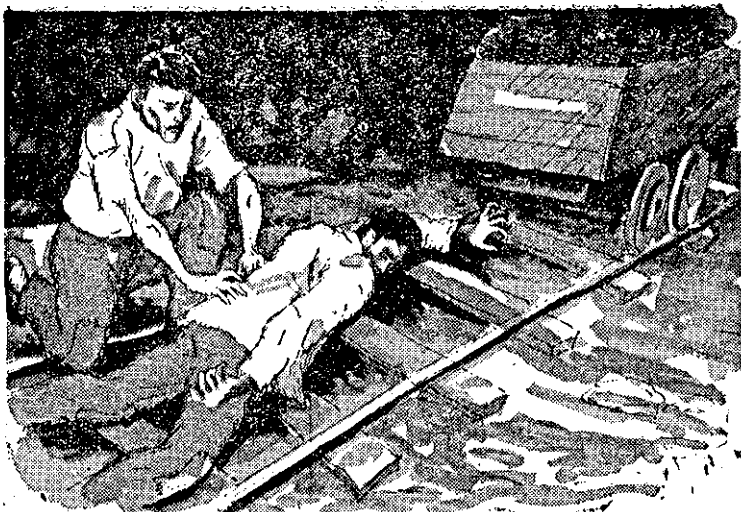
한 근성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러는 황 하일의 심정에 짐작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드리면서 두 뿔 땀에 따라와 고생이냐구 되려 큰 소리 천당이. 색시는 적소리두 앓구…」

「그만 하시오!」

한 근성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낙네는 투덜거리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한 근성은 다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짓밟아 놓았구나! 성격을 아주 일그러 뜨렸단



말이야! 그 인간성과 정으로 넘치던 사람을!>

한 근성은 얼마동안 그렇게 아픈 가슴을 안고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기척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니 반가와 해야 할 노릇이었습니다.

문 앞에 황 하일의 처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켈하니 더 커진 까만 눈매만이 그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살이 쭉 빠진 갸마른 얼굴, 먼지와 기름 범벅이 된 작업복을 걸친 앙상한 어깨 거북등처럼 터진 손...

한 근성은 콧등어리가 시큰하였습니다.

황 하일의 처는 망부석처럼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커다란 눈에 이렇이렇 피어 올라서 야윈 불을 타고 줄을 그으며 흘러내렸습니다.

이날 밤, 한 근성은 밤샘을 하며 하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고무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황 하일은 이튿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근성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밤새워 기다리던 그날 밤, 황 하일은 습기 찬 지하 막장에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인간이 그 무서운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 당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제도는 참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고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넣읍니다.

#### 4. 화약 공장에서 일어난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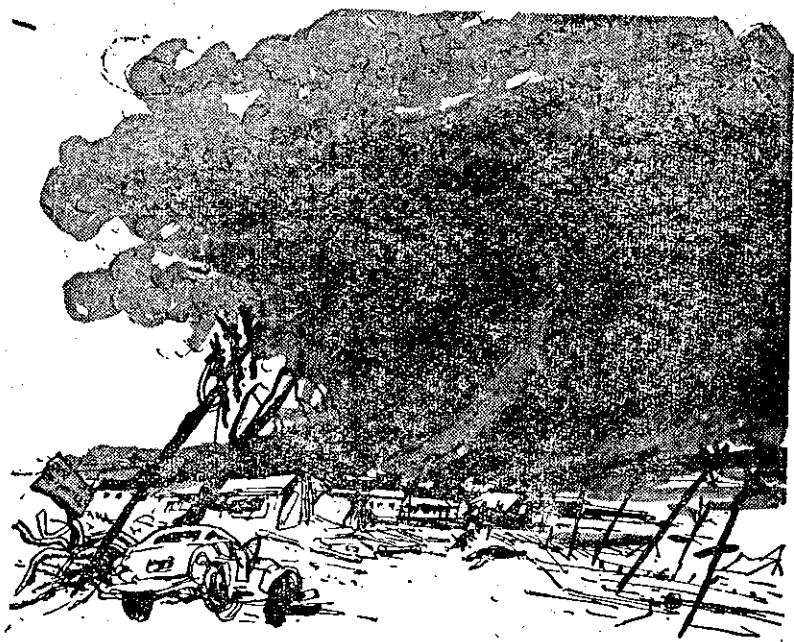
##### 아가씨 40여명의 목숨

1968년 4월, 함남 흥남에 있는 본궁 17호 화약 공장의 20톤들이 화약고가 폭발하였습니다. 김북은 불기둥이 높이 치솟고 버섯 모양의 또아리를 그리며 하늘을 꺼명게 뒤덮었습니다. 이 폭발 진동에 40톤들이 화약고가 뒤이어 터져 올라 갔습니다. 더 큰 연기 기둥이 치솟고 무서운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바람에 5리 밖에 있는 용성 기계 공장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40리 떨어진 함흥사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7호 공장 지배인 유 일용은 공장에서 얼마간 떨어진 사무실에서 갑자기 터져 오른 폭풍과 진동에 넋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또한 먼지 속에 사람들이 뛰고 부딪치고 넘어지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상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지붕「스트리트」에는 커다란 흙덩어리들이 떨어져 전시에 폭격을 맞은 뒤 비참한 광경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람 살리라고 부르짖으며 달려 나오던 사람이 그의 발 곁에 털썩 쓰러지는가 하면 거의 떨어져 나간 한 쪽 팔뚝을 친 젊은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걸을 지나갔습니다.

유 일용은 몸을 와들와들 떨며 공장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지배인 동무」

누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다 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기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오?」

유 일용이 묻자

「저도 아직 사태를 판단 못했습니다.

하고 기사장이 오히려 지배인에게 물어 보려는 참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약 20톤 창고와 40톤 창고가 폭발하여 축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장도, 직공장도, 작업반장도 모두 사고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장 동문 가서 급히 상부에 보고하오, 사고 원인은 조사중이라구 하교…」

지배인 유 일용이 지시했습니다.

「희생자가 얼마나 되나 알아서 보고해야지요」

기사장의 말에 지배인은 활짝 성을 냈습니다.

「나타난 것만 알리란 말이오! 빨리 하오!」

기사장은 사고 현장에 준비하니 누어 놓은 시체를 세어보고 사무실로 되돌아갔습니다.

백포도 미처 덮어 놓지 못한 채 노여 있는 시체들은 모두 스물안팎에 나어린 여자들이었습니다.

지배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물으나마나 제조 직장의 처녀들일 것입니다.

제조 직장은 처녀들만 있는 직장으로서 <여성 천리마 직장>을 창조한다고 일부러 여자들만으로 조직하였었습니다.

그 처녀들 40여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쓰러져 원망어린 눈을 채 감지도 못하고 지배인 근처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유 일용은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 진흙 투성이의 처녀

지배인 유 일용은 혼란 속에서도 이성을 되찾자 처녀들의 애처로운 죽음과 공장의 무참한 파괴보다도 그로 인하여 그한테 돌아갈 책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지배인으로서의 행정적인 책임만을 지고 책벌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쫓겨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안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고는 제조 직장에서부터 발단된 게 확실한가?」

유 일용을 옆에 있는 공장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읍니다만」

「그런 거 같다는 게 뭐야? 아직두 그것 하나 규명 못하고 뭣들하구 있었나? 제조 직장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

유 일용이 다시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아 남은 처녀는 없는가 말이야?」

유 일용은 신경질을 부리며 고래고래 소리쳤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결에서 누군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읍니다.

유 일용은 노기가 뻗친 눈으로 사고 현장을 노려보며 분에 몸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작을 하고 있을 때 이들로 부터 50미터쯤 떨어진 콘크리트 하수도 골안에서 진흙 투성이가 된 여자가 엉금엉금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흩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고 의

복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사람 살리오!」하고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늙은 노동자가 그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기사장으로부터 사고 현황을 전화로 보고 받은 중앙에서는 복피 내각 부수상 이 종욱이가 비행기 편으로 공장에 날아왔습니다.

이 종욱은 서슬이 퍼래서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공장 간부진을 지배인 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호통을 쳤습니다.

「동무들!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소. 60톤이란 화약을 순식간에 하늘로 날려보내구 공장을 그렇게 파괴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यो. 화약은 전쟁의 힘이란 말ियो. 폭탄없이 싸움할 수 있어? 이번엔 용서할 수가 없소. 사고 원인을 단단히 해명해서 관련자는 모두 엄벌할 것ियो」

지배인 유 일용과 기사장은 무릎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 종욱이 유 일용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제조 직장에서 일어난 모양인데…」

「제조 직장이라면 처녀 직장 아닌가? 동무들이 여성 천리마 작업반과 천리마 직장을 만들겠다던…」

「네. 그런데 한 명도 살아 남은 처녀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발이 되어서…」

「동무들 일 참 잘하는군!」

이 종욱은 지배인을 못 마땅하게 흘겨 보았습니다.

## 쇠고랑을 찬 지배인과 기사장

기사장이 옆에서 한 마디 곁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암해 분자(공산당에 반대한 사람) 행위 같은데요」

북괴 내각 부수상 이 종욱의 얼굴에는 조소가 어렸습니다.

「흥! 그러면 처녀들 속에 간첩이 끼여 있던 말인가? 응? 아니면 당신들 경비를 소홀히 해서 외부로 부터 침입했단말인가? 군수 공장 경비가 그리 소홀해? 더구나 지하 공장인데 말이야. 적은 내부에 있어! 우선 긴급 복구 대책을 마련하구 그 뒤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오. 일 주일 안에 원상 복구하라는 김일성 수령 지시도 있었소. 복구 작업은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 하겠소」

이 종욱은 그 길로 공장 간부 몇명과 무장 인원들을 인솔하고 흥남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흥남을 통과하는 모든 열차를 정지시키고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무조건 하차시켰습니다.

「나 이 종욱이야. 이 자재는 필요해서 내가 접수하니 하차시켜라」

이런 이 종욱의 한 마디에 자재 호송원들은 꿈쩍 못하고 복종하였습니다.

한편 지배인 유 일용과 기사장은 사회 안전부에 구속되었습니다. 사회 안전성에서 내려온 안전원이 두 사람을 심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간첩들의 암해 책동(방해행동)이 분명하다고 저들을 변명하였습니다.



안전원은 비웃음에 찬 시선으로 그들을 흘겨보며 몇마디 내뱉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오. 당 앞에 책임질 도량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요한 공장을 운영했소? 원인은 벌써 규명되었소!」

「네?」

두 사람은 아연해서 안전원을 쳐다보았습니다.

「동무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처녀 직장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던 말이오. 첫 번 폭발 때 폭발에 날려 하수도 구멍에 빠졌소. 그래서 두 번째 큰 폭발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오. 마침 믿을만한 신분의 처녀요. 그 처녀의 증언에 의하면 직장내부의 전기선이 합선되어 불이 일어났고 그 불이 화약에 달려 폭발했다는 것이오. 여자들만 한 직장에 몰아 넣어서 모두 불이야 불이야 하구 아우성만 칠뿐 손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요. 보란 말이오. 누구 책임인가? 전적으로 당신들한테 책임이 있소……」

지배인 유 일용과 기사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안전원이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 개인 영웅주의를 부려 여성 천리마 직장을 조직하구 하나도 도와 주지는 않고 방관만 한테 그 첫째 잘못이 있고, 기술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테 둘째 잘못이 있소. 당장 구속하라는 상부 지시요. 의견이 있소?」

지배인과 기사장은 몸만 부들부들 떨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심정을 더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성 천리마 직장〉 창조 운동은 상부의 지시대로 한 것이었고,

전기 시설의 노후 현상은 5개년 인민 경제계획 때 혹사한 시설을 미처 정비도 못하고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벽찬 과제 때문에 혹사한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애매한 지배인 유 일용과 기사장만이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쌍하고 억울한 것은 북피의 가혹한 강제 노동에 희생되어 이미 저승에 간 사십 여명의 처녀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괴뢰당국에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 5. 신창터널 열차 사고

### 도대체 갈 건가 아이 갈 건가?

평양에서 떠난 함남선 여객 열차가 신창역에 머무른 후 윈 알인지 얼어 붙은 듯 떠날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객들이 응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등칸 통로에 보따리를 놓고 앉았던 사람들과 지리한 듯 졸든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서성거리며 제멋대로 떠들어 댔습니다.

「도대체 갈 건가? 아이 갈 건가?」

「고장이야? 뭐야?」

「고장은 아닌가 본데…」

객차 2등칸 여객들만이 이런 바깥 사정에 아랑곳 없이 조용하고 안온한 분위기에 잠겨 서로 환담하고 있었습니다.

2등칸에 탄 사람들은 복피 특권 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의라면 마침 이 객차에 타고 있던 교통성(교통부와 같음)당 위원장이 3등칸을 지나다가 복피 중앙 방송 위원회 예술단을 만나 데리고 온 여 배우 두 명이 끼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통성 당 위원장을 비롯한 2등칸의 특권 층 몇명은 이 여 배우들과 어울려 환담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차의 여객 전무가 2등칸에 들어서서

「열차는 이 역에서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하고 통고한 다음에야 특권 층은 눈이 휘둥그래져 쳐다 보았습니다.

「어째서 늦어?」

교통성 당 위원장이 여객 전무를 노려보며 위압적인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여객 전무는 깃누런 왕별(복피는 철도 부문을 전쟁 준비를 위하여 군대식으로 편성하고 직위에 따라 계급장을 붙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왕별이란 장군 계급장에 해당)을 단 당 위원장을 보고 몸을 훑치하며 무릎을 약간 떨었습니다.

「열차에 사고가 났나?」

「열차에는 고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섰어?」

「앞에 장애가 생겼다고 역장이 차를 못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 무슨 장애야? 잘 모르겠으면 역장을 불러 와!」

잠시 후 역장이 불러 들어왔습니다. 당 위원장은 위엄있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에 있다는 장애물이 도대체 뭐가?」

머리가 허영게 센 역장에게도 매름 반말질이었습니다.

「네, 2킬로 전방 터널앞에 선로를 횡단해 가는 교압선이 축 늘어져 열차가 통과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역장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늘어진 전선의 지상 높이가 얼마나 되나?」

「그전 아직 재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당 위원장은 주먹으로 의자를 탕 쳤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겨냥해 보지두 않고 열차를 매달아 두었어?」

「측량해 오라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역장의 이 대답에 당 위원장은 더욱 성을 냈습니다.

「동무! 역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군. 이제 측량을 보내서 어떻게 해? 수송 임무가 얼마나 긴장돼 있는지 모르나?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야. 피가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인민 경제는 얼어 붙는단 말이야」

「곧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오는 게 뭐야? 역장이라는 게 뭘 하는거야? 늘 열차가 통과할 수 있나 살펴 보구 그런 위험한 사태가 떨어지면 열차 통과가 가능한가 파악하구 있어야지」

역장은 입을 다물고 몸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 그럼 열차를 통과시켜!

역장이 떨만도 하였습니다.

교통성 당 위원장이라면 철도 부문 간부 사업을 모두 맡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잘못 보이면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 위원장은 역장을 노려본 채 손가락으로 의자를 두드리며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 빛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차를 역에서 출발시켜. 고압선이 늘어진 앞에 가서 통과할 수 있나 보구 가능하면 통과하고 안되면 돌아와서 고압선을 보수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게 아니야」

당 위원장은 자기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여 배우들과 근처의 사람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잠시 후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는 이내 고압선이 늘어진 터널앞에 다다랐습니다.

선로를 횡단한 고압선은 맥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고압선 밑을 열차가 지나야 하는데 만일 고압선에 열차의 어느 부분이 닿기만 하면 감전되어 열차는 불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열차는 고압선 바로 못미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동성 당 위원장은 뚱뚱한 몸을 뒤뚱거리며 기관차 바로 뒤에 달린 2등칸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늘어진 고압선 높이를 재 봐! 기관차가 지날 수 있나? 기관차만 지나면 무난히 빠질 테니까」 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눈 짐작으로도 기관차는 통과할만 하였습니다. 재어 보니 기관차가 그런대로 통과할 수 있을 높이였습니다.

「그것 봐. 뭐라구 그랬어? 역에 그냥 있으면 시간만 괜히 낭비할텐. 하지 않았나. 응! 역장 동무. 진취성 있게 일하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하는 건 조심성도 아니야. 동맥을 달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알겠나?」

「네」

역장은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위원장의 말투로 보아 모가지는 떼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가서였습니다.

「그럼 열차를 통과시켜!」

「네」

당 위원장은 호기 있게 2등칸으로 올라 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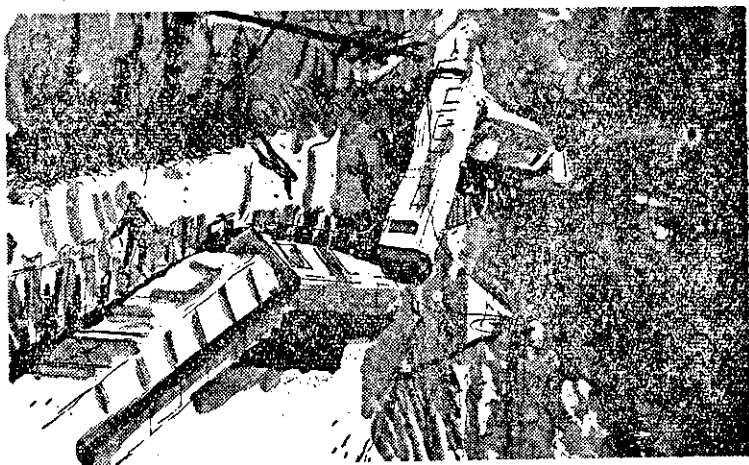
열차에서 내려와 사태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웅성대며 차에 올라 탭니다. 열차는 길게 기적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차는 고압선 밑을 무사히 통과하고 서서히 터널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등칸에 앉은 당 위원장은 여 배우들을 마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숨씨가 어떠한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청천 벽력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당 위원장과 여 배우들은 몸의 중심을 잃고 통로로 나뉘었습니다.



불길의 확 일어나고 검은 연기가 객차 안을 뒤덮었습니다.

신음 소리, 아우성 소리 불길과 연기,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 어떻게 된 일이야?

교통성 당 위원장은 불길 속에서 한 동안 눈을 잃고 헤매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구뚝 발로 차창을 걷어 찼습니다.

깨어진 유리에 몸에 찢기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차 밖으로 기어 떨어졌습니다. 몸은 상처 투성이가 되고 갈갈이 찢어진 옷에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객차 너댓 개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길이 커질 수록 터널안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개스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당 위원장은 얼른 엎드려 코를 축축한 땅에 박았습니다. 흙 냄새를 맡아야 개스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올라서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등을 밟고 앞으로 뛰어 가다가 얼마 못 가서 푹 꼬꾸라졌습니다. 이제는 신음 소리와 아우성도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 위원장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굴 입구 쪽을 향하여 힘을 다해 기었습니다. 얼마나 기었는지 겨우 굴을 빠져 나가서 보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들이 선로가에 질펀히 놓여 있었고, 중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달려와서 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당 위원장은 신창역 역장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역장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역장 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몸이 그을음 투성이고 옷 자락이 불에 타 너덜너덜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당 위원장이 누운 채 아까와는 달리 맥없는 소리로 역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원인을 규명하는 중입니다」

「역장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늘 “하는 중”이라는 게 입버릇처럼 돼 버렸군! 상부에 보고를 했소?」

「네, 사태만 보고를 했습니다」

역장은 허리를 꾸부리고 당 위원장의 귓전에 입을 가까이 하고 나직한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가 워낙 커서 고위층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러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뭐? 고위층이?」

당 위원장은 눈을 부릅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땅 바닥에 내려 섰습니다.

그는 잠시 꺾꺾이 서는 듯한 자세이더니 몸에 중심을 잃고 앞으로 툭 뚫꾸라졌습니다.

역장이 손 쓸 사이도 없었습니다.

당 위원장은 콘크리트 바닥에 붉은 피를 토하고 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쉬쉬하며 감추어 버린 <신창 터널 사고>의 대강입니다. 기관차는 교압선 밑을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열차 맨 뒤에 달린 방송실 차량(북괴는 객차 운행 도중의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서 방송실을 여객 열차에 달고 다닙니다) 안테나가 교압선에 부딪쳐 감전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3백여명이 불타 버리거나 개스에 질식되어 죽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북괴는 터무니 없는 경제계획을 세워 놓고 그를 완수하도록 사람들을 혹독하게 내몰고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물론 시설과 기계들은 혹사되고 적시에 보수를 하지 못해서 사태가 아주 나빠집니다.

고압선이 늘어진 것도 그런 결과이고, 열차를 무리하게 내몰은 처사도 모두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수한 생명을 빼앗아 간 자는 바로 북괴의 고위층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 6. 여자 노농 적위대원

### 모진 군사 훈련에 시달려

북한에는 140만명의 노농 적위대라는 예비군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북괴가 전쟁 준비를 완성하려고 전 주민을 무장화한다는 명목으로 조직한 것입니다.

남자는 열 여덟살부터 마흔 다섯살까지, 여자는 열 여덟살부터 서른살까지 여기에 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하루에 두 시간 씩, 일주일에 평균 열네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시간은 매 직장의 실정에 따라 하루 걸러 네 시간씩 할 수도 있고 일 주일 분을 몰아서 일요일에 열네 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이란 거의 군사 훈련으로 유격전·사격·전술·행군등 강

후려이 진행됩니다.

이 훈련에 남자들이 격는 고초도 적지 않지만 여자들은 보기 딱할 지경으로 모진 고생을 합니다.

훈련할 때면 흔히 소제 아까보 총(소총)을 메는데 이 총의 길이가 총칼까지 끼우면 1미터 66센치입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여자들이 이 총을 메면 총탁판(개머리판)이 땅에 질질 끌립니다.

이 총을 자주 추켜메고 가랑이가 긴 남자들의 뒤를 따라 반 달을짐을 치며 따라가는 모습은 보기에다 안타깝습니다.

하기 여자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결혼하여 어린애를 낳으면 서른 살이 채 안되어도 노농 적위대에서 빼어 준다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도 어린애를 낳지 못하면 이 특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집 가서 아이를 못낳는 여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랴, 직장에서 노동을 하랴, 노농 적위대 훈련을 받으랴, 눈코 뜰 사이 없는 고초를 겪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평양 종합 인쇄공장 문선공 정 연희도 이런 여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편 김 상도도 같은 공장에 다니지만 직장이 달라서 노농 적위대의 같은 중대는 아닙니다.

결혼한지 다섯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스물 여덟 나이에 아직도 노농 적위대원으로 고된 훈련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 너무 추운데서 견디다 얻어진 병이라 합니다.

연희는 그 병이 기술 학교 시절에 몸에 스며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 노동에 내몰릴 때마다 대동강가 공사에서 물 속에 들어가 물을 썩았었습니다.

찬물 속에 오래 들어가 심한 노동을 반복하니 병이 생긴 것입니다.

연희 뿐이 아닙니다.

북한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에 걸린 여자들이 많고, 또 고된 노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이를 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산아 장려(어린애 많이 낳도록)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여덟 명이상 낳아서 다 기른 여성들에게 <모성 영웅> 칭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죄명이 훈장을 수여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연희처럼 고민하는 여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연희의 몸이 갑자기 무거워 졌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연희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 훈련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돼!

이런 연희가 태기를 느끼고 기뻐한 것은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 다섯 해만에 이제는 자기도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대견스러움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으면 그 지긋지긋한 노동 적위대 훈련

도 안 받게 되겠다는 생각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아이를 무 냈으면 서른 살까지 일 주일에 열 네 시간을 꼬박꼬박 고된 훈련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정 연희는 몸 가짐에 무척 조심하였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들지 않고 버스같은 것도 타지 않고 노농 적위대 훈련에도 몸이 아프다는 구실을 붙여 일부러 빠졌습니다.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식량 배급이 잘릴 것이므로 하는 수 없이 나가고는 하였습니다.

연희가 이러니 자연 직장파와 노농 적위대 간부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당 비서가 노농 적위대 중대장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직장 당 비서가 연희를 자기 방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연희 동무, 요새 어떻게 된 일이오? 그렇게 일에 열심이던 동무가 노동에 비적극적이니, 노농 적위대 훈련에 두 번씩이나 빠지고」

당 비서는 동태처럼 빼적 마른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고개를 끄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랬어요.」

연희는 다소곳이 앉아서 대답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진단서를 내야 될게 아니오? 훈련에 두번 빠졌다는 것은 한 주일 분을 몰아 때려 열 네 시간하는 우리 직장 실정에 비추어서 그렇지, 실은 스물 여덟 시간을 빠진 것으로 된 단 말이오!」

이 말에 연희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어린 애를 가졌으니 병원에 가 봐야 진단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는 노동을 기피하려 한다고 피병이라 할 것

입니다.

당 비서의 무뚝뚝한 음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동무가 훈련에 빠지면 다른 여성 동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번 빠진 것만 해도 용서할 수 없지만 동무 얼굴을 보니 몸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지난 기간 것은 봐 주겠오.」

「고맙습니다.」

「허나 이번 일요일 훈련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오! 알겠오?」

연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아까 직장 게시판에 붙은 이번 노농 적위대 훈련 내용을 보나 산악지대 유격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소총을 메고 산을 달려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치르노라면 반드시 태아에게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아니 잘못하면 유산될 수도 있습니다.

연희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당 비서 동지 이번만은 좀 빼 주세요. 다음부터는 꼭 참가 할 테니까요.」

이번 유격전 훈련만이라도 우선 빠지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당 비서의 눈초리가 사나와 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보아 주니까 아주 형편 없는 소릴 하는군. 정 그렇다면 나는 중대장으로서 동무한테 명령 하겠오. 이번 훈련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되오! 알겠오! 돌아가오!」

연희는 당 비서의 서슬에 질려서 무릎을 떨며 방을 나왔습니다. 절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 숨가쁜 강행군

드디어 열 네 시간 동안 군사 유격 훈련을 받는 일요일이 돌아 왔습니다.

평양 종합 인쇄공장 문선공 정 연희는 적위대 군복에 모자를 쓰고 집합 장소로 정해진 인쇄 공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바람에 불이 선듯 선듯 했습니다.

「연희 동무, 용케 나왔군!」

직장 중대장이 강마른 얼굴에 비끄는 듯한 웃음을 짓고 한 마디 던졌습니다.

두 번 썩이나 훈련에 빠졌으니 오늘이야 네가 안 오고 견디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당 비서는 중대원을 집합시켰습니다.

철십 여명 가운데 여자 대원들이 스무명 가량 되었습니다.

대개가 스무 살 안팎의 처녀들이었고, 스물 여덟 살 된 연희 나 이 또래는 몇명 안되었습니다.

서른 살 난 노처녀가 하나 있었고, 시집은 갔으나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여 서른 살이 찰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스물 일여덟 살 된 여자들이 셋 이었습니다.

연희는 나이 든 여자 대원들과 함께 대열 맨 뒤에 섰습니다.

점호를 끝낸 중대장이 이날 훈련에 대하여 잠시 뇌까립니다.

「오늘은 훈련 참가율이 좋소! 결석자가 많으면 천리마 칭호 쟁취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동무들이 더 잘 알 것이요, 정 연희 동무는 몸이 불편한 데도 오늘 훈련에 참가했오. 참 기특한 일이

「오!」

하고 정 연희 쪽을 힐끗 쳐다 보았습니다. 그 눈초리는 기특하다는 말과는 달리 매서웠습니다.

「요전 번 두 번 빠진 책벌을 주어야 할 것이지만 오늘 참가한 열성으로 보아서 용서해 주겠소! 오늘 훈련은 유격전이요. 장소는 사동 탄광 뒷산이요. 이제부터 그 곳까지 행군할 것이요」 연희는 눈 앞이 아찔했습니다.

사동 탄광 뒷산까지 가려면 삼십리는 걸어야 합니다.

(큰 일 났구나!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연희는 저도 모르게 손이 배로 갔습니다. 꿈틀거리는 태아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아기만은 낳으려고 결심했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지면 서른 살까지 꼬박 군사 훈련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다섯 해만에 가져 보는 아기입니다. 어떻게든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두 번 군사 훈련에 빠졌습니다.

이번 훈련도 빠졌으면 하였지만 당 비서가 울러대는 바람에 끌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 비서 비위를 거슬리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식량 배급이 끊어져 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을 어이하라! 또 이 보다 나쁜 중노동 직장으로 쫓겨날 것도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 갓!」

구렁이 울렸습니다.

모두 어깨에 소총을 메고 걸어 갑니다.

콤포스가 긴 남자 대원들이 대열 선두에 서서 성큼성큼 걸어가니 연희네들은 그 뒤를 따라 가느라 고 가끔 반 달음질을 치고는 했

읍니다.

심리 가량은 그런 대로 따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오리 째 가서부터는 아랫 배가 켤기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차차 가빠졌습니다.

## 전쟁 준비에 희생되는 슬픈 운명들

정 연희의 이마에는 식은 땀 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울랐습니다. 한 손으로 켤겨지는 아랫 배를 움켜쥐고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웬 일예요. 얼굴이 백짓장 같은 걸 봐!」

한 여대원이 눈이 둥그래서, 연희 곁으로 와 팔장을 끼고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보세요! 앞에가는 남성 동무! 연희 동무가 피로와 하는때 총이나 대신 매고 가요!」

그 여대원이 소리쳤으나 남자는 칠곳 되돌아 볼 뿐 거들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원의 생명이오. 그걸 남에게 주고 전투는 어떻게 하겠오!」

오히려 꾸짖는 조입니다.

대열 뒤가 소란해 지자 중대장이 걸음을 늦춰 이들 곁으로 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연희의 얼굴을 보고는 콧방귀를 나직히 끼고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중대 셋」하는 구령을 내렸습니다.



노동 적위대 중대는 멈춰섰습니다.

대동강 건너 미루 나무가 줄지어 선 곳이었습니니다. 중대장이 대열 앞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 하겠소! 삼십리도 안되는 행군에 나오자가 생긴다는 것은 중대의 수치요! 휴식시간에 각소대 별로 회상기 학습을 하오! 지금 몇몇 여성 동무들이 지친 것 같은데 나오자 내는 소대는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에서 빼 버리겠소.

각 소대별로 휴식!」

연희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대원 두명이 그를 부축하여 풀밭에 앉혔습니다.

소대장은 그런 연희는 아랑곳 하지않고 이내 회상기(일정때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싸움을 잘했다고 허위 날조하여 만든 책)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니다.

소대장은 회상기를 읽고 나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보시오! 항일 투사들은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소, 우리가 지금 겪는 행군은 고난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여색할 정도로 수월한 것이오! 그런데 나오자가 생기려 하구 있소! 정연희동무는 두 번씩이나 혼련에 빠졌으니, 응당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소! 정신을 차리시오! 김일성 수령의 정신을 따라서 끝까지 견디어 내야 할 것이오!」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연희는 열 발자욱도 못가서 배를 끌어쥐고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배알이 뒤틀려서 신음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이십 리 길을 총을 메고 달렸으니, 응당



그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 물려든 대원들을 헤치고 중대장이 나서서 쓰러진 연희를 내  
려다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평시 훈련을 게을리하니까 이리 될 수 밖에 없지! 공장 병원  
으로 보내오! 한 사람 때문에 술한 사람이 훈련에 지장을 받  
게 됐군!」

연희는 곧 공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실이 만원이어서 집에 데려다 누이고 약을 지  
어다 먹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보려던 연희의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남편인 김 상도가 극진히 간호했지만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 수록 시름시름 여위어 가더니, 끝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한 여자 노농 적위대원의 슬픈 운명입니다.

오늘도 북한 여성들은 북괴의 전쟁 준비에 내몰려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7. 여자 방직공의 비극

### 아침이면 커지는 편리화

평양 방직 공장에 근무 하는 방직공 최 현숙은 스물 일곱 나이에 두 아들을 거느린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같은 공장의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고 그는 방직기 앞에서 온종일 일합니다.

큰 아이는 인민학교(국민학교)에 보내고 작은 것은 공장 탁아소에 맡겼다가 노동이 끝난 저녁 늦게야 찾아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날 최 현숙은 퇴근 길에 신발 상점에 들렀습니다.

신고 있는 편리화(슬리퍼 식으로 된 운동화)에 새끼 발가락 안저리가 터져서 빠져져 나와 있었습니다.

「뭇문 짜릴 드릴까요?」

여점원은 이렇게 묻고 현숙이가 요구하는 대로 검정색 편리화를 내 놓았습니다.

현숙이 신어 보니 발이 아플 정도로 팍 끼었습니다.

「아유 너무 작네요.」

여점원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현숙은 여점원을 흘끗 쳐다보며 힘 없는 소리로 한 마디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팍 죄는데요?」

「점원 동문 아직 모르시는군요. 방직공의 편리화는 밤에는 작아지구 아침에는 커진다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편리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운동화는 슬리퍼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 끈을 매거나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 편리하다 하여 편리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운동화 끈을 매고 풀기도 귀찮을 지경으로 지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이 신을 택합니다.

현숙이는 돈을 치러 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점원이 이상스러운 소릴 하는 사람 다 보겠다는 듯한 시선을 현숙이 등에 주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제가 한 소리지만 그럴 듯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직공의 신은 밤에는 작아지고 아침에는 커진다는 말은 저녁이면 하루 종일 방직기 앞에서 서성대다 보니 발이 퉁퉁 부어 올라서 신발이 꼭 죄어 들고 잠자고 난 아침이면 밤새 부기가 빠져서 신발이 험령해진다는 것을 두고 한 소리였습니다.

북한에 무릇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므로 이런 고통을 겪지마는



그 가운데도 방직공들은 다기대 운동(방직기계의 기대 여러 개를 다루기 운동)이니, 8자식 기대 점점운동이니, 하는 따위의 가혹한 노동에 내몰기 위한 운동에 온 종일 수십리 길을 걷는 것과 같이 돌아치므로 발의 부기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현숙이가 따져 봐도 하루 팔십리 이상은 걷는 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노동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 빨래를 해야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밤 열 시가 넘어 돌아오면 밥을 먹고 뿔아 떨어집니다.

아니, 뿔아 떨어질 수도 없이 무슨 회의니 해서 또, 편히 쉬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또 5시쯤에 인턴 반장이 「청소요! 청소요!」

단청소)를 하러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시 시작되어 고향하면서 문을 두드리면 눈을 비비며 빗자루를 들고 집채 청소(집된 노동 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리화를 두고 저로서도 그럴듯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은 자기가 한 그럴 듯한 소리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그건 반동적 발언이요!

방직공 최 현숙이 공장 당 위원장실로 불러들어 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당위원장은 현숙을 쌀쌀하게 맞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현숙에게 매우 친절하게 굴고 때로는 은근히 능청스러운 소리까지 하던 자였습니다.

나이 오십이 넘었는데 살이 피둥피둥져서 사십 안팎으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현숙이가 방직기 앞에서 열심히 일 하노라던 제법 의젓이 등을 다독겨려 주며,

「현숙 동문 생김새나 일 솜씨로 보아서 아주 훌륭한 동무란 말이야, 아들이 빨리 컸으면 머느리를 삼았겠는데, 아깝게 놓쳤거든」

하고 너털 웃음을 웃고는 하였습니다.

당 위원장이 유독유독해서 여간 귀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들이나 달리고 남편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에게 까지 그런 농담을 던지는 데는 매우 불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전과 같은 너스레도 떨지 않고 찬기운을 풍기며 현숙을 냉냉하게 전네다 보고 있었습니다.

「현숙 동무, 동무가 요새 귀신이 꼭할 소릴 하구 다닌다며? 당 위원장이 대뜸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 위원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탕 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시치미를 떼는가? 동문 아주 엄중한 언동을 하구 다니는 이색 분자요!」

당 위원장은 현숙을 노려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현숙은 떨려 오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모른다? 종소! 지금 방직공들 속에 이상한 소리가 떠돌고 있는 것은 알 테지 뭐? 방직공의 신발은 아침에는 커지고 저녁에는 작아진다구?」

이 소리를 듣고야 현숙은 가슴에 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신발 상점에서 한 제 말이 저로서도 그럴 듯하여 다음 날 열기대에서 일하는 방직공에게 그런 소릴 또 하고 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직공도 은 종일 일하여 발이 부어 신발이 작아지고 아침에는 밤새 부기가 빠져서 신발이 험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터라 서로 그럴 듯한 말이라고 맞장구를 쳤었습니다.

그 말이 한 입 두 입 건너 퍼지며, 당 위원장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엄중한 반동적 발언이요. 우리 당의 여성 노동 참여

정책을 비방하는 발언이란 말이오! 오늘 우리가 천리마를 타고 전진해야 할 시기에 방직공들의 사기를 떨구고 불평을 야기할 반동적 요소가 다분한 발언이란 것을 알고 했는가 모르코, 했는가?」

현숙은 겁에 질려서 오늘 오늘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그토록 엄중한 과오로 단정될 줄은 짐작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현숙을 당 위원장은 슬개가 병아리를 찰 때와 같은 눈초리로 매섭게 노려 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의외에도 가라앉고 부드러웠습니다.

「범한 과오의 엄중성으로 보아 대중 앞에 비판을 특특히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우선 현숙 동무가 어떤 사람인지도 더 알아 볼 겸, 교육도 줄겸해서 내가 며칠 지도해 보기로 하겠소.」

절으로는 보아주는 듯한 말이었으나 현숙의 마음에는 더 큰 불안을 안겨 주었습니다.

## 교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들

공장 당 위원장이 방직공 최 현숙에게 처음 준 교양은 교양이 타기 보다는도 횡포였습니다.

현숙의 긴 머리채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머리채를 자르다니오?」

「현숙 동문 아직 모르코 있었던가? 일전에 생긴 사고 말이오」  
그제야 현숙은 가슴에 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 여직공이 긴 머리채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습니다.



「처녀 방직공들은 거의 단발이라 일 없지만, 가정 부인들이 야단이란 말이오. 머리 수건을 쓰긴 하지만 일하다 땀이 나거나 귀찮으면 풀어 팽개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든. 현숙 동무! 동무는 일단 과오를 저질렀으니 이번에 좋은 모범을 보여서 씻어 버려야지.」

당 위원장이 늘어 놓은 긴 잔소리를 현숙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떻소? 해낼만 하오?」

현숙은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자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거느린 어머니가 단발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썩스럽겠는지 남이 무어라 하겠는지 모범으로 보다 비웃지나 않을런지 염려되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어요.」

현숙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 위원장은 「흥!」하고 콧방귀를 끼고 현숙이를 무척 불쾌하게 흘겨 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교양이 며칠 동안 서너 차례 반복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숙은 머리채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하니 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정신 빠진 소리야? 누구 망신시키려구 그래. 여기가 중국인 줄 알아? 거기선 시집가면 단발을 한다더군! 별꼴 다 보겠다. 정 그렇다면 피머하면 될 거 아니야!」

「피머가 아니라 잘라야 한다니까요.」

「어쨌든 안돼! 모범이구 개나발이구 모범이 내 얼굴에 똥칠한다!」

현숙은 차마 남편에게 제가 한 발언이 말썽이 되어 당 위원장한테 그런 강요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현숙이 끝내 교집을 부리자 당 위원장은 방직 직장 당 총회 비판 무대에 현숙을 몰아 세웠습니다.

「방직공의 신발은 밤에는 작아지고 아침에는 헐렁 해진다」는 말을 하여 방직공들의 노동 생활을 비방하고 사기를 저락시키려고 한 사상 근원을 털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숙은 호된 비판을 받는 정신적인 고통속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그 따위 소린 생각해 내가지구 그 꼴이야!」

남편은 동정 대신 오히려 역정을 부렸습니다.

여기에 육체적으로 힘겨운 노동 생활이 겹치니 하루 하루 야위어저만 갔습니다.

뼈만 앙상해서 직장을 며칠씩 쉬고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진단서 없이 결근을 한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고통을 안고 그날 그날을 보내는 한 여자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겪는 여자는 현숙이 하나 뿐이 아닙니다.

북한의 많은 여성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불행한 생활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 8. 성흥 광산폭 동

이건 돼지나 소 여물만 못해 !

평안남도 성천군의 남단, 언진산맥의 산줄기가 뺨어 산이 많은 곳에 성흥 광산이라는 금광이 있습니다.

이 성흥 광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회창 땅에는 산골마다 124군부대 무장 공비 훈련생들이 득실득실하였습니다.

자연 성흥 광산은 공비 훈련생들의 특권 행세에 피해를 입고는 하였습니다.

광산 사람들은 누구나 124군부대 하면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보름이 멀다 하게 광산 마을에 고추장을 훔쳐간다, 개를 잡아간다, 때로는 창고를 습격하여 털어가는 난동을 일삼던 공비 훈련생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저력 날이 가서 124군부대에 대한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가셔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산에 열 다섯명의 청년이 광부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열 다섯명의 이력서를 하나하나 훑어 보던 광산 당 비서는 이맛살을 찡그리고 입 맛을 다시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124군부대 제대자들이었던 것 입니다.

일전에 당 비서가 평양으로 회의를 갔을 때, 124군부대에 젊은

신병을 새로 보충하고 나이 많거나 병든 자들을 제대시킨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 제대자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즈음 124군부대 횡포가 광산에 미치지 않은 것도 아마 부대원을 갈기 때문이라는 짐작이 있습니다.

당 비서는 새로 온 자들이 반갑지 않았읍니다.

공비 훈련생 출신이니 특권 의식이 강하고 성질이 난폭하여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저녁에 말썽이 일어났읍니다.

당 비서실로 낮빛이 질린 지도원이 달려 들어 왔읍니다.

「비서 동지! 식당에서 떼 싸움이 벌어졌읍니다. 새로 온 열 다섯명과 광부 수십명이 맞붙어 치구 받구 난장판입니다. 손 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으흠! 짐작보다 조금히 난동을 피우는군!」

당 비서는 의외로 침착하게 내뱉고 쿿 방귀를 끼었읍니다.

「그대로 두면 사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속히 손을 쓰셔야죠」

「내버려 두어! 안전부에서 어렵히 처리하지 않을라구, 그깟 열 다섯명이 얼마나 맥을 추겠어?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고 하자 만 수백명 광부들한테 어쩔 수 있겠어? 아마 지금쯤은 열 다섯명이 모두 넉치가 돼서 늘어졌을 거야, 혼이 나야 길이들지, 그래 싸움은 왜 붙었나?」

「열 다섯 놈이 식사를 하면서 이견 돼지나 소 여물만도 못한 걸쳐먹구 사는구나 했다는 겁니다. 곁에 있던 한 광부가 그러면 이걸 먹구 사는 우린 돼지란 말이냐구 대들자 새로 온 놈 하나가 주먹질을 한게 싸움의 시작이랍니다」

「호음! 알았오, 124군부대에서 잘 쳐먹던 버릇이 나왔군 그래 하여간 골치 아픈 놈들을 받았단 말이야. 어디 함께 식당으로 가

「보세, 벌써 결판은 났을 테니 말이야」

당 비서는 지도원을 이끌고 사건 현장인 식당으로 향하였습니다.

## 구둣발로 턱을 걷어 차

당 비서의 짐작대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싸움판이었던 식당 앞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식당 문 앞에 아까보총을 쏘나든 안전원들이 서성대고 있다가 당 비서를 보고 경례를 척 붙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소?」

당 비서가 묻자 한 안전원이 나직한 소리로 대답합니다.

「열 다섯 명이 다 녹초가 됐습니다. 지금 식당 안에 누어져 있습니다」

「광부들은?」

「몇명 부상자들을 데리구 모두 꺾뺨이 헤어졌습니다」

당 비서와 지도원은 식당 안으로 들어 섰습니다.

안전원의 말대로 열 다섯명이 식당 한구석에 눕거나 앉아서 씨근대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찢기어 피가 엉겨붙은 것으로 보아 호되게 얻어 맞은 꼴입니다.

안전 부장이 안전원들 서너를 데리고 그들 곁에 지켜서 있다가 당 비서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부장 등무, 새로운 등무들에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니구만」

당 비서의 이런 소리에 안전 부장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으나,

때꾸는 하지 않았읍니다.

「병원 동무들을 데려다가 다친 동무를 치료라두 해 주어야지,  
「의사와 간호원이 왔었읍니다. 저 동무들이 치료구 뭐구 필요  
없다구 주먹을 마구 휘둘러서 기겁을 해 도망쳐 갔읍니다」

「으음！」

당 비서는 나직이 신음 소리를 지르코 피투성이가 된 열 다섯  
을 즉 훑어 보았읍니다.

모두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눈마다 적의가 이글  
거리고 있었읍니다.

당 비서는 가슴이 섬찔했으나 태연스런 표정을 짓고 일부러 부  
드럽게 말했읍니다.

「동무들, 참 안됐소. 난 광산 당 비서요. 동무들이 남반부 폭동  
을 위해 결사대가 되겠다고 맹서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  
소. 오늘 사건은 동무들과 광부들이 서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발  
생한 것이라고 보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세우  
지 않겠소」

「거 꽤 인심 쓰시는데, 문제를 세운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나  
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비웃으며, 내던진 소리였읍나  
다.

당 비서는 노기가 울컥 치받쳤으나, 꼭 눌러 참고 그 청년을  
유심히 살펴 보았읍니다.

이제 스물 다섯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인 데, 턱 오돌지게 생겼  
읍니다.

앞, 이마가 툭 빠져져 나오코 눈알이 길었고, 그 속에 박힌 짙  
은 눈이 유난히 반짝이였읍니다.

「동무. 이름이 뭐요?」

당 비서가 묻는 말에 청년은 못방귀를 끼었습니다.

「이름을 대략은 무서워서 떨까 봐 그러슈? 이래 봐두 죽음의 휴전선을 넘으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할 내가 아니라 말이요. 나는 김 창기요!」

「이 새끼가 얼다 대구하는 말 버릇이야!」

안전 부장이 팩 소리 지르며 구둣발로 김 창기의 턱을 걷어 찼습니다.

「으윽!」

김 창기는 불을 움켜 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서 식당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집니다.

「손저짐 하지 마오. 종소! 동무들 우선 치료를 하구 내일 다시 날 만나지. 동무들두 할 말이 있을 테니까!」

당 비서는 이런 말을 남기고 지도원과 함께 횡하니 나가 버렸습니다.

## 목숨 바쳐 일한 대가

그날 밤.

124군부대 제대자 열 다섯명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대강 닦고, 성흥 광산 광부 합숙소 큰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땀뿜은 땀자마자 코를 드르렁거렸으나 김 창기를 비롯한 다수 인원은 눈을 말뚱말뚱 뜯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김 창기의 곁에는 124군부대에서 같은 중대에 있었던 박 희섭이라는 몸이 장대한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 희섭은 광부들과 결투에서 많이 다친 듯 공중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새끼야! 썩썩 대지 좀 마라! 잠 못 자겠다!」

창기가 투덜대자 회섭은 앓는 소리를 툅 그쳤습니다.

창기는 124군부대 내에서도 표독하기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  
니다. 그래서 독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었습니다.

「회섭이, 앓는 소리 그만하구 너 때린 놈 얼굴이나 잘 기억해  
둬!」

「술한 놈이 달려들어 뭇매질을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럼 이 새끼야, 넌 그대로 당하구두 물러설 셈이나?」

창기의 말이 차차 독을 품은 듯 날카로워 집니다. 회섭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난 그냥 안 있을 테다! 안전 부장, 그 새끼 구둣발로 내 턱  
을 짓이겼겠다! 두구 보자!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거  
다!」

창기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한 동안 씨근대었습니다.

「창기 말이 맞다! 나두 날 친 새끼 얼굴을 잘 기억하구 있다!」

저편 구석에서 누군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창기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대로 있지 앓구 싸울 사람은 일어나 앉아 보자!」

창기의 이런 소리에 여기 저기서 불쑥불쑥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덟명이었습니다. 회섭이도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회섭 동문, 친 놈 얼굴도 모른다면서?」

누군지 빈정대었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린 생사 교락을 함께 한 전우 아  
닌가. 너희들 나서면 나두 나선다!」

「좋아! 이래서 동자애가 종단 말이야!」



창기는 희섭이의 손을 짝 잡았습니다.

「내 오늘 솔직이 말하지만 난 광산 막장(갱)에 내려가서 두더지처럼 땅굴 파는 노릇은 못하겠다.」

창기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 대가가 바로 이거란 말인가? 동무들두 나하구 같은 심정일줄 안다」

누군지 저쪽 구석에서 한 마디 받습니다.

「웁은 말이야. 난 휴전선을 뚫다가 부상을 당한 깊은 상처가 있어서 습기찬 땅굴 속에 내려가면 자꾸 추셔댈 거란 말이야! 쟤장! 언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 했던가! 이렇게 피 투성이가 되도록 당하구 가만 있으면 남자가 아니다!」

창기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광산 안전부를 들이치고 혼란을 일으키며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창기는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안전부를 치려면 습격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지금 녹초가 된 몸들도 얼마간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자자! 내일 내가 당 비서를 찾아가 모두 알맞은 자리에 배치해 달라구 부탁해 보겠다. 그러나 이전 때를 기다리는 거다. 가해자들의 얼굴은 단단히 기억해 두자!」

## 우르르 팡! 무너진 광산

성흥 금광 당국에서는 124군부대 제대자 열 다섯명을 모두 운광공으로 배치했습니다.

운광공이란 땅속 깊은 막장에서 착암공들이 파헤친 광석을 밀차로 운반하는 중노동의 당당자였습니다.

김 창기가 당 비서를 찾아가 저들을 광산에서 가장 어려운 노동 부분에 배치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읍니다.

당 비서는 빙그레 야릇한 미소를 짓고 대답했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면 모가지가 열 개 달렸어두 모자랐을 것이오, 동무들이 지난 날 남반부 혁명을 위한 어려운 싸움을 하였다니 참고 봐 주는 거요. 동무 생각해 보오. 동무들 열 다섯명 가운데 광산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소. 그러니 운광공으로 배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오. 과거에 당과 혁명을 위해 일하던 정신으로 잘 해 보'오. 앞으로 광산 일에 익숙해지면 다시 고려해서 배치하겠소」

김 창기는 당 비서의 빈정대는 말투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으나 맞설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디 보자! 네 놈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없나!」 하고 이를 갈았읍니다.

창기의 속셈은 제대자 열 다섯명이 모두 힘겨운 노동에 지쳐 그대로는 더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에 떨어졌을 때 그들을 총동하여 저들을 짓밟고 육보인 안전부를 습격하고 무서운 소란을 피우자는 것이었읍니다.

창기의 생각은 하나 하나 맞아들어 갔읍니다.

습기찬 지하 막장에서 무거운 밀차를 미는 중노동은 제대자들의 불만을 터뜨려 놓았읍니다.

「젠장! 목숨을 내걸고 무장공비 훈련을 죽도록 받았던 대가가 그대 겨우 이거란 말이야!」

박 회섭이 땀 투성이가 된 얼굴을 문지르며 불평을 했읍니다.

「누가 아니래. 엠병 앓을 놈의 새끼들! 기계루 구멍이나 뚫구 폭약으루 터뜨리는 쉬운 일은 저들이 하구 돌가루 먼지 속으로

는 우릴 밀어 넣어 습막히게 하구！」

모두들 투덜대었습니다.

김 창기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차 살기가 떠돌았습니다.

이력저력 한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날도 막장을 폭파한 뒤 연기가 자욱한 굴 속으로 광석을 나르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 창기가 밀차를 밀고 들어서려는 데 「끼익！」하고 동발목 꺾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거라, 동발이 꼬이나 보다」

뒤에서 소리가 나더니 늙은 광부가 달려와서 가스 등으로 동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되겠는 걸, 동발이 맘을 흘려」

늙은 광부가 혼잣말처럼 중얼렸습니다.

동발목이 지압에 꺾어 누런 진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뿌지직」하는 요란한 소리가 그 자리에 우뚝우뚝 선 사람들을 소름끼치게 했습니다.

「도망쳐라! 굴이 무너진다！」

늙은 광부가 소리치며 입구 쪽을 향해 줄달음을 쳤습니다.

창기도 정신 없이 그의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돌에 걸려 폭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꾸르릉 쿵！」하는 요란한 광음이 고막을 후려쳤습니다. 흙 먼지가 확 뿔뿔미를 치고 날았습니다.

창기는 앞으로 폭 꼬구라졌습니다.

## 한 밤에 울린 총성

창기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굴 밖 절벽 위였습니다.

얼굴과 옷이 땀과 흙 먼지로 범벅이 된 광부들이 모두 어깨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기는 광부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더듬으며 124군부대 제대자들을 하나 둘 헤아려나갔습니다. 아홉명뿐이었습니다. 자기까지 열명이라면 다섯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박 회섭이도 없었습니다.

「회섭이! 회섭이 어디 갔어!」

창기는 거센 목소리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광부들은 모두 고개를 푹 별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무너진 굴 속에 파묻고 자기들만 살아나온 것을 죄스러워 하는 듯 하였습니다.

「회섭이!」

창기는 울먹이는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내 털썩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창기네 124군부대 제대자 열명은 광부 합숙 침대에 누워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서 끄끙 앓는 소리가 실 새 없이 들렸습니다.

창기도 팔 다리가 저리고 쭈셔서 이를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붕락 사고로 무너진 굴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닌지 그로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124군 부대원으로 목숨을 내걸고 대남 특공대로 일하려고 했는

데 병들어 쓸모 없게 되니 제대시켜 힘겨운 중노동이 기다리는 광산으로 쫓아 보냈던 것입니다.

광산에 도착하자 광부들과 싸움이 붙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터지고 안전부장의 구둣발에 맞아 턱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하던 박 회섭이 굴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죽일 놈들!」

창기는 입에 거품을 물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번뜩이는 눈으로 자기와 똑 같은 지경에 놓인 제대자들을 주욱 둘러 보았습니다.

「동무들! 난 여기서 죽을란다!」

창기의 이런 소리에 누웠던 사람들이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 놀란 시선을 던졌습니다.

「난 더 참을 수 없다. 안전부를 습격해서 총들구 댕힌 월한이나 속 시원이 풀겠다!」

창기는 우뚝 일어서더니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제대자들 아홉명은 말 없이 풀쭉풀쭉 일어나 창기의 뒤를 따랐습니다.

광산 안전부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봉락사고 현장 시체 발굴 작업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가물거리는 등불아래 보초 두 놈이 거들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창기네 일행은 모두 124군부대에서 습격 훈련을 받은 기습와 명수들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보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창기는 총을 빼앗아 들자 주먹을 맞고 쓰러져 꿈틀대는 보초들을 향해 난사하였습니다. 통쾌한 듯 요란히 웃어대는 그의 두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야밤에 울린 총성은 광산을 벌럭 뒤집어 놓았습니다.

부랴부랴 안전부로 달려온 안전부장은 어스름 속에 숨어 그를 잔뜩 기다리고 있던 창가의 총질에 피를 흘리며 꼬구라졌읍니다.

124군부대 제대자들은 무기고를 부수고 제 자기 총들을 골라 잡았읍니다.

각지의 안전원들이 긴급 출동하였읍니다.

안전부를 점거한 124군부대 제대자들과 안전원들 사이에 밤 재도록 총격전이 벌어졌읍니다.

날이 밝았을 때는 70 여명의 사상자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 봄에 있었던 성흥광산 폭동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산당들은 쓸모 있을 때 써먹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맙니다.

## 9. 청진항의 찬 바람

### 불쑥 나타난 두 개의 그림자

청진항은 일본에서 북송되는 교포들이 첫 발을 내려 놓는 북한  
의 유일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북송 교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후회와 공  
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파란 바다와 하늘, 그리고 등실 뜬 깨끗한 흰 구름과는 너무나  
뚜렷이 대조되는, 공장 굴뚝이 뿜어내는 연기 타래와 무연탄 가루  
가 흩날리는 항도—청진 흙 먼지 길에 북송 교포들의 하얀 운동화  
나 구두가 어지럽혀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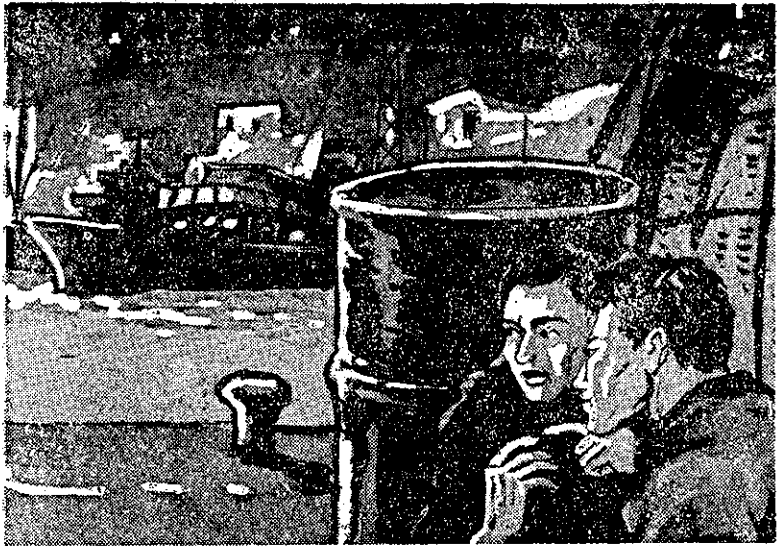
이 청진항에 북송 교포들을 실어 나르는 배 외에 일본에서 드나  
드는 외항선이 가끔 닻을 내립니다.

일본 밀 수출입 장사꾼들이 은밀히 북괴와 교역을 하는 것입니  
다.

북괴가 일본에서 몰래 실어 들이는 물자 가운데는 대남 침략을  
위한 고무 보트와 각종 기재들이 있습니다.

이는 청진 천마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북괴 민보성 경찰국 산하  
청진 훈련소 대원들이 밤에 짐을 내려 비밀리에 마련된 창고로 옮  
겨 갑니다.

이런 외항선에 하나가 청진항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던 어  
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져 온 짐을 다 풀고 북피에서 실어 갈 물건들도 실어서 새벽이 되면 다시 일본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배였습니다. 달도 없는 그름 밤이었습니니다.

배 위에 희미한 불빛이 그래도 넘실대는 파도에 비쳐 번들거리기는 했습니다.

북피 해군 경비정이 이따금 외항선 근처를 지나가고는 하였읍니다.

이 외항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파지장에 키가 후리한 그림자들이 불쑥 나타난 것은 밤 열두시가 지났을 무렵이었읍니다.

「두 사람은 외항선을 쫓아 보며 귀속말을 나직이 주고 받았읍니다」

「너, 기관실에 숨어 들어가서 안 들킬 자신 있노?」

「나 하나 숨을 데 없을락고, 너 드럼통 안에 잘 숨어 있거라」

「내 염려는 마라.」



「만일 너 가고 내 못가문 경숙이 한테 차라리 내 말 하지마라.」  
「임다. 왜 불길한 소리부터 하노. 자신이 없어졌나?」

이 두 청년은 바로 그 때부터 일년전인 1968년 139차 북송선에 실려 북한 땅을 밟은 제일 교포들이었습니다.

김 경숙이라는 친구를 일본 땅에 두고 있는 청년 하나는 박 성식이었고, 다른 경상도 사투리는 성식의 친구 최 길호였습니다.

두 청년은 일본 「교베」에서 건축 노동자로 일하다가 조총련 계열의 달콤한 꾀임에 속아서 북송되었습니다.

북송될 때 박 성식은 따라 나서는 경숙이에게 자기가 먼저 가 보고 「조련계」의 말 처럼 살기 좋으면 오라고 전할 테니 그 때 만나자고 약속해 놓았었습니다.

박 성식은 똑똑한 청년이어서 북괴가 일본으로 거래하는 일체의 편지를 검열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지라 경숙에게 연필로 편지를 쓰면 아무리 북한을 찬양하여도 실은 나쁜 것이니 오지말라는 암호까지 전해 놓았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경숙에게 연필로 쓴 편지를 띄우고 그와 뜻이 맞는 최 길호와 다시 일본으로 도망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는 밀 수출입하는 외항선에 몰래 타고 가서 부두에 당도했을 때 해엄을 쳐서 육지로 기어 오르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가자!」

「조심해라!」

두 청년은 외항선을 향하여 바다 물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 답답한 드럼 통 속에 몸을 숨겨

청진항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 밀수 외항선까지는 헤엄쳐서 이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도망치려는 북송 교포 청년 박 성식과 최 길호는 모터 보트 아래로 늘어져 있는 쇠줄 사다리를 타고 외항선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갑판 위서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밤이 으스스하여 선원들이 모두 잠든 모양인지 불도 거이 꺼져 있었고, 경비실인 듯한 한 구석 방 창에 불이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성식은 최 길호를 기관실 쪽으로 숨겨 들여보내 놓고, 자기도 갑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짐작들이 여기 저기 놓여 있는 화물실이었습니다.

성식은 짐작 사이에 놓인 드럼 통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쪼그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숨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후!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배 속에 숨어든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곳에서 한 이틀 봐도 굶어가며 배가 출렁이는 대로 배 멀미를 겪어야 할 생각을 하니 한심스러웠으나 어쨌든 그 고생만 치르면 다시 일본 땅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국이 싫어서 이렇게 고초를 겪어 가며 일본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련계의 허위 선전에 속아서 북한 땅을 밟아보니 전딜 수 없는 생활이 연속되는 사회라는 것을 차차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형게 도망을 치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연고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의 친형이 평양의 어떤 기관의 간부로 있었읍니다.

일정 때 학도병으로 갔다가 소련군에게 포로가 되었었고, 해방 후 풀려 나와서는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머물러 북괴에게 어떤 충성을 바쳤는지 간부 자리에 들어 앉아 일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형은 복송되어 온 박 성식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읍니다.

서로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따뜻한 정이 오고 가던 친동기간인데 뜻밖에도 쌀쌀하였읍니다.

형의 집에서 자게 된 첫 날, 형은 성식에게 이런 소릴 했었읍니다.

「너, 내가 조사해 보니 일본에서는 깡패와 어울려 다닌 모양인데 여기와서는 내 체면을 생각해 얹전해야 한다. 그리구 출신 성분이 노동자라구 해야 한다」

「출신 성분이란게 뭘데요?」

「아버지가 과거에 똬을 했느냐는 것이다」

「아버진 전에 일본에 건너가 공장을 차리시지 않았나요?」

「입마! 왜 그리 말귀가 어두워! 아버지 출신 성분이 공장주라면 자본가란 말이야! 자본가 아들은 출세 못해! 출세 문제가 아니라 내 간부 노릇두 못한다!」

성식은는 그게야 무엇인지 알듯 했읍니다. 형이 북괴에게 출신 성분을 노동자라고 허위 진술해서 그만한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와서 그 거짓이 드러날까 봐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식은 그래도 형이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부모의 소식이며 안부를 물을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들이 지금 일본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를 행복하게 해 드릴 방책이라도 의논할 줄 알았습니다.

성식은 형에게 실망을 느끼고, 그의 집을 뛰쳐나와 농기계 작업소의 합숙에서 고생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에서의 고생스러운 생활에 끝을 맺었습니다. 이틀만 배 속에서 견디면 일본 땅에 가서 사랑하는 사이인 경숙이도 만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피곤에 지쳐 잠박 잠들어 버렸습니다.

### 「으악！」 비명과 함께 총 소리

갑판 위에 떠들석한 소리에 박 성식은 선잡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어 있는 드럼 통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화물실 안에는 사람하나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발자국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난 몰라요! 혼자서 떠났을 뿐입니다!」

이런 소리에 성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일본 밀수의항선에 숨어 들어온 최 길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길호가 들켰구나!)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갑판 위에서 육박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끼야! 우리 안전원을 머저리로 알아? 어제부터 너와 또 한 놈이 파지장 근처를 우물쭈물 숨어다니는 걸 감시하구 있었던 참이란 말이야! 어서 대! 배 속을 뛰지문 다나오는 거야!」

「모른다는—디 와 이래요?」

길호의 불 부은 소리였다.

감판에서 파당탕 무엇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새끼! 이래두 주둥아릴 다물테냐?」

최 길호가 매를 맞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갈라진 감판 틈 바구니로 하얀 광선이 흘러 들어오는 걸로 미루어 보아 아침인 것 같았습니다.

또 감판에 구뚫발질 소리가 나고 최 길호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식이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올라 왔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싫어서 간다는데 왜 못 잡아 먹어서 지랄이야! 가구 실은 델 못 가게 하문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노!)

「화물실을 뒤져라! 거기 밖에 숨을 곳이 없다구 하니까!」

감판 위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바로 머리 위에 발자국 소리들이 울렸습니다.

성식은 드럼통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더듬어 늘 몸에 간직하고 있던 칼을 뽑아 들고 짐짝에 몸을 바싹 붙이고 섰습니다.

눈에 쌍십지를 켜달고 화물실 출입구를 쏘아 보았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경숙이도 다시 만나 볼 수 없습니다.

앞길이 막혔을 때는 그 길을 막은 놈들과 결판을 내야 합니다. 설사 지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 자기가 가야 할 곳에는 죽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식이의 생각이요 결심이었습니다.

힘 주어 비수를 틀어쥐고 있는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윽고 화물실 출입문이 열리고 복귀 안전원 두명이 들어 서서 어두워 컴컴한 화물실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이 새끼야! 숨어 있으면 어서 나와! 총에 맞아 되지기 전에!」

앞선 놈이 으르렁댔습니다. 두 놈의 손에는 소련제 T.T(매매) 권총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나올 테야?」

이렇게 열려대며 두 놈은 성식이가 몸을 감추고 있는 짐짝 가까이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래 나가마!」

성식은 소릴 지르며 획 달려나와서 앞선 놈의 가슴팍을 향하여 비수를 내질렀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탕!」하는 요란한 총소리를 들은 순간 성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성식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후 두 청년은 뜻도 이루지 못한 채 교화소(형무소)로 들어갔습니다.

## 10. 한 노인의 죽음

### 인민 재판이라는 것

성천강은 함흥 시가를 감싸고 흐릅니다.

1969년 여름에 이 성천강에서 함흥 시민들의 인민 재판을 열어 한 노인을 총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민 재판이래야 말 뿐이지 시민들이 주관하는 재판은 아니고, 복괴 판리들이 시민들을 강제로 모이게 하여 총살 광경을 구경시키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 때 재판 장소에 끌려나온 그 노인은 얼핏 보기에 사람 같지 않을 것입니다.

구레나루가 풍성한 얼굴이 솟 검정 같이 까매서 산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다 찢어진 옷을 걸치고 앙상한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으니 그때도 사람이겠구나 느끼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재판관석 책상 위에는 그 노인의 몸처럼 자루까지 까만 도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함흥시 안전 부장(경찰의 책임자)이 깨지는 쇠 소리로 그 노인의 죄상을 늘어 놓았습니다.

「여러 동무들! 바로 이 시커먼 자가 장진강 상류 산간 지대에서 도끼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강도질을 해 온 자요.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려고 낭립산맥 일대를 이잡듯이 뒤지어 이 자를 체포했소. 여러 날 신문한 결과 이 자는 우리 함흥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추상 저수지 못미처 밤골에 살고 있었던 최 성갑이라는 것이 밝혀졌소」

그 노인이 최 성갑이라는 말에 군중들이 갑자기 응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성갑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전인 1966년 추상 저수지 둑이 무너져 수십채의 농가가 물 속에 떠내려 가고 흙 사태로 수십정보의 논이 문혔을 때, 그 둑의 문을 맡고 있던 안전원(경찰)을 도끼 등으로 때려 실

신케 하고 도주하였었습니다.

안전원은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이미 골이 빠져져 죽어 있었읍니다.

그 도끼 살인자인 그 노인이라니 모두 놀라서 웅성거리는 것이 었다.

몸이 시키던 노인은 최줄로 퐁퐁 류인 몸을 흠칫 떨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앞줄에 노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노인의 희번덕거리는 눈에 눈물이 고여서 불을 타고 흘러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읍니다.

「이 자는 우리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한 반동 분자요, 혁명 동지를 죽인 살인자로 마땅히 총살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전부장의 चे지는 듯 날카로운 소리가 강가에 퍼져나갔읍니다.

바로 이때 그 노인이 류인 두 손을 머리 높이 쳐들고 흔들며 목선 소리로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난 억울하외다! 저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오다! 나 최 성갑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최 노인 뒤에 섰던 안전원이 개머리판으로 노인의 어깨죽지를 내리쳤읍니다.

노인은 채 말을 끝내지 못하고 앞으로 폭 쓰러졌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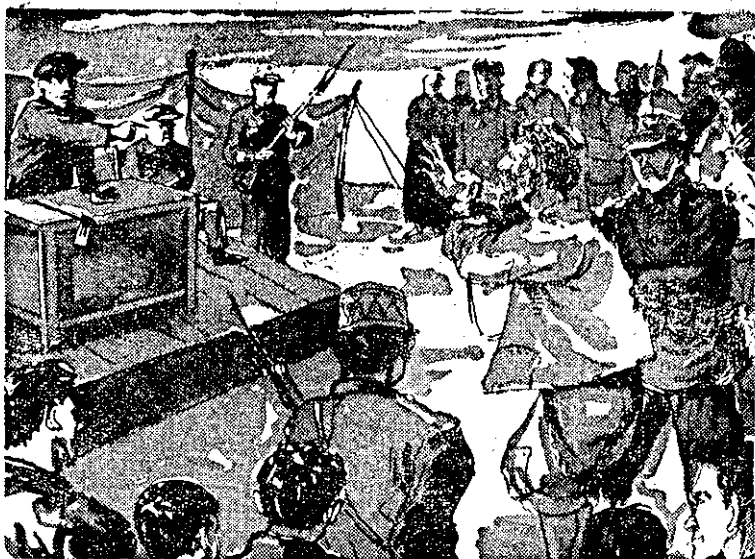
「이 늙은 반동 분자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군! 어서 끌어다 총살대에 묶소!」

안전 부장이 의시대며 안전원들에게 지시했읍니다.

최 노인은 개 끌리 듯 질질 끌려 총살대에 퐁퐁 묶였읍니다.

군중들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읍니다. 강바람에 모래가 날려 기둥에 류인 최 노인의 발을 덮었읍니다.





사실 최 노인은 억울한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 옥! 피를 토한 최 노인

인민 재판에 끌려온 군중들은 어리벉벉한 시선으로 사형대에 묶인 최 성갑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최 노인이 마지막에 외친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귓전에 쟁쟁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노인의 숫가마에서 나온 듯이 시커먼 몸과 재판관 책상 위에 까만 도끼 등에 3년전 추상 저수지를 무너뜨리고 안전원을 도끼로 쳐 죽인 그 노인이라는 증거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면 그 사연을 말해 봐라!」

군중 속에서 누군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연은 들어 뵈하겠소! 자기가 최 성갑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소! 어서 처형이나 하시오!」

안전 부장은, 그러나 그 소리를 막아 버렸습니다.

「아니오! 난 말하겠소이다! 억울한……」

온몸의 힘을 뽑아 소리치는 최 노인의 아랫 배를 안전원이 총대로 또 한번 후려갈겼습니다.

최 노인은 우하고 피를 한 모금 토하고 고개를 털썩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래 벌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실 최 성갑 노인은 너무나 억울한 사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3년전 추상 저수지 둑을 무너뜨린 일도 안전원울 도끼로 쳐 죽인 일도 없었습니다.

최 노인이 알기로는 추상 저수지 둑이 무너진 일도 하늘이 노하여 저지른 것이고, 안전원이 도끼에 상한 일도 천벌을 받아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밝히려던 수년전 추상 저수지 제방 공사 때 이야기로 쳐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방 공사가 한창인 어느 날 복귀 피수 김 일성이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작업장에 시찰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력 동원에 몰려나온 사람들은 산 언덕을 무너뜨려 둑을 쌓고 있었는데 둑에서 가까운 언덕 하나는 허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일성은 그 언덕을 손짓하며 지시했었습니다.

「저 언덕을 허물어 흙을 내리면 일이 더 빨라질 것이 아니오?」  
마침 김 일성이 최 성갑 노인네들이 일하는 곳에서 말했었었습니다.

「저 산 언덕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지오다. 그 제단을 허물어선 안되지오다」

최 노인의 이런 말에 김 일성은 배를 끌어안고 크게 웃었습니다.

「옛날엔 기우제에 빌어서 비를 바랐지만 우린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얻는단 말이오. 여보 노인장! 기우제를 숭상하던 시대는 지나 갔소!」

「그래두 기우제엔 비 내리게 하는 신이 있지오다. 그걸 헐어선……」

김 일성이 또 웃어대는 바람에 최 노인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바이는 사상이 아주 낙후하군! 좋소! 누가 가서 저 기우제를 헐어 버리오!」

김 일성의 이런 지시에 선뜻 나선 자가 바로 마을에 주재하고 있던 그 안전원이었습니다.

안전원은 도끼를 들고 산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작업장 노동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안전원은 도끼로 광광 제단의 기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때 제단의 지붕에서 팔뚝만한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스트북 기어나와서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안전원은 뱀을 보기만 하면 몸을 떨며 무척 두려워 했습니다.

## 마을이 은통 울음바다로

그렇게 쌓아 올린 추상 저수지 제방이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억척같이 쏟아지는 장마로 밀려드는 물을 못 막고 무너져 버린 것  
입니다.

마을의 수십 가호가 떠내려가고 곡식이 패던 논밭이 흙 사태에  
몰려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흙 모래에 비참히 짓 이겨진 논밭을  
어이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협동화라는 명목으로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개 개인의 눈  
을 나누어 볼 수 없게 된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흙 속에 묻힌 그 곡식들은 그들의 손으로 심었고  
땀 방울로 가꾼 열매였습니다.

농민들은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치며 억울한 눈  
물을 툇툇 떨구었습니다.

사나이들이 우는 바람에 그들을 뒤따라 나온 아낙네들이 웃고름  
으로 눈을 닦으며 훌쩍거리었고, 아낙네 등에 업힌 어린애들이 덩  
달아 울어댔습니다.

마을은 삼시간에 초상 난 집처럼 울음 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직도 습기를 머금은 먹구름장이 낮게 드리워 농민들의 머리  
위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사람들의 머리 카락을 흔들리며 음산한 광경을 이  
루었습니다.

「그 늬의 저수진지 뉘지가 끝내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누군지 한탄하며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를 쳐다보는 사람

들의 눈길은 그 말에 동조하는 빛이었습니다.

추상 저수지 독을 쌓기 전만 해도 이렇게 끔찍스러운 큰 물난리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장마가 저도 물은 논몇 마지기를 휩쓸어 갔을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저수지 독을 쌓아 호수를 이루었던 물이 독아 터져는 바람에 한꺼번에 쏟아져내려 논밭을 무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맞았어! 그 저수지가 말썽을 부렸어! 그때 독을 쌓을 적에 벼락맞을 짓을 했었지!」

이렇게 먼저 말에 호응한 사람은 바로 최 성갑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군중들의 시선이 자기한테로 쏠리자 분노로 번쩍거리는 눈으로 독 쪽을 흘겨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때에 기우제단 허문 것이 탈이오다! 내가 뭐라구 했오? 제단을 허물문 천벌을 받는다구 했지애이요!」

마을 사람들의 슬픔은 서서히 분노의 불길로 변하여 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저기서 저수지 공사를 탓하고 제단을 허문 사람들을 저주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밤골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 함경남도 도당(공산당 함경남도 도당)에 보고 되었습니다.

도당 위원장은 도 안전국장(여기 경찰국장)을 도당 청사로 불러 들였습니다.

안전국장은 밤골의 소란에 대한 보고를 벌써 받고 있었습니다.

「도당 위원장 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골로 사전 조사를 할 안전원을 파견했습니다」

안전국장의 말에 도당 위원장은 입맛을 다시었습니다.

「소 잃구 외양간 고치기지! 반당적 선동을 한 자가 있는 모양

인테 철저히 다루도록 하세요。」

아렇게 되어 밤골에 파견되어 온 자가 바로 5년전 저수지 등 공사를 할 때 도끼로 기우제 제단의 기둥을 찍었던 그 안전원이었습니다.

아마 등 공사 때부터 관여했던 자라 이 사건 처리에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원이 사건을 규명도 하기전에 도끼로 머리를 찍혀 죽버 버린 것이었습니다.

### 천벌 받은 안전원

밤골에 조사하러 파견되어 온 안전원이 도끼로 머리를 찍혀 죽기까지의 사연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안전원은 마을에 도착하는 길로 제일 먼저 조사할 대상자로 최성갑 노인을 짚고 임시 심사실로 마련한 빈 창고로 불러들였습니다.

성갑 노인은 창고로 들어간 뒤 한낮이 지나도록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안전원도 꼼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작업반장이 이상해서 창고문을 열어보니 피비린내가 확 풍겼습니다.

기겁을 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안을 살펴보니 안전원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끼 한 자루가 있었지요. 내가 늘 장작을 패고는 갖다 두는 도끼날이 잘 빠져 애먹이던 도끼가 있었어요」

창고지기의 말이었다. 그러나 창고 안에 이미 그 도끼는 없었

읍니다.

안전부에서는 최 노인이 심문을 받게되자 안전원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도주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우제단을 허물어서 천벌을 받았다고 선동한 자이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가웃둥 하였습니다.

평소에 닭 모가지도 비틀지 못했던 최 노인이 사람을 도끼로 찍으리라고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최 노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안전원의 심문을 받을 때 그 도끼는 안전원 몸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참 심문하던 안전원이 문득 어둡컴컴한 창고 한 구석을 노려 보았습니다.

안전원의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안전원의 시선이 박힌 구석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구석에는 팔뚝만한 구렁이가 도사리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곁에 놓인 도끼를 주워들었습니다.

안전원은 기우제단을 허물던 그 날 제단 지붕에서 검은 구렁이가 기어나와 산 속으로 도망 간 뒤부터 뱀만 보면 미친듯이 겁을 먹고 뱀을 쫓아가 기어이 토막을 내고는 하였던 것입니다.

안전원은 도끼를 치켜들고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안전원이 도끼를 세차게 휘두르는 순간 도끼 날이 자루에서 쑥 빠지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곧두박질하면서 그의 뒤통수를

내리 컸던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냇이 빠진채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안전원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가슴을 친 것은 이대로 있다가는 영락없이 자기가 안전원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몰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하여도 소용 없는 복녔땅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정신 없이 피물은 도끼날과 자루를 주워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길로 그는 낭림산맥 숲 속으로 몸을 감춰 버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최 노인은 안전원들에게 붙들리어 성천강가에서 「인민 재판」이라는 생 사람 잡는 연극에 내몰렸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호소하려고 해도 산 울림처럼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안전원들의 총대가 그의 배와 머리를 후려 찔렀던 것입니다.

최 노인은 억울한 사연을 터 놓지도 못하고 소위 반동 분자로 몰려 선천강 모랫벌에서 총살당하였습니다.

최 성갑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산당은 법도 없지!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 11. 어깨 뼈 부러진 할머니의 하소연

평양시 외성구역 서창 인민학교 4학년애 다니는 김 철수 어린



이는 오늘도 꼬마 5개년계획의 하나인 고철 줍기를 하느라고 평천구역에 있는 해운동까지 갔다가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읍니다.

바로 어제 소년단 회의에서도 자기네 반 학생들이 꼬마 5개년계획의 실적이 제일 나쁘다고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터이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양 부록크 공장 제사 공장등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평천구역까지 나갔던 것이었읍니다.

그런 곳으로 가야 고철이나 낡은 함석등을 조금이나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더구나 김 철수는 소년단 분단(分團)의 분단장(분단장은 곧 학급 반장을 의미하며, 부분단장은 부반장이다)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늘 남들보다 모든 일에 앞장서야 했읍니다.

그래서 이날도 밤 늦게까지 자기반 애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고철 수집에 갔다가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읍니다」

「.....」

그런데 웬일인지 방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읍니다.

언제나처럼 「인제 오냐? 고단하지?」하면서 반겨 맞아주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읍니다.

철수의 아버지는 평양시 체신 기술연구소의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언제나 밤 12시 가까이 되어야 퇴근을 했고 또 어머니는 외성구역 국영 상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읍니다.

그래서 철수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할머니 혼자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곤 했읍니다.

그런데 이 날따라 아무 인기척이 없어 철수는 고개를 가웃둥 이  
상하다는 포정을 지으면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철수는 또 한번 할머니를 부르면서 어둡컴컴한 방안을 두리번거  
렷습니다.

그리고 보니 사방이 어두워졌는데도 방에는 전등을 켜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우선 전등있는 데로 다가가서 전등을 켜고 방안을 살펴  
봤을 때야 아래쪽에 누워 가느다랗게 신음하는 할머니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철수는 와락 할머니를 껴안듯이 달려가서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하고 물었습니다.

「응…응…철 철수 왔니？」

할머니 입에서는 겨우 새어나올 정도의 가는 목소리로 더듬더  
듬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어떻게 된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할머니！」

철수는 거의 울상이 되어 할머니를 흔들면서 물어봤습니다.

올해 예순 세살이 된 할머니지만 원래 건강한 편이어서 웬만한  
감기한번 앓지 않은 할머니였습니다.

더구나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앓아 누운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아파요？」

철수는 또한번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어 봤습니다.

「응…응…제…제발…이 어깨를 다치지 말아라…」

할머니는 필사적인 힘으로 철수에게로 돌아 누우며 간신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깨가…이 어깨가 잘 못된가부다…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그 때야 철수는 할머니의 오른쪽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져 보았습니다.

「앗！」

오히려 철수의 입에서 비명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깨뼈가 뭉그러졌어요! 왜, 왜 이렇게 됐지요? 그 보다두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이러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 너무 덤비지 말아라… 이미 이렇게 된걸 떠든다구 낳겠느냐?」

「아니, 그렇드래두… 빨리 병원에 가야되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언제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천천히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 할머니가 인민반 반장을 따라 사격 훈련장에 간 것은 낮 12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근, 전쟁 준비에단 미쳐 날뛰고 있는 김 일성 일당이 50세 이상 70세까지의 노인들에게 까지 사격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은 5년전부터의 일입니다.

그래서 철수 할머니도 한달에 두번씩 강제로 끌려나가 사격훈련을 맡곤 했는데 오늘은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총으로 총을 쏘는 순간 일어나는 반동은 꽤나 큰 것입니다.

젊은 군인들도 총을 쏘면 어깨뼈가 아플 정도인데 예순이 넘은 노인들이 당해낼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관들이 시키는대로 총을 어깨에 빠삭 들이대고 쏜다고 한다면 어깨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 되겠지만 워낙 노인인데 다가가 조금만 실수하면 크게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았습니다.

철수 할머니도 이 날따라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그만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럼 왜 그 현장에서 애길하구 입원을 하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글쎄 그게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드구나……그저 눈앞이 아찔했을 뿐……뭐가 뭘지 한동안 정신을 못차렸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난 그 옆에 있는 풀밭에 한참이나 누워있다가 옆집 헤자네 할아버지한테 의지해서 겨우 집에 오기는 왔는데……점점 더 못견디게 추시는구나」

「할머니! 이러구 있을 때가 아니예요. 빨리 제 등에 업히세요. 우선 구역 진료소에라도 가 봐야지 않겠어요」

「에이구 그만둬라. 네 까짓게 어떻게 날 업는단 말이나? 좀 있으면 네 애비가 돌아올테니 그때 병원엘 가두 가자구나」

「할머니, 아버지가 퇴근하실라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겨우 밤 여덟시니 세 시간은 더 있어야 돌아오실거예요」

「그래두 그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더 있니?」

「그럼 할머니 제가 잠깐 진료소에 뛰어갔다 올테니 그냥 가만 누워 계세요. 혹시 의사 선생을 태려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철수는 할머니의 만류도 듣지않고 진료소로 달려 갔습니다.

구역 진료소에는 본시 준의(의사가 되기전인 준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준의라고 함) 한 사람과 간호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는 고작해야 가벼운 약물치료나 해주는 정도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증명서를 떼어 주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평양 의학대학 부속병원, 임상병원 등 큰 병원에 갈려면 이 진료소의 후송 증명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먼저 진료소를 찾아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선전하는 북한에서 오히려 죽지않을 사람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딱한 실례가 허다합니다.

진료소에 도착한 철수는 진료소 소장인 준의에게 할머니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제발 집까지 왕진갈 수 없겠느냐고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료소 소장의 말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여보시요 학생 동무! 어깨나 좀 다쳤다구 어떻게 일일히 찾아다녀? 그보다 더 급한 환자두 전부 진료소에 오는 판인데,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할머니를 데려와요. 그래야 후송증이라도 오늘중으로 탈 수 있지 않아!」

「그런데 집에는 지금 저 혼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업고 올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이야 내가 알게 뭐냐 말이야. 빨리 아버지에게 기별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런 일 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있어?」

그리고는 다른 환자들을 붙들고 분주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진료소에서 나온 철수는 동 평양에 있는 아버지 직장까지 갔다올 생각으로 버스에 올라 탔습니다.

이런 급한 사정이 있을 땐 여기에서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사용하면 되지만 북한에는 택시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공중전화 같은 것이 없어서 부득불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럭저럭 아버지를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같이 급히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도 두 시간 이상이 허비되었습니다.

철수 아버지가 다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를 업고 진료소에 도착한 것이 밤 11시가 넘어서였는데 그때는 이미 진료소장이 집으로 돌아가고 간호원 혼자서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소 소장 동무는 어딜갔소?」

철수 아버지는 할머니를 업은채 간호원에게 물었습니다.

「퇴근했어요」

「급한 환잔데 어떻게 빨리 조치해 주시요」

「오늘은 안되겠어요. 내일 오세요」

「아니 급한 환자라구 했잖아요!」

「그래두 소장 동무가 없으면 후송증을 뭘 수가 없어요!」

「그럼 소장 동무를 좀 불러 오구려」

「예? 소장 동무네 집이 어딘데 불러와요! 그리구 지금이 몇시에요? 밤 열두시가 가까웠는데…」

아무리 거기에서 육신자신해 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 또 진료소에서의 후송 증명서를 가지구 가지 않으면 큰 병원에서는 접수를 시켜주지 않구……해서 철수네는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야 진료소에서 후송증을 받아 가지고 대학병원에 찾아갔지만 워낙 밀린 환자가 많아서 오후 늦게야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고 또 열까지 높아져서 치료를 받긴 하였지만 좀체로 할머니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몇일간은 그대로 시름시름 앓더니 할머니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일주일만에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철수는 할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를 누가 죽였나요 예? 할머니를 누가 돌아가시게 했나 말예요!」

철수의 눈물은 한없이 흘르고 흘러도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 12. 흥남 부두의 검은 그림자

1969년 늦 가을의 어느 날 새벽 1시

『누구야! 쇠』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안전원은 어깨에 매고 있던 장총을 앞으로 당겨 찰까닥 실탄을 재우면서 다시 고향을 지르는 것이 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홍남(함경남도 동해안 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부두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오던 검은 그림자 대 여섯이 말뚝처럼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그중엔 여자도 한명 끼여 있었읍니다.

키로 보아 아직 열 대여섯 밖에 안되어 보이는 학생들인 것 같았읍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없는 북녘 땅이지만 밤 12시가 지나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읍니다.

이 홍남 부두도 그런 지역입니다.

『어데 있는 동무들이요? 손을 들고 대답하시요!』

검은 그림자쪽으로 다가선 안전원은 총을 겨누채 험악스럽게 물었읍니다.

『저... 저희들은 잠깐 산책 나왔읍니다』

『뭐요? 산책이라구? 여기가 어떤 구역인데 지금 이 시간에 산책을 나와?』

『모르고 그랬읍니다. 곧 돌아가겠읍니다』

『안되오, 거기 서시오! 아무래도 수상하니 더 조사를 해 봐야겠소. 날 따라 오시오!』

『저 경비원 동무! 정말 몰라서 그랬읍니다. 북조선에 그런 지역이 있다는걸...』

『뭐요?』



「저희들은 일본에서 귀국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낯선 일이 많고 모르는게 많습니다」

「아 재일동포였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담, 한번만 용서하겠소. 그러니 다시 이런뎀 밤 늦게 얼른 거리지 마시오!」

「예 알겠습니다」

복송된 재일교포라는 바람에 경비원의 태도가 누구러지코 이들은 위험한 교비에서 겨우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휴—」

다시 시내쪽으로 되돌아 오면서 이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 봐! 그 쪽으로 가면 경비원한테 들킨다구 했지 않어?」

「그렇다구 새까만 밤에 어디에 보초가 서 있는지 알아야 말이지…」

「무슨 다른 수를 써야지 밤에 부두가에 접근한다는 건 어렵겠어?」

이들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북한 탈출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불안감을 더해가며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모두 학생들인지 아직 얼굴에는 앓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친구 사이는 아니고 북한 땅에 복송되어 와서 서로 알게된 처지였습니다.

멋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 복송되어 왔지만 처음부터 못마땅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루에 600그램이라는 배급 쌀에 매달려 한창 클 나이에 배를 곯는다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잠시의 자유도 없이 언제나 값시당하고 생활해야 하는 일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불편을 털어 놓다가 어느 날 드디어

북한 땅을 탈출해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지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꼭 성공하리라는 다짐도 없이 그렇다고 세밀한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항구있는 쪽으로 가면 무슨 배든 몰래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홍남부두에 외국 선박이 들어와 있어 그 배가 수일내로 떠나게 되는 데 일본을 거쳐 간다는 소식을 우연히 얻어 들을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 그 배에만 몰래 탈 수 있다면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만으로 이날 밤 홍남부두까지 접근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다시 모인 이들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열심히 의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부두에 접근한다는 건 그 놈의 경비원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어」

「그렇다구 다른 방법이 있니. 어차피 부두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배에 올라 탈 수 없는거구…」

「글쎄 말이야. 어떻게 부두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로군. 더구나 밤에 말이야」

이 때 그중 키가 제일 작은 학생 하나가 무슨 묘안이라도 생각했는지 무릎을 탁치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부두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겠지?」

「그야 뭐 어렵겠니? 사람들도 들쭉거리랴구 또 누가 물어봐두 학교에서 실습차 견학하러 나왔다구 그러면 돼지…」

「바루 그거야! 그거란 말이야!」

「응? 그거라니…」

「낮에 빼것이 부두안에 들어가잖 말이야」

「그래선?」

「그리구는 우물우물 하다가 어느 창고속에 가서 숨어 있잔 말 일세. 밤이 되도록 말이야!」

「그 창고속에서는 들키지 않을까?」

「해보는 거지. 아무래두 우리가 탈출할려구 했다는 사실이 발각 되면 이거 아니야?」

「꼭아지란 말이지, 그렇지 총살당할지 몰라!」

「그러니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안 그래?」

「종와 이왕 죽기로 결심한 것이니 한 번 해보는 거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낮에 흉남 부두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하는 것 처럼 두리번 거렸습니다.

부두가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나와서 하역작업, 리아카 끄는 작업 등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학생들이 구경 나왔대서 별로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이들은 부두 제일 앞쪽에 있는 어느 창고 곁으로 닥아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져 있어 안을 들여다 보니 감자를 담은 가마니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대낮이고 또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어서 그런지 문을 열어 둔 채 경비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작업을 하다가 딴 일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지 이 창고에 사람이 없다는 게 이들에게는 무척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재빨리 창고속에 들어가 몸을 숨기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망이 어두어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떠드는 소리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이들이 숨어있는 창고에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무엇인가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 때마다 이들은 가마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 습니다.

어떤 때는 문을 닿는 듯한 요란한 금속 소리가 났어도 이들은 꿈 짝 앓고 숨어 있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또 얼마가 지났는지 이젠 아주 주위가 고요해 지고 가끔 호루라 기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깊은 밤 이들은 그제서야 행동할 때 라고 생각하고 모두 일어나서 창고 문 있는대로 닦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고문이 밖으로 잠겨져 있는게 아닙니까?

이들은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결국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른 셈이었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물건이 있는 창고라도 저녁이면 문을 잠구어 버 린다는 극히 초보적인 상식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몰랐다가 보다 너무 탈출하려는 데만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예상치도 않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게 발각이 되고 창고에 숨어 있었다 는 적당한 구실을 내지 못하면 당장 체포되어 갈 것이고 참으로 위급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하지? 모든게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

「그러나 저러나 누가 이런 창고에 숨어 있자구 했어?」

「아니 지금 와서 그걸 따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차피 일 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두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아이구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너무 낙심말아! 하늘이 무너져두 살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아!」

그러나 아무리 궁리를 해봐야 뻔죽한 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다음 날 아침 부두를 수색하는 안전원들에 의해서 붙들리고야 말았습니다.

벌써부터 이들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눈치를 챈 학교 사로칭 조직에서 당에 통보를 했고 또 당에서는 안전원들을 시켜 이들을 수색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사회 안전부에 끌려간 이들 다섯명의 복송된 재일교포 학생들은 안전원의 고문에 못이겨 북한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자백하게 되

었고, 그에 따라 그중 두명의 학생이 주모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홍남시 공설 운동장에서 공개 총살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불쌍하게 죽어간 이들 어린 학생  
에게 동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젊은 북송 교포 학생들은 그 누구 보다도 자유 세계에서 살  
아 보았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느끼었던 것입니다.

### 13. 소련 2세의 여기자

소련에서 온 그녀는 「코리키 문학대학」 출신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백제「러시아」인이요, 어머니는 한국인이라는데 아버지  
편을 더 닮은 모양입니다.

예쁘다기 보다는 고상하고 시원스러워 보였습니다.

후리한 키, 노란 금발, 파란 눈동자가 특징이었습니다.

호수처럼 파란 눈 속에 여간 지성미가 깃들어 있지 않을까 했습니  
다.

노동신문(북괴 공산당 기관지) 편집부에 기자로 배치된 그 날부  
터 바로 김 일수기자의 앞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 유창하지 못한 한국 말을 한 두마디 하고는 불을 발갈게  
불히고는 했습니다.

일 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녀는 김 일수에게

「사과 좀 사 주세요」

하교는 하얀 불을 사과 알 처럼 빨갭게 불렀습니다.

퇴근 길에 일수는 그녀를 평양시 중구역에서 가장 큰 국영 과일 상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풀이서만 가기가 어색하여 기자 두어명과 함께 갔습니다.

얼마 진열되지 않은 대대(상품을 올려 놓진 열대)에 몇 가지 과일이 없혀 있었었습니다.

사과 진열대에는 낙과(비바람에 떨어진 과일)들만 수북이 놓여 있었었습니다.

「사과가 왜 저런 것 뿐세요? 좋은 사과 없어요?」

그녀가 진열대 맞은 편에 선 여점원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선자 동무, 지금 사과가 귀할 때입니다」

일수는 그녀 —박 선자라는 이름이었읍니다—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소련 있을 땐 좋은 사과 많이 먹었는데, 북청, 황주 사과 참 맛 있었어요, 그런데 여긴 왜 저런 몹쓸 것만 놓구 팔까요?」

박 선자의 이 물음에 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테리샤스>나 <아사히> 따위의 좋은 사과만을 먹어 본 모양이었읍니다.

다른 기자들도 말 없이 서 있었읍니다.

여점원은 의아스러운 시선을 외국인 모습인 박 선자에게 주며 무슨 말인지 하려 했읍니다.

그러는데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알겠어요. 좋은 사과 전부 소련과 동구라파에 수출하구 나쁜 거 국내에서 팔지요, 그렇죠?」

하며 선자는 순진한 눈길을 일수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 마디 실수로 앞으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  
다.

「지금 부어라 하셨지요?」

상점 여점원이 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표독스럽게 쏘아 보며  
물었습니다.

「소련에서 나온지 몇일 안되는 동무가 돼서 국내 사정을 잘 몰  
라 한 말이니 흘려 들으시오」

일수는 여점원에게 종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곁에 있던 한 기자가 박 선자를 다른 매  
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당의 상업 정책을 블라두 분수가 있지, 수출 정책을 비방하  
는 말예요」

여점원이 저편에 가 버린 박 선자를 흘려보며 일수께 들으라는  
듯이 한 말이었습니다.

일수는 말 없이 그 매대를 떠났습니다. 다른 물건을 사고 있는  
선자의 늘씬한 뒷 모습이 보였습니다.

핑크색에 화려한 「원피스」에 보드라운 스타킹, 빨간색 「미들」,  
땃땃한 어깨로 흘러내린 노란 머리채.

저런 모습과 차림새가 여점원의 눈을 <귀족적이고 부르조아적>  
인 것으로 가지처럼 찢렸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던진 박 선자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불행한 운명  
의 구렁텅이로 선자를 물고 들어가리라는 것을 미처 짐작하지 못  
했었습니다.



## 당원이 왜 솔직하지 못하지 !

소련 2세의 여기자 박 선자가 첫 봉변을 당한 것은 그 달달 작가동맹 출판사 당 생활 총화회에서였습니다.

당원들이 번갈아 연단에 올라서서 한달 동안에 당 생활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일을 비판을 하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당원들의 '호상' 비판(북괴는 '상호'라는 말을 거꾸로 쓴다)을 받고 연단을 내려서고는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종교에서 영성대에 올라가 고해를 하는 것과도 비슷하였습니다. 다르다면 아마 회의 참석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 내용을 청취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따지고 드는 호상비판을 하는 형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열렬히 따지고 들어 호상 비판을 잘 하는 자는 열성 당원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박 선자가 연단에 올라서서 당 생활을 총화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자는 연단 앞에 서자 쏠리는 듯 시선에 얼굴을 빨갱게 붉혔습니다.

「난 소련에서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이번 달에는 그저 충실히 일하겠다는 맹세로 총화를 대신하려고 해요. 다음 달에 총화를 잘 지어 보겠어요」

선자가 이런 말을 하고 막 연단에서 내려서려고 할 때입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선자 동무, 그런 엉뚱한 소리로 당 생활 총화를 어물쩍해서 넘

기려구 하지 마요」

한 기자였다. 그는 우뚝 서서 연단을 내려서지도 못하고 놀란 눈을 크게 뜬 박 선자를 곧바로 겨누어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자 동무, 내가 알기로는 동문 분명히 비판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선자 동무는 지난 달에 당의 상업 정책과 수출 정책을 비방한 생각 안 나오?」

「제가요?」

선자의 파란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렇소, 지난 달 중순에 사과 상점에 들렀을 때 일어요, 생각 안 나시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 그럴 장소, 내가 대 드리지. 사과 상점에서 좋은 사과는 다 소련과 동구라파에 팔아먹고 나쁜 사과만 국내에서 판다고 한 말 기억나시오?」

「전…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발뺨하려구 하지 마요, 선자 동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기 김 기자 동무와 최 기자 동무도 한 자리에 있었소」

김 기자는 자기 이름을 드는 바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석단에 앉았던 당 위원장이 저편 최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최 동무, 동무는 선자 동무가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었소?」

최 기자는 난처한 듯 우물우물하다가 할 수 없는 듯 「넛」하고 나직히 대답했습니다.

「선자 동무, 그런 말 했다면 엄중하오. 비판해 보시오. 당원답

계 솔직해야지？」

당 위원장이 이렇게 이르자 선자는 기가 죽어서 어쩔 바를 몰라하며

「전 잊어 버렸었어요. 정말 그런 소리 했는지…」

당 위원장이 탕 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바람에 선자의 말은 맥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비판하는 태도가 그렇소, 당원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지」

당 위원장의 호통에 선자는 기가 질러서 몸을 떨었습니다. 선자의 피란 눈에는 눈물이 맺혀 올라 주르르 불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은 왜 흘러, 당원답지 못하게, 어서 자기 비판해 보오」

당 위원장이 다시 옥박지르는데 장내에서 야무질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한 마디 하겠소.」

못 시선이 소리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인 김 철이었습니다.

## 어째서 두둔하는 거요

김 철은 재능있는 시인으로 서른 둘 나이에 세권의 시집을 낸 출판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 철은 자리에 우뚝 선채 장내를 휘 둘러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원 동무들, 박 선자 동무가 당의 상업 정책을 비방하는 말

을 무의식중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무들이 보시다시피 선자동무는 그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선자 동무는 소련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어 아직 여기 사정에 어둡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철 동무」

당 위원장의 거친 음성이 김철의 말 허리를 끊었습니다.

「동무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잘못된 당원을 두둔하려는 건가?」

당 위원장은 김 철을 노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 철은 그 시선을 맞받아 곧 바로 당 위원장을 겨누어 보며 응대했습니다.

「당 생활 총화란 당원의 잘못을 고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덮어 놓고 잘못을 꼬집고 옥박지르는 것이 목적입니까?」

「뭐라구 」

당 위원장은 놀란 눈으로 흘렸습니다.

장내는 모두 아연해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렇게 당 위원장에게 도전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당에 대한 도전은 자기 파벌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철이가 정면으로 거세게 도전해 나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김 철이가 당에 맞서고 나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 철이와 박 선자 사이에 어떤 특이한 인연이 맺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철은 이미 장가들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수는 문득 얼마 전에 김 철이가 하던 말이 생각 났습니다.

「난 말일세, 편집부장 자리 곧 내놓겠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대꾸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이니 말이지만, 난 출신 성분이 부농이란 말이야, 우리 부친이 땅떼기나 가지구 있었지! 결국 난 성분이 나빠서 좌천될 사람이야」

일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철이가 아무래도 좌천될 것이니 바른 소리를 실컷 하고 물러나겠다는 자포자기에서 한 행동인가? 아니면 정의감이 북받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 위원장은 불그락 푸르락하면서 씨근대더니 김 철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철 동무! 동문 선자 동무를 두둔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다면 연단으루 나오시오! 선자 동무와 나란히 서서 당원 동무들 비판에 자기 정당성을 증명해 보라구!」

김 철은 서슴지 않고 두벅두벅 연단으로 올라가서 박 선자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 철 동무!」

박 선자를 처음 비판하던, 기자가 발탁 일어 서서 손가락질을 해 가며 열을 올려 소리쳤습니다.

「동무! 어째서 선자 동무를 변호하는지 그 이유를 대시오?」 김 철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동무한테 한 가지 물읍시다. 동문, 선자 동무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비판을 하려는 거요? 아니면 동무의 그 열성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요?」

「뭐라구!」

「왜 대답을 못하오!」

이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는 맹렬한 논쟁이 빗발치듯 오고 갔습니다.

당 위원장은 서슬이 퍼래서 김 철을 노려보다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선자는 사납게 맞선 사나이들의 논쟁에 질려서 오들오들 떨며 연단에서 내려올 엄두도 못내고 서 있었습니다.

### 반당 분자로 낙인 찍혀

그 이튿날, 작가동맹 당 생활 총화회의에서 시인 김 철은 과오를 범한 박 선자를 두둔했고 당에 반항하였다는 죄목으로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편집부장 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일시에 바위에 튕긴 공들처럼 멀어졌습니다. 편집부장 사임을 인계하는 김 철의 결을 지날 때도 슬금 슬금 눈치를 살피면서 더러운 물건을 피하듯 될 수록 멀리 돌아갔습니다.

반당 분자로 낙인이 찍혀 출당 철직(당과 직장을 쫓겨남) 당한 사람과 가까운 체 하거나 말 몇마디 잘못했다가 뒤에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선자만이 슬픔과 동정이 어린 시선을 김 철에게 던지고는 하였습니다.

박 선자는 당의 「수출 정책」과 「상업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지만 회의에서 비판들에 반항은 하지 않았고 소련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다는 사정으로 경고 책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김 철이 자기 때문에 출당 철직된 것으로 생각

하고 무척 가슴 아파하며 어쩔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자는 집을 향하여 대동강가 보도를 맥 없이 걸어가고 있는 김 철을 남 몰래 뒤쫓아 가서 불러 세웠습니다.

「김 철 동무, 어찌문 좋아요? 저 때문에…」

선자는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말머리를 떼었습니다.

「선자 동무 때문이라니요? 그런 생각 마십시오. 공연히 마음의 부담을 질려구 하지 마십시오. 난 언제든 이런 운명을 걸어야 할 놈이었읍니다」

김 철은 담담한 표정으로 오히려 선자를 위로하듯 미소마져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검푸른 강물에 떨어져 차갑게 번쩍거리고 있을 뿐 주위에는 인기척도 없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어디루 배치 받으셨어요?」

선자가 걱정스러워선지 가늘게 떨리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

「강계 청년 발전소라니요?」

「자강도 북단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노동자루요?」

「네」

「북쪽이라니 무척 추운 곳이겠네요? 곧 겨울이 닥쳐 올 텐데」

「쌀쌀할테죠. 여긴 안 그런가요? 지금도 몸이 떨리도록 쌀쌀한 세상인 걸요」

「미안해요. 모든 것이 저 때문에… 공연히 해를 입으신 생자를 하면… 그래두 전 조국이라구 찾아왔는데 이럴 줄은 미처 몰랐

어요」

「선자 동무. 내 분명히 말해 두겠는데, 하나는 내가 이번에 철  
직 당한 것이 선자 동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자 동무 소련에서 온지 얼마 안되어 여기 물정을 잘 모르니까  
매사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에 조심…」

하다가 김 철은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자의 눈에 눈물이 번  
쩍하더니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한 정이 몽클 치밀었습니다.

「날씨가 싸늘해지는 데 그만 돌아 가십시오. 나도 가서 떠날 채  
비를 해야겠습니다」

김 철의 이런 다정한 말에 선자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차가운 강 바람이 두 사람의 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환참만에 선자는 정신이 든 듯 손수건으로 눈 언저리를 씻고  
독멘 소리를 했습니다.

「어디가나 몸 조심 하세요. 그럼 가보셔요. 사모님이 무척 걱  
정하며 기다리실 텐데…」

둘은 헤어졌습니다.

김 철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안에는 뜻 밖의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 다정했던 아내는 가 버리고

방 문을 열고 들어선 김 철은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내는 보이지 않고, 방안은 이사한 뒤끝  
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옷 껌이 열린 채 양복과 속옷 몇 가지가 방 바닥에 널려 있



있고, 그들먹했던 책장도 반납아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생각하던 끝에 나는 동무와 이혼하기루 했어요. 난 반당분자와 살 만큼 관대한 여성이 못되나 봐요. 아니 그 설한풍 휘몰아치는 강계 청년 탈전소 건설장 같은 데서 노동자의 아내로 생활하는 것이 겁나서 그런지 몰라요. 다신 날 생각지 마세요. 이혼 수속은 이미 재판소에 제출해 댔어요. 우리 사이에 어린애가 없는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고민하던 일이 다행으로 될 줄은 짐작도 못할 일이에요. 내 물건은 다 가져 가요. 나머지는 동무거예요. 만나면 마음이 다시 도라앉을까 봐 겁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니 많이 양해하여 주세요」

김 철은 이를 양다들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 버릴 사람일 줄은 전혀 짐작조차 못하였습니다.

「진숙아!」

김 철은 저도 모르게 아내의 이름을 불러 보았습니다.

다정한 눈매와 그 손길, 애뜻한 말들…….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는가?

아니면 자기와는 무서운 이 사회의 질곡을 뚫고 나갈 자신이 없어서 물러난 것인가?

그래도 삼년동안 오순도순 사이 좋게 한 지붕을 쓰고 살아 온 부부가 아니었던가?

하긴 이 사회가 사람들을 흔히 그렇게 만들 듯이 이기주의적인 때가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란 남편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적에 손을 내밀어 당겨 주고 부축해 주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던가?

이 사회는 부부의 정마저 이렇게 파괴하는 것인가?

김 철은 한 동안 방 한 가운데 우뚝 서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서 트렁크 속에 담았습니다.

책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가 쓴 시집 세권만 짐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튿 날.

김 철은 중구역 재판소로 찾아가서 아내 진숙이가 제출한 이혼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반당 반혁명 분자 또는 중과 분자로 숙청된 자와는 이혼이 성립 됨」이라는 괴상한 재판 <규정>이 있습니다.

재판소 근처에 진숙이네 집이 있었으나 김 철은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그 길을 지나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삼년 동안 정을 붙이고 산 남편을 하루 아침에 미련도 없이 버렸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말다툼 한번 안한 다정한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들을 보고 「비둘기 한쌍」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정성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진숙이의 부친이 강요해서 그녀도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 철은 되돌아 서서 한번 만나 보기라도 할까하고 여러번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으나 끝내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가정의 행복은 깨어진 사기그릇처럼 다시 제 모양을 되찾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김 철은 그 날 밤, 북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 나 까지 망치려고?

김 철이가 아내한테 이혼 당한 홀몸으로 강계 청년 발전소 전설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 보다는 가슴 아파한 사람은 소련 2세의 여기자 박 선자였습니다.

김 철이 자기 때문에 모진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마음이 저리 편차에 그런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선자는 퇴근 길에 김 철의 아내 진숙을 찾아 갔습니다.

왜 남편을 버렸느냐고 그 아내를 나무라고 싶었습니다. 아내 가정에 해를 끼친 자기 잘못을 빌고 진숙이더러 김 철을 따라가 돌봐 달라고 애걸하고 싶었습니다.

서기산 기슭에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 한참만에 눈초리가 깔끔한 여자가 나와서 물어 오라는 말도 없이 선자를 날카롭게 훑어 보았습니다.

「아, 눈이 파란 걸 보니 동무가 바로 소련에서 왔다는 박 동무군요. 그렇죠? 어떻게 찾아왔지요?」

「진숙 동무세요?」

「무슨 일이죠?」

진숙이 몸에서 찬 기운이 풍겼습니다.

선자는 말을 하려 했으나 입술이 떨릴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보대처럼 서 있지만 말구 용건을 빨리 말해 봐요!」

진숙이가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선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별 심거운 사람 다 보겠네! 용건두 없이 왜 남의 집 문을 두

드리지? 원!」

선자의 코 앞에서 문이 팡 닫혔습니다.

안으로 멀어지는 진숙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가슴을 짓밟으며 가는 듯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선자의 볼이 차차 빨갭게 물들어 갔습니다. 머리로 피가 콰물려 올라왔습니다.

선자는 외락 때문으로 다가가서 주먹을 틀어쥐고 「꽁꽁!」 두드렸습니다.

다시 발자국 소리가 가까와지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동무가!」

진숙이의 치째진 도끼눈이 험상궂게 선자를 노려 보았습니다.

「진숙 동무, 절 용서해 주세요! 김 철 동물 도와 주세요!」

「흥! 동무, 언제부터 그렇게 김 철 동물 생각해 졌어?」

「진숙 동무! 그이가 어려울 때 도와 줄 분은 아내인 동무 밖에 없지 않아요? 내!」

「오라! 꽤 용한 소릴 하는데! 난 이제 김 철이 아내가 아니오! 그 사람 잡아 먹구 나 까지 망치려구? 흥! 어림 없는 소리!」

다시 황하며 문이 닫혔습니다.

「날더러 그러지 말구 제가 한 번 그 산골로 쫓아가 도와 줘 보지!」

문 안에서 들리는 진숙이의 앙칼진 소리였습니다.

선자는 넋을 잃고 한 동안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느 새 어스름이 기어들어 사위는 먹물을 뿌린 듯 어두워졌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선자의 마음도 그렇게 캄캄하였습니다. 피로했습니다.

밤길을 걷는 발은 추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김 철 동무와 같은 분이 어떻게 저런 여자와 함께 생활을 했을까? 저런 여자라면 차라리 따라가지 않은 것이 낳았을지 모른다.

아니 왜 내가 공연히 남의 욕을 하나? 일은 제가 저질러 놓구...)

문득 방금 진숙이가 던진 말이 컷전에 다시 울렸습니다.

(.....제가 한 번 그 산골로 쫓아가 도와 줘 보지!)

먼 하늘에 흘러가는 먹구름장 사이에서 별 하나가 반짝 빛났습니다.

「김 철 동무 미안해요!」

선자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 아득령 마루에 올라

토끼 똥이 굴러 눈 사태를 일으킨다는 연화산의 강파른 영을 올라 서면, 해발 2천을 넘는 준령들이 웃줄웃줄 어깨를 겨루고 동서로 비스듬히 뻗은 모양이 한 눈에 깔립니다.

낭림 산맥입니다.

이 낭림 산맥의 등을 가로 타고 넘는 고개길이 아득하다 하여 <아득령>이라 불립니다.

아득령은 늘 허리에 구름을 떠처럼 휘감고 있어서, 아래에서 안 보이고 또 영을 올라서면 산 기슭이 안보입니다.

매운 뒷바람에 강대 나무들이 울고 흘날리는 눈가루에 아름드리 진대풀이 덮입니다.

이 아득령 마루에 하얀 고급 「슈바(외투)」에 털장화를 신은 박 선자가 올라 섰습니다.



파란 머리 수건을 동여 쓴 얼굴은 추위에 빨가게 얼었습니다.  
함께 영을 넘는 사람들의 시선은 눈이 무르고 키가 후리후리하  
고 몸에는 외국제 고급 의복으로 단장한 선자에게로 쏠리고는 하  
있었습니다.

「아저씨 발전소 건설장 얼마나 더 가면 되나요?」

선자가 절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솜옷 차림의 나이 든 사  
람에게 물었습니다.

「영을 내려서두 팔십리니 아직 멀었지요다」

나이 든 사람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도 거기서 일하세요?」

「그럼 이 고개 넘는 사람은 모두 거기 노동자예요」

「전 초행인도네 아저씨 따라 가두 없지요?」

「새로 오는 기사 동무요?」

「아니예요. 거기 누구 좀 만나려구 가는 길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묵묵히 내리막 길을 앞서 갔습니다.

반 선자는 산길에 익숙하지 못하여 뒤뚱거리며 노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지금 강제 청년 발전소 건설장으로 김 철을 찾아 가는 길입니다.

회의에서 비판을 받는 자기를 두둔해 나섰다고 출당 철직 처분을 받고 이 험한 산골의 노동자로 쫓겨 내려간 그를 아내마저 버렸을 때, 그렇다면 내가 그를 돌봐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싹틔던 것입니다.

선자는 공리를 거듭한 끝에 자기 때문에 희생 당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기차 직분을 버리고 그와 같이 고생을 감수하며 그를 도와 주리라 마음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청부지 애들처럼 공연히 흥분해서 떠나지만 그 고생을 맛보면 며칠 못건디고 돌아 올 걸!」

떠나는 선자의 등에 대고 한 기자가 한 소리였습니다.

(아니 안돌아 온다! 쌀쌀한 눈초리들, 가슴을 죄어드는 분위기, 남을 헐뜯고 저만 잘 되려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 다시는 이곳으로 안돌아 온다!)

선자는 속으로 이런 결심을 다졌었습니다. 막상 떠나고 보니 숨막히도록 답답한 굴속에서 벗어나 나온 듯 오히려 후련하고 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노인의 뒤를 따라 눈길을 헤치며 걷고 있는 선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김 철을 생각하는 정이 감추어져서 그것이 그 어떤 불처럼 가슴을 훈훈히 데워 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을 내려 큰 길에 접어드니 길이 편편하여 한결 걷기 수월했

입니다.

선자는 노인과 나란히 서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 곁에서 짝 부레이크 밟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돌아다 보니 지프차였습니다. 앞 문이 열리고 얼굴이 두툼한 사람이 상반신을 쭉 내밀더니 박 선자에게 물었습니다.

「여 동무, 어디까지 가시오?」

### 불길한 예감이 가슴 스쳐

선자는 상대방에 기름기 흐르는 유들유들한 얼굴과 빨갛게 충혈된 눈이 마음에 걸려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발전소 건설장으로 가시는 길이면 이 차에 타시오. 마침 한 자리 비어 있으니…」

중년의 그 사람은 선자의 모습을 유심히 훑어보며 권했습니다.

「전 이 아저씨와 동행인데요」

「둘은 앉을 자리가 없는데…」

곁에서 묵묵히 서 있던 노인이 한 마디 했습니다.

「여 동무, 타구 가지우다. 난 길이 환하재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동행해 왔는데 저 혼자 편안히 차를 타구 가요?」

선자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듯한 시선을 노인에게 주고 나서 지프 쪽을 향하여 꼬마우나 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으흠!」

중년의 사람은 선자를 지그시 노려보더니 문을 탕 닫았습니다.

차는 요란한 발동 소리를 내고 떠났습니다.



「저 사람이 건설장 당 위원장이외다.」

노인이 멀어져 가는 지프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당 위원장! 저런 사람이...)

선자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다음에 노인과 선자는 한결 가까와졌습니다.

노인은 자기 이름이 박 영우고, 콘크리트 타입공으로 일한다는 것과 건설장의 형편을 대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 선자도 성이 같은 이 노인에게 정이 끌려 자기가 소련에서 나왔다는 얘기로부터 김 철을 찾아 이렇게 건설장으로 오게 된 경위를 주욱 털어 놓았습니다.

「기다리는 건 고생 뿐이겠군...」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 처럼 중얼거리며 선자를 무척 동정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친 다리를 끌며 발전소 건설장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캄캄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임시 바라크에 불빛들이 희미하니 여기 저기 반딧불처럼 깜박이고 있을 뿐이고 어수선한 현장이 공사장의 냄새라거나 할까, 누구의 거동을 억제하는지 호각 소리가 가끔 울렸습니다.

「여긴 여관두 없으니 우리 집에 가시오다. 김 철이란 청년두 이 밤엔 못 찾지. 널 내가 찾아 주기루 하지오다.」

박 노인의 이런 권고에 선자는 다른 도리도 없고 해서 노인의 집으로 따라 갔습니다.

집이라야 판자 조각으로 지은 임시 노동자들의 바라크였습니다.

반백의 할머니가 노인과 선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니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비와 눈서기 물이 새어서 방바닥이 무슨 지도를 그린 듯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노친네에게 선자를 만나 함께 오게 된 경위를 대충 얘기해 주자 노파는 선자의 손을 끌어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에그 이 추운 데르 어쩔라구 찾아왔소고마」

「제 집처럼 생각하구 편히 쉬지우다. 김 철이란 동문 내 내일 찾아 데리고 오겠소다」

박 노인의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쯔쯔…… 이 누추한 데서 어찌 쉬겠음, 하루 밤 고생하소」

노파는 누더기 이부자리를 펴 주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누웠습니다.

선자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원거무 흘러나와 벼개 머리를 적시었습니다.

「자소, 예! 우리 영감이 널 그 종각 찾아 준다지 에이오」

어머니처럼 다정히 달래 주는 노파의 말에 선자는 오히려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 당 위원장의 횡포

박 선자가 찾아 왔다는 소식을 들은 김 철은 점심 시간에 부랴 부랴 박 노인 집으로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 선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방금 웬 사람이 와서 데리구 갔수!」

박 노인의 노친네 말이었습니다.

「뭐라구요?」

「무스기라더라? 당 위원회 동부들이라구 하던데? 마구 끌고 갔재이오」

「당 위원회에서요?」

김 철의 가슴은 설썩했습니다.

(선자가 온 걸 어느새 알았을까? 선자는 무엇하러 왔을까? 그를 어썩서 당위원회에서 끌고 갔을까?)

김 철은 획 돌아서서 당 위원회 청사 쪽을 향하여 달음박질했습니다.

한편 당 위원장실 안에서는 당 위원장과 선자가 넓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급 당에서 동물 곧 돌려 보내라는 통보가 내려 왔소! 김철 동물 만나러 왔다구 하는데, 그런 반당 분자를 만나 보는 것은 선자 동무 선상에 해로울 것이오. 동문 당원이니까 당의 지시를 복종해야 할 것이오!」

당 위원장은 유들유들한 얼굴에 일부러 거만스러운 엄한 표정을 짓고 내뿜은 소리였습니다.

「떠나 올 때 그냥 보냈었는데 그런 지시가 내리다니요? 어썩든 전 김 철 동물 만나 봐야겠어요」

「이 동무 봐라! 꼬집이 대단하군! 생긴 것과는 딴 판인데…」  
당 위원장은 이런 녀석 좋은 소릴 하면서 선자를 넌지시 살피고 보았습니다.

참으로 북녘에서는 보기드문 예쁜 얼굴입니다. 지성이 깃들고 맵시있는 몸매입니다.

당 위원장은 단참 그를 훑어 보았습니다.

「동무의 정상을 보니 나도 측은한 생각이 안드는 바는 아니오. 참! 어찌다가 동무 같은 훌륭한 여성이 그런 반당 분자와 알게

되었나? 알 수 없는 일ियो」

「당 위원장 동지, 절 그냥 여기 남아 있게 해 주세요. 김 철동 문 저 때문에 그런 오명을 쓴 사람이예요. 제발 그이가 고생하는 이 건설장에서 저도 고생을 하고 싶습니다」

선자는 매달리듯 애걸하였습니다.

「으흠!」

당 위원장은 잠시 심각한 생각에 잠기는 기색을 지었읍니다.

사실 당 위원장은 평양으로부터 박 선자 문제에 대한 전화 연락을 받았었읍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다시 올려 보내라고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읍니다.

평양에서는 박 선자가 그리로 내려 갈 것이니, 고된 노동 부분에 배치하여 혼을 내주고, 그래도 반당 분자인 김 철과 어울릴 때는 출당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처벌을 안겨 주어 당에서 쫓아 내라는 지시였었읍니다.

「선자 동무, 정상이 딱하니 내가 고려해 보지. 상부에 두 종두 룩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 둘 것은 내가 배치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메라두 무조건 가서 일하겠다구 약속하는 것이오」

선자는 이 당 위원장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핏 짐작이 가지 않았읍니다.

「알겠소?」

당 위원장이 뜻을 박으려는 듯 물었읍니다.

바로 이때 노크 소리가 푹푹 울리고, 문이 벌켜 열렸읍니다.

획 고개를 돌리고 본 선자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벌떡 일어섰읍니다.

눈 앞에는 김 철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 증노동에 뼈와 살이 깎여

잠시 무거운 침묵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선자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철의 눈과 선자의 눈이 맞부딪혔습니다.

천 마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선자는 김 철의 시선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자기를 책망하는 말들을 읽었습니다.

「김 철동무, 이리 와서 앉소」

당위원장은 의외에도 점잖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 철은 묵묵히 당 위원장이 가리키는 대로 선자의 곁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선자 동무가 동물 찾아왔는데, 난 돌아가라고 권했소. 그러나 자꾸 동무 곁에 있겠다고 우겨서 봐 주려고 하는데 김 철 동무 의견은 어떨소?」

당 위원장의 이런 말에 김 철은 선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못을 박듯 힘주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자 동무,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야 합니다」

선자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피어 올라서 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린가? 응?」

김 철 동무. 동무를 찾아온 사람이란 말이야!」

당 위원장이 제법 노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시다면!」

김 철이 노한 눈길을 당 위원장에게 핵 돌리고 따지듯 말했습  
니다.

「어째서 당 위원장 동무는 날 찾아온 선자 동무를 강제로 붙들  
어 들었지요? 선자 동무는 날 찾아온 사람이오!」

「그래?」

당 위원장의 눈에는 성난 빛이 번쩍이었으나 이내 그것이 지워  
지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데리고 가지! 선자 동무는 따라가고!」

「종소!」

김 철은 선자의 팔을 휩 나꿔채어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선자는 말 없이 고분고분 따라섰습니다.

「선자 동무! 다른 말 마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김 철이 명령조로 말했으나 선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 저었  
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도 천대를 받을 사람이예요. 김 철 동무 결  
에 있게 해 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두 견뎌 내겠어요. 김  
철 동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김 철은 말 없이 앞서 걸어가고 선자는 끈에 달린 듯 그의 뒤  
를 따라갔습니다.

이리하여 소련에서 나온 여기자 박 선자의 고남에 찬 노동 생  
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그래도 김 철이가 늘 보살피 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  
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록 야위어져 갔습니다.

심한 노동도 힘겨우려니와 당 위원장이 능청을 떨 때 피롭히려  
고 드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 위원장은 김 철과 박 선자를 발전소 건설장에서는 가장 힘든 노동 부문인 타입 직장에 배치했습니다.

노동이 처음인 박 선자가 그런 대로 견디어 간 것은 그래도 박 노인이 은근히 도와 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노인 한 사람의 힘이 그 무서운 공산 사회의 억압에서 얼마나 맥을 칠 수 있으랴!

소련 2세 여기자 박 선자는 두 해를 못 채우고 병석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 14. 남 쪽을 향했던 어느 청년의 몸부림

북한의 서해 항구인 평안남도 남포시의 어느 골목에서 나이에 비해 건장하게 생긴 청년 두명이 어둠을 뚫고 부둣가를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6월 하순 어느 날 밤.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초여름의 무더위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어! 오늘은 기어코 성공해야 해! 덜비지 말구 침착하게 행동하자구!」

「응 알았어!」

「그런데 그 배가 제 위치에 그냥 있을까?」

「틀림없어 오늘 낮에 두 남포 수산학교(진남포) 애들에게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노리는 배가 수산학교에서 실습용으로 가지고 있는 배가 틀림없지?」

「글쎄 그렇다니까!」

이들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용정동을 지나 해안동에 다달  
았습니다.

남포 선창가가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직은 밤 9시 조금 지난 시간이어서 부두 노동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잠시 어느 창고뒤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알게 된 것은 남포 유리 공장 노동자로 들어온 뒤  
부터였습니다.

칠복이라는 청년은 평안남도 용강군 옥도리에 고향을 두고 진  
지동에 있는 용강 고등학교를 졸업, 대학에 진학하려다가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남포 유리 공장 노동자로 배치된 청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달리 성적이 뛰어나 어떻게 보면 곧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학교 친구들간에도 소문난 칠복이었지만 대학 진학  
이 막힌 뒤부터는 아예 사람이 급변해 버렸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안생기고 특하면 반발하는 이  
상한 성격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남달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그것이 소위 성분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길이 막힌 뒤부터 사람  
이 달라진 것입니다.

「칠복」의 친척중에 6촌형이 6.25당시 남으로 월남했다는 사실  
때문에 칠복이는 언제나 성분이 나쁘다는 낙인과 함께 남 모르는  
감시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추천을 받으  
려고 담임선생을 찾아갔다가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들었던 것입  
니다.



「칠복이 자넨 머릿도 좋고 성적도 뛰어나지만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네！」

담임 선생도 안타까운듯이 칠복이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전 꼭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천 책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주십시오」

「글쎄다…네 딱한 사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어디 우리 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니? 더구나 대학 진학문제는 당에서 결정이 내려야 하는 전제… 월남자 가족은 무조건 추천 안해 준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니？」

「선생님, 그러나 저의 경우엔 6촌형이 아닙니까? 6촌형이 월남했는 데도 저희들까지 그 영향을 받아야 하나요？」

「글쎄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그러나 모든 걸 단념하구 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 밖에 없잖니？」

「선생님! 전… 전 대학에 못가면 차라리 죽어버릴테야요」

그러나 끝내 칠복이는 대학 진학에 대한 추천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용강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그에게 쥐어진 것은 남포유리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라는 <배치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하면 좋와요. 제게는 책 뿐인데 저 한테서 책을 뺏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지요? 네? 어머니!)

칠복이는 생각할 수록 분하고 원통했으나 어디다가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차라리 자살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칠복이에게는 단 하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옥도리 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일하는 어머니를 남겨 두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남포 유리 공장 「용해공」으로 배치된 것은 그로부터 며  
칠후의 일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복이가 하는 일은 유리 원료인  
「규사」를 녹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친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안 현이라고 부른 그 친구는 얼마전 일본에서 부모를 따라 북  
송선을 타고 북한 땅으로 돌아온 18세 난 북송 교포였습니다.

그런데 현이라는 그 청년도 다른 모든 북송 교포들이 품고 있  
는 것과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에 오면 대학에 보내 준다는 선전이 실제 와서 보나,  
대학에 가는 북송 교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이도 북송되어 온 직후 이 곳 남포 유리 공장 노동자로 배치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불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하는 틈틈히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공산당의 처사  
에 대해 치솟는 울분을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이라는 청년이 작업 교대가 끝나고 숙소로 들  
어가는 길에 칠복이를 불러 가지고 어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영똥  
한 제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아! 우리 이런 생활을 깨끗이 청산해 볼까?」

「뭐라구?」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보자는 거야!」

「그걸 어떻게 !」

「음... 너만은 모든 걸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애 얘기하는데 말야...」

하고는 주저하는 듯 철복의 얼굴을 쳐다 보다가 다시 주위를 조심스럽게 휘둘러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얘기하다 말구 어서 계속해 !」

「아니야,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래」

「뉘네 그러니 네 얘기라면 어떤 것이든 들어주마」

「철복이 ! 우리 월남해 버릴까 ?」

「뭐라구 ? 월, 월남 ?」

「그래 이 곳을 탈출해서 저 남조선으로 가잔 말이야 !」

「너 정신이 있니 ? 그걸 말이라구 해 ?」

「철복아 ! 심각히 들어 봐, 나 그 조총련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런 델 와서 고생한다고 치자, 근데 너 뭐니, 그렇게 공부하구 싶어하는 너를 이런데 막아두는 공산당의 처사가 옳은 것 같니 ? 난 정말 네 두뇌가 아까워서 그런다」

「글쎄 나에게 공부만 시켜주는 곳이라면 난 어디라도 갈거야 !」

「바로 그거야, 철복이 이제니까 얘기하지만 내 고향은 경상남도 진해래...」

「넌 일본에서 났다면서 ?」

「나기야 일본에서 났지만 우리 고향이 진해라구 아버지가 그러시드라...」

「그러나 가 보지두 못한 고향이 어떤 곳인줄 어떻게 알어 ?」

「그래두 여기보다야 낡지 않겠니 ? 거기서는 최소한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있잖니 ?」

「가 보지두 못하구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니 ?」

「난 다 아는 수가 있어! ...아무튼 잘 생각해 보구 결심을 채택하라구... 잘못하면 생명을 거는 위험한 모험이니까 말야」

「알겠어, 생각해 볼게」

이리하여 이들은 점차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 대만에 월남하려는 결심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실행하려고 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남포 부두가에 인적이 뜸해진 밤 11시 경에 조심스럽게 선창가를 끼고 어느 선박앞에 이르렀습니다.

미리 봐 두었던 남포 고등 수산학교 실습용 선박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선박을 탈취하여 월남하려는 계획밑에 기관실을 움직이는 기술까지 미리 약간 익혀 두었던 것입니다.

용케 배안에까지 올라타게 된 이들은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말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기관실에서 무슨 인기척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 배안에 누가 남아 있나?)

(혹시 경비하는 사람이나 아닌지?)

이때 갑판위를 올라오는 기관장과 마주쳤습니다.

「동무들은 누구요!」

낮선 청년에 부닥친 기관장은 벼락 고향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에 기관실에 있던 다른 선원 몇 명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구 보니 이 배안에는 선장과 갑판장 그리고 대 여섯명의 선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청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배를 좀 구경하려구요」



「뭐 구경? 지금이 몇 신데, …배안에 우물거리는 거옷! 음 아무래도 수상하군, 여보 이 동무들을 불러서요. …철저히 조사해 봐야겠으니…」

사태는 의외로 심각해 졌습니다.

현이가 먼저 기관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만약을 예견하여 단도 하나 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붙들리면 월남하려던 자기들 정체가 들통이 날까  
고 그렇게 되면 총살될 게 뻔하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사정을 해 봐야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  
니다.

이들은 이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할 때까  
지 해 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칠복이도 어째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단도를 꺼내들고 이들과  
맞붙었습니다.

일대 격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기관장이 먼저 칼에 찢리고 갑판장과 선장이 차례로 쓸러졌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급한 김에 바닷 물에 뛰어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태는 매우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철복이나 현이 모두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자신들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복한 땅에서 맺히고 맺힌 원한이 여기서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찢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으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여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복한 땅을 탈출하여 자유 대만에 월남하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급히 기관실에 뛰어 내려가 배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몇가지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움직일 수는 있었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조작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는데 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배를 조작하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배를 남쪽에 까지 몰고 온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철복이! 용기를 내라구! 하늘이 우릴 도와줄지 몰라! 자 이 걸 힘 있게 잡아 당기라구」

그러나 이 사건이 그대로 넘어갈리 없었습니다.

남포시 당 위원회에서는 비상령을 내리고 각 수산 사업소에 이들의 추적을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포에 주둔하고 있던 북괴 해군에서는 경비정이

출동하였고, 각 함선에 까지 이들의 수색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몇시간이 흘렀을까... 이들이 탄 배는 드디어 북피 해군 경비정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북피는 이들에게 반역죄를 들씌우고 남포시 공설 운동장에서 공개 총살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1970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월남하려던 두 청년은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 아홉이라는 어린 나이로 영원히 눈을 감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 15. 이렇게는 못 살겠소

### (1)

평양에서 약 80리 가량 서쪽으로 떨어져 강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 구역으로는 평안남도 강서군 강선리에 속하지만 평양과 남포간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고, 또 강선 제강소라는 커다란 공장이 있어 한 때는 시로 승격시키자는 말도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강선 제강소는 요즘 북한에서 한창 벌리고 있는 천리마 운동 (북녘 주민들의 노동력을 혹사하기 위해 강제로 내모는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는 점에서 김 일성이라도 탐나는 대로 시찰차 들르곤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노동자 약 2백여명이 주동이 되어 공산당

의 강압 정책에 항거하는 시위 투쟁을 벌일려고 하다가 사전에 적발되어 그 주동 인물이 총살되고, 많은 노동자가 체포되는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제일 <모범 공장>이라고 김 일성이라도 칭찬하고 있던 터라, 그 사건은 더욱 큰 문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1968년 초 여름, 정확히는 5월말의 일이었습니다.

이 강선 제강소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 중 몇몇이 중실이 되어 매일 밤 비밀리에 어떤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가 다름아닌 일본에서 강제로 복송된 복송 교포였습니다.

일본 「아이찌」(愛知)현에 살다가 제19차 복송선으로 북한에 온 김 덕만이 바로 그 주동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에 있을 때, 조총련(일본에서 복귀를 지지하는 재일교포 조직) 간부로도 지낸 바 있어 소위 성분이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송 교포들이 대부분 공장이나 탄광 노동자로 배치되었는데도 김 덕만이는 이 강선 제강소 생산부 책임 지도원이라는 약간 높은 감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공장에는 김 덕만이 외에도 약 2백여명, 가량의 복송 교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전체 노동자가 약 8백명 가량이니까 2백명 이래봐야 전체 인원의 소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송 교포가 한 곳에 많이 모여있는 곳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원래 김 일성 일당은 복송 교포들이 어디를 가나 말썽만 부리게 때문에 될 수록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서로 모여 불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강선 제강소는 소위 모범적인 공장이고 김 일성이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있는 곳이어서 공장 지배인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는 성분이 좋고 당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송 교포라 하더라도 그까짓 2백명 쯤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2백여명 썩이나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송 교포들이 중심이 되어 김 일성 일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려려일 사건이 발생했으니 북괴 고위층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덕만이가 주동이 된 이 음모 사건에는 그렇게 될만한 사연이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김 덕만이는 늘 습관처럼 되어 있는 어느 북송 교포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북송교포 한 사람이 그를 보자 마자,

「아니 털보 아버이를 못 봤소?」

「못 봤는데요」

「지금 막 김 덕만 동무를 찾아간다고 뛰어가는 걸 봤는데요?」

「그때요? 나를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건 저도 모른것읍니만 아무튼 급한 일인 것 같던데요」

김 덕만이는 급히 자기 집으로 뛰어 갔읍니다.

털보 아버지라면 역시 북송 교포로서 아들 하나와 단 둘이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유달리 두레나루가 많아 털보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는 송 혁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급히 집에 돌아와 보니 털보 아버이가 돌아서 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아 마침, 잘됐소? 날 찾아 왔대다면서요?」

「예, 그렇수다」

「그런데 웬 일로, 이렇게 밤 늦게 찾아 왔소?」

「밤이 늦은 줄은 알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요」

노인이 서두는 품이 여간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 글썬 내 아들놈 있지 않소…」

「압연 직장에서 일하는 철주말이요?」

「그렇수다. 그 철수란 놈이 아무래두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히 찾아 왔수다」

「될 어떻게 했길래요. 천천히 얘길 해 보시지요」

「약을 먹었나 봐요」

「뭇이라구요? 약이요?」

「예, 그것도 다름아닌 독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 품시 신 음 소릴 내더니 입에 거품까지 풀며 온 몸을 비틀지 않겠소…」

「아니, 아바이두, 그렇담 먼저 진료소에 뛰어가야지 날 찾아오면 어떻거우… 자 빨리 같이 가 봅시다」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숨이 끊어졌어요… 내 하나 밖에 없는 놈이었는데 글썬 그 놈이 죽다니…후후…후」

「아바이! 아무튼 이러구 있을때가 아니잖소. 빨리 공장 당 위원회에 찾아가 보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아니외다. 내말 좀 듣구 일어나시우, 난 벌써부터 그 놈이 무슨 일을 저질러질 것 같은 생각을 해 왔수다. 일본에 있을 때도 어디서 듣구 왔는지 북송을 결사 반대한다구 하는 걸 내가 억지로 이 곳에 끌구 오지 않았겠소… 북조선에 가면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 공부두 시켜 준다구 하면서 말이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 대학은 커녕 그 어린 나이에 나와같이 이 공장 노동자로  
배치되었으니…」

「아바이, 그런 말을 이제 새삼스레 끄집어 내면 뭘 하겠소… 빨  
리 저지러진 일이나 처리 해야지」

「하여간에 이거나 읽어 보시우」

하면서 털보 아바이가 안 주머니에서 꺼내 놓는 것을 보니 죽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유언장에는 복송 교포들의 공통된 심정을 대변이  
나 하는듯이 무섭게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삼스레 복송되어 온 걸 후  
회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희망하던 대학에도 못가고 공  
장 노동자로 일하게 된 것을 비판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7백그람의 배급쌀에 매달려 죽도록 일만하는 노예같은 신

세를 한탄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불만의 요소는 될지언정, 반드시 자살을 해야 할만큼 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북조선에 와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목적을 잃었고 희망을 뺏겨 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너무나도 허무한 비정이라도 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분이 무엇이길래, <당성>이 무엇이길래 여기에 얽매여 인간의 존엄성이 마구 짓밟히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늘에 돌아서기만 하면 울분을 참지못해 자기 가슴을 쥐어 뜯는 북송 교포들의 참상을 어떻게 보시고 제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권리를 빼앗겼을 때,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는 이 불효 자식을 너그럽히 용서해 주십시오」

유언장에는 그 다음으로도 북녘 사회의 현실적인 모순과 결함등을 예리하게 파헤쳐 가면서 김 일성 일당의 학정을 냉철하게 비판하는 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다 읽고난 김 덕만의 눈에도 눈물이 혼전히 고여 있었습니다.

「못된 녀석! 그렇드래도 죽다니…」

김 덕만이는 혼자 말 처럼 되뇌이더니 한참 동안을 멍하니 허공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바이! 아무튼 일어 섭시다…어떻게라도 뒷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소」

「허허, ...이제 하나 밖에 없는 아들놈 까지 죽이구...그렇지...그  
놈은 내가 죽인거나 다름없어...그리구두 무슨 낫으로 내가 살  
아 가겠소」

「아바이 그런 약한 소릴 하지말구 기운을 냅시다... 이제 앞 일  
이나 걱정해야지 않겠소?」

「앞일? 허, 내 이제 하문들 더 갈아 뭘 하겠소. 이 놈의 세상  
에서, 더구나 그 애 없이 내 혼자 살라는 거요? 허허...」

「영감! 실신했소? 왜 그런 소리란 자꾸 하시오.」

「실신했든 팔신했든 이 놈의 세상 참 우습지 않소! 예? 하  
하...」

그러다간 털보 아바이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때  
미치기 시작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김 덕만이는 그러한 털보 아바이를 부축하고 그 아들의 시체가  
있는 아바이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낙네들의 통곡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 나왔습  
니다.

어느 틈에 소식을 알았는지 공장 당 위원회 비서도 와 있었습니  
다.

「왜 이런 사실이 있으면 먼저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않고, 어  
디를 갔다 오는거요」

당 비서는 방안으로 들어서서는 털보 아바이와 김 덕만이를 무섭  
게 노려보면서 고향부터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 (2)

털보 아바이는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또한번 소리를 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장 당 위원회 비서는 몹시도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털보 아바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나 말이요! 그러나 털보 아바이는 당 비서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김 덕만이 그를 대신해서 당 비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털보 아바이의 아들이 자살을 한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뭐? 그냥 죽은것두 아니구 자살했단 말이지...반동 같은 놈이였군」

「예? 뭐라구요? 반동이라구요」

김 덕만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당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반동 분자가 아니구 뭐냐 말이요! 김 일성 수상의 은혜도 모르구 자살하다니 그게 반동 분자의 소행이 아니구 뭐냐 말이오!」

「그건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당 비서 동무!」

「심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동무도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데가 많구만... 그래두 우리 당에서는 동무만은 조총련 간부두 했구 성분두 좋와서 책임 지도원이라는 자리까지 주었는데 그래 동무 입에서도 그때위 소리가 나와야 옳겠소?」

「당 비서동무! 아무튼 이집의 불상사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뭘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장례식 절차 같은것두 있구... 지금 털보 아바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서 거들어 주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에 당 비서는 더욱 비위가 틀렸던지 눈 앞까지 부르르며 육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동무! 이 동무가 어떻게 죽었다구 했지요? 자살했다구 했지요? 그게 바로 죽어서 까지 우리 당에 큰 해독을 끼친 반역 행위를 했단 말이요… 그런 반당적인 악질 분자를 우리 당에선 틀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당 비서는 화가 잔뜩나서 그대로 휘하니 나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동배 아낙네들이나 몇몇 노동자들도 당 비서의 노한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는 자기들까지 화가 미칠 것 같아 돌아가려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이 눈치를 알아차린 김 덕만은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 보시우…이 일은 우리가 처리할테니 여러분들은 돌아가서두 좋습니다」라고 힘 없이 말했습니다.

이말과 함께 몇몇 노동자들과 아낙네들이 돌아가고 그 자리에 는 같은 복송 교포들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김 덕만이는 강선 시내에 하나 밖에 없는 「국영 장 의사」에 가서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영 장의사」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마디로 거절 하고 판조차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 비서의 압력이 가해졌던 모양입니다.

김 덕만은 참다못해 다시 공장 당 위원회에 찾아가서 당 비서에 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 비서 동무! 너무 하십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장례식은 치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 비서는 자기를 찾아 온 김 덕만이를 쳐다 보지도 않은 채

「여보」 반동 분자들의 죽음까지 우리 당이 돌봐 줘야 하겠소?  
앙!...우리 당은 말이요... 인민의 편에 선 자에 대해선 한없이  
더그럽고 또 반대로 인민의 적에 대해선 무자비하다는 걸 똑똑  
히 아시오」

「그렇지만 장례는 지내 놓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보 시끄럽소! 내가 몇 번 말해야 알겠소!」

국영 장의사밖에 없는 북녘 땅에서 장례를 치를라면 국영 장의  
사에 의뢰하는 수 밖에 없으나 당 비서의 압력 때문에 국영 장의  
사에서 거절하고 있으니, 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덕만은 화가 머리 끝 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꼭 참고  
당 비서한테서 물러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장례는 치뤄 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곧 강선 제강소 전체 노동자들에게 퍼져 나갔고 또  
2백여명의 북송 교포들에게 자기일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김 덕만을 중심으로 한 몇몇 북송 교포들의 동분서주한  
결과 초라하게나마 장례를 치를 수는 있었어도 그후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김 덕만이는 며칠을 두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배치되어 온 2백여명의 북송 교포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  
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김 덕만은 짊어지는 대로 북송 교포들의 가정은 방관  
하고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쟁을 해야 하겠



는가를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공장 당 위원회에서 이런 기미를 알아차리고 큰 사건이나 벌어질 듯 야단 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당 비서는 공장의 몇몇 간부들을 모아 놓고 소위 「긴급 대책」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소. 지금 김 덕만 동무가 주동이 되어, 북송 교포들을 총동해 가지고 북조선을 반대하는 반 혁명 모의를 하고 있소. 이런 사실을 우리 당이 사전에 눈치챘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뻔 했소. 이제 진상이 뚜렷해 졌으니 군 당위원회에 보고해서 즉각 대책을 취할 예정으로 있소... 그러니 동무들도 이에 협조하여 우리 당을 반대하는 이런 반당 분자들을 뿌리 채 뽑아버리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거요」

그 날 밤으로 김 덕만등 일행 다섯명이 소위 주모자라 하여 안전원들에게 체포되어 우선 공장 당 위원회 사무실로 끌려 갔습니다.

당 비서는 마치 큰 성과나 올린듯이 거만하게 몸을 뒤로 젖힌 후 말을 던졌습니다.

「참 동무네도 한심하군! ...」

그래 일본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고착한다는 일이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무장 폭동을 준비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웁?

김 덕만 일행은 너무 어이없는 당 비서의 말에 어안이 병병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뭘 쳐다보고만 있는거얏! 이 반동 새끼들아! 그래 너희 같은 반역자들이 여기에서 오래 배겨낼 줄 알았더냐?」

참다못해 김덕만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 비서동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구 이

형게 체포해 가지구 와서 반동이요 뭐요 하면서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까?」

「뭐? 죄를 덮어씌워?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북송선을 타고 일본에서 여길 올 때부터 벌써 뒷인가의 음모를 짜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당 비서 동무! 덮어놓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북송 교포들의 불만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려는 의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반당 행위이지 뭐냐 말야! 매일 밤 북송 교포들을 총동해 가지구 불만이나 조성하구 우리 당의 정책을 헐뜯구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반대하는 무장 폭동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어찌 죄가 안돼! 엉?」

「무장폭동이라니요. 그건 너무 터무니 없는 모략입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는 당 비서는 안전원들에게 눈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원들은 기다렸다는듯이 모두 달려들어 김 덕만을 중심으로 거기 붙들려온 사람들을 마구 후려 패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가 지난후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김 덕만은 당 비서를 비롯해서 그 앞에서 있는 안전원들을 무섭게 노려보더니 뱃속에서 나오는 처절한 목소리로 웨치는 것이었습니다.

「응… 바로 이런 게 공산당의 정책이었구려! 수많은 제일 교포들을 갖은 달콤한 거짓 말로 이런 생지옥에 끌어오더니 이제는 엉터리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학살까지 하려 드는군요…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람 목숨을 다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당신네들이니, 이 늙은 사회에서 더 살아서는 될하겠소!」

「뭐라구! 허, 이 놈봐라! 이제야 제 본성을 드러내는군!」  
「여보시오! 사람을 죽일 때 죽이더라도 애매한 죄를 뒤집어 씌워 사람을 능낙하지 마시오… 북송 교포들의 불만을 해결해주려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오…그것도 죄가 된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와서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오! 더 지체한 것 없소. 여보 안전원 동문 이 놈들을 빨리 끌어가지시오… 내일 중앙당에 이 진상을 보고해서 공개 심판을 받도록 하겠소!」

그로부터 일주일후 김 덕단등 일행 5명은 소위 「반 혁명 무장 폭동 혐의」를 뒤집어쓰고 공개 처행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이 일본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 땅으로 돌아올 때 결코 이런 개 죽음을 당할려고 온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 16. 타버린 심장

### 사생활부터 알아 봅시다

이 기립 학생의 작품을 본 교수들은 모두 눈살을 찡그렸습니다. 김 일성을 찬양하는 <혁명 전통> 작품을 쓰거나, 소위 사회주의 건설을 찬양하는 작품을 써야 할 학생이 퇴폐적인 여자의 아름다움에 글을 쓰므로써 비위에 거슬리는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주 반동적인 작품이라고 심한 평을 하는 교수도 있고, 졸업반 학생이 그런 글을 쓴 것은 교육을 잘못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자기 비판적인 말을 하는 교수도 있고, <온달전>등 전설, <삼국 유

사)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나왔을 것이라고 변호해 주려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을 데려다가 그런 작품을 생각한 동기와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 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학장인 신 구현(어학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엔 이번 창작 실습 기간에 북청에서 그와 함께 생활한 박 기수 학생을 불러 실습하는 동안 기림 동무의 사생활이 어떠한지 부터 알아 보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 북청에서 이 기림과 둘이 실습 생활을 한 박 기수가 교수들 앞에 불러 들어 왔습니다.

박 기수는 들어서자 말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 안에 심상치 않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쇼」

신 구현이 턱으로 가리키는 대로 박 기수는 방 한 복판에 놓인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앉았습니다.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은 교수들의 포울한 시선이 일시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기수 동무, 이번 실습 기간 이 기림 동무와 함께 생활했었지」

신 구현이 물었습니다.

「네」

「실습지가 북청 어디였던가?」

「구 북청 교외입니다」

「이 기림 동무가 이번 괴상한 작품을 써서 그러는데, 거기서 그 동무 지내던 애길 좀 해 보오」

신 구현의 이 말에 박 기수의 표정은 더 굳어지고 무릎을 짚은 두 손이 초조한 듯 신경질적으로 꼼지락거렸습니다.

신 구현의 날카로운 눈이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네」

하고 박 기수는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어서 말해 봐.」

학교 당 위원장인 정 문향(시인)이 안경을 번쩍거리며 재촉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기수는 꺼져 들어가는 듯한 소리로 말 허두를 빼었습니다.

「실습에서 돌아오는 길로 모든 사실을 당 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할 것을 망설이다 보니...귀국 동포인 기림 동무를 잘 인도하지 못하구...」

신 구현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푹푹 두드리는 바람에 그의 말이 끊기었습니다.

「딴 말은 다음에 하구 어서 묻는 말이나 대답해!」

「모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기수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긴장하여 이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서 침착히 말해 보게」

정 문향이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박 기수는 나직이 기침을 하고 약간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 눈을 밝고 오는 소녀

「이 기림 동무와 저는 처음 계획대로 천리마 작업반에 가서 창

작 심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 기수 학생은 목에 무엇이 걸린 듯 침을 꿀꺽 삼키고 겁 맥은 시선으로 둘러 앉은 교수들을 힐끗 바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말인가?」

부학장(평양 문학 대학) 신 구현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다서켰습니다.

「계획이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근교 농촌에 나갔으나 기림 동무는 복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동무 말은 도대체 너무 비약을 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말해 봐!」

학교 당 위원장 정 문향이 한 마디 했습니다.

「네」

박기수는 자세를 바로 고쳐 앉으면 복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수와 이 기림 학생이 창작 실습을 위하여 복청에 도착한 바로 이튿 날 아침이었습니다.

×

×

박 기수가 눈을 떠 보니 이 기림은 어느 새 일어나 작은 여관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기림은 곧은 꼴날을 창가에 붙이고 밖을 내다 보고 있었는데 그의 입김이 창 유리에 서리로 변하여 얼어 붙고는 했습니다.

「바깥 날이 쌀쌀하겠나?」

기수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물었으나 기림은 아주 대꾸도 없었고, 어느 한 점을 겨누어 보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 무얼 그리 정신 없이 보고있나?」

이런 기수의 물음에도 한참만에야 가라앉은 소리를 한 마디 던



졌습니다.

「눈이 왔네」

기수는 창가로 다가가 기림과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과연 시야에는 온통 하얀 눈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붕들에 얹힌 눈 더미와 길과 밭고랑 홈통들을 가려 볼 수 없게 째운 것으로 보아 두어 뺨은 실히 될성 싶었습니다.

미풍에 눈 가루들이 지붕에서 날려 이리저리 날리고는 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사람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깨끗한 눈 천지였습니다.

그 솟 눈 길을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머리 수건으로 머리와 귀 언저리를 가리고 무릎도 터를 치는 갑장 반 의투를 입었는데 그 아래 곧은 두 다리는 정강이까지 눈에 파묻혀 무엇을 신었는지 가려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발걸음을 크게 내디디지 않고 느릿하게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일여덟살 되어 보이는 어린애들 서서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차차 가까와지면서 여인이 왜 그리 느릿하게 걸어 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뒤따르는 어린애들이 디디기 좋음이 만큼 발을 내디디면 눈을 꼭꼭 다져 애들이 그 발 자국을 따라 디며 발을 적시지 않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과 애들은 그들의 창결을 지나갔습니다.

「빠지지 않은 사람 누구?」

여인이 조심 조심 발을 내 디디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들은 「선생님! 나요!」 「나두요!」 하고 재롱스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득 기수와 기림이 바라보는 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인으로 짐작했는데 뜻 밖에도 이제 갓 스물이 되나 맘직한 소녀였고, 너무나 귀인성스럽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 그 여 동무 발이 젖었겠는 걸

아가씨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애들이 디디고 갈 발 자국을 깊숙한 눈에 만들어 주면 걸어갔고, 어린애들은 그녀가 눈을 다져 만들어 준 발 자국을 디디고 가는 것이 재미스러운 듯 히히덕거리면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녀와 애들은 박 기수 네 여관 창가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나



지막한 언덕위에 자리잡은 유치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이라야 창고로 쓰던 건물을 되는 대로 고쳐서 만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기수와 기림 학생은 그 건물에 눈을 준 채 오래 시선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 동무 발이 젖었겠는 걸!」

이 기림이 걱정스러운 듯 한 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앞을 지날 때 보니까 버선발이었는데」

기수는 창에서 돌아서 흠어진 이불을 재켜 한 구석에 밀어 놓았습니다.

기림은 굳어진 듯 창가에 그대로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리 올라구. 바람이 찬대 감기들면 어쩔라구 그러나」

기수가 방 아랫 목을 가리켰으나 기림은 돌아지도 않았습니다.

기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참 이쁘게 생겼더군! 용모보다도 그 마음이 더 훌륭하단 말이야. 스물이 되나 맘직한 나이에 애들을 위해 발 자국을 내주고 자기 발을 적시며 걸어가거든! 참 이 땅에선 보기 드문 사람 오늘 봤군!」

그래도 기림은 아무 대꾸 없이 발을 내다보는 자세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만에 창가에서 몸을 돌리고 기수 옆 아랫 목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유치원 쿨룩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네」

기림은 이런 말을하고 숨을 후 내쉬며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껏 그녀의 젖은 발을 두고 생각해 온 모양이

었습니다.

그럴 때 밥상이 들어와 두 사람은 조반을 치렀습니다.

기수는 이내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 기림은 앉은 채 움직이지  
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 남겠어」

기림의 가라앉은 소리였습니다.

「남다니? 학교에서 받은 지시 잊어버렸구나?」

「지시가 어떻게든 난 여기 남기로 작정했어」

「큰 일 날 소리 말게. 분명히 창작 실습지는 농촌 천리마 작업  
반이어야 한다구 되어 있는데 그걸 어겨 보게 어떻게 되나!」

「어쨌든 난 남겠어」

「쓸 데 없는 고집부려 나까지 골탕 먹일 생각이군!」

「기수 동무, 그런 게 아니야. 동무두 잘 알다시피 문학이란 무  
언가? 바로 인간학일세. 자기가 탐구하구 싶은 인간을 만났을  
때 그냥 스쳐가선 안되지 않나!」

기림은 숨을 돌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농촌 천리마 작업반으로 가라는 것은 그런 인간을 거기서 구  
하라는 거겠는데 난 거기 가기전에 내가 알아 보고 싶은 인간  
을 만났단 말이야. 나중에 혼이 나도 나 혼자 감당할테니 혼자  
떠나. 멀지 않은 곳이니 가끔 . . 만나서 작품 토론이나 하기로  
하지」

기수는 더 우겨도 기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기수는 배낭을 걸쳐 매고 혼자 떠났습니다.

남겨 둔 기림이 틀림없이 유치원 선생인 그녀를 만날 것이라  
고 생각하니 왜 그런지 불안스러워지는 찢어었습니다.

## 종교인의 딸

박 기수는 일 주일 남짓 농촌에서 취재하는 동안 줄곧 기림 학생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이 가셔지지 않았었습니다. 학교를 떠날 때 부학장인 신 구현이 각별히 주의를 준 일도 있었었습니다.

「이 기림 동무는 일본에서 오래 산 귀국 동포이기 때문에 자유 주의 경향이 남아 있소. 동무가 잘 이끌어야 해」

박 기수는 일 주일만에 하루 틈을 내어 복청에 남아 있는 이 기림을 찾아 갔습니다.

기림이 들어 있을 여관 방에 들러 보니 배낭과 옷가지는 그대로 있는 데 기림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길로 여관 앞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유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림이 그 처녀에게 매혹되어 그냥 남았으니까 유치원에 취재 차 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허름한 창고 문이 그대로 붙은 유치원 앞에 다가서니 안에서 어린애들의 노래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습니다.

박 기수는 비스듬히 열린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둡스그레 하여 아이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는 모양이 희끄럼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런 물음 소리가 나더니 문 앞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내 주며 어린애들을 이끌고 가던 그 처녀의 귀인성스럽고 아름다운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문을 빼적 열고 밖으로 나선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음

니다.

눈 가장자리와 입가에 잔주름이 잡힌 사십 안팎의 중년 여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날카롭게 생긴 모습과는 달리 음성은 부드러웠습니다.

「네, 실은 제 친구를 찾고 있는데요. 전 문학 대학에서 창작 실습 나온 학생입니다」

「아, 그럼 기림 동무라던가. 눈이 까맣고 키가 큰 동무 말이지요?」

「네, 전 농촌에 나가구 그 동무는 유치원 일을 취재하겠다고 남았습니다」

「유치원이 아니라 어떤 처녀 동무 취재겠지요?」

「그 여 동무가 여기 선생이니 마찬가지로 얘기지요」

「선생이라니요? 유치원 선생은 저 하나 뿐인데요」

「그래요? 그럼?」

박 기수는 적이 놀랐습니다. 선생이 아니라면 그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동무가 찾는 기림 학생은 그 처녀 동무 있는 데 있을 거예요」

여 선생은 이런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그럼 그 여 동무 있는 데가 어디니까?」

기수가 묻는 말에 여선생은 다시 돌아나와서 묵묵히 손짓으로 언덕 아래 저편 동네를 가리켰습니다.

「그 동네에서 최 순임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구 같이온 학생이라니까 한 마디 조언해야겠어요. 기림이라는 학생을 만나거든 그 여 동무와 될 수록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알려 주세요」

「네?」

「그 여 동무는 과거 종교인의 딸이에요. 온 가족이 독실한 신자들이었지요」

하고 여 선생은 획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기수는 여 선생의 말을 이내 새겨 들을 수 없어서 한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 두 눈속에는 우울한 빛 어러

박 기수는 언덕 위에 잠시 서성대었습니다.

창고를 고쳐 만든 허름한 유치원안에서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다시 울려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북청 땅으로 창작 실습을 함께 나온 이 기림이 눈길을 건너 처녀에게 한 눈에 매혹되어 농촌에 가야 할 일을 그만 두고 남았는데 그 처녀가 선생 일을 보고 있을 유치원에 와 보니 이 기림도 처녀도 없었습니다.

중년의 유치원 여선생이 그 처녀는 선생도 아니란다.

그렇다면 순임이라는 그 처녀는 어째서 눈이 깊숙이 내린 그 날 유치원 월아들을 이끌고 나선 것이었을까?

종교인의 딸이어서 유치원 선생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합니다.

중년의 여선생 말대로 종교인의 딸이라면 이 기림이 창작을 위한 취재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림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순임이 살고 있는 아랫 부락에서 그와 만나고 있다 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야단입니다. 창작 실습을 떠날 때 기림이 북송 교포이나 탈선 행위가 없도록 잘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온 박 기수였습니다. 박 기수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아랫 부락으로 내려 갔습니다.

순임이 집은, 사람들에게 물어 곧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칸 초가였습니다.

짚을 엮지 못한 지붕에는 깊은 굴이 패어 있었으나 손바닥만한 마당은 깨끗하였습니다.

반대의 야원 노파가 흐릿한 눈으로 박 기수를 맞았습니다.

「요새 순임이 찾는 이가 왜 이리 많노. 저 앞뜰에 객토 작업을 한다구 나갔는데」

기수는 동네를 빠져 노파가 가리킨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무연히 펼쳐진 구름이었습니다. 밭고랑에 희끗 희끗한 눈 가루들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객토 작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물어 가면 한참 독 위를 걸어가니 멀리 세 그루 느티나무 아래 그가 찾고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뒷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 기림동무!」

기수가 소리쳐 부르자 이 기림이 고개를 획 돌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수는 한 걸음으로 그들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기림도 두어 걸음 걸어와서 기수를 반가이 맞았습니다.

기림은 한 주일 동안 불이 헬썩하게 야위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은 얼굴에 한 가닥 그늘이 저 있었습니다.

「함께 창작 실습 나오셨다는 박 선생이지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전 작업 시간이 되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순임은 이런 인사말을 남기고 반달음을 쳐서 객토 작업을 하는 농민들 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좋은 여 동문데 종교인의 딸이라며?」

기수가 이런 말을 하자 기림의 눈에 번뜩 노기가 떠올랐으나 이내 가시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종교인이었다는 게 무슨 죄가 되나? 기수 동무, 동무에게 물어보고 싶었네. 종교인의 딸, 종교인의 딸 하구 팔시 하며 떠돌리는데 아버지가 종교인이었다는 게 어째서 죄가 되는가」

기림은 열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의 까만 눈에는 우울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 확 풍기는 피 비린내

락 기수는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아서 흥분한 기림의 어깨를 살며시 눌러 잔디 위에 앉히고 자기도 그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기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수 동무는 최 순임이 얼마나 마음이 꿈꾸 깨끗한 처녀인지 잘 모를 걸세. 하긴 눈 내린 그날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 발자국을 내주며 가던 그 광경을 보았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가겠지만 말이야.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순임이와 아주 다정한 사이가 되었는데. 순임이는 여지껏 나처럼 자기를 사람 대우해주는 걸 처음 겪었다는 거야」

「그럴 테지」

「무어가 그럴 거란 말인가?」

「기림 동무는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아직 여기 생활을 잘 모르

고 있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처럼 생각하고 경계해야 하는 걸세」

「아편? 그럼 어째서 당 강령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구 밝혀 놓았지?」

「목소릴 낮춰!」

기수는 이렇게 기림의 말을 끊고 접어린 눈으로 사위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들 추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 바람에 느티나무 가지가 떨고 있었습니까.

한참만에 다시 기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한다구 생각하겠지! 그러나 난 할 소린 다 해야겠네. 귀국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말두 할 수 없어서 답답했으니까. 그렇다구 기수 동무를 만나거나 호응을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닐세. 터질 것 같은 울분을 살컷 터쳐 놓구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기림의 눈에는 노한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 사회가 그렇게 불평등하구 비참한 인륜 관계로 차 있느냐 말야! 종교인, 지주출신, 자본가 아들, 부농, 중농, 도시 소시민, 상인 지식인들의 자제들은 그렇게 천대하고 압박하느냐 말야!」

「닥쳐!」

기수는 더 들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구! 난 이미 죽음이랴두 각오하구 자신의 갈 길을 갈 결심을 했어! 최 순임과 같이 참된 인간들을 짓밟는 이 사회는 내가 일본에서 그렇게 동경하던 조국이 아니란 말이야!」

기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미쳤구나!」

기림도 따라 일어 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이글거렸읍니다.

「미쳤는지 모르지! 아니 너같이 거짓 말 교육만을 받아온 자는 내가 미친 놈처럼 보이는지 모르지! 난 이놈의 사회가 감옥처럼 답답하구 숨막혀서 정말 미칠 지경이다. 너 내가 한 말을 다 고발해라. 그래서 내 등을 밟고 더 높은 자리에 기어 올라가란 말이야. 똑똑히 들어라! 난 진정으로 최 순임을 동정한다. 그만큼 순임을 적대시하는 이 사회를,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한다」 하더니 이 기림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상기된 두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줄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었읍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박 기수는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빙 둘러앉은 교수들은 얼굴들이 창백해진 채 묵묵히 앉아 있었읍니다.

그 날 밤, 학교 당국에 고발을 받고 이 기림 학생을 체포하려 안전원들이 이 기림의 숙소로 밀어닥쳤읍니다.

그러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읍니다.

안전원들은 문들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비린내가 확 풍겼읍니다.

기림이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읍니다. 그의 두 팔 몇 동맥은 칼로 끊겨져 있었읍니다.

「미친 새끼! 돼지진!」

안전원이 침을 탁 뱉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참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읍니다.



# 부 록

(복귀 용어 해설)



## ※복귀 용어 해설 목차※

1. 가족 비판회.....298	27. 노력 수첩.....309
2. 감화 사업.....298	28. 노력 영웅.....309
3. 개토 사업.....299	29. 농업 집단화.....309
4. 건설 경기 대회 .....299	30. 단일 함 투표 .....310
5. 경고 책벌.....300	31. 당 검사 위원회 .....310
6. 공개 재판.....300	32. 당 검열 위원회 .....311
7. 교시 .....300	33. 당 비서.....311
8. 교양원 .....301	34. 당 사업.....312
9. 귀국동포 .....301	35. 당성 .....312
10. 귀족적, 부르주아적 .....302	36. 당 세포.....313
11. 구루빠 .....302	37. 당 역사 연구실 .....313
12. 국방 체육.....302	38. 당적 파업.....313
13. 국영 상집.....303	39. 당 학습.....314
14. 군관 .....303	40. 당 위원회.....314
15. 근로자 .....304	41. 독보회 .....314
16. 기본 성분.....304	42. 돌격대 .....315
17. 기업소 .....304	43. 두문벌 .....315
18. 꼬마 5개년 계획.....305	44. 로동당(노동당) .....316
19. 나의 기대 운동 .....305	45. 물 주머니 만들기 운동 316
20. 남반부(남조선) .....305	46. 민족 보위성(민보성).....316
21. 내각 .....306	47. 밀봉 교육.....316
22. 내각 결정.....306	48. 반당 종파 분자 .....317
23. 병해 방지 운동 .....307	49. 반동 분자.....317
24. 노동 교화소.....307	50. 별 따기 운동 .....317
25. 노동자 구.....308	51. 별 보기 운동 .....318
26. 노농 적위대.....308	52. 병원 .....319

53. 보건성 .....	319	82. 안전 군관 .....	332
54. 보통교육성 과고등교육성	319	83. 안전부 .....	333
55. 봉락사교 .....	319	84. 안전원 .....	333
56. 부르조아 순수문학 .....	320	85. 양표(양권) .....	333
57. 북괴의 새로운 행정 구역 .....	320	86. 업간 체조 .....	334
58. 붉은 주머니 차기 운동	321	87. 열 두 바다 파기 운동 .....	334
59. 붉은 기 중대 운동 .....	321	88. 열성 당원 .....	335
60. 붉은 청년 근위대 .....	322	89. 영웅 칭호 .....	335
61. 비행기 사냥꾼(조) .....	322	90. 5개년 경제 계획 .....	335
62. 빈손 퇴치 운동 .....	322	91. 5단계 채점법 .....	336
63. 4대 군사 노선 .....	323	92. 5호 담당제 .....	336
64. 사로칭(사노칭) .....	324	93. 유격전 .....	337
65. 사상 개조 .....	324	94. 유일사상 체제(김일성 유 일 사상) .....	337
66. 사상 검토회 .....	325	95. 유자녀 학원 .....	337
67. 사상 근원 .....	326	96. 20호 .....	338
68. 사회 안전성 .....	326	97. 2중 천리마 운동 .....	338
69. 생산 체육 경기 .....	326	98. 인민군과 국방군 .....	339
70. 생산 체조 .....	327	99. 인민반 .....	339
71. 서기장 .....	327	100. 인민 재판 .....	339
72. 선동(원) .....	328	101. 일군 .....	340
73. 선전(원) .....	328	102. 자기 비판(자아 비판) .....	340
74. 성분 .....	328	103. 작가 동맹 .....	341
75. 세뇌 .....	329	104. 작업반 .....	341
76. 소년단 .....	329	105. 재정성 .....	341
77. 수령 연구실 .....	330	106. 조총련 .....	342
78. 숙청 .....	331	107. 중앙당 .....	342
79. 심리전 .....	331	108. 중앙당 연락부 .....	342
80. 10호 상점 .....	332		
81. 아동 궁전 .....	332		

109. 지도원.....	342	122. 치안대.....	347
110. 직업 선택 .....	343	123. 토지 개혁 .....	348
111. 직일 군관과 직일 병...	343	124. 팔(8)자식 기대 점검 운동.....	348
112. 직장 배치장 .....	343	125. 한김 더지기 운동.....	349
113. 진료소.....	344	126. 학교제도.....	349
114. 집단군.....	344	127. 허리 안펴기 운동.....	349
115. 집중 지도 .....	344	128. 혁명성.....	350
116. 집체 청소 .....	345	129. 혁명 전통 교양.....	350
117. 천리마 운동 .....	345	130. 혁명 전통 작품.....	351
118. 천 삽 뜨기 운동 .....	346	131. 호위국.....	351
119. 철직 출당 처분.....	347	132. 후비대.....	351
120. 총화(사업 총화, 총화회) .....	347	133. 회상기 학습 .....	352
121. 최고 인민회의 .....	347	134. 흑백 함 투표.....	352

## 1. 가족 비판회

가령 어느 집안에서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여 일터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저녁에 당장 5호담당관이라는 감시원이 그 집에 나타나 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가족 비판회라는 것을 연다.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담당관의 꾸지람을 듣는 정도라면 또 괜찮겠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비판을 시킨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는 평소에 당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하고 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일터에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하고 다구쳐 비판하도록 강요하고 그래야만 5호담당관은 그 비판이 잘되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비극이며 슬픈 현상인가.

## 2. 감화 사업

여기서 말하는 감화사업이란 교화사업을 말한다.

교화사업이란 본래 품행이 나쁘고 불량한 습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교육하며 좋은 사람이 되도록 교화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북괴는 감화 사업 기관으로 소년원이라는 것이 었다.

그런데 대개 소년원에 붙들려간 어린이들은 공산당의 무서운 감시와 비인도적인 중노동 때문에 소년원을 도망쳐 나오는 일이 많고, 나와서는 숨어서 거지 노릇을 하다가 다시 붙들려 가곤 한다.

거지 노릇이래야 마음대로 나가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밤에만 슬적 슬적 나가서 얻어 먹는다곤 하지만 밥을 줄 사람이 없고 또 자기 하루 몫의 배급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고 보면



불쌍한 사람을 도울 마음은 있어도 남을 도와 줄 수가 없다.

따라서 거지 노릇이란 하기 힘들고 그저 소년원이 지긋 지긋해서 도망쳐 나오지만 다시 붙들려가기 마련이다.

### 3. 개토 사업

겨울 철이 되면 농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봄 철 농사 준비에 농민들을 내몰고 있다.

즉 개토 사업이란 논 바닥 흙을 긁어내고 산이나 밭의 흙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북괴는 충분한 비료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농작물의 생산을 높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 4. 건설 경기 대회

북괴는 주민들의 노동 착취를 위하여, 벼라별 경기, 운동, 전투 등을 벌이고 있다.

북괴는 평양 모란봉에 있는 당의 간부들이 드나들 고급 술집 유류관을 짓기 위하여 각 도로 부터 건설 기술자들을 뽑아다가 각 도 대항 건설 경기 대회를 벌였다.

이 때 기술자들은 만약에 경기 대회에서 지게되면 책임 추궁을 받게 되므로 죽을 힘을 다하여 애를 썼다.

이 경기 대회에는 심지어 각도에서 악대까지 동원되어 응원까지 하였다니 이 얼마나 웃지 못할 강제 노동 놀음인지 상상만해도 기막힌 일이다.

강제 노동을 마치 운동 경기로 보는 공산당의 노동 착취 방법이 얼마나 잔인한가 알 수 있다.

## 5. 경고 책벌

북과의 용어는 우리 것과 달라진 것이 많다. 책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罰)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당에서나 각 직장에서 어떤 일을 잘못 저질렀을 경우 벌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이 경고 책벌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질르면 혼이 날터이니 특히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 6. 공개 재판

북피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의하지 않은 인민 재판을 해서 여러 군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죄인을 잔인하게 총살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때로는 중한 죄를 저질른 자에 대하여는 일부러 큰 극장이나 야외 장소에서 많은 주민들을 불러 놓고 공개 재판을 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죄인들에게 행하여지며, 주민들을 불러놓고 공개 재판하는 이유는 이런 잔인성을 보여주므로써 감히 엄두도 못내게 할려는 잔인한 수법이다.

## 7. 교시

괴수 김일성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이 교시가 얼마나 무서운 가는 법률보다 강하고 또 이 교시가 곧 당의 정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누구나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이 김일성 교시를 자주 인용해야만 아주 훌륭한 글이 되고 내용이 풍부한 연설이 된다.

이럴때면 비료의 3요소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질소」 「가리」 「인산」의 6자만 쓰면 완전한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과 치하에서는 이런 답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

즉 비료의 3요소에 대하여 김일성이 어떤 자리에서 연설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서두에 붙여야 잘 된 답이 된다.

예를 들면 「김일성 수령님께서 제○차 농업 기술자 일군 대회에서 교시한 바와 같이 비료의 3요소는 질소, 가리, 인산입니다」라고 써야 백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김일성 피수의 말이라면 절대적인 것이며, 성경의 구절처럼 외어야 하는 것이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 8. 교양(원)

북괴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또 여러 가지 공산당의 선전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또는 주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선전하고 교육한다.

이것이 이른바 교양이라는 것이고, 이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교양원이라고 부른다.

교양원은 당에서 훈련된 열성 공산당원이며, 모든 직장, 마을등에 배치되어 있다.

## 9. 귀국 동포

귀국 동포란 일본의 조총련계 교포중에서 북한에 강제 복송된 동포들을 말한다.

이들은 처음에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 넘어 간 사람들이 많아 막상 북한에 와 보니 자유도 없고 또 그들 선전처럼 행복하지도 못한 것을 알게 되자 탈출할 궁리만 하고 있다.

## 10. 귀족적, 부르주아적

북파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유주의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갖거나 또 공산당의 과업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

억척같고, 공산당에 열성이고 또 딱딱거려야 당성(공산당 성분)이 강하다고 치켜세우니 공산주의는 인간의 참된 마음을 깡그리 도려버릴려고 하고 있다.

## 11. 구루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의 「그룹」을, 소련어로 「구루빠」라고 한다.

이 구루빠는 여러분과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의 과외 활동을 위하여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북파는 당에서, 그리고 각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데 대부분이 공산주의의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당이나 기관의 허락없이 구루빠를 조직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자기들끼리 짝을 지어 노는 것을 「구루빠 주의」라고 하여 비난하고 있으며, 「분파주의」라고도 한다.

## 12. 국방 체육

북파는 소위 전쟁 준비를 위하여 국방 체육이라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죽 수류탄 던지기, 포탄 나르기 경기, 외나무 다리 전르기, 장애물 돌파 경기등 직접 전투에서 필요한 운동 경기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경기는 학생, 주민 모두가 참가하고 있다. 차라리 군사 훈련

이거 어떻게 체육이겠는가.

### 13. 국영 상점

북괴에서는 모든 개인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고 또 개인의 사업은 할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이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들여야 한다.

따라서 상점도 국영 상점 또는 국영 직장 상점이라하여 공산당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영 상점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돈도 없는 실정이다.

### 14. 군 관

군인의 장교에 해당되는 말이다.

북괴군의 계급은 군관, 사병급으로 구분되며, 그 계급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수 및 차수

② 장령급이란 여기에서 장성급(즉 별을 단 사람)에 해당하며 대장, 상장, 중장, 소장으로 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되어 있는데 북괴는 준장이 없는 대신에 대장과 중장 사이에 상장이라는 것이 있다.

③ 고급 군관이란 여기에서 영관급에 해당되며 대좌, 상좌, 중좌, 소좌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령, 중령, 소령으로 되어 있는데, 북괴는 대좌(대령)와 중좌(중령) 사이에 상좌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④ 보통 군관으로서는 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것도 고급 군관의 경우처럼 대위와 중위 사이에 상위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따라서 복괴는 군관을 12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 15. 근로자

근로자란 우리가 쓰는 용어와는 좀 다르다.

복괴는 모든 노동자, 농민, 사무원등을 모두 일컬어 근로자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소위 당원이라는 자들이 근로자를 다스리고 있으니 당원이 감독자요 그외는, 모두 당원의 감독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것이다.

그래서 흔히 그들은 「일꾼」이라고 즐겨 부른다.

## 16. 기본 성분

복괴는 북한 주민들을 성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고 감시와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복괴 공산당은 1964년 1년동안 북한내 모든 주민들의 사상 실태를 조사하여 무려 3천6백여 형태로 분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성분의 계층을 크게 나누면 ① 핵심 군중 ② 기본 군중 ③ 복잡한 군중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본 성분이란 열성 공산당이나 또는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복괴는 이런 기본 성분이나 계층을 정해 놓고도 항상 못 믿어 감시와 통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17. 기업소

복괴에서는 생산 공장, 교통, 운수, 시장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기업소라고 한다.

즉 공장, 회사등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으며 국영 기업소, 산업 기업소, 생산 기업소등 여러 분류로 나누어 말하기도 한다.

## 18. 꼬마 5개년 계획

북괴는 어린이들에게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꼬마 5개년 계획」이나 「꼬마 7개년 계획」등을 세워 피마자, 해바라기 심기, 산 열매, 산채 따기, 파지(종이), 고철, 유리 조각, 현 고무등 줄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참 공부하고 뛰어놀 나이에 이렇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은 모두 전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바치게 된다.

## 19. 나의 기대 운동

기대(機臺)란 기계의 한 단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방직 공장은 각 기대가 서로 연결되어 실을 뽑아내고 천을 짜내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는 이 기대마다 책임자를 두어 나의 기대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의 고장 수리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기계의 고장으로 일이 지연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작업 미수량까지로 책임을 지는 매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20. 남반부(남조선)

북괴는 우리를 일컬어 남반부 또는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우엔」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우리 땅이다. 다만 공산집단이 일시 강점하고 있는 형편에 불과하다.

그들이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남반부나 남조선이라는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도 없으며, 오직 그들만이 뇌까리고 있는 억지 이름이다.

## 21. 내각

우리의 제도로 보면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행정 각 부처와 같은 것이다.

북괴의 내각에는 「수상」이라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있다. 우리 제도에 비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내각 수상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국무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각 수상 밑에는 부총리에 해당하는 「부수상」이 있고 그 밑에는 각 부처에 해당하는 각 「성」이 있고, 「성」에는 「상」(相)이라는 것이 있어 장관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부상」(副相)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이다.

## 22. 내각 결정

북괴 내각의 권한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내각의 수상 즉 김 일성 피수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법령의 효력을 갖는 결정 사항으로 모든 기관과 주민에게 기시된다.

「내각 결정 ○호」등은 결정 번호를 말한다.

이 내각 결정은 얼마나 효력이 큰가는 소위 북괴 헌법도 증언시킬 수도 있으며, 이 결정 사항은 모든 법령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공산 독재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임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각 결정 18호」에 의하면 중학교 이상의 학생은 「학



생 사회 의무 노동제」를 실시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생도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 23. 냉해 방지 운동

북한의 북부 지방은 일찌기 한파가 몰려오는 수가 많다. 특히 1954년부터 3년 동안은 이상 한파가 몰려와 농작물에 크게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당시 함경도 평안북도, 지방에서는 냉해를 막아 불려고 벌인 운동이 바로 냉해 방지 운동이다.

이 운동을 살펴보면 농민을 동원시켜 밤새 논이나 밭둑 여기저기에 불을 피워 서리를 녹히던가, 사람도 덮을 것이 없는데도 솥이불, 홑이불, 보자기등을 밭이나 논에 덮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소동을 피운다고 해서 그 많은 논 밭을 덮을 이불도 없으려니와 밤새도록 피울 나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똥똥지 같은 생각을 한 공산당원들은 이래저래 북한 주민들만 못 살게 들볶고 있는 실정이다.

### 24. 노동 교화소

행동면에서 또 사회 활동에 있어서 품행이 불순한 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집단 강제 노동 수용소」를 말한다.

주로 불량 청소년, 도덕적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들과 같이 정치성이 없는 자들을 주로 수용한다.

물론 재판 절차에 의한 감옥살이가 아니라, 공산당의 비위에 거슬리면 감옥소이면서 감옥소가 아닌 이 강제 노동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북한 지역에 큰 것으로 네 곳에 설치되어 있다.

## 25. 노동자 구

북괴는 1952년 12월에 종전의 4단계 행정구역제(도, 군, 면, 리)를 개편하여 3단계 즉 「도」(특별시) 「군」(시, 구역) 「리」 그리고 「동」으로 나누면서 공장, 광산, 어촌지대 중 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노동자 구를 편성하였다. 따라서 노동자 구는 「리(里)」 단위에 해당한다.

## 26. 노농적 위대

여기에서 말하면 일종의 우리의 향토예비군과 비슷한 민병조직이다.

북괴는 한반도를 무력 적화 통일을 할 속셈으로 1959년 1월 19일에 발대하여 지금은 약 140만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 편성되는 대원은 제대군인,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 중에서 18세에서 45세의 남자와 여자로서는 처녀, 독신자로서 18세에서 30세의 여자를 행정단위 및 직장 학교 단위로 구성하고 있다.

평시에는 노동에 종사하면서 훈련을 받게되며 일사 유사시에는 괴뢰군의 예비 병력으로 즉각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민병대이지 이들에게는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 박격포, 대포, 심지어는 전차까지 지급되어 사실상 현역 못지않게 무장되어 있다.

최근에는 60세까지도 사격 훈련(총 쏘는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도 사격 훈련을 받도록하고 있다.

이렇게 북괴는 무력 통일 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군 아저씨에게 감사를 드리고, 예

비군 아저씨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하겠다.

## 27. 노력 수첩

이것은 노동에 있어서 성적을 매기는 것으로서 「노력 카드」라고도 한다.

북한의 모든 노동자들은 이 수첩을 갖게하고 있으며, 여기에 하루 하루의 노동 실적을 기록한다.

북괴는 모든 국민에게 달성하기 힘든 노동량을 정해 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급량을 줄이거나 임금(품삿)을 줄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북한 주민들은 죽도록 목표량을 달성해야 겨우 자기 몫의 배급이나 임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량은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까지도 달성하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매기고 있다.

설혹 목표량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임금을 더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 28. 노력 영웅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산당에 맹종하고 열성적으로 일하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 칭호이다.

이 제도는 1951년 7월 17일에 제정하였으며, 이 칭호를 받는 사람에게는 메달과 표창장을 준다.

이는 노력 착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은 이중 노력 영웅까지 만들었다.

## 29. 농업 집단화

북괴는 해방이 되자 처음에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토지

를 전부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북괴는 공산주의의 원리대로 얼마 있다가 다시 공산당에서 몰수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한 곳에 묶어 놓기 위하여 소위 협동 농장이라 하여 농업을 집단화시켰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토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 괴뢰 당국에서 지정한 협동 농장에서 일하고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그 돈으로 배당된 배급을 받는데 돈을 지불하는 고용인으로 바뀌어졌다.

### 30. 단일 함 투표

혹 백함 투표제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웃음거리가 되자 북괴는 최근에 와서야 단일함(한개의 투표함)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교묘한 제도이다.

주 투표함 앞에 책상을 하나 놔두고 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은 찬성할 경우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러나 반대하고자 할 때는 책상위에 놓여진 연필로 입후보자의 이름을 한 줄로 길게 지우도록 되어 있다.

여러 참관인(사실은 감시원)이 보는 앞에서 감히 연필을 들어 지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북괴의 모든 선거는 100% 참가에 100% 찬성이 라는 웃지 못할 희극을 조작하고 있다. 그런데 북괴 신문들은 이 웃지 못할 일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자기 망신도 모르는 것이 공산당인가 보다.

### 31. 당 검사 위원회

북괴 공산당의 재정, 경리에 관하여 검사하는 임무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공산당의 부정을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

나 이것은 형식이고 한 번도 공산당의 부정을 밝혀 내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공산당에서 만든 기구인데 공산당 자체의 부정을 밝혀낸다면 모든 주민들이 공산당을 믿지 않고 나쁜 인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행동은 안할 것이 뻔한 일이다.

우리로 본다면 「감사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 감사원은 정부, 국영 기업체등의 부정을 밝혀내고 있으며, 같은 국가 기관인 검찰청은 부정한 관리나 관청을 조사하는 것에 비하면 공산당의 짓이 오직 공산당만을 위해서 주민들의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고 있는 것이다.

### 32. 당 검열 위원회

당 검열 위원회는 북괴 공산당의 한 기구로서 아주 무서운 기관이다.

즉 공산당의 규율을 위반하거나 당의 단결과 행동을 해치거나 약화시키는 당원이라든지 후보 당원(정식 당원이 되기전 예비 당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당에서 정해 놓은 여러 벌칙을 내리는 일을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당의 감찰위원회 같은 것이며, 군대로 보면 「헌병」과 같은 기관이다.

### 33. 당 비서

비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장님 비서등 높은분의 일을 도와주고 그분의 하루 하루 일에 대하여 시간을 짜는 일들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북괴에서 비서라고 하면 공산당 기관의 사업 집행을 위하여 공산당내에서 선출된 책임적인 지도 간부들의 직책이다.

이들테면 북괴 당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회 비서국이 있으며 이 비서국 책임자를 총비서라고 하며 총비서 (김 일성) 밑에 여러 비서가 있다.

지방의 당에는 책임비서 및 비서가 있다. 즉 도당 비서, 군당 비서라는 자들은 그 당에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 34. 당 사업

공산당에서 내세운 모든 사업을 당 사업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당 사업이라고 하여 모든 공산당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사업 실천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내 세운 당 사업을 게을리 하거나 실천하지 않을 때는 소위 반동 분자라고 하여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 35. 당 성

흔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속극의 실화 극장에서 보면 「동무는 당성이 약하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당성이란 공산당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 말을 다시 새겨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할 때 「당성이 강하다」고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당성이 약하다」고 한다.

공산 사회에서는 이 당성이 여간 문제가 된다. 특히 북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당성이 강해야 출세도 남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또 당성이 강해야 상급 학교도 진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괴는 모든 주민이 악독한 공산당원이 되어야만

출세할 수 있도록 내 물고 있다.

### 36. 당 세포

공산당의 조직을 행정 단위로 말단 이(里)까지 조직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 밑에는 각 직장, 공장, 협동농장, 학교 등 모든 기관에 당원 3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 당 세포를 조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복귀는 당원을 세포 조직처럼 엮어 놓고 서로 감시와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37. 당 역사 연구실

복귀는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각 학교, 직장에 당 역사 연구실이 라는 것을 두어 공산당을 연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1969년에 들어 와서는 각 마을(이)마다 이 연구실을 두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개 당 역사 연구실은 붉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고 맨 앞에는 김일성의 석고상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일제와 싸웠다는 여러 가지 거짓 책들을 늘어 놓고 이것을 연구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 북한의 주민들이 공산당을 못 믿어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38. 당적 파업

우리가 흔히 국가적 사업이라는 말을 쓴다. 즉 국가적으로 달성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복귀에서는 당에서 내세운 사업들을 전 주민에게 달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에서 내 세운 과업을 당적 과업이라 한다.

### 39. 당 학습

당 학습이란 공산주의 사상 교양을 위한 학습을 말한다.

모든 직장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에서 이 학습이 실시된다.

특히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소위 당 학습이라고 해서 당에서 나온 지도원이 공산주의 교육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은 아침부터 일찌기 들에 나가 저녁 늦게 돌아 오면 편히 쉬어야 할텐데 이 당 학습 때문에 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 40. 당 위원회

공산당 조직은 도, 시, 군, 이 등의 행정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조직된 당을 도당 위원회 또는 시, 군, 이 당 위원회 등으로 불리고 있다.

각직장, 이 단위별로 따로 초급당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다.

### 41. 독보회

주로 신문이나 잡지등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모임으로서 「신문 독보회」 「아침 독보회」등 읽을거리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

전부가 공산당 선전이고 공산주의 사상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잡지, 신문, 책등을 억지로 읽게 하고 또 발표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이보다 귀찮고 싫은 일이 또 있겠는가.

이런 독보회는 주로 일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이나 일이 끝난 저녁에 실시된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이런 독보회



를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휴식 시간이란 말 뿐이요, 오히려 공산주의 교육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42. 돌격대

전쟁 터에서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돌격대라고 한다.

그러나 북괴내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주민들을 강제노동으로 혹사하기 위하여 각 공장, 농촌등에서 돌격대를 조직 과중한 목표량을 세워 놓고 이것을 달성하도록 내 물고 있다.

따라서 목표량을 「○○고지」나 해서 마치 일도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 43. 두문 벌

우리 말에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있다.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들어 박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북괴는 6.25 동란 당시 국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많은 동포들이 치안대 또는 자위대를 조직 반공 투쟁과 지방 자치를 실시한 일이 있다. 그런데 북괴가 다시 들어오고 휴전이 되었다.

북괴는 휴전 후 대대적인 숙청 사업을 벌렸는데 특히 북한에서 반공 활동을 한 주민들은 대부분 학살하거나 두문 벌이라는 것을 창안하여 박해를 가했다.

죽 죄가 가벼웁거나, 그 가족들에게 바깥 출입을 금지시키고 외부 사람과 맞나는 것도 금지 시켰다.

문 앞 보기 쉬운 곳에 두문이란 빨간 딱지를 붙여 연금시켰던 것이다.

#### 44. 로동당(노동당)

북괴의 공산당의 공식 명칭을 그들은 「로동당」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흔히 「당」 또는 「공산당」이란 바로 북괴의 노동당을 말한다.

공산주의 국가는 같은 공산당이면서 노동당, 사회당등의 이름을 따로 붙이는 수가 많다.

#### 45. 물 주머니 만들기 운동

북한 지역은 높은 산악 지대가 많아 관개 수리 시설이 안된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뭄이 들면 농사가 망치게 되는 일이 예사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는 눈에 물 응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 놓자는 운동이 이른바 물 주머니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만 보아도 북한에는 저수지 시설이 빈약하고 관개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6. 민족 보위성(민보성)

우리가 말하는 「국방부」에 해당되는 말이다.

민족 보위성은 피뢰군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그 밑에 총참모부를 두고 산하에 정찰국이라는 것을 두어 주로 대남 공작(간첩 무장공비 파견)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평양 시내 수 개소에 밀봉 교육(간첩교육) 장소를 두고 많은 공작원을 수용 교육시키고 있다.

#### 47. 밀봉 교육

바깥 세계와 접촉을 못하게 하고 간첩 교육을 시키는 것을 밀봉

교육이라 한다.

북괴는 간첩을 남파시키기 위하여 북한 각 지역에 밀봉 교육 장소를 설치하고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많은 요원에게 밀봉 교육을 시키고 있다.

#### 48. 반당 종파 분자

북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당, 종파 분자라고 내 몰아 숙청한 일이 있다.

즉 반당이란 당을 반대하거나 당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은 사람이고, 종파 분자란 당안에서도 자기 파를 만들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말이 심해지니까 친구끼리, 끼리끼리 노는 것도 「종파 분자」니 「분파 주의」니 하는 새로운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 49. 반당 분자

흔히 우리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속극에서 북괴의 공산당원이 다른 사람보고 「동무는 반동이오」하고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공산당원이 「반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쩔부시나 「공산주의에 반대 하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상 및 행동을 하는 자를 반동분자라고 한다.

#### 50. 별 따기 운동

북괴가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노력 착취 방법으로 생각해 낸 운동의 한 가지로서 각 직장에는 작업반 별로 명패가 붙어

있다.

그 명패 밑에 작업반 성적난을 만들어 놓고 작업 성적이 좋은 사람은 별을 하나 씩 그려 넣어준다.

별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당에 충성했고, 따라서 공산주의 사상 면에서 믿음성이 높다고 인정 받는다.

이 운동은 모든 직장,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별을 많이 판데서야 무슨 배급을 더 주거나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 영웅이라고 추켜 세워 주는 정도이다.

### 51. 별 보기 운동

북한의 농민들은 이 별보기 운동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는 형편이다.

주 새벽 별을 보면서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 별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기 운동이다.

밤이 긴 겨울 철 두서너 달을 빼고는 1년중 하루 평균 열댓시간에서 열 일곱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 농장 관리 위원회」 앞 게시판에는 작업반 별로 반원 명부를 써 놓았는데 별을 보고 일터에 나가는 농민은 매일 자기 이름 밑에 별표 하나 씩을 써 놓고 한달에 한번씩 「결산 회의」를 개최한다. 그리하여 소위 최고의 모범 농민과 뒤떨어진 수십명의 일반농민을 균중회의(마을 사람들의 회의를 이른 말) 석상에 내세워 열성 분자라고 칭찬하고, 성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혹독한 비판을 한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게 되면 당성이 약하다고 낙인이 찍히게 되고 감시의 그림자가 뒤 따르게 된다.

여하튼 이 별보기 운동은 농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짜내 보

자는 공산당이 아니면 생각해 낼 수도 없는 아주 비 인간적인 방법이다.

## 52. 병 원

그들은 보통 병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민 병원」이라고 한다. 이런 병원은 통상 내과만 보고 간단한 약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임상병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소 규모가 커서 외과 수술등을 하는 병원을 말한다.

## 53. 보건성

여기 같으면 「보건 사회부」와 같은 일을 한다. 다만 「사회」에 관한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보건에 관련된 일만을 맡고 있다.

## 54. 보통 교육성과 고등 교육성

북괴는 교육을 맡는 기관으로 「보통 교육성」과 「고등 교육성」 둘로 나누어 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문교부에서 모두 맡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즉 보통 교육성은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이하 중학교, 인민학교(국민학교)에 관한 일을 맡고 있으며, 고등 교육성은 대학 이상의 일을 맡고 있다.

## 55. 붕락 사고

여기서 쓰는 말로는 흔히 낙반 사고를 북괴에서는 붕락 사고라고 한다.

즉 광산에서 굴을 뚫고 나갈 때 굴의 천정이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묻히기도 한다.

## 56. 부르좌 순수 문학

공산주의 문학은 공산주의가 시키는대로 써야하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찬양하지 않고 순수히 인간적인 문제, 자연을 예찬한다든지 자기들 목적하는 바와 다를 때 이런 글을 부르좌적 순수문학이라고 부른다.

## 57. 북괴의 새로운 행정 구역

유우엔에서 결의된 우리의 통일방안은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라고 결의된 바 있고, 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그런데 북괴는 이 토착인구를 거부하고 남북한에 동수의 대의원을 뽑자고 생매를 부린 일이 있다.

국회의원이란 민의의 대변자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만약에 북괴가 주장한대로 한다면 서울에서 10명이 나온다면 제주도에서도 10명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것을 주장한 북괴는 만약 남북 총선거에 대비하여 휴전 당시 그들의 행정구역 즉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도의 6개 도를 우리와 비등하게 할당시고 여러개로 쪼개 놓고 말았다.

그래서 이 책에도 처음 듣는 행정 구역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해 둔다.

북괴는 지금은 1특별시, 9개도, 3개 직할시를 두고 있다.

즉,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가 있고, 함경남도

의 일부를 떼서 강원도를 만들었고, 황해도를 둘로 나누어 황해 남북도로 나누었는가 하면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를 일부씩 떼어서 양강도, 자강도를 신설하였다.

### 58. 붉은 주머니 차기 운동

북괴는 물자가 부족하고 식량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붉은 주머니 차기 운동이다.

특히 농촌에서 가을 추수를 걷어 드리면 이삭이 남게 되므로 이 때는 모든 농민, 학생들이 동원되어 붉은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차고 이삭을 주어 협동 농장 창고에 갔다가 바치는 것이다.

또한 방직 공장에서는 천 조각이나 실오라기들이 흘러게 되므로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붉은 주머니를 차고 이것을 주어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가지 절약 운동을 벌이는 이면에는 이들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실정에 있는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59. 붉은 기 중대 운동

북괴는 전쟁 준비를 위하여 피뢰군에서 벌이고 있는 모범 중대 만들기 운동의 하나이다.

군대 조직으로는 분대, 소대, 중대가 있고 그 위에 대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개 중대라 하면 보통 200여명으로 구성된다.

북괴는 군인들의 사상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운동을 벌여 서로 모범 중대가 되도록 경쟁을 붙여 놓고 있다.

다행히 모범 중대가 되어 붉은 기(우승기 같은 것)를 받게 되면

칭찬이 대단하나, 그렇지 못할 때는 비판을 받게 되고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 60. 붉은 청년 근위대

복귀는 16세부터 19세의 중학 3학년 이상 대학 졸업반까지의 청년 학생으로 붉은 청년 근위대를 1969년에 창설하여 현재 약 70만 명이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엄격한 군사 훈련으로 전쟁시에는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게 무장까지 되어 있다.

김일성 일당은 전쟁을 위하여 이렇게 학생들까지 군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 61. 비행기 사냥군(조)

이 말은 말 그대로 비행기를 사냥한다는 말이니 비행기를 격추시킨다는 뜻이다.

6.25 당시에 비행기 격추를 위하여 조직되었던 괴뢰군의 전투 조직이다.

지금도 괴뢰 군대는 이런 조직이 상당히 강화되었지만, 노농적 위대에도 여자로 편성한 사냥군조가 편성되어 고사포, 고사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 62. 빈손 퇴치 운동

북한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는 운동인데 누구든지 빈손으로 다니지 말자는 것이다.

이럴테면 농민은 아침에 들에 나갈 때 퇴비라도 한 지게 지고 나가야 하며 들어 올 때는 풀이던지 땀감이던지 하다 못해



쓸모 있는 돌덩어리도 들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들일을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이런 일을 하기 힘들므로 점심 시간으로 1시간 주는 틈을 타서 쉬지도 못하고 풀을 베거나, 빨감을 마련해 두어야 저녁에 빈손으로 돌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이도 학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방이라도 들고 학교에 다녀오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요일이나 쉬는 날은 무엇인가 들고 다녀야 한다.

### 63. 4대 군사 노선

북괴는 한반도를 무력 적화 통일시키겠다고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은 소위 4대 군사 노선이라는 정책을 내 세웠던 것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전 주민의 무장화

전 북한 주민을 싸울 수 있게 무장시키자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로 140만명의 노농 적위대를 완전 무장시켰고, 60세까지의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도 총쏘는 연습을 해야 하며, 인민학교 어린이 까지도 전쟁놀이, 총 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 ② 전 지역의 요새화

전 지역 즉, 북한 지역을 전쟁터로 가상 땅굴, 대피소, 반공호 등으로 파해쳐 놓고, 주요 공장은 땅 속에 시설하거나 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6.25 때처럼 반격을 당하더라도 어디에서나 싸울 수 있도록 후방 지역까지 완전히 요새화시켰다고 한다.

### ③ 군의 간부화

모든 피퇴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한다고 분대장은 소대장, 소대장은 중대장의 훈련을 받는등 자기 윗자리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또한 사병들도 대거 군관 교육을 시켜 장교로 임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누구던지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속셈이다.

### ④ 군의 현대화

피퇴군의 장비가 형편 없던 것을 느끼고 지난 몇년동안 소련 기타 공산 국가로 부터 각종 무기를 들여와 상당한 현대 장비로 무장시키고 있고, 부분적으로 무기 생산도 하고 있어, 전쟁 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64. 사로청

북괴는 우리말 맞춤법을 자기들 멋대로 고치어 「노동」을 「로동」등 아주 다른 것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사로청」이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약칭으로서 공산당의 앞잡이 전위 단체로 모든 북한의 젊은이나 학생들이 이 사로청에 가입하여 공산당이 되기 위한 사전 조직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 65. 사상 개조

북괴는 특히 농촌 주민들이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많고 농사일에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소위 사상 개조운동을 벌였다.

농촌 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개인의 모든

소유 토지를 전부 몰수해버리고 이제는 공산당의 재산으로 되버린 농토에서 일하고 배급 정도 받아서 먹고 살기는 힘들기 때문에 해방되기 전에 자기 땅을 자기가 농사 짓는 시대가 더 좋았다고들 푸념들이다.

더욱이 해방된 뒤 공산당은 모든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할 때 나누어 주어 농민들의 한심을 산 다음 다시금 몰수해 버린 일이 있어 더욱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이들은 땅을 갖고 싶고, 자기가 스스로 농사 짓고 싶은 생각이 안날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농장(협동농장)에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일부러 게을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괴는 이런 정신이 농촌에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른바 농촌 주민에 대한 사상 개조 운동을 벌인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 ① 모든 사람은 일체의 개인 재산 소유욕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교육.
- ②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산당이 제시한 공동 목표를 위해 노동하는 사상을 길러주고
- ③ 김일성과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시키는 것 등이다.

이렇게 당에서 내몰아쳐도 여전히 북한의 농민들은 농사 일에 그저 시늉만 부리고 또 「저것이 내 땅이었는데」 하면서 항상 자기 토지를 갖고 싶어하고 있다.

## 66. 사상 검토회

북한 청소년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조그마한 부정적인 태도라도 나타나면 몇일, 몇주일 동안을 두고 이른바 사상 검토회를

가지게 되는 때 잘못을 저지른 그 학생을 여러 사람 앞에 내세워 놓고 소위 공산당원들이 해 나온 일과 자기의 일을 반성할 것을 강요하면서 학습의 모든 학생들이 달라붙어서 집단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것이 이른바 사상 검토회라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호된 별도 없다. 혹시 자기가 진실로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떠들거나 또 그 중에 공산당의 앞잡이가 있어서 「동무는 아직도 거짓 말을 하고 있으」 하고 떠들면, 몇번이고 되풀이 해야 한다. 더우기 우격다짐으로 나올 때는 결국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거짓 자백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 검토회는 모든 주민, 기관, 단체, 기업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 67. 사상 근원

공산주의에 적극적으로 못되고 또 어떤 일에 다소 반대할 뜻이나 게으름을 피울 때 흔히 그 사람의 사상을 갖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따진다. 반대하는 것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사상과 관련시키는 것이 북괴 공산당의 심리이다.

## 68. 사회 안전성

사회 안전성이란 우리의 내무부와 같은 일을 맡은 곳이다.

본래 이 사회 안전성은 내무성이라고 하였는데 1962년 10월 북괴의 제3기 내각을 조직할 때 이름을 고친 것이다.

## 69. 생산 체육 경기

북괴가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노력 착취 방법으로 창안

해낸 운동의 하나이다.

이것은 생산 체육 경기라고 하니까 무슨 운동 경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 경쟁 운동이다.

북괴는 이렇게 「운동」이나 「경쟁」을 엉뚱하게 퍼곤한다.

이 경쟁 운동은 주로 역이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물 차나 배에 실을 물건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이것을 빨리 해치우기 위하여 연구해 낸 방법이다.

즉 차량이나 선박 별로 작업반을 조직하여 짐을 먼저 실어 날르는 작업반에게 승리를 선언한다. 이 때에 승리한 팀에게 어떤 상품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무들 팀은 항상 당 앞에 충성하여 이렇게 승리하였오」하고 공치사만 으레히 늘어 놓는 것이다.

## 70. 생산 체조

각종 생산 즉 공장이나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도모한다는 이름 밑에 실시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구실이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여 더 많은 노동을 시키느냐 하는 공산당의 속셈을 안 북한 동포들은 이런 체조에 그저 흥내만 내고 있다.

## 71. 서기장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러 부문의 사무를 통괄하여 보는 직위 또는 사람을 말한다.

서기장은 주로 행정을 보는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다. 이를테면 리(이)인민위원회의 서기장이라 하면 이 인민위원장 밑에서 사무를 통괄하는 두번째의 높은 자리이겠다.

마치 우리의 동장밑의 사무장과 같다.

## 72. 선동(원)

선동이란 공산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심리 상태를 공산주의적 분위로 몰고 가기 위하여 대중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이다.

이들때면 어떤 일에 대하여 공산당 우두머리가 연설할 때 구석 구석에 박혀 있던 열성 공산당원이 「웁소!」하고 일어 서서 박수를 치거나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내밀면 이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들도 당의 감시가 무서워 눈치만 슬슬 살피며 같이 「웁소!」하고 일어서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선동을 맡아하는 사람을 선동원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선동에 치우치다 보니 십자어 김일성이 장내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박수를 치고 연설할 때, 또 실내에서나 광장에서는 어떻게 박수를 쳐야 할것인지 규칙까지 정해 놓은 형편에 이르고 있다.

흔히 「선전 선동」이라고 같이 쓰기도 한다.

## 73. 선전(원)

선동이 공산당의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게 하는 대신에 선전이란 공산주의나 공산당의 하는 일을 알리며 교양시키는 사람이다.

모든 기관이나 작업반에는 공산당에서 파견되는 선전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위에서 지시되는 일들을 알리고 또 공산주의가 좋다고 노상 떠벌이는 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 74. 성분

우리 말에도 성분이라는 말이 있으나 북괴가 쓰는 성분과는

아주 다르다.

북괴가 쓰는 성분이란 공산당에 가까울 수 있느냐 먼 사람이나에 따라 다르다.

즉 공산당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쪽의 사람들을 「성분이 좋다」고 보고, 그렇지 않는 쪽의 사람은 「성분이 나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집안에 반공주의자가 있었거나 월남가족일 경우는 당연히 성분이 나쁘고 북에서 살면서 집안이 공산당에 충실하였다면 성분이 좋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신 성분」 또는 「사회 성분」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반공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북괴로 본다면 「성분 나쁜」 것이다.

## 75. 세뇌

세뇌란 사람에게 어떤 사상을 집어 넣어 그 사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를 계속 선전하여 공산주의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 76. 소년단

소년단이란 소년, 소녀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우리가 말하는 「보이 스카웃」이나 「걸 스카웃」은 훌륭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지만 북괴의 소년단은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체로 되어 있으며 어릴 때부터 공산당원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강제로 입단시키고 있다.

주로 소년단의 할 일은 평소에 공산당의 훈련을 받고, 단체 활

등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공산당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

어른들의 말이나 행동을 감시하여 선생님이나 안전원, 당원에 보고하여 소위 반동 분자를 찾아 내는데 이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고발하여 그 아버지는 반동 분자로 처벌을 받고 총살이 되었으나 아버지를 당에 고발했던 아들은 「소년 영웅」이라 하여 다른 아이들도 이 어린이와 같이 모범이 되자고 하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어머니와 형님을 고발하여 잡아들이게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북괴 사회에서 가정이라해도 항상 할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게 만들어 놓고 있다.

## 77. 수령 연구실

수령이란 김일성을 말하며, 김일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이 이른바 수령 연구실이다.

이런 연구실은 각 학교, 단체, 기관 그리고 마을마다 다 설치되어 있다.

살아있는 김일성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마는 북괴는 김일성을 우상화 시키다 보니 김일성에 대한 거짓말 기록이 수 없이 많이 꾸며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말 역사들을 연구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알기 힘들게 되어 있으므로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수령 연구실은 1961년부터 「당 역사 연구실」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 있는 김일성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



었으나 그의 공적이 얼마나 거짓으로 꾸며졌는지 가히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다.

## 78. 숙청

공산주의 사회에서 독제가 불가피하고 또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반대파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숙청이란 뭇인가.

숙청이란 반대파들에 대하여 죄를 씌어 재판에 붙여 처형시키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등에 보내는 것이다. 6.25후 북괴 부수상(김일성 바로 밑의) 박헌영등 남노당 일파를 6.25때 패전한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간첩이라는 죄를 씌어 전부 사형에 처했다.

또 해방후 조 만식 선생님을 비롯한 민족주의 애국자들을 전부 처형하였으며, 그밖에도 해방 25년동안 연안파, 소련파, 청우당파들 이라 하여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은 모조리 처형한 것이다.

이 밖에 사상이 불순한 사람은 강제 노동 수용소 라든지 산간 벽지로 보내어 감히 반대하거나 반공 운동은 못하게 만든 것이다.

## 79. 심리전

전쟁이 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 심리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에서 적진을 향해 고향을 그리며 노래 가락을 풍소로 읊었더니 적군이 모두 총을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무력에 의하지 않고 적군의 심리를 이용하여 하는 전쟁 방법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전쟁을 심리전이라고 하며, 신경전, 정치전, 선전전이라고도 한다.

## 80. 10호 상점

공산당 및 괴뢰기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상점이며, 이것은 일반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게 비밀로 되어 있다.

이 10호 상점에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물건들이며, 관세를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헐 값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에는 주민들은 헐벗기고 굶주리게 하면서 자기들만은 비밀리에 특수 상점을 차려 놓고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의 간부들은 자기들이 만든 물건은 좋다고 거짓 선전하면서 자기들은 쓰고 있지 않으니 가히 물건의 질이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81. 아동 공전

서울 남산에 있는 「어린이 회관」과 같은 것이다.

물론 아동들의 간단한 실험실, 공작실등도 있지만 이런것은 형식적이고 이보다도 오직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전시가 주로 되어 있으며 공산당 선전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노리개들로 되어 있고 사격장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공산당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쟁 준비 놀이를 시키고 있다.

## 82. 안전 군관

사회를 감시하는 것을 안전원이라 한다. 그리고 군대는 안전군관이라는 장교급이 각부대 마다 파견되어 부대장으로부터 모든 사

병에 이르기까지 사상을 지도하고 감시를 하고 있다.

### 83. 안전부

사회 안전성에는 안전부, 보안부, 경비부, 국방부, 산림부등이 있다.

안전부에서 하는 일은 사회 안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주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탐, 색출, 조사등을 맡고 있다.

이런 안전부는 지방 행정 기관에도 다 배치되어 있다.

### 84. 안전원

안전원이라 하면 우선 사람들의 뒷을 조사하며 「동무 반동이오」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생각될 것이다.

사실 안전원이란 사회의 모든 범죄, 정보, 질서를 단속하는 경찰과 같은 직책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늘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길을 안내주며, 나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애써주는 것에 비하면 북괴의 안전원이란 주민들을 못살게 구는 감시자인 것이다.

### 85. 양표 : 양권

북괴는 식량의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는 양표를 사용하고 있다.

양표는 미리 1인당의 배급량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가족분의 양표를 받아온 다음에 돈과 양표를 가지고 배급을 받게 된다.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양표가 없이는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이나 친척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자기 양표를 가지고 가야만 밥을 얻어 먹게 되는 것이다. 이웃 돕기도, 이웃 어려움을 도울 수도 없고, 이웃 집의 경사나 제사에도 다녀올 수도 없고, 아들 집에 가도 자기 양표를 들고 가야 한다니 이렇게까지 이웃과 형제간에 담을 쌓게 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비인간성이다.

### 36. 업간 체조

북괴는 학교에서나 직장,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도 휴식을 주지 않고 건강을 위한다고 체조를 시키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건강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고 속셈은 따로 있다. 즉 쉬는 시간이 많으면 쓸데 없는 생각이 들고 또 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므로 잠자는 시간만 겨우 주지 날어지 시간은 어찌든지 쉬게 하지 않고 공산당 조직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 87. 열두 바닥 파기 운동

북한 농촌은 현재 아주 심한 비료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북괴는 이러한 비료 부족의 해결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이 이 운동이다.

즉 열두 바닥이란 구들 바닥, 연통 밑바닥, 부엌 바닥, 개울 바닥, 시궁창 바닥, 외양간 바닥, 논두렁, 낙엽이 싸여져 썩은 산 바닥, 퇴비 싸 놓은 마당 바닥, 변소 바닥 등으로 이 열두 바닥을 파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운동 때문에 북한의 농민들은 농번기보다 농한기인 겨울에

이런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 88. 열성 당원

공산당원 중에서도 앞장서서 열성을 보이는 당원을 열성 당원이라 한다.

그런데 이 열성 당원이 되기 위하여는 공산당 일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말해서 열성당원을 「악질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 처럼 일반 주민에게 얼마나 지독히 못 살게 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비 인간적으로 무식하게 활동해야 하며 인정 사정없이 공산당이 시키는대로 또 앞장서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내고, 잔인하게 행동해야 열성 당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북한에는 이런 얼마 안되는 공산 당원에 의하여 공산독재가 실시되고 또 주민은 억압과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 89. 영웅 칭호

북괴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로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치사에 불과한 여러가지 표창, 칭호를 주고 있다.

영웅 칭호는 공산당을 위하여 공적이 많은 자에게 최고의 영예인 영웅 칭호를 주고 있는데 겨우 표창장과 녹슨 쇠덩이 훈장으로 때우고 있다.

### 90. 5개년 경제 계획

북괴는 1957년부터 1961년 사이에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 실시하였다.

이 계획기간 동안에 몇가지 정책을 내 세우고 밀고 나갔으나 북한 동포들이 잘 호응하지 않아서 결국 무리하게 밀고 가다 보니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 91. 5단계 채점법

5단계 채점법이란 학습 평가의 기준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5단계(최우등), 4단계(우등), 3단계(보통), 2단계(낙제), 1단계(낙제)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 채점법의 특징이 시험 성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품행 특히 사상이 우가 아니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낙제이며 등수(석차)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산당 식의 교육은 학습 실력 보다는 우선 공산당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 92. 5호 담당제

공산당의 통제 아래 주민들의 개인 생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5호 담당제란 북괴가 주민들을 저희들 독재정치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다섯 세대를 한 묶음으로, 이 다섯 세대의 가족에 대하여 지식, 소질, 취미, 희망, 사상 동태를 파악하고 지도하는 제도이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을 5호 담당관이라고 한다.

북괴는 이렇게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여 꼼작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북한 동포들은 항상 공포에 떨고 있다.

### 93. 유격전

정규전이 아니고 후방 교란, 사회 교란, 요인 암살, 테러 등을 하기 위하여 게릴라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북괴는 많은 특수부대를 훈련시켜 대한민국에서 유격전을 시도 할려고 하고 있다.

무장공비들의 활동이 바로 유격전에 속한다.

### 94. 유일 사상 체계(김일성 유일 사상)

이것은 김일성이 내세운 모든 사상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다.

과거 북괴는 소련을 가까이 하다가 중공에게 미움을 받았고, 중공을 가까이 하다가 소련에게 미움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소련과 중공이 서로 얽혀 세력 다툼(중·소분쟁)이 벌어지자 북괴는 소련이나, 중공 어느 편에도 달라 붙기 난처하게 되었다. 또한 두 상전국에서 원조도 없고 해서 자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자 김일성은 주체(자주 뜻과 믿음)라는 것을 내세워 북한 동포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모두 김일성을 따르자고 내세우니 이것이 유일사상이요, 결국 속셈은 김일성 독재를 강화하자는 데 본 뜻이 있는 것이다.

### 95. 유자녀 학원

중전에는 이 유자녀 학원을 혁명학원이라 하였다.

즉 6·25 때 죽은 피퇴군의 유가족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곳이다.

그런데 이 유자녀 학원을 둔 목적은 이들에게 남한에 대한 적대 감정을 불러 일으켜 철저한 공산당원을 만들려는 데 있다.

## 96. 20호

사람의 몸에 달라 붙어, 귀찮게 구는 이를 가르키는 말이다.

이 말은 왜 생겼느냐 하면 북괴는 이른바 내각결정 20호에 의하여 이 잡기 운동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때부터 사람들은 이라는 말 대신에 20호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것이다.

내각이라면 여기서 국무회의(장관들 회의)인데 여기서 까지 이 잡기 운동을 결정했다니 과연 북한의 위생 상태는 알아 볼만하다.

학생들이 20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털리가?」 할지 모르지만 「그털리가」 너무 많은 곳이 북한 땅이니 같은 동포로써 불쌍하기 그지 없다.

## 97. 이중 천리마 운동

북괴는 천리마 운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모든 직장에 천리마 작업반 칭호가 거의 붙게되어 이 칭호가 평범하게 되자 다시 이중 천리마 운동을 벌이어 기왕에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은 직장의 작업반도 이중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아야 하는데 칭호의 조건이 보다 까다롭게 되었다.

작업 목표량도 훨씬 많아졌으며, 기술 분야에서 더욱 뛰어나야 되고, 모든 작업반 일꾼들의 공산주의 사상이 더욱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혹사에 혹사를 거듭하면서 그렇다고 배급량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마냥 허리띠를 졸라매자고만 떠들고 있는 실정이다...



## 98. 인민군과 국방군

북괴의 괴뢰군을 자기네들은 인민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의 국군은 국방군이라 하여 상호 구별하고 있다.

괴뢰군은 1948년 2월 8일 소련군이 북괴 공산정권을 유지하고 우리를 침략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북괴에 2.8절이라고 있는데 이는 괴뢰군이 생긴 날이라고 해서 크게 기념하고 있다.

## 99. 인민반

여기에서 각 「동」에 있는 「통」 밑의 「반」과 같은 것이다.

이 인민반은 여러 세대를 한 묶음으로 조직하여 괴뢰 당국의 행정을 협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여기서는 반장이라고 하면 벼슬이 아니고 서로 돌아가며 맡는데 북괴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골라 임명한다.

## 100. 인민 재판

북괴는 인민 재판이라는 것을 두어서 때로는 법에 의하지 않고도 사람을 죽이거나 처벌을 하고 있다.

재판관이라는 자는 악질 공산당원이 담당하고 검찰관, 변호사는 물론 없다.

임시로 선정된 열성 공산당원 한 사람이 죄상을 읽으면 군중속에 끼어 있는 또한 패들의 열성 당원들이 「저놈 죽여라!」하고 고향을 치면 여기 저기에 미리 배치해 놓은 당원들이 또 덩달아 고향을 치게 된다.

이렇게 조작된 죄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여러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된다.

이 인민 재판은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것을 보임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인가.

### 101. 일군

북괴는 노동자를 일군이라고 흔히 부른다.

「상업 일군 회의」 「건설과학 연구기관 일군 회의」 등이라는 대회가 많다. 각 분야별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따로 가르칠 때 대개 일군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사실 그들은 공산당을 위해서 일만 하는 일군에 불과한 것이다.

### 102. 자기 비판 (자아 비판)

「동무는 자기 비판을 하시오」하고 큰 소리치는 안전원의 통명스러운 목소리가 방송 드라마에서 흘러 나올 때가 있다.

자기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유리창을 뒤편다가 유리가 빠져서 깨어졌다고 하자, 여러분의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거, 실수했구나.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하고 오히려 학생의 마음을 달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유리를 켜 학생을 교단에 세워 놓고 학생들이 자기 비판회를 연다.

한 학생이 일어서서

「김○○동무, 오늘 동무가 유리 창을 켜테 대하여 자아 비판 하시오」하고 발언하면, 또한 학생이 일어나 「동무, 동무는 동무가 충분히 주의할 수 있었음에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켜 것

이 분명하오」하고 또 다시 다구친다.

이렇게 해서 유리 창을 깬 학생은 아무리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됐더라도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고 자백하도록 까지 여러 학생들이 일어서서 다구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어린이들의 천성이 나빠서 보다는 공산당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하여 훈련시키고 있으니 같은 동포로서 동정이 가는 점이 너무나 많다.

### 103. 작가 동맹

북괴는 모든 주민을 조직속에 얽어 놓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직업 동맹, 어린아이들은 소년단, 그리고 청소년은 사노청등 의무적으로 조직속에 가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 동맹이라면 시·소설등 글을 쓰는 사람들의 단체인 것이다. 가입이 의무적이며, 만약에 여기에서 추방되면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 104. 작업반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을 감독하고 성적을 채점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작업반으로 나누고, 감독 책임자로서 작업 반장을 두고 있다.

작업 반장은 작업을 감독하고 반원들이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일일히 성적을 매기어 위에 보고한다.

### 105. 재정성

우리의 재무부와 같은 곳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국가의 예산

을 달당한 곳이다.

### 106. 조총련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로써 북괴측을 지지하는 단체를 말한다.

본 이름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데 공산당들이 주동이 되어 있으며, 그 동안 공산당이 싫어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측 거류민단으로 계속 가입하고 있다.

### 107. 중앙당

북괴 괴뢰당(노동당)의 중앙 본부를 말한다.

중앙당 밑에 도당, 시당, 군당, 이당등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당의 지시에 의하여 하급에 있는 당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 108. 중앙당 연락부

북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대남 공작 즉,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 109. 지도원

최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북괴측 대표에게 우리측에서 「봉사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한참 설명하니 까 자기들은 「지도원」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도원이란 본래 공산당이 자기들의 독재정치를 실시하고 당 사업을 잘 지도하고 또 잘되고 있는 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지도원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말이 지도원이지만 감시자이며, 공산독제의 손과 발인 것이다.

이런 지도원이 복귀 적십자에도 있다니 복귀 적십자는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

### 110. 직업 선택

북괴는 1958년 8월까지 북한 동포들의 모든 재산을 공산당의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부문 즉, 농업, 상업, 공업, 광업 어업 할것 없이 모조리 공산당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터의 주인은 공산당이고, 주민들은 일군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일을 시키는 일터 주인이 시키는대로 일 자리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일터에 따라 자동적으로 거주지(사는 곳)도 정해지므로 직업 선택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 111. 직일 군관파 직일 병

직일 군관은 여기서 말하는 당번 장교이며, 직일병은 당번 장교 밑에서 근무하는 당번 사병이다.

일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당직이라 하지 않고 직일이라고 부른다.

학생의 경우 「주번」같은 것으로 하루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과 후에는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 112. 직장 배치장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일자리를 마음대로 고를 권리가 없다. 또 상급 학교에 가고 싶더라도 당에서 추천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 직장 배치장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당에 신청하면 당

이제 어디로 가라고 배치한다. 만약에 탄광이나 강제 노동장으로 배치되더라도 본인은 할 수 없이 가야만되는 것이다.

### 113. 진료소

진료소는 우리의 진료소 제도와 별다른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진료소는 정식의사(의사시험에 합격한)가 배치되고 간호원이 따르게 된다.

그런데 북괴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한 자격만 있으면 「준의사」라고 하여 각 진료소에 배치하는데 대부분 소장은 이 준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소는 각 행정 단위로 배치되게 되어 있으나 거의 설치된 곳이 드물고 또 실질적으로 이들은 의료 업무의 종사보다도 예산도 없고 약품도 없으니 대부분 의료계몽 즉 전염병방지 환경정리등에 관한 선전 활동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동포들은 대부분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민간요법」 즉 원시적인 치료법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다.

### 114. 집단군

군대 조직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군단과 비할 수 있다.

집단군은 몇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괴는 모두 5개 집단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5. 집중 지도

당에서 특별 명령을 받은 자들이 당 전체 기관, 기업소, 일반 주민에 대하여 사업 및 사상을 집중적으로 집열하는 것을 집중 지도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업을 집중 지도 사업이라 한다.

1958년말부터 1960년말까지 북괴는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하여 사상 검열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일이 있다.

이 때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은 상당한 숫자가 처형되고 숙청되었으며, 강제 노동장으로 쫓겨난 것은 유명하다.

이 때 북괴는 집중 지도 사업의 결과 공산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역시 3분의 1, 아주 못 믿을 사람이 3분의 1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다시 조사하니 이젠 100여만이 되는 공산당원 중에서도 꼭 믿을 사람이 얼마 안되다는 것이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럴수록 김일성 일당들은 더욱 초조해 질 것이 뻔하다.

## 116. 집체 청소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이다. 즉 독재를 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여기에서 자기 집 마당이나 길을 쓸 때도 혼자서 스스로 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뭉인 다음 출석 확인을 받고 집단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17. 천리마 운동

천리마라는 명칭은 1958년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옛날 중국 3국지의 적토마와 같이 하루 천리를 달리는 말을 상징한 것이다.

천리마 운동은 북한 동포들의 노력 착취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되어 있다. 이 운동의 증산 운동과 공산주의로 인간을 개조 한다는 종합적인 욕심한 공산주의 경쟁 운동이다.

이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다시 생겨났는데, 천리마 운동

에 앞장선 사람을 「천리마 기수」 그리고 이 운동이 벌어진 시대를 「천리마 시대」라고 한다. 그의 「천리마 속도」 「천리마 말꼬백」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인민반」등 수 없이 생겨 났다.

이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2중 천리마운동」을 벌이고 있다니 북한 동포들의 고생이 2중 3중으로 시달리고 있음이 가엾기만 하다.

### 118. 천 샅 뜨기 운동

천 샅 뜨기 운동은 주로 토목 공사장에서 벌이는 운동이다.

축 흙을 파거나 뜨는데 샅질을 천번 하고 나서 허리를 펴고 잠간 쉴 수 있다는 것이다.

흙 한 샅을 평균 3kg로 가정한다면 1,000샅의 흙이면 3,000kg로 3톤이나 된다. 큰 추력이 보통 적재량(실은 양)이 3~4톤이니까 한사람이 한 추력의 흙을 실은 다음에 허리를 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한 샅을 떠서 차에다 실는데 5초만 잡더라도 1,000샅을 뜨는 데는 약 한시간 반(80분)이 걸린다. 이렇게 지독한 노동을 시키면서 아울러 「하루 4시간 자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전쟁 준비를 위해 불쌍한 동포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구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난다.

### 119. 철직·출당 처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더라도 당에서 미움을 받을 때는 그 직책을 파면시키고 마음대로 나쁜 직장으로 배치시킬 수 있다.

상(여기서 장관)을 지내고 있는 사람도 당에서 미움을 받아 산골의 강제 노동소로 보낸 일이 흔히 있다.



또한 열성 당원이었더라도 당에서 미움을 받으면 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출당 처분이라고 한다.

이처럼 복귀는 당의 지시나 당에 불충실할 때는 여지없이 숙청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이며, 개인의 자유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20. 총화(사업 총화, 총화회)

일정한 기간 동안이나 어떤 특정 사업을 끝내고 이 기간에 이룩한 결과에 대한 결산을 뜻한다.

어떤 일이던지 그것이 끝났을 때는 실패, 성공에 불구하고 그 장 단점에 대한 평가 또는 사상 비판등을 하여 결론을 내리게 하는데 이것을 총화 또는 사업 총화라고 한다.

## 121. 최고 인민회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공산당만 추천되어서 뽑는 이 형식적인 기관은 인구 3만에 1명 꼴로 457명의 대의원을 뽑는다.

주로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으나 법률 자체도 공산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손만 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형식적으로 가결만 하고 있다.

구성은 물론 야당이라는 것이 없고, 457명 전부가 핵심 공산당원 들이다.

## 122. 치안대

6.25 당시 우리 국군이 북한 지역을 수복하자 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반공 애국자들이 자기 지방의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로 치안을 담당할 치안대를 조직하여 우리 국군에게 많은 협조를 하였다.

그런데 휴전이 되자 복귀는 치안대가 반공 활동을 하였다고 해서 치안대에 가담했던 인사들을 살해하고 그 가족들은 소위 반동분자라고 해서 전부 강제 노동장이나 형무소에 징역 살이를 보냈다.

### 123. 토지 개혁

공산주의는 본래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치 않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해방후 갑자기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 것으로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 있는 사람 것은 몰수하여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후 공산주의가 기틀이 잡히자 나누어 주었던 토지를 다시 전부 공산당 것으로 하여 이제는 모두 빈털털이가 된채 일꾼이 되어 일하고 배급을 받아 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 선전을 잘 하고 속여 왔는가를 잘 알고 있으며, 그 불평도 대단하다.

### 124. 팔자(8자)식 기대 점검 운동

방직 공장은 여러 개의 똑 같은 기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매한 개의 기계를 기대라고 하며, 이 8자식 기대 점검 운동은 여러 개의 기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8자 모양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이 점검 운동은 왔다 갔다하는 거리가 하루 80리에 해당한다고 해서 「80리 걷기 운동」과도 관계가 된다.

## 125. 한 짐 더 지기 운동

짐을 저날날 때 한 짐씩을 더 지자는 운동이다.

셋을 들어 20명으로 조직된 작업반이 있다면 하루 책임량이 한 사람 당 한 짐씩이라면 모든 작업 반원이 한 짐씩 더 운반하여 결국 그 작업반에서 한 사람분의 일을 더 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알고 보면 놀고 먹는 사람의 한 몫까지 더 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작업반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고 감독만 하는 작업 반장, 부반장, 선동원, 당 분조장(당 책임자)등 4명 정도가 있으니 이들 몫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 저래 허리 뼈가 휘어지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을 착취해 먹은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 날 복한 실정이며, 새로운 지배 계급들이 들끓은 곳이다.

## 126. 학교 제도

우리의 학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복피의 제도는 국민학교는 「인민학교」 중학교는 「초급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급중학」에 해당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책의 내용에 나오는 학교에 대하여 여기에 견주어 보 쉽게 알 수 있다.

## 127. 허리 안펴기 운동

이 운동은 흙을 파는 공사장에서조차 적용되지만 특히 김매는 작업, 모심기, 등 농촌의 일들이 대부분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보다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하여 허리

안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128. 혁명성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정신을 말한다.  
북괴는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많이 강조한다.

공산당 정신이 어떠한고 할 때 당성이라고 한다.

아마 북괴가 내려 보내는 간첩이나 무장 공비도 혁명성이나 당성이 강한 자들을 추려 보내고 있을 것이다.

## 129. 혁명 전통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이란 북괴가 내세운 사상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김일성 일당은 1930년대 시작한 일본과의 투쟁(항일 유격 투쟁) 정신을 본 받아서 공산주의 혁명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공산당들이 고생한 것에 견주어 더 어려움을 참자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일성 일당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자기 중심의 독재 정치를 수행하는데 주민들의 불평을 막아 보자는 속셈 밖에 없다.

사실 김일성 일당이 일제 때 일본과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은 그들이 억지로 꾸며낸 연극들이며 이것을 믿게 할려고 짚지어 김일성이 어려서 놀았다는 바위까지도 「군함바위」 등의 이름을 붙여 역사적 기념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또 백두산 근방에는 여러개의 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피인트로 글씨를 써서 1930년대 써논 글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역사의 조작을 꾸며 북한 동포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 130. 혁명 전통 작품

김일성의 혁명 전통 내용을 내세우는 작품들을 말한다.

본래 거짓 꾸며진 혁명 전통이지만 이것마저도 꾸미는 작품이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니,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야 하는 것이 북한 현실의 실정이다.

### 131. 호위국

김일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사는 집에 호위국을 설치하여 항상 경계하고 순찰한다.

김일성이가 지방에 갈 때는 이 호위국 병사들이 미리 파견되어 현지를 답사하고 경계한다.

김일성이가 행차할 때는 앞 뒤로 또 옆으로 여러대의 군대의 차량이 호위하고 간다.

이렇게 김일성이가 신변을 단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번 반대파에 의하여 습격 당하거나 습격의 위험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호위국 병사들은 대부분이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이 별 다르다.

### 132. 후비대

공산당은 장차 공산당원을 만들기 위하여 「사노청」 「소년당」 「붉은 청년근위대」 등을 그들의 후비대 즉 예비대로 보고 있고 또 훈련을 시키고 있다.

공산주의는 본래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을 시켜왔다가 크게 되

면 공산당원으로 부러 먹고 있는 것이다.

### 133. 회상기 학습

김일성이 일제 때 항일 빨치산 투쟁을 했다는 거짓 투쟁 실기를 출판하여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이 책명이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로 되어 있어 흔히 「회상기」 학습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 책 속에 보면 한 줌의 미시가루(쌀가루)로 1주일 동안 견디었다는 이야기며, 개구리로 반찬을 삼았다는 등 고생과 어려움속에 어려운 투쟁을 했다고 꾸며져 있다.

그러니 지금 북한 동포들이 고생스러움을 들고 일어날가 봐서, 그 때 일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참아 가자고 떠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 회상기는 항일 투쟁시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젊은 열성 공산당 작가들을 주울 온천에서 몇 개월 감금시켜 놓고 쓰게 했더니 너무나 터무니 없는 작품이다.

### 134. 흑·백합 투표

북괴는 한때 흑·백합 선거를 했다. 선거 입후보자를 공산당에서 한 사람 정해 놓고, 찬성하면 백합(흰투표합)에, 반대하면 흑합(검정 투표합)에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투표 방법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검정 투표합에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인이 총대를 메고 투표소에 보초까지 서 있었다.

이런 투표방식은 공산당만의 특이한 제도이다.

<무료배포>

<정간위

심의필>

1971년 12월 29일 인 쇄

1971년 12월 31일 발 행

—청 소 년 용—

## 통 일 교 양 독 본

발 행 : 국 토 통 일 원

인 쇄 : 대 환 공 론 사

